

이주와 정착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참여자의 경험

구술 권호원 김이곤 김창옥 손성명 오옥선 오택성 이정순 임항섭 정영철
면담 김아람



국사편찬위원회

간행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 발전을 위해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정보화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구술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구술자료 수집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광복과 분단, 6·25전쟁,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의 시대에 기록을 미처 남기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경험담을 사료화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구술자료는 개별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 의견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또는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헌사료를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역사 연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치사, 경제사, 학술사, 지역사, 여성사, 재외동포사, 북한사, 개인생애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구술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술사 수집사업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축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술자료선집』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채록한 구술자료 가운데, 학계의 요구가 크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구술은 기본적으로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 작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만, 『구술자료선집』에는 구술자의 구술내용을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편집’이라는 또 하나의 행위가 추가됩니다. 『구술자료선집』에 실린 내용은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본 위원회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간하는 『구술사료선집』이 구술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문헌자료 및 구술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자극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술사료선집』 제23집은 ‘이주와 정착-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참여자의 경험’을 내용으로 간행됩니다. 광복 후 해외로부터 귀환민, 북한으로부터 월남민이 한반도 남쪽지역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한편 제주 4·3사건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소개되거나 피난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이들 난민들의 원 거주지 복귀를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 새로운 농촌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에도 힘을 씁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난민농촌정착사업은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그 농지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난민농촌정착사업은 그 내용을 일정하게 변화하면서도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본 『구술사료선집』에서는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제주도, 경기도 화성과 부천, 충남 서산 지역 농촌정착사업 사업장에 참여하였던 분들의 경험을 구술 채록하였습니다. 다양한 출신과 경험을 가진 이들의 구술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고향을 떠나 온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 농촌마을과 지역사회의 변화와 재편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에 흔쾌히 참여하시고, 구술하신 내용에 대한 공개를 허락해 주신 구술자 및 면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정 배

이주와 정착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참여자의 경험—

1.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개요
2. 사업장 조사 및 구술 과정
3. 난민과 지역민의 정착사업 참여
4. 사업장 현실과 참여자들의 삶
5. 농촌 정착사업 이후의 삶과 기억

1.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개요

해방 후 해외로부터의 귀환민, 북한에서 이주한 월남민으로 남한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자 미군정 시기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킬 방안으로써 농촌 정착이 모색되었다. 한편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을 거치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소개(疏開)되고 피난하는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전체를 뒤흔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난민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소개되거나 피난하여 난민이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전황을 고려하여 난민들을 원거주지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한 구호대책으로 삼았다.

난민 대책의 핵심은 대도시가 아닌 농촌 정착사업이었고, 한·미 합동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1952년부터 ‘난민정착사업’이 시작되었다. 난민이 원 거주지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역에서 황무지 개간, 갯벌 간척, 염전 조성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그 농지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난민정착사업은 난민이 정착할 토지를 정부에서 대여하고 미국 원조물자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양곡 및 주택자재, 경작을 위한 종자, 농기구, 가축,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전쟁 후 피난민의 복귀가 끝나면서 1950년대의 난민정착사업은 복귀하지 못하는 난민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업 현장에서는 지역민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정부와 원조기구는 농지조성을 통한 정착이 난민의 구호와 식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국가의 직접 개발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업장에 들어오는 원조물자는 난민과 지역민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정착사업은 원조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그 예산 또한 미국의 공식 원조(CRIK, FOA, ICA) 항목에 책정되어 있었다. 이 중 주택자재와 양곡이 필수적이었고, 실제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50년대 난민정착사업은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가 합작하여 기획한 것이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사업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또한 계획상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난민이 정해져 있을 때 사업이 실행될 수 있었다. 지방 정부는 정착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토지를 물색하여 직접 대여하거나 사유지를 알선하였다. 구술에 따르면 사업장을 기획·운영하는 대표와 참여자는 난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전후 재건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난민정착사업은 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되었다. 원조기구는 1957년에 사업 명칭을 ‘경제개발난민정착사업’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때 도시에서도 난민정착사업

을 실시하게 되며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였다. 도시에서는 난민주택을 건립하였고, 농촌은 농지조성을 포함하여 마을 내 도로 등 개발 계획이 사업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정착사업장 내에 가내수공업 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러한 난민정착사업은 5·16군사정변 이후에도 저수지, 수로, 토지개량 등으로 후속작업이 지속되었고 신규 사업 신청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와 비교하여 농촌 정착사업은 난민정착사업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다. 피난민 위주였던 1950년대와 다르게 영세민, 실업자, 부랑아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원조물자 공여로 운영하는 사업의 방식은 동일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자활정착사업, 자조정착사업 등으로 변화하였다. 5·16군사정부는 긴급실업대책으로 귀농정착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1회로 그쳤다. 또 부랑아를 단속하여 ‘개척단’, ‘자활단’ 등을 조직하게 하고 이들을 정착사업에 동원하였다. 1960년대에는 이렇듯 다양한 농촌 정착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아 및 부랑아를 대상으로 한 정착사업은 여타의 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가족 단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행되었던 사업들과는 달리 개척단 등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동원되거나, 스스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와는 단절된 채 사업장에서 노동하였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부랑아를 단속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추진했지만, 개간 및 개척 사업에 투입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 장면정부 시기에는 국토건설 및 개발사업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랑아 정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16군사정부는 부랑아의 ‘일소’를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삼고 부랑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단속한 사람들을 고향이나 연고자, 수용시설에 보내는 한편으로 국토건설사업, 농촌의 개간·간척 사업에 투입하였던 것이다.¹⁾ 이들은 기존에 정착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지역으로 가거나 새

1) 김아람, 「5·16 군정기 사회정책—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2, 2011 참조.

로운 지역에서 개간·간척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난민과 지역민, 부랑아가 농촌 사업장에 참여하여 노동을 했던 것은 구호물자를 받을 수 있었고, 농지조성 이후 분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PL480 잉여농산물을 통해 새로 시작된 자조근로, 자조정착사업은 노동한 일수에 따라 농지를 분배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간척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사업 참여자의 농지 소유권이 확정되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매립 면허를 받은 사람, 즉 정착사업을 기획한 대표자가 준공 인가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분배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않았다. 개척단의 사업으로 간척이 된 지역 중 초기 참여자에게도 분배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간척이 아닌 개간이 이루어진 지역은 기존에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가 더욱 복잡하였다.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난민정착사업에 따라 농지가 조성되자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에 관하여 문헌자료들로는 정부의 공문서와 미국의 구호사업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지역별 사업관련 문서철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정부 측 공문서는 행정기관 사이의 지시, 사업 관련 규정, 지시사항 및 사업 진행 보고가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뉴스나 공보영화를 포함한 언론 보도 자료도 남아있지만, 정부의 계획을 전달하거나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사업장 사례가 주를 이룬다. 난민정착사업 구상과 원조기구의 예산, 물자 배정에 관한 내용은 미국 측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사업 기획·운영의 입장에서 생산된 것이며 여기서 사업 참여자는 철저히 대상화되어 있다.

사업 참여한 당사자의 경험과 기억의 발굴은 농촌 정착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중층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정부와 원조기구는 정착사업에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구호대상을 감소시키고, 구호대상자와 사업장 마을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립 구상과 목표는 구호대상

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생존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과제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사자의 사업 경험 속에는 농지가 조성되었는지, 자립하였는지 등 사업 결과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역사적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정착사업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토지와 원조물자에 대해서도 공식 문헌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민과 지역민, 사업 운영자 등 당사자의 사실 증언이 필요하다.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미국의 구호대책과 민간단체의 원조는 인도주의의 신화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착사업장은 원조물자를 매개로 미국과 한국이 직접 만나는 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신화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물자의 계획과 배정 내역이 문헌자료로 확인되지만 사업장까지 도달하는 과정과 그 운영상 특징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원조물자의 기능,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 구호대책과 원조의 성격을 밝히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착사업의 대상자이자 당사자인 사람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격동의 삶을 살았다. 이들이 사회의 최약자가 되는 계기와 그 과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핵심적인 굴절을 만든 사건들이었다. 정착사업 참여자가 귀환, 피난, 부랑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특히 월남민은 과거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경직된 시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고, 정착 과정에서 스스로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정착사업의 주체로서 월남민의 삶과 인식을 살펴본다면,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정착 인식과 문제들을 고민하고 일상 속에도 내재하는 분단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구술자 중에서 부랑아의 삶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부랑아의 처벌이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정착사업을 활용하고 그 효과가 큰 정책으로 홍보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호응이 있었던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50~60년대 전반의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이 부랑하게 되는 배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전쟁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아가 발생하였지만 전후 재건 정책은 이들을 상당수 흡수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빈곤한 농촌과 가족을 떠나 도시로 이동해오는 이동과 청소년은 자체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하였다. 수용시설이 지닌 한계는 당시에 도 제기되고 있었고, 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구호대책에서 이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문헌자료로는 정착사업 이후의 변화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도 사업 당사자의 구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정착사업은 결과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도시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촌은 새롭게 정착할 공간이 되지 않았다. 기존에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은 산업시설 기반의 확보로 전환되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사업장에 정착한 사람보다 이탈한 사람이 더 많았다. 따라서 사업장 참여자의 삶을 통해 정착사업의 결과나 정착의 성패 여부를 넘어서 농촌 변화의 내적 요인을 규명하고 그 현재적 과제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장 조사 및 구술 과정

주한미경제협조처(USOM)의 자료에 따르면 난민정착사업 사업장은 1953~1960년에 걸쳐서 1,700여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 분포를 보면 전국의 시·군에서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 소수에 불과하였다. 구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리 단위의 사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자료 조사가 선행되었다. 국가기록원에는 몇 개 지역의 사업 공문서철을 보관 중이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국 NARA자료에서 1959~60년의 사업장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²⁾ 1950~60년대 신

2) RG 469, En P 319, (33) Resettlement & Assimilation 489-81-270.

문기사에서도 사업장에 관련한 보도가 다수 있으므로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제주도, 경기도 화성과 부천, 충남 서산 지역 사업장의 참여자를 구술 채록한 결과물이다. 사업장 현지에는 경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령자를 우선 찾기도 하였고, 우연한 계기와 연고로 구술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사업장 지역 자체가 개발되고, 도시에 편입되면서 농촌의 공간과 사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구술채록을 하면서 농촌 정착사업 당사자의 경험 이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절감하였다. 본 연구의 구술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술자 현황〉

순서	구술자명	출생 연도 출생 및 피난 이전 지역	정착사업장 지역 (당시 행정구역)	사업 방식	면담 날짜
1	김창옥	1937 제주 한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상호리	개간	2014.8.26. 2014.8.27
2	권호원	1938 경기 연천/강원 철원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	염전	2014.6.21.
3	임향섭	1936 경기 부천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이화리	개간, 수로	2014.3.15. 2014.4.18.
4	정영철	1941 서울, 부산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전남 장흥군	간척	2012.7. 9. 2012.7.15.
5	김이곤	1944 전남 광주	전남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	간척	2013.6.25. 2013.6.26.
6	손성명	1941 전남 장흥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간척	2013.5. 5.
7	오옥선	1934 황해 웅진	전남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	간척	2013.5. 4.
8	오택성	1935 황해 웅진	전남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	간척	2013.6.24.
9	이정순	1939 장흥 용산	전남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	간척	2013.5. 4.

제주도에는 1950년대에 걸쳐 175개의 난민정착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서귀포의 ‘법호촌’이다. 법호촌의 난민정착사업은 국가기록원에 문서철이 남겨져 있어서 사전 조사가 가능하였다.³⁾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노인회장을 맡고 있던 김창옥을 소개 받았다. 2014년 6월 20일에 토평초등학교 아동지킴이를 하고 있던 김창옥을 처음 만나서 예비 면담을 하였다. 스스로 마을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고, 난민정착사업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며 사업장에 원조물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창옥은 당시 사업장 대표와 사업 추진 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사업장은 신문기사⁴⁾로 파악한 후 화성시 매화4리 이장을 통해 구술대상자를 찾고자 했으나 소개를 받지는 못하였다. 2014년 6월 11일에 마을회관을 찾아가 보았지만, 비어 있었다. 마을을 돌아보던 중 마을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외출 후 귀가하는 권호원을 만나게 되었다. 고령이며 정착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서 예비 면담을 시작하였고, 신문기사에서 다룬 ‘철의 삼각지’ 지역인 철원에서 피난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정권 하에서 학교생활을 하여 월남민으로서도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경기도 부천시 계양면 이화리(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의 사업장은 신문기사⁵⁾로 발견한 곳이었으나 임항섭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김포시 고촌면 태리사업장 조사에서였다. 이화리와 태리는 인근 지역으로 사업장을 공유하였고, 태리에 임항섭의 친척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임항섭은 인천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

3) 『1469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조사)』, 1955.

4) 「염전을 축조. 피난민 공생조합서」, 『조선일보』 1956. 07. 27. ; 「피난민 염전 최초로 생산」, 『조선일보』 1956. 09. 25 ; 「6·25의 遺産 (2) 越南避難民」, 『동아일보』 1962. 06. 26.

5) 「시멘트 等 援助 桂陽 難民定着場에」, 『경향신문』 1962. 3. 25. ; 「希望은 흐른다 ... 水路二,七〇〇미터 梨花里難民들의 여덟달 피땀담고」, 『동아일보』 1962. 6. 14.

었고, 구술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비 면담을 진행한 후에도 본 면담 전까지 몇 차례 전화 통화로 당시의 기억나는 사실들을 전하기도 하였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에서는 개척단의 정착사업이 진행되었다. 면담자가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9년에 과거 사업장 내의 인권침해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⁶⁾ 인지면사무소와 모월리 이장을 통하여 정영철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과거 개척단 단원으로서 현지에 정착한 경우는 소수였고, 예비 면담 후 구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전쟁기에 고아가 되어 개척단으로 사업장에 오게 된 정영철은 당시 마을의 농지 분쟁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언론사 등의 인터뷰 경험이었다.

전남 장흥군은 1966년에 대덕 사업장 준공식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여 크게 보도된 지역이었다. 여러 읍면에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 읍면 사업장 마을마다 이장을 접촉하여 당시 경험자를 추적하였다. 안양면 사촌리 사업장은 1958년 장흥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난민정착사업장이었다. 2013년 5월 5일에 마을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손성명을 만나게 되었다. 오옥선은 관산읍 고마3구 이장 노대진의 모친이고 오택성은 숙부이다. 오택성은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노대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이정순은 오옥선과 고마3구의 같은 마을에 거주하다가 2015년에 사망하였다. 김이곤 역시 오옥선 가족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다.

6) 김아람, 앞의 논문, 201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3국 2010년 6월 29일 결정.

3. 난민과 지역민의 정착사업 참여

1) 제주4·3사건과 이재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2만 5천~3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사건의 피해는 마을의 파괴와 주거지의 손실에도 미쳤다. 중산간 마을은 완전히 소개되어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해안마을에서도 피해는 컸다. 제주도에서 주택이 소실되거나 소개된 세대가 1955년 시점에 1만 5천 세대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4·3사건 후 전쟁을 맞게 되며 피해가 중첩되었고, 복구와 재건이 시급한 과제였다. 직접적인 소개나 소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장대와 토벌대가 번갈아가며 감시하고 물자를 탈취하는 등 도민의 생활은 매우 불안하였다. 전쟁기에는 제주도가 중요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육군 제1훈련소가 이동하였고, 군 수송함(LST)으로 집단 피난이 이루어졌다. 1951년에 피난민은 4만 8천여 명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는 4·3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한국전쟁 피난민이 공존하였다. 전쟁 후 피난민이 육지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으나 제주도에 남은 사람들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정착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제주도의 난민정착사업에는 멀게는 북한 지역에서부터 피난 온 월남민과 가까이에는 마을에 복귀하지 못한 4·3이재민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⁷⁾

구술자인 김창옥은 제주 출신으로 소개되거나 집이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4·3사건 때 가족을 뺏기고 집안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서 사업장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에게 4·3사건에 대한 기억은 ‘폭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 피해 경험은 현재까지 지속되어서 공포

7) 전쟁기 제주도의 상황과 월남민의 피난 및 정착에 대해서는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35, 2016 참조.

로 남아있고, 4·3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4·3 사건으로 인해 난민이 된 지역민의 사건 경험과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경제적인 손해에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지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3사건의 학살 진상규명에서 당사자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재건과 정착 과정으로 이어진 포괄적인 피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이 난민정착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통해 본래 마을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4·3사건과 지닌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주 출신의 4·3사건 피해와 육지의 한국전쟁 피해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동의 작업을 하게 될 때 각자의 배경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한국전쟁 피난민과 전후 부랑생활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은 통계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최대치로는 500여만 명, 당시 남한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난의 경로와 피난 및 소거 지역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었고, 이동 방향은 전황의 변화와 군 작전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는 소거 작전에 따라 해로와 육로를 통해 대규모 남하 피난이 이루어졌다. 해로는 단순하여 함경도에서 부산, 여수 등 남동 해안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군산, 목포 등 서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육로는 출발 지역으로부터 정해진 경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은 피난 초기에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임시적이었고 그 운영에도 한계가 있었다. 전쟁 당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적산가옥과 건물을 비롯하여 일반 주택에도 남는 공간에는 피난민이 들어가도록 하였고 소유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또한 피난민의 장기적인 거주 방안은 아니었다. 전쟁

으로 피난민이 된 이후의 생활은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이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등 남한 내에서 남하한 피난민은 전선이 교착되자 즉각 복귀를 원하였다. 정부 당국에서도 1951년 춘경기의 영농을 위하여 복귀를 인정하였다. 북한 지역 출신 피난민은 복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난민으로 여겨졌고, 이들의 정착 문제가 주요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졌다.

구술자 권호원은 철원에서 미군 폭격이 벌어질 때 미군에 의해 소개, 피난하게 되었다. 북한 정권 통치 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생활과 교육 받은 내용을 기억하였다. 피난 경로는 철원-동두천-광주로 이어졌고 광주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나주와 무안에 각각 배치될 때 나주로 가게 되었다. 나주에서 어머니,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구두땀이 일을 하며 가계를 도왔다.

황해도 웅진에서 피난하게 된 구술자 오옥선과 오택성, 이정순의 남편은 서해안의 섬들을 거쳐 목포에서 하선하여 전남 영암과 강진으로 가게 되었다. 다른 경로에 비해 서해안 해로를 통한 피난은 장기간에 걸쳐 피난 생활이 전개되었다. 육지에서 나온 뒤 서해안의 기린도, 창린도, 백령도 등 섬에서 1년 이상 체류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서 섬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오옥선, 오택성의 가족들도 섬 생활을 하다가 목포에 도달하였다. 서해안에서 남하한 피난민은 군산과 목포에서 전라도 각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구술자 권호원과 오옥선, 오택성의 경험에서 해로와 육로를 통한 남하 후에는 공통적으로 수용소나 입도항에 임시로 머물다가 각 지역으로 배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쟁기 피난과 전후 빈곤의 심화로 가족을 상실하고 단신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구술자 정영철은 10세에 서울에서 어머니가 한강철교 폭파로 사망하였고, 열차로 피난하던 중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구술자 김이곤은 1950년대에 전남 광주에 거주하였는데, 7세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였고 홀로 생활하였다고 한다. 연령이 낮고 노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기의 삶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우연한 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

군에 의해 대구를 거쳐 제주도로 보내졌다고 한 정영철은 당시 고아 수용 시설의 실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미 공군 블레이즈델 군목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고아를 대피시켰던 작전을 수행하였고, 헤스 대령이 제주도의 고아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크게 알려진 바가 있다. 대구에서도 작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영철은 대구 동춘 비행장을 언급하였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

상당수 피난민들에게 있어 피난과 부랑 생활 경험은 매우 강렬한 기억과 트라우마로 존재하였다. 피난 전후의 상황, 경로, 수용소 및 차가(借家) 생활 등 일련의 피난 생활에서 구체적인 장면, 접한 인물, 대화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 연령이 낮았어도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그 경험이 이후의 삶에 대한 자세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피난 과정은 죽음과 맞닿아 있었고, 극단의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의 필요가 있다.

3) 현지 출신 지역민의 사업 기획 및 참여

1950년대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난민정착사업은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사업장 내에서는 현지 출신의 지역민도 참여하였다. 1960년대에는 여러 정착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을 기존의 난민에 한정하지 않았고, 그 목표도 정착보다 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지를 확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술자 손성명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사촌 사업장에서 잠시 일하였고, 구술자 임항섭은 마을 이장으로서 정착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

지역민의 사업장 인식과 사업 참여 경험은 여러 지점에서 난민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시 사업 책임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임항섭은 2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이장을 맡으며 사업을 운영하였고, 중앙과 지역 현지의 관계 속에서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었

는지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 1950년대 전국 다수의 난민정착사업장을 관할하던 기구로써 난민정착중앙연합회(이하 중앙연합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에 대하여는 여타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권호원의 구술에서 매화리 사업장 대표라고 언급되었던 김봉조라는 인물이 중앙연합회 회장을 맡았다는 내용만 확인되었다. 이화리 사업장은 이 단체의 원호부장이었던 황주협의 명의로 추진하였으나 그는 현지 출신이 아닌 월남민이었고, 실제 현지 운영은 임항섭이 하였다고 한다. 그의 경험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되는 과정, 사업장 참여자의 구성, 운영상의 난점과 운영자로서의 이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손성명은 현지인과 난민이 갈등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전남 장흥에서는 월남민으로 구성된 한국정착사업개발홍업회(이하 홍업회)라는 단체가 난민정착사업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조성하였다. 사업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홍업회와 회장 김형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손성명이 살던 안양면 사촌 사업장은 홍업회가 처음으로 조성한 사업장이기도 했는데,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손성명을 포함한 마을 청년들이 홍업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사업 운영자나 현지인은 사업에서 난민과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위와 배경에 따라 갈등하거나 대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착 사업은 난민 당사자를 포함하여 지역 내 여러 주체가 결합되어 있었던 만큼 이들의 경험이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4. 사업장 현실과 참여자들의 삶

1) 사업장 운영 및 관리

1950년대에는 난민정착사업장을 조직할 수 있는 자격이 원칙 상 난민에게 있었다고 한다. 구술자들의 각 사업장 대표는 모두 월남민 출신이었다. 제주 법호촌

의 ‘난민정착귀농단’ 대표 백원정은 평북 의주 출신이었고, 화성 매화리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대표이자 중앙연합회 회장이었던 김봉조는 강원 철원 출신, 장흥의 흥업회 회장 김형서는 평양, 부천 이화리 ‘자활공생조합’의 황주협 또한 함경도 출신이었다. 이들 대표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인가하는 절차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 범호촌의 문헌자료와 경기 화성군 이화리의 임항섭 구술에 의하면 계획에는 참여 세대의 명단이 포함되었다. 범호촌에는 명단상 60% 이상의 월남민이 있었으나 이화리는 지역 내 영세민이 더 많았다고 한다. 전쟁 후 제대로 지방 행정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사업 당국이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난민과 현지인 등 여러 사람이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운영자나 간부의 선임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월남민은 연고가 중요했다. 중앙연합회와 장흥 흥업회 또한 월남민이 주축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택성에 따르면 흥업회는 회장 김형서를 비롯한 월남민 12명이 이사를 맡았다. 오택성과 오옥선의 남편은 간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들이 간부가 되었던 것은 친척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흥업회가 장흥 정착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타의 자료와 구술을 통해 흥업회는 1960년대 후반까지 장흥에서 6개 사업장, 그 외 고흥 2개, 당진 1개의 사업장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택성은 흥업회의 다른 사업장인 고흥, 당진에서도 관리 업무를 하였다. 흥업회의 장흥 사업은 장흥읍에 사무실을 두고 부장, 과장 등 체계가 있었고, 현장에서 과장급이 책임을 맡아 사무장-십장-감독 등으로 위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화성군 이화리의 수로사업은 현지 출신의 임항섭이 이장과 조합장을 맡으며 면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정부 부처와도 접촉을 하다가 중앙연합회를 소개 받아서 진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알선을 해주었던 사람이 ‘상이용사

촌'의 이장이었다는 것이다. 계양면 내 다른 마을에서는 전쟁 당시에 부상당한 상이군인의 집단 정착 마을이 있었고, 황주협이 연관되어 있었다면 정착사업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항섭은 이장과 농협조합장을 맡고 있던 지역 내 지위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사업 기획 및 운영에 토대가 되었다. 토지는 운영 자금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안고 지역을 떠나게 되었으나 사업 추진 당시에는 활발하게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중앙연합회나 CARE⁸⁾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정착사업장 운영 재원은 원조물자였다. 주택자재와 초기 양곡을 미국 원조기구나 민간단체가 지원하는데, 사업장 단체와 대표가 실질적인 배급을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원조물자에 관한 문헌자료들은 대부분 원조총액, 광역 지역 단위의 배정과 양, 민간단체의 실적에 관한 것들 있었다. 때문에 이들 문헌자료만으로는 사업장 현지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원조물자를 제공한 단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천주교구제회(천주교세계봉사회), 기독교세계봉사회, CARE였다. 구술자들이 천주교회, 교회, 케아라고 기억하고 있던 것과는 일치한다. 임항섭은 CARE의 한국 측 사업 담당자인 이구봉과 직접 관계를 맺기도 하여 사업 이후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정착사업장 내 원조물자 투입은 기본적으로 미국 원조당국의 계획과 단체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연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도 예정한 시기에 정해진 양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도입된 물자를 도 단위 또는 사업 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였다. 1958년에는 시멘트 5천 6백여 포대가 분실되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주무 기관인 외자청과 보건사회부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여 비판을 받았다. 물자가 사

8)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

업장에 배분될 때는 운영자와 사업단체 또는 종교기관의 합리성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난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 물자와 공사 노임이 좌우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몇몇 사업장에서 비위가 벌어졌던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⁹⁾

1950년대에 사업을 진행했던 제주 법호촌은 원조물자가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창옥은 사업 당시에 물자가 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후에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표인 백원정은 사업장에 시온교회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한데 교회를 통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있었고, 천주교회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난민들은 한라산에서 벌목으로 장작을 팔아서 생계를 꾸렸다. 김창옥은 백원정의 횡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호촌에 원조물자가 배정되지 못한 배경과 맥락은 당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섬까지 수송의 문제 등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장흥에서는 흥업회가 원조물자를 총괄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다. 손성명은 천주교회에서 준 밀가루를 김형서가 “팔아서 자재를 만들고” 독을 막았다고 하였다. 흥업회 사업장 참여자들은 물자의 부족이나 부당함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주목할 점은 흥업회가 원조물자를 전표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운영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도 정부는 원조물자의 교환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업회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원칙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성군 이화리 사업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조물자가 난민에게 배급되었다. 임항섭은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매우 구체적으로 운영상을 구술하였다. 3개월마다 옥수수가루가 사업장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즉시 엇과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 다시 싣고 나갔다고 한다. 연계되어 있는 상회가 있어서 거

9) 「難民定着資材横領 正・副委員長, 檢察에 被檢」, 『동아일보』 1958. 8. 3. ; 「難民을 등쳐 먹는 者를 徹底히 膺懲하라」, 『경향신문』 1963. 7. 13. 등.

의 전량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매 이유는 단일한 종류의 곡물만으로 생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사 노임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임항섭은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중앙연합회의 인맥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장흥의 흥업회는 이화리보다 사업장과 조직 규모가 훨씬 컸던 만큼 그 운영 실태는 지역 소매업 등과 복합적인 이해가 얹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정부와 원조 당국은 물자의 횡령을 방지하고 난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나 교환을 금지하였으나 구슬자들의 경험으로 보면, 현장의 실정은 크게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사 기간 동안 정해진 곡물로만 생활하는 것이 난민에게 비현실적인 점이 있었고, 운영 차원에서는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판매나 교환을 했다. 그러나 사업장 중에는 법호촌과 같이 물자가 지급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발적 참여와 임금 노동

화성, 장흥, 부천 사업장은 각각 염전 조성, 간척, 수로공사에 난민과 지역민이 참여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난민과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이주하여 작업 노동의 대가로 구호물자나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정착사업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권호원 가족은 ‘수북’ 이전에 용인에서 김봉조가 이북 출신 사람들을 모집하며 배급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성으로 가족이 함께 이주하였다. 장흥에서는 흥업회가 사촌 사업장(난민정착사업)을 시작으로 대덕(자조정착사업), 풍길, 고마, 장관, 덕촌(이상 자조근로사업) 등 6개의 사업장을 조성하였다. 오옥선 가족은 목포에서 고마 사업장에 이주하였고, 오택성은 영암-성남을 거쳐 덕촌 사업장으로 오게 되었다. 손성명은 사촌에서, 이정순과 남편은 대덕, 고마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단위로 거주하였고, 월남민 가족은 구성원이 함께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난민정착사업에서 원조물자를 배급받거나 자조정착·자조근로사업에서 취로한 날짜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배급량은 여유롭지 않았다. 화성군 이화리의 경우 권호원은 부친이 사업장 염전에서 일하고, 본인과 형제는 사설 염전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사업장 지역 내에서도 가족 내 세대별 다양한 정착 방식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양곡 배급은 사업장에서 노동 여부에 따라서 가족 수를 고려하여 실시되었다고 한다.

장흥에서의 경험은 간척 작업의 단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구술자들은 모두 작업이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간척은 독(방조제)을 세우고 내부를 매립하는 것이었는데, 주변의 산을 발파하여 큰 돌을 얻거나 배로 인근 지역에서 운반해 왔다. 운반은 지게나 머릿짐으로 하였고 ‘토차(구루마)’라고 하는 수레로 흙을 퍼다 메우었다.

사업장에서 여성들도 노동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정순은 장흥 출신이지만 월남민인 남편과 결혼하였고, 결혼 초기에는 남편만 사업장 노동을 하다가 고마리 작업장에서는 함께 참여하였다. 남성들이 독을 막고 흙을 메우는 일을 주로 했다면 여성들이 저수지를 조성하는데 돌을 나르는 일 등을 맡았다고 한다.

장흥에서는 노동 일수에 따라 전표가 지급되었고 참여자들은 월 단위로 ‘간쵸(かんじょう, 勘定 정산)’를 하였다. 오옥선의 남편은 사업장에서 서기로서 작업자 명단 및 전표 관리를 담당하였다. 임금 지급에는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었다. 같은 종류의 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의 임금만 책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표를 일주일 단위로 받아서 이자를 붙여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1960년대 타 사업장과 비교가 필요하지만, 장흥의 흥업회는 자체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확보된 원조물자를 임금으로 지불하였다. 장흥의 구술자들은 작업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1950년대보다 원조물자 사정이 진전되었고 노동량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사업장 규모가 크고 간척 작업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3) 강제 동원

정착사업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식은 소위 ‘부랑아’를 개척단, 건설단, 자활단 등으로 강제 동원되는 것이었다. 정착사업은 개척단을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 단속을 경찰이 맡았고, 단속 후 수용과 이송 절차는 정부의 지원 하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영철은 부산에서 단속된 후 ‘아동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을 분류하여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보냈다고 한다. 김이곤은 광주에서 단속 후 수용 과정 없이 사업장에 보내졌다.

정영철과 김이곤은 5·16군사정변 후 전남 장흥에 들어갔으나 동원되었던 체계는 달랐다. 김이곤은 정부에서 추진한 국토건설사업이었다고 기억하였다. 국토건설사업은 내무부가 ‘깡패’를 검거하여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¹⁰⁾ 여러 지역에서 검거 실적과 사업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남 장흥에서도 국토건설사업이 진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장흥 사업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자활단 단원이 정착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정영철은 장흥에 와서 ‘대한청소년개척단’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개척단은 민정식이라는 인물이 대표를 맡은 조직이었고 서산에서도 같은 조직이 간척사업을 진행하였다. 정영철은 장흥이 ‘작은 집’, 서산이 ‘큰 집’이었다고 하며, 이동 도중 탈출을 계획하고 장흥에서 서산으로 가는데 지원했다고 한다. 개척단 사업장은 서산시 인지면 연안으로, 1942~45년 일본인들에 의해 염전용으로 물막이 공사만 되어 있었던 지역이다. 해방 후에도 염전으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1961년 11월 14일부터 68명이 개간을 시작한 후, 1965년에는 2,241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

10)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906~908쪽.

‘부랑아’를 정착사업으로 동원하는 조직이 정부와 민간으로서 다르더라도 그 방식은 동일하였다. 구술자들은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목적지와 사업 내용 등을 알 수 없었다. 군(軍)이나 경찰이 직접 이송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동 절차와 과정에서도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이 있었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단속과 강제 동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주체들을 정부가 ‘소탕’, ‘일소’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국토건설사업이나 정착사업에 강제 동원하는 정책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깡패’나 부랑아였거나 그렇게 규정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후 빈곤이나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고려되지 않았고 정부는 해결 방안의 모색이나 책임을 맡지 않았다. 일탈하는 개인의 문제이고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정부가 사회적으로도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이들의 단속과 강제 동원을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성과를 높이는 데에 치중하였고, 단속 결과의 ‘수치’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하는 대상을 개간, 간척 등 사업에 투입하여 무임으로 노동하게 하며 영구 정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농업 생산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사를 위주로 하는 국토건설사업은 단기에 끝났지만, 농촌 정착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농촌 정착사업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출신이나 이력에서 다양한 구성이 짐작된다. 장흥에서 자활단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오택성에 따르면 덕촌 사업장에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가 있었다고 하였다. 반공포로가 정착사업 지역에 들어왔던 것은 전북 김제 용지농원의 사례에서도 있었지만¹²⁾ 개척단 또는 자활단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기록이 발견되지 않

11) 김아람, 앞의 논문, 2011, 353쪽.

있고 처음 언급되었던 것이다. 구술에서 단원 내부에서의 차이나 성격 등이 보다 구체화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강제 동원된 단원의 생활은 군대와 같이 강하게 통제되었다. 장흥에서는 흥업회 간부가 사업장을 관리하지만 단원 내부에서도 반장을 두었고, 서산에서는 소·중대장을 선발하여 자체 감시를 하였다. 정영철과 김이곤의 구술은 사업장 내 구체적인 단원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열악한 의식주 상황, 강도 높은 노동과 집단적인 일과 생활, 상호 감시 체계의 운영, 탈출 감행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단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저항했던 경험도 공통적이었다. 서산에서 일어난 스트라이크는 구술자가 ‘민주화’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사업 시작 후 2년여 후에 벌어졌다. 비인간적인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호 감시하던 구조에서 중대장들을 설득하여 통제가 사라지게 된 계기였다. 장흥에서는 삼산리, 고마리 사업장의 단원들이 연합하여 경찰에 저항하였다. 경찰에 의해 사업장에 잡혀왔다는 이유로 단원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저항의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헬기가 동원되는 등 경찰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다루었다. 이후에 사업장의 사정이 나아지며 갈등이 반복되지는 않았다.

사업 도중에 단원들 중 사망한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고, 격리된 상태에서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자체적인 위계와 감시 속에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내부에서도 은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었다.

12)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1999, 277쪽.

4) 사업장 내부 및 마을-사업장 관계

전남 장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도 참여하는 난민의 배경과 경험이 복잡적이었다. 장흥에서 자활단과 일반 참여자는 같은 지구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현장은 분리되어 있었다. 일반 참여자에는 월남민을 비롯한 각 지역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단원’과 달리 ‘종업원’·‘정착원’·‘취로자’로 분류되었다. 단원과 종업원의 생활공간도 구분되었기 때문에 서로 접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종업원들의 단원에 대한 인식은 ‘무섭다’, ‘불쌍하다’, ‘착하다’ 등 구술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간부를 했던 경우는 단원들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덜한 경향이 있었고, 단원들과 만나거나 대화해보지 않았던 경우에 공포나 불안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노동으로 간접 작업을 하지만 종업원과 단원의 실제 생활은 판이하게 달랐고, 종업원 스스로도 단원을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하였다. 장흥에서는 흥업회의 사업장을 비롯하여 정착 사업이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고, 난민이 흥업회를 주도하는 등 지역에서 사업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구술에서도 사업장 내부에서 단원과 종업원의 차이는 드러났으나 사업장 차원에서 기존의 마을이나 지역 질서와의 갈등이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화성 매화리 사업장은 철원·김화·평강 출신들이 모여 있었는데, 내부의 결속력이 강하였다고 한다. 같은 지역이나 인근 지역 출신이고, 복귀가 불가능한 월남민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권호원은 사업장의 사람들이 기존 지역민에 비해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사업장에서의 물자 배분이나 생활도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사업장은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훨씬 단합이 잘 되어서 먼 단위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내부의 단합과 달리 인근 마을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장 지역에 차별이 있었다. 여기에는 월남민 출신이라는 점이 작동하였다. 매화리는 사업장의 명칭을 둘러싸고 지역민과 월남민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사업장이 ‘공생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마을 주민들은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공산조합’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다. 월남민이라는 배경 자체가 사업장 사람들과 지역민의 차이를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었다. 사업장 내 월남민의 경험은 1950년대 월남민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오택성도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할 때 월남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월남민이 집단으로 정착하였고 대규모로 사업이 행해진 장흥에서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착 규모와 사업이 월남민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마을에서는 난민이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민이었고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이 빚어질 수 있었다. 매화리에서 난민은 간척지에 독을 쌓는 기간 동안 현지 주민에게 셋방살이를 하였다. 지역민과 난민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에서도 난민은 견제와 차별을 경험하였다. 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텃세로 느꼈다고 한다. 구술에 의하면 이웃 마을과 함께 계를 하고,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는데, 작은 다툼과 해소 과정이 있었다. 아이들의 다툼과 같은 사안에서도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화이지만 실제로 지역민의 차별 의식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남민이자 이주민의 입장에서 갈등 상황이자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다고 기억되고 있었다.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서도 사업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난민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 법호촌에서는 원조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개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온 난민의 생계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당장의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라산 벌목으로 장작과 숯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서귀포 시내에서 사업장은 8~9km 떨어져 있었고 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오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이유에서 5·16군사정변 후 경찰국장으로부터 ‘인간 송충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구술자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법호촌 사람들은 아랫마을 사람들이나 도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법호촌 사람들이 나무를 팔고 오는 길에 곡식을 서리하거나 하는 도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배경도 작용하였다. 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법호촌(法護村)’이라고 명명되었지만 지역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무촌(法無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구술자 김창옥 뿐만 아니라 면담자가 만났던 법호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을이 경제적으로 극히 열악하였고, 차별을 경험하였음을 밝혔다. 사업장이 조성되었으나 원만히 운영되지 않았고, 정착하고자 했던 난민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빈곤한 마을이라는 낙인과 멸시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마을 내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던 일화가 있었다. 5·16군정기에 ‘사랑의 금고’라는 공금을 만들어서 마을 내에 경조사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다. 공금으로 공동의 발을 구입하여 경작하였다. 공동 경작으로 자녀들도 키우고 어려운 이웃도 돕자는 취지였다.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구성원 중 한 명이 발을 팔아서 라디오를 사는 데에 써버렸지만 김창옥은 즐거웠던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5. 농촌 정착사업 이후의 삶과 기억

1) 농지조성과 분배

농촌 정착사업은 난민, 부랑인, 빈곤한 지역민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분배한다는 구상이었다. 1953~60년의 난민정착사업장의 조성 방식별 규모를 보면 총 7만 8천여 세대 중 전작(田作)이 5만 3천여 세대, 답작(畓作)이 3천여 세대, 간척지가 4천여 세대, 염전이 3천여 세대였다.¹³⁾ 구술자들의

13) USOM, *The Summary of Statistics of A and R Project in Korea*(宋柱仁, 「韓國의 難民定

사업 지역에서도 개간, 간척, 염전 조성을 통해 농지가 만들어졌다.

화성 매화리는 덕적도와 인근 지역에서 돌과 흙을 가져다가 1956년에 길이 874m, 높이 2.3m의 둑을 쌓았고, 평균 높이 2m의 저수지 둑 1,734m을 완성하였다. 염관 40정보, 저수지 30정보, 개간할 유휴지 20정보를 확보하였고, 완성된 12정보에서 채염하여 전매청에 판매하였다. 난민정착사업으로는 최초로 채염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보도가 되었다.¹⁴⁾ 휴전 후 난민들의 고향이 수복지구가 되면서 정착이 가능해지자, 사업장에 초기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귀향하였다고 한다.

장흥은 흥업회가 운영한 사촌, 풍길, 고마, 장관, 대덕, 덕촌 등 6개 사업장에서 1958~1968년 동안 난민정착사업(사촌), 자조정착사업(대덕), 자조근로사업(풍길, 고마, 장관, 덕촌)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방조제 11개 조를 건설하고, 간척지 1,645.9ha를 매립하였다.¹⁵⁾ 구술자들은 사촌, 고마, 장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부천 계양면 이화리는 1953년 11월부터 난민이 130여 정보를 개간하였고, 1961년에 2.7km의 양수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강수리조합 서부 간선에서 2단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으로, 시설 작업 후에 계양면 선주지리, 양기리, 김포군 고촌면 태리에 200여 정보의 논이 개간되었다.¹⁶⁾ 정착과정에서 1950년대에는 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지고, 1960년대에 수로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着事業과 家内手工業에 關한 考察,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61, 21쪽, 표 2. '난민 정착상황'.

14) 「염전을 축조, 피난민 공생조합서」, 『조선일보』 1956. 7. 27. ; 「8個項目 건의 自活定着事業」, 『경향신문』 1963. 09. 21. ; 「피난민 염전 최초로 생산」, 『조선일보』 1956. 09. 25. ; 「6·25의 遺産 (2) 越南避難民」, 『동아일보』 1962. 06. 26.

15) 吳有權, 「김형서 선생-지도를 바꾼 간척왕」, 『막사이사이賞 受賞者들의 외길 한평생』, 獎學社, 1981, 224~235쪽.

16) 「시멘트 等 援助 桂陽 難民定着場에」, 『경향신문』 1962. 3. 25. ; 「希望은 흐른다 … 水路二,七〇〇미터 梨花里難民들의 여덟달 피땀담고」, 『동아일보』 1962. 6. 14.

사실은 한강 인근이라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착과 농지조성의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정착사업에 의해 새롭게 염전과 농지가 조성된 화성과 장흥에서는 농지 분배가 실시되었다. 화성에서는 구술자 권호원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농지 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등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염전이 완공된 후 초기에 이주하여 남아 있던 55세대가 대략 2천 평 씩 분배를 받게 되었다. 염전의 등급을 구분하여 일했던 사람들의 출석, 노동 강도 등 공사 실적에 따라 6명을 한 단위로 하여 분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분배 당시에 등기는 1명을 소유자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개별 등기로 전환하였다. 함께 분배된 잡종지 또한 55명이 아닌 12명의 명의로 분배되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권호원은 40년이 지난 후 정부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매수에 나서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권호원이 나서서 개별 분할 등기를 완료하고 매도하였다고 한다.

장흥은 1966~68년에 자조정착사업과 자조근로사업의 형식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분배 농지는 600평을 1필지로 하고, 일한 날짜별로 등급을 책정하여 최대 2,400평까지 받았다. 사업장에서 기준에 따라 분배 계획 내역을 작성하면 도·군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대덕 사업장은 군사정변 후 최대 간척 규모였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자조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사업완료 및 분배가 실행된 곳으로써 대통령과 관료들이 참석하여 1966년 5월 30일에 대대적인 분배식을 열었다. 구술자들에게 대통령의 방문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대덕 사업장과 인근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배식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이 서울에서 아주 먼 거리이고 중앙 관료와 접촉할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지역민의 상기되었던 심정이 구술에도 담겨 있다.

농지 분배의 기준은 일한 날짜였다. 일반 참여자였던 오옥선, 이정순 가족은 규정에 따라 분배를 받았다. 농지의 필지 선정은 제비뽑기로 하였다고 한다. 필지별로 토질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정순 가족은 좋지 않은 땅을 뽑게 되어서 곧 팔

고 다른 농지를 매입하였고, 오옥선 가족은 당시 분배된 농지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취로 일수에 따른 분배 기준은 단원과 일반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¹⁷⁾ 자활단원은 일반 참여자보다 대체로 취로 일수가 더 많았고, 분배된 농지도 대부분 3~4필지로 많았다. 구술자 김이곤은 1,800평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분배 계획 내역에는 2,400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술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계획보다 적게 분배되었던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는 분배 관련 경험에서 혼동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고 600평을 1필지로 하여 3필지를 분배 받았다고 정확히 구술하였다. 분배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충남 서산에서는 개척단이 간척한 농지가 등기 이전이 되지 못하였다. 구술 당시인 2012년에는 구술자 정영철이 경작하던 농지가 간월호 관광도로로 편입된다는 계획 때문에 구술자가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다.¹⁸⁾ 경작 농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었고, 도로공사에 들어가면 보상 없이 경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산의 인지면 모월리 대한청소년개척단 사업장은 1966년 9월 1일에 ‘자활정착사업장’으로 서산군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부 행정상의 문제로 사업 참여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채 국유지로 남아있게 되었다. 수십 년간 몇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도 경작자가 패소하였고, 국민권의 위원회에서 2010년에 경작자에게 장기 상환으로 불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2년까지 불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¹⁹⁾

17)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6년에 수집한 장흥군청 자료에 상세한 분배 기준과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고가능하다.

18) 서산시에서 2011년부터 해미면 전천리~인지면 모월리를 잇는 12.2km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13.9km로 확정 후에 공사가 지연되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산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본격 착수」, 『연합뉴스』 2011. 08. 16. ; 「서산시 ‘사통팔달’ 도로망 속도」, 『대전일보』 2016. 9. 7.

정영철은 초기부터 간척 작업을 했고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그는 서산시, 충청남도 당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유상 매수를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가 반영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3년에 감정가 기준, 연리 2.1% 20년 분납 조건으로 정부가 매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²⁰⁾ 개척단의 간척 노동 비용은 감안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권고에서 개척단은 이후 입주자와 차등을 두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구술에 따르면 무상불하할 경우 국유지 분쟁에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과거 개척단이었던 사람들에게 버거운 일이었다. 법적 판단에서도 불리한 결과들이 나왔고, 정영철은 당사자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었으나 사업장 초창기에 개척단 출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 정착한 사람들이 과거의 출신에 대해 알려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착사업장 농지 분배 과정에서 정부는 정착민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성 매화리에서는 잡종지의 등기 이전이 정착한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처리되었다. 장흥에서는 흥업회가 주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서산은 간척 시작 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유지 상태로 경작자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장흥과 서산 사업장을 모두 경험한 정영철은 장흥에서 소유권 이전이 원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

19) 서산 인지면 모월리 사업장의 농지 분배에 관련한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다음 문서철을 참고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총무국 회계과, 『자조근로』, 1969 (BA0057880) ; 충청남도 서산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자활정착 모월지구 매각추진』, 1992 (BA0652518).

20) 「권익위, 서산 양대·모월지구 매각지 점검, 주민들 “개량비 인정해달라”」, 『충청투데이』 2013. 1. 25.

다. 두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개척단으로 일을 했지만 서산에서는 불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더욱 무상불하를 포기할 수 없었다. 흥업회가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던 장흥과 달리 서산은 정부로 사업장이 이관된 후에도 오히려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제 동원된 초기 정착민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분쟁이 지속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대로 따르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2) 현지 정착 또는 이주

정착사업장에서 농지를 분배 받은 사람들은 개간이나 간척, 농지개량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업이 끝날 때에 남아있던 정착민이었다. 구술자 중에서 오택성, 김이곤, 임항섭을 제외하면 모두 현재까지 현지에 남은 사람들이다. 사업장 조사 후 구술자를 섭외하게 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현지에 남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현지에 살지 않는 3명은 사업장에 아직 연고가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다. 정착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나, 농지를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이 컸다. 장흥의 월남민들은 소유권이 있는 농지를 기반으로 생활하였다. 서산에서는 지역을 떠나면 농지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업장에 남은 사람들보다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한 사업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도 참여자는 유동적이었다. 난민들이 사업을 시작하였던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지나 인근의 지역민들이 결합하며 점차 참여자가 다양해진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부천 이화리에서는 1961년에 수로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 711세대 중 초기에 유입된 피난민보다 지역 영세민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 임항섭에 따르면 당시에 이북 출신으로 피난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였고, 남한 출신을 영세민이라고 구분하였다.

장흥 사업장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사업장 전체적으로 남한 출신

의 비율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4월에 흥업회 사업장에서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에는 전남 지역 출신이 56.4%였다. 사업 착수 당시나 6개월 이내에 참여한 수가 40.5%, 사업 착수 후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참여한 수가 39.2%, 다른 사업장에서 분배를 받지 못해 이 사업장에 다시 참여한 수가 12.1%였다.²¹⁾

초기에 들어온 난민들이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을 임시 거주지로 삼았던 경우이다. 제주도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육지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화성 매화리에서는 고향 지역이 1954년에 유엔군에서 행정권이 이양되면서 ‘수복’되자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사업장을 이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착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제주도는 원조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화성, 장흥과 같은 염전과 간척지는 농지가 조성되기 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고, 원조물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웠다. 매화리에서 권호원은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정착사업장에서 일하고, 아들들은 기존에 있던 염전에 가서 노동을 하거나 나무를 팔아서 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개척단, 자활단은 사업 기간 동안 일반 참여자와 전혀 다른 조건으로 살았고, 그것은 사업장 정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의 단원들은 감시 체계가 사라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장을 떠났고, 정착한 사람이 소수였다. 사업에 동원되기 이전에 도시 생활을 경험하였고, 강하게 통제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서산에서는 소유권을 얻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많은 단원들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정영철은 농지 분배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떠나려는 단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서산 출신이어서 친척이 있었고, 영농에도 도움을 받았다. 처가가 있다는 것은 사업

21) 정희섭, 「자조사업에 대한 소고－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흥업회 사업장에 대한 조사 보고를 중심으로－」, 『정경연구』 1권 6호, 1965. 7, 149쪽.

종료 후 그가 다른 도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김이곤을 비롯한 장흥의 단원들은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남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영농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간척 농지에서는 수확이 될 때까지 수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모를 심어도 염기로 인해 자라지 못했다고 한다. 농사가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배 받은 땅을 팔고 도시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관계 또한 중요했다. 김이곤은 반장을 맡았었고 지역의 유지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었지만, 낮은 교육 수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업장 내에서 전반적으로는 단원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 단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정착사업의 목표는 대상자의 농촌 영구 정착에 있었지만 참여자의 삶과 사업장의 조건으로 보아 정착이 수월하지 않았다. 농지가 조성되고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은 도시화가 심화되는 사회 변동 과정의 일면이기도 했다. 구술이 진행된 사업장 마을들은 부천을 제외하고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는 마을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마을들은 이주해온 사람들이 새롭게 형성한 공간이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촌 마을이다. 사업장 마을의 변화는 정착사업이 참여자들의 삶과 공간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농촌 마을과 지역민이 살아온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정착 후의 삶과 과거 인식, 기억

제주도 법호촌은 사업 당시에 개간이 거의 되지 않았지만 '5·16도로'가 확장·정비되며 접근성이 높아졌다. 구술자 김창옥은 도로가 아니었다면 마을이 폐동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다. 도로 정비 이전에는 정부미가 지원되어도 마을

까지 들어오지 못하였고, 시내까지 다니는 차편이 없었다고 한다. 장작 판매가 힘들었던 것도 교통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또 고구마 농사, 감귤농사가 시작되면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창옥은 마을의 역사와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농지위원, 쓰레기장 반대투쟁 위원장, 노인회장을 맡았다. 그는 마을이 난민 정착마을, 즉 ‘법호촌’으로만 역사화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여전히 가난한 마을이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을 역사가 정착사업으로 조성된 것보다 오래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구술 당시에 김창옥이 조선시대 이약동 묵사와 관련하여 마을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면담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5년 2월에 이약동 시비를 마을에 건립하였다. 면담자가 2015년에 3월에 재방문했을 때 시비를 함께 확인하였는데, 구술자에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²²⁾

전남 장흥 고마리에서는 오옥선과 가족들이 고마 3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였다. 오옥선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부녀회장을 맡아서 11년간 활동하였다. 새마을운동 기간에는 새마을지도자를 겸하였다. 지도자 훈련이 강제되었던 경험이 인상적이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당시의 활동이 흥미롭다. 오옥선의 남편은 이장을 맡았었고, 현재 차남 노대진이 이장을 연임하고 있다.

고마 사업장의 단원 출신인 김이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옥선의 가족이 김이곤이 분배받았던 농지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단원들이 떠나며 농지를 정착민과 현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옥선 가족은 월남민 출신으로 사업장에서 간부를 맡았고 이후에도 마을의 운영을 담당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조사 결과, 고마리를 비롯하여 장흥의 흥업회 사업

22) 기사에서도 김창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쓰여 있다. 「영천동, 청림의 상징 이약동 제주목사의 ‘영천관’ 시비 건립」, 『헤드라인제주』 2015. 02. 06.

장 지역은 모두 비옥한 토지로 지역민의 생활 기반이 되어 왔다.

사업 이후 구술자의 도시 생활 경험으로도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다. 정영철은 남산1호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고, 수원에서 양말, 옷 좌판 행상을 하기도 했다. 임항섭은 경기도 고양과 인천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로 큰 수익을 얻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였다.

끝으로 구술자들의 과거 인식과 기억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4·3사건 당시에 무장대로부터 가족을 탈취 당했다고 하는 김창옥은 4·3사건의 진상 규명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 재평가 되었다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 사건이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악화시켰고, 고향을 떠나서 법호춘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4·3사건의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희생이 컸다는 사실은 중대한 역사의 진실이다. 뿐만 아니라 파괴되거나 소개된 마을의 사정, 무장대에 의한 지역민의 피해 경험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전쟁으로 고아가 되었던 정영철을 비롯해서 월남민들은 헤어진 가족과 고향을 잊지 않았다. 정영철이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출연하여 가족을 찾았던 이야기는 무척 흥미진진하다. 그 후에 다시 만난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 또한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다.

월남민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이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이산가족 찾기를 시도하거나 고향 인근까지 가서 마을을 보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다. 권호원은 어린 시절에 고향 마을에서 놀았던 경험을 매우 상기되어 이야기하였고, 민통선에 들어간 고향 마을이 남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이정순은 남편이 평소에도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슬퍼하였다.

농촌 정착사업에는 4·3사건 피해자, 월남민, 고아, 부랑아, 현지인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 운영, 관리, 노동 등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그 과정은 개간과 간척, 염전 및 수로 조성을 통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창출해가는 것이었다. 구술자들의 경험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구조의 사회적 영향, 농촌 마을의 형성과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농촌 정착사업 당사자의 기억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복원하고 농촌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아람**(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

일 러 두 기

이 책의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에 대하여

- (1) 이 구술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2012년 구술자료수집 지원사업의 결과물 <한국 근현대 가족 경험과 가족의 위치-1960년대 고아의 '개척단'과 가족경험>, 2013년 구술자료수집 지원사업의 결과물 <1960년대 정착사업장의 현실과 경험-전남 장흥 개척단과 현지인>, 2014년 구술자료수집 지원사업의 결과물 <1950~60년대 난민정착사업·귀농정착사업과 농업기반 조성> 가운데 일부이다. 2012년 구술수집에서는 총 8인의 구술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본 간행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척단과 관련된 정영철 구술 1인만을 수록하였다. 전남 장흥 개척단과 관련한 2013년 구술수집에서는 총 10인이 구술을 하였는데, 그중 김이곤, 손성명, 오옥선, 오택성, 이정순 5명의 구술을 수록하였다. 2014년 구술수집에서는 총 7명이 구술을 하였는데, 그중 제주와 경기 화성과 부천군의 정착사업장과 관련한 김창욱, 권호원, 임항섭 3명의 구술을 수록하였다.
- (2) 이 구술자료선집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구술자료선집에 실린 내용은 그에 대해 구술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 (3) 이 구술의 내용은 개별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이 단순 착오일 경우에는 면담자 또는 편집자가 수정하였지만, 확인하기 어렵거나 교차 확인해야 할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 (4) 구술내용 가운데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편집자가 일부 삭제하였다.
- (5) 구술자가 구술한 내용의 사실적 진위는 구술자의 구술만으로는 확인될 수 없으며, 관련 문헌 및 기타 자료, 관련된 인물들의 추가적인 구술자료들의 발굴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형식에 관하여

- (1) 본 구술사료선집은 구술자가 말한 그대로를 옮긴 녹취록이 아니라, 읽기 쉽게 재정리한 편집본이다.
- (2)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산발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발언을 하나로 모아 정리했다.
- (3) 구어체는 문어체로 바꾸었고, 말끝이 희미한 부분은 ‘...다’로 표기했다.
- (4) 구술이 잠시 끊어지거나, 구술자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길 경우 그리고 구술 도중 구술자와 면담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말미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으로 표기했다.
- (5) “으음”, “아!” 등 내용이 없는 감탄사나 반복 어투는 생략했다.
- (6) 편집자의 보충 설명은 []안에 표기했다.
- (7)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를 통해 해당 사항을 설명하였다.

차 례

- 간 행 사
- 해 제
- 일러두기

◆ 권 호 원 ◆

1. 연천 출생과 철원으로의 이주	3
2. 북한 체제 하 학교생활과 집안 형편	4
3.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7
4. 피난 과정(철원-동두천-광주)	10
5. 나주로의 배치와 이후 경기도 이주	12
6. 가(假)호적 작성	15
7. 화성 정착사업장 조성 소식	16
8. 정착사업장 초기 모습	18
9. 기존 지역민과의 관계	19
10. 염전 조성과 미국 민간단체 원조	21
11.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23
12. 공동 축산의 시작과 임야 분할	23
13. 염전과 저수지 분할과 매화 4리의 형성	26
14. 염전 매입 과정	28

15. 잡종지 분할	31
16. 동향 출신과의 결혼과 고향 생각	33
17. '6시 내고향' 촬영	37

◆ 김 이 곤 ◆

1. 유년 시절과 국토건설단	41
2. 한국전쟁 피난 경험과 기출 이후의 생활	43
3. 건설단에 끌려가게 된 과정과 장흥 도착 직후의 상황	47
4. 흙 이동 작업과 겨울 수중 작업	50
5. 반장으로서의 역할	53
6. 상부 보고와 사업장 개선 요구	59
7. 삼산사건과 인명사고	61
8. 단원들의 이탈	66
9. 사업장 내 관리 체계와 보상의 아쉬움	68
10. 지역민과의 관계	70
11. 단 해체 후 농지 분배와 글을 배우게 된 과정	73
12. 사업장을 떠나 광주로 이주 후 어려웠던 생활	76

◆ 김 창 욱 ◆

1. 일제시기 출생과 어린 시절	83
2. 4·3사건과 '폭도' 인식	85
3. 미군정 통역관 아버지	88
4. 6·25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죽음	90
5. 예비검속과 연좌제, 서북청년단	92
6. 4·3사건 당시의 억울함	94

7. 사법고시 준비와 포기	96
8. 난민귀농정착단 창설과 이주	98
9. 이주 초기 생활	99
10. '법호촌' 형성 과정	101
11. 입주식과 난민귀농정착단 입단 및 개간 과정	103
12. 단장 백○정과 구호물자, 지역민의 차별	106
13. 월남민 등 단원 구성	109
14. 3·15 부정선거 경험과 청년회장	110
15. 5·16 후 '사랑의 금고' 조성 and 라디오 구입	111
16. 감귤농사 시작과 토지매입	112
17. 개간지 등기 문제	114
18. 천주교 원조와 시온장로교회	115
19. 개간지 질병과 5·16도로	115
20. 5·16 후 마을의 변화와 농사	117
21. 농지위원 활동과 쓰레기 반대투쟁, 노인회장, 아동지킴이 활동	120
22. 농림부 장관 표창	122
23. 불교신자로서의 종교생활	123
24. 지역 정치 활동과 노인회 봉사클럽	124
25. 육지에서의 구호물자 차단과 사업단 관계자 비석 파괴	126
26. 종친회와 지역사에 대한 관심	128

◆ 손 성 명 ◆

1. 6·25전쟁 기억과 1950년대 어린 시절	135
2. 사천 사업장 공사 참여	138
3. 마을 운동장을 둘러싼 흥업회와의 갈등	140
4. 현장에서의 노동과 수입	142

5. 농지 분배를 위한 투쟁	146
6. 개척단에 대해 들은 이야기	147
7. 사업 당시 회고와 마을의 변화	149

◆ 오 욱 선 ◆

1. 서해 섬에서 목포로 피난	155
2. 흥업회 간부와의 연고와 결혼	156
3. 고마 사업장 공사 참여	158
4. 개척단과 종업원의 차이	159
5. 사업장 노동	162
6. 남편의 간부 근무와 이산가족 찾기	163
7. 간척 토지 영농의 어려움과 대통령 방문	165
8. 농지 분배 후 변화	168
9. 마을에서 가족의 역할-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170

◆ 오 택 성 ◆

1. 한국전쟁과 황해도에서의 피난	177
2. 목포와 영암에서의 성장 과정	178
3. 이매에서의 생활과 피난민에 대한 차별 경험	182
4. 장흥 사업장 사무장이 된 과정	184
5. 전직경찰관, 부랑인 등 사업장에 참여한 사람들	187
6. 한국정착사업개발흥업회와 김형서	188
7. 반공포로 출신 단원 등 간척사업장 인적 구성과 농지 분배	190
8. 고마 사업장 단원	192
9. 자활단 관리	194
10. 덕촌 사업장 인적 구성과 지도원들의 단원 감시	195

11. 덕촌 사업장 중단과 당진으로의 발령	198
12. 장흥 농지 분배 상황과 당진에서의 생활	201
13. 고흥 소록도 사업장과 웅진 고향 생각	203
14. 사업장 중단 이후 평택에서의 삶	205

◆ 이 정 순 ◆

1. 월남한 남편과 관산읍으로의 이주	209
2. 고마 사업장에서의 노동	211
3. 개척단 사람들	214
4. 현장 노동의 어려움	215
5. 분배과정과 사업 종료 후의 생활	217
6. 새마을 사업	220
7. 이산가족 찾기	221
8. 남편 생각	222

◆ 임 항 섭 ◆

1. 자영농 집안 출생과 수로사업 개괄	227
2. 6·25전쟁과 학교생활	231
3. 이장 선출	236
4. 난민정착사업으로 수로사업을 하게 된 배경	237
5. 원조물자 판매	241
6. 사업장 내 인적 구성과 관리	243
7. 농림부 장관 현장 방문과 중앙정보부장 만남	251
8. 사업 완료와 난민정착중앙연합회 및 정부의 역할	254
9. 수로사업 이후 보령 간척사업	259
10. 내무부장관 표창	263

11. 국회의원 후보들의 사업 공약	265
12. 결혼 및 이후의 생활	267

◆ 정 영 철 ◆

1.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된 과정	273
2. 제주도 아동보호소와 부산으로의 탈출	274
3. 부산에서의 ‘부랑’ 생활과 4·19 당시 시위	276
4. 5·16 후 부산 아동보호소 수용	280
5. 장흥 개척단	283
6. 서산 개척단	285
7. 서산 개척단 ‘민주화’와 일상생활	288
8. 물자 배급 문제	293
9. 남겨진 수기와 미방송	296
10. 합동결혼식	298
11. 부인과의 연애	300
12. 남산1호 터널 공사	304
13. 서울과 수원에서의 양말장사, 엿장사	306
14. 개간 마무리 및 토지 분배 문제	309
15. 공원묘지, 영안실 근무, 새마을지도자	314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315
17. KBS 이산가족 찾기와 가족 재회	317
18. 소 기르기	319
19. 토지 관광도로 편입과 보상 문제	320
20. 삶을 되돌아본 소회와 바람	323

■ 찾아보기 ◆ 327

이주와 정착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참여자의 경험

구술자 : 권호원 | 김이곤 | 김창옥
손성명 | 오옥선 | 오택성
이정순 | 임항섭 | 정영철
면담 : 김아람

: 권 ◆ 호 ◆ 원 :

❖ 권호원

1938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출생
1945년~	철원으로 이주, 철원 예비인민학교, 석광산초등학교, 월정 학교 재학
1950년~1953년	6·25전쟁 발발, 미군 폭격 경험, 피난(철원-동두천-광주 피난민 수용소-나주-수원-용인)
1953년 7월~1954년	‘철의 삼각지 난민정착사업소’ 조성 시작, 화성으로 이주
1974년	사업장 잡종지 분할 등기 완료
현재	화성시 서신면 매화 4리 사업장 마을 거주

1. 연천 출생과 철원으로의 이주

태어나신 때부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태어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연천군 산골에서 살았어요. 잡곡밥으로만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4형제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시고, 맏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쌀밥 먹어야 된다고 철원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철원은 쌀밥 먹는 데예요. 쌀밖에 농사가 없으니까 잡곡밥 먹는 집이 없어요. 거기가 거지도 쌀밥 먹는 곳이야. 그렇게 큰 집이 들어가니까, 남은 동생들이 다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4형제가 다 들어가셨어.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98세이신데,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98세. 아버지가 일흔아홉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4형제분이 모두 철원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철원으로 갔죠. 철원에서 살다가, 셋째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서로 나오려고. 그때 해방되던 해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막내니까, “너 떠나보내면 못 산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떨어지셨어. 셋째 큰아버지는 나오시고.

셋째 큰아버지만 해방되자마자 나오신 거예요? 다른 세 형제분은 계속 철원에서 같이 사시고요? 예. 해방되면서 나오셨어.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는 바람에 못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6·25 일어나면서 나왔죠.

철원 북면 마을 사셨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세요? 거기는 어떤 마을이었나요? 철원, 평강, 김화 이 세 군데를 ‘철의 삼각지대’라 그러는 거예요. 6·25 때 전쟁이 제일 치열하게 했던 곳인데, 철원서 평강을 쳐다보면 한 50리 돼요. 평강이 별판이야. 가을에 보면 노-란 황금물결만 치는 데예요. 또 거기 수리조합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우리 있는 데서 20리 북쪽에 있는 건데, 남의 것이라던데, 그게 사방 40리야. 그게 터지면 평강군하고 철원군이 물에 갇혀 죽는다고 그래서, 49년도에 북한에서 전쟁 준비하느라고 그걸 퇴수를 했어요. 물을 낮췄어.

북면에 사실 때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나요? 농사 지었죠. 우리는 조그만 할 때 학교 다니고.

일제 때도 철원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때는 연천 살았죠. 내가 철원에 들어간 게, 아마 한 다섯, 여섯 살?

일제 때 학교 다니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공부에는 운이 없어. 그때는 북면에 안 살고 철원읍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징용을 가시게 생겼어. 북한에서는 ‘보국대’라고 그러는데, 거기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원으로 와서 마차를 끌면 면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 안 가려고 철원으로 이사를 나왔죠. 거기 있으면서 그걸 면제를 받았어요. 난 왜정 때 철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해방되기 직전에 나왔죠. 왜정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땡기다 8·15 해방이 되니까 일본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묵었죠. 북한에서 국민학교를 금방 저기를[운영하지] 못하잖아요. 국민학교 생겨가지고 들어가서, 2학년 때인가 사변이 난 거예요. 50년도에. 그러니까 또 학교를 못 땡긴 거야. 4학년까지 다녔구나. 그래서 난 졸업장도 없고. 최종 국민학교 4학년이야.

2. 북한 체제 하 학교생활과 집안 형편

학교를 멀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한 2km 정도 가면 석광산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마을 학교야. 근데 거기를 안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20리가 넘는 월정리라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 거기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동네가 보여요. 이북에서 실력이고 뭐이고 최고가는 학교야. 최고 학교를 다닐려고 거기를 들어간 거야. 파란 넥타이 메고 거기를 다녔어. 최고 학교는 파란 넥타이, 둘째 가는 학교는 빨간 넥타이, 그래. 사각형

모양인데 그걸 양쪽 귀를 후드처럼 매는 거야.

그 학교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주 소문이 났지. 평양에도 좋은 학교가 있을 텐데, 월정리에서 차지했으니까 실력이 대단하죠. 지금 이북에서는 최고니까.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기차 화통 타고서는 일부러 왔었으니까. 학교가 대단하죠. 그때 월정리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북에서 최고 실력 있다는 애들이 다 모인 거니까. 김일성이 학교에 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철로 가장자리로 쭉욱 서가지고 맞이하느라고. 나는 김일성은 직접 못 보고 김일성이 탄 열차만 봤어요. 열차가 서서히 오는데 박수 막 쳐주고 앞에는 인민공화국 국기 딱 달려있고. 꿈같은 학교예요.

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처럼 반이 있고, 분단이 있는 게 아니고, 1학년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입학하시던 날이 기억나세요? 왜정 때 철원서 입학을 해서 다니다가, 2학년 되어서 철원 북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철원 들어가서 월정 학교가 크고 유명하니까 거기를 다닌 거지. 전입한 거지. 해방 직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학교에 별과라는 게 있었어. 왜정 때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야. 그럼 별과로 편입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 봐서 졸업을 하고. 우리 나올 때까지는 그런 게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선생님도 별과로 가신 거예요? 나는 철원에서 그냥 1학년에 입학했으니까, 나이가 좀 더 먹었지. 왜정 때 학교를 한 몇 달 다녔다고. 입학할 때 이름을 부르는데, “하이[はい]” 그러고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들 막 웃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야 되는데, “하이” 그러니까.

학교를 몇 번 옮기신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다닌 거죠. 철원에 있는 철원 예비인민학교에 들어갔다가 북면리로 가서 석광산 학교 다니다가, 또 월정 학교로.

세 학교가 다 다르던가요? 월정 학교가 다른 학교들하고 가르치는 게 다르지.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니까, 수준이 약한 학교하고, 수준이 좋은 애들 모인 거하고 같은 1학년이래도 맞춰서 가르치죠.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약한 학교 선생들하고 다르지. 수준에 맞추니까.

어떤 공부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역사를 제일 좋아했던 거 같아요. 고구려 시대 때에서부터 쭉. 그때는 학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놀러 다닌 거고.

학교에 벡타이를 매고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학교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알아줬나요? 예. 탄 못난 학생들이 가다보면, 아주 [무시하면서] 가고.

당시에 북한에서 안보교육은 어떻게 시켰나요? 한 여섯, 일곱 살 정도만 되면은, 아주 “나를 닮아라, 나 닮아라” 이런 식이여. 김일성이가 빨치산을 했고 어찌고 그런 교육을 엄청 해요. 북한의 정치에 의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많아. 그때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지. 조그만 한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지만.

김일성이 항일 투쟁한 것도 배우셨어요? 왜정 때 백두산에서 김일성이가 소련 소위[대위]¹⁾인가 됐었지. 소련에서 김일성이를 북한에 해준 거지. 한국은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키웠고, 백두산에서 전투해서 무찔렀다는 순전히 거짓말 보태서 한 거야.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8·15 해방, 사상 교육을 시키니까.

사상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이북은 거짓말로 사상 교육을 시키니까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은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북한은 거짓말로 교육을 시키고. 그

1) 1942년 소련에서 동북항일연군교도려가 결성되었고, 소련군은 김일성·안길·김책·강건·최용건 등에게 대위 계급을 수여했다.

러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다르지.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고.

북면에 계실 때 토지개혁을 했을 텐데, 집안 농토는 어떻게 됐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농사짓는 데 차이점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전부 다 나라에 바치고 배급을 타 먹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힘들게 일한 사람이나, 농땡이 피고 어물어물 농사 진 사람이나 배급은 똑같이 타 먹어. 그러니까 힘들여 일을 안 해. 왜정 때는 자기가 힘들여 농사를 지으면 그대로 소득이 되었어. 왜정 때는 공출 얼마 내면, 나머지는 다 내 꺼가 됐는데. 북한 인민군 시절에는 현물세라 그래서 2할 5부 받아간다 이러더니, 2할 7부 받아가고. 그 다음에는 뭐다 뭐다 해서 전부 쌀로 가져가. 배추 심으면 배추를 받아가고. 울타리 같은 데 호박 심으면, 몇 프로[%] 호박으로 받아가고. 군인들 부식, 밥 해먹이려니까 현물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사셨던 지역이 농사도 잘되는 데였는데, 집안 살림은 어렵지 않았나요?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배급 타 먹으니까.

3.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그렇게 하다가 50년도에 6·25가 일어나니까 학교고 뭐고 다 폐기되고. 폭격 때문에 공부를 못하니까. 폭격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동네 할머니가 갓난 애기는 눕혀놓고 젖 떨어진 애는 업고.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업고 있는데, 그 애 부모는 농사를 지어야 먹으니까 나와서 일을 하고. 근데 비행기가 딱 들어와서 폭격을 했는데, 이 할머니 치마가 열두 발을 맞았어. 왜 12발이냐 하면은 여기서 뚫려서 이리로 나왔으니까 구멍이 두 개, 한방이 뚫리면 두 구멍. 결국은 여섯 방 맞은 거지. 맞았는데, 업은 애는 괜찮은데 자는 애는 맞았어요. 기관총을 아들이 맞았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방에서 계시다가. 그 집은 이상하게 따로 떨어

어저 있는 외딴 집인데, 거기에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철원서 북면 올라가는 마차길이 있어요. 우리 집은 바로 그 길옆에 있어. 그리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죠. 근데 비행기가 다 폭격을 하는데 우리 집은 기관총 총알 하나 안 들어왔어. 하다못해 우리는 개, 소 하나 다친 게 없어요. 이쪽에도 둘이 폭격을 맞아 죽고, 여기도. 이 집에 자손이 없고 남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살던 집인데, 한 분이 맞아 죽고. 이 건너 쪽에도 소 하나 죽고 사람 죽고. 뽕뽕 돌면서 다 죽었는데, 우리는 기관총 하나 안 들어왔어. 그러다가 우리는 점점 폭격이 심하니까 방공호를 파고서는 문 바로 열면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게. 비행기가 기관총만 쏘는 게 아니고,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놔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 또 방공호를 팠어. 동네 전체가 막 폭격을 하고 거기도 안 되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벌판에다가 방공호를 또 팠지.

폭격이 시작된 후에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처음 아시게 됐나요? 폭격하기 전에 평강에 가면은, 굴속에 일본 군인들이 쓰던 비행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프로펠러 한 개짜리가 있었는데, 50년도에 6·25 일어나면서 이쪽 비행기는 하나도 안 뜨고, 평강 굴속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20, 30대씩 아침에 폭격하러 나와. 압록강까지 막 밀리고 그럴 무렵이야. 비행기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몇 대씩 안 들어와. 다 떨어지는 거지. 한동안 평강에서 비행기가 뜨더니 나중에 비행기가 차츰차츰 줄어들어.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이쪽 비행기는 뜰 때 군인 시설을 폭격을 할려면, 입에다가 벼 이삭을 물려가지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걸 뼈라로 뿌려요. 백성들 빨리 먹을 거 가지고 굴속으로,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또 폭격하겠구나.’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요.

폭격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예 학교를 못 가신 거예요? 그렇지. 이쪽 비행기가 처음에는 농촌에는 폭격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들이 농촌으로 오니까 집중적

으로 농촌에 폭격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폭격을 해요.

전쟁 터지기 전에 평강 쪽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49년도에 남해보라는 퇴수를 났어요. 보조 방둑들이 드문드문 많아요. 1950년도에 그 보조 방둑에다가 집단 못자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침했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때 전쟁하기 위해서 물 빼고 그랬다는 거 알았지, 그때는 열서너 살 되었으니까. 열네 살 피난 나왔으니까.

폭격 당시에도 어디서 누가 폭격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알죠. 미군들이 와서 폭격한 거 다 알았지. 프로펠러 한 대짜리 미국 비행기가 와서 평강 쪽에 폭격하고 나오다가 우리 동네에서 인민군한테 맞았어. 우리 동네로 해서 철원으로 내려가다가 다리를 올라와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서 떨어졌어요. 미군 조종사가 뛰어가면서 숨었는데, 동네에 리 인민위원장이라는 게 있어. 그게 이장이야. 또 세포위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말하자면 당 책임자. 그 둘이 가서 그 미군을 잡았는데, 이 미군이 약간 머리가 좀 저기 되었어. 이 둘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바위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손을 들고 나왔어. 그냥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서 탈출해 나왔으면 모르는데, 손을 들고 나오니까는 붙잡아다가 동네에서 쌀밥은 안 주고, 콩밥 같은 엉터리 밥을 해줬나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안 먹드래. 하루 정도 지나서 평양으로 보냈지. 그리고 그날 저녁서부터 낮은 폭격을 하니까, 밤이면 동네 사람 풀어가지고서 비행기를 흙으로 묻는 거여. 그걸 묻으면 밤에 신호탄이 글루 와. 숨어가지고 보면 조그만 실탄, 신호탄을 거기다 막 쏘요. 그러면 비행기가 가다가 그거 보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 폭격 많이 했지.

선생님 가족들은 한 분도 안 다치셨어요? 다친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둘째 큰 어머니가 비행기 폭격할 때 과편에 맞아가지고 히프[hip] 한 쪽이 완전히 없어졌어. 뼈만 남고, 살이 짝 ...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피난 나와서 전라

도 김제 가서 돌아가시고, 맏큰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마을에서 폭격 안 맞은 집은 거의 없었겠네요? 별로 없어요. 폭격에 맞은 사람하고, 북한에서 ‘엠병’이라 그랬는데, 장티푸스 걸려서 죽은 사람하고 전체 백성들 50% 이상 죽었을 거예요. 폭격에 맞아죽고, 병에 걸려.

4. 피난 과정(철원－동두천－광주)

나중에 우리 동네에도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철원 금학산 폭격 유명하지. 산이 얼마가 알아졌다고 그러는데. 금학산이 있고 위로는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산이 거기서 제일 커. 광산에다가 12일 동안 폭격을 했어요. 처음에 금학산에다가 폭격을 그 정도 하고, 광산이라는 데 또 12일 동안 폭격을 계속 한 거예요. 폭격을 하더니 하루는 미군 질차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 한국사람 통역관 하나 하고 미군 운전수 하나 하고 장교들 둘하고, 네 명이 들어오더니 딱 서. 미군 선발대가 탱크로 따라 들어오는 거야. 폭격을 해서 12일 동안 부숴놓고서는 들어오더니, 주민들을 무조건 차에다 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저만큼 있어도 떨어지면은 따로 나왔어. 그래서 피난을 나오게 된 거죠. 우리 큰 집 두 집 따로 따로 떨어져 나옴. 우리 같이 있다가 한 차에 타고 나왔죠.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셨어요. 며칠 있다가 들어가게 될 줄 알고, 아버지가 몇 일치 쌀은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쌀 가지고 뒤따라 나오신다고 하시면서, 철원 무내리라는 데 가서 기다리라고. 미군들이 믿어줘야 기다리지, 덮어놓고 기다리나? 그 생각을 못하고서는 따로 떨어져 나온 거지. 웬걸. 직접 동두천으로 그냥 싣고 나와요. 동두천에서는 열차에다가 싣더니 전라도 광주로다가 보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군 부대의 노무자로 가셨어요. 전쟁하는 데 실탄 조달

해주는 데로 가셨어요. 6개월 동안 거기서 월급을 챙기셨어. 맨몸으로 나왔는데, 가족을 찾으려면 살아야 되니까. 6개월 만에 휴가증을 끊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더듬으신 거야.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더듬어서 전라도 광주 수용소 까지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또 우리는 봐두고 갔어.

직접 미군 차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 그냥 걸어서. 이리[익산]를 오니까, 광주로 왔다고 그러드래. 거기에 선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광주까지는 차타고 오신 거지. 광주에 오셔가지고 피난민 수용소 가서 서류를 보니까 나주로 갔더라는 거야. 나주로 또 찾아오셨지.

피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무내리에서 거기까지 미군 차타고 나왔구나, 거기서 내려가지고 점심 먹고.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안 탈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동두천까지 나온 거지. 동두천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빨갱이들이 폭파하기 때문에 장품마다 확인을 해야 돼서. 새까만 석탄 실어 나르는 차에 사람도 거기 옷 덮을 게 있나, 뭐가 있나?

어머님하고 형제분들 5남매가 나오신 거죠? 5남매. 우리 막내 동생은 여기가 출생지이고. 어머니가 우리 5남매를 데리고 나오셨지.

광주 수용소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그때는 수용소에서 안남미로 주먹밥을 해가지고 식구 수대로 줘요. 그거 찾아먹고 살았지.

수용소 크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무슨 공장 자리인가 봐. 엄청 커요. 거기 우리하고 한 동네[철원]에서 온 집이 세 집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어지시고 어머니, 딸 이렇게 [있는 집], 그 옆의 집도 딸 하나가 애 둘하고 친정 따라서 나왔어. 그러다가 나주로 갈 때도 같이 갔고, 나주 가서도 한 동네로 들어가고.

광주에서는 한 달 안에 피난민들을 다 내보냈던 거예요? 예. 수용소에서 한 군데 모아놓고 먹일 수가 없으니까 군으로 배치했어요. 우리는 나주군으로 가고, 하나는 무안군로 보내고, 두 군데로 다 보내버렸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했었어요? 아니야, 무조건 명단 잘라가지고 보냈어요.

5. 나주로의 배치와 이후 경기도 이주

나주 가서는 미국서 어떻게 돼가지고 3개월을 배급을 안 줘. 어머니가 장사를 해야지. 내 위에 2살 더 먹은 누님 한 분 계시고, 나, 또 두 살 덜 먹은 동생, 셋이서 밥을 얻으라고 내보내는 거야. 근데 밥도 때 맞춰가야 얻지, 아침 먹은 년에 [후에] 가면 못 얻어. 저녁 얻어야 되고, 저녁에는 아침을 많이 얻어나 남으면 먹고 이러는 거야. 셋이서 뻥질나게 밥 얻어다먹고, 어머니는 장사하시고. 나중에 석 달 치 배급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장사 시작하시고. 나는 구두닦이하고, 내 동생은 담배 장사를 시키고. 그런데 텃세가 심해.

그때까지도 계속 전쟁 중이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했지.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려고 어느 정도 나무를 해다 놓고 나니까, 또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구두닦이도 했다가. 구두닦이도 하는데 그것도 조합에다 들어야 된대요. 오야붕이 돈을 받아먹어. 그래서 얼마 주고. 나중에는 광주에서 목포 가는 버스가 있대. 전라도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 장에 갔다 집에 가도 그냥 가는 법이 없어. 하다못해 돈이 없어 오징어 못 사면, 보리 이삭이라도 뜯어서 까먹으면서 가. 주전부리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먹는장사. 나무 목판에 끈 매가지고 빵, 오징어, 초코렛, 사탕 이런 거를 장사를 하는 거야. 잘 팔려요. 버스가 서면 승

무원이 창문을 닫으면 사람이 막 이러거든. 그러면 장사하던 전라도 토박이들이 “이 새끼 어디 와서 이러냐”고. 사람을 쫓아내면 괜찮은데, 목판을 쫓아내면 다 쫓아지는 거야. 초코렛은 막 깨지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런 설움도 받고.

나주에 처음에 오셨을 때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주를 가니까 마을마다 또 분배를 해요. 큰 동네는 세대를 좀 더 주고 조그만 동네는 좀 덜 주고. 나주 나씨네가 항 모시는 각이 있어. [손짓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도 방, 여기도 방, 여긴 대청마루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또 같이 온 사람네는 여기 살았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더라구요. 나주까지 걸어오셨는데, 그때 돈으로 70만 원을 벌어서 오셨어요. 벼락부자가 된 셈이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 광주서 목포 내려가는 차가 9시인가 몇 시인가 있어요. 아버지가 광주서 물건을 해서 그 차타고 목포로 내려가서 팔고. 목포에서 광주 오는 차가 아침 10시. 밤에 물건을 해서 10시에 또 올라오시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신 거지. 그때 돈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이제 서울 가자.” 고향 근처로 가자고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한강 이북을 수복을 안 시키고 정부에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서울을 못 들어가고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수원에 떨어졌지.

나주에서는 친구들이 있으셨어요? 바로 밑에 동생 하나 하고, 같이 있는 사람 하나하고 셋. 그 사람도 구두닦이하고 나도 구두닦이하고, 동생은 담배 장사하고 그리 했지. 거기서 나를 피난민이라고, 고생한다고 불쌍하게 본 사람들이 자기네 저기는[사무실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들르라고. 나주경찰서, 또 나주군청, 세무서, 세 군데를 내가 독점하는 거야. 군데 거기는 그 자리에서 돈을 안 줘. 월급 때 한꺼번에 줘. [직원들] 월급 줄 때 떼고 줘요. 그게 목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그러다 또 담배 장사를 시작하니까 그것도 그 식으로 나가는 거야. 아침 먹고 우리 집에서 나가면 경찰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있고, 좀 있으면 나주군청, 그 다음에 세무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지. 팔고선 버스 이런 데 다

니면서 팔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텃새 부리던 사람들도 텃새를 못하지. 또 6·25 때니까 아버지가 노무대 가계시다가 군복 입고 군화까지 신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쫓쫓때. 그래서 텃새도 싹 없어졌어.

나주에서 몇 달 정도 일하셨던 거예요? 내가 열네 살, 열다섯 살 되면서 수원으로 올라왔지.

구두담이 하실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무로 통을 만드는데, 조합비라는 걸 받고서는 나무통 하나 주는 거야. 구두광 내는 약이 있어요, 빠닥빠닥하게 하는 약. 양초를 녹여가지고 녹은 면에 물감을 타 붉은 밤색을 만들어요. 그럼 그 약하고 똑같애. 그게 식으면 딱딱해져요. 또 구두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고구마를 쥔 거를 껍데기를 훌쩍 벗겨가지고 그거를 막 으깨요. 으깨가지고 밤색 물감을 넣어서 막 문대면 약하고 똑같아져. 그걸 발라가지고서는 약을 받는[만드는] 거야. 약은 비싸니까.

조합에서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던가요? 그렇지. 조합비라는 게 그런 거 가르쳐주고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한 통씩 주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오시니까 걷어치우고 담배 장사하고, 그러다가 수원으로 왔지. 그 다음에 수원서 용인 수지면 풍덕천으로 들어가서 나무 장사도 하다가. 동생하고 둘이서 나무해 오고, 아버지는 그거 죄다 수원에다가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리 들어왔지. 돈을 꽤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어. 아버지가 귀가 여리서. 이○천이라는 사람이 광평리에 이장을 했었는데, 면장 출마를 한다고 돈을 좀 달라고. 그걸 어떻게 알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아버지보고 절대 주지 말라고 하고서는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 있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 그때 쌀 600가마 값이야. 쌀 600가마 값이면 면의 소, 돼지 다 사고도 남아요. 그건 값이 없었으니까. 그 돈을 다 준 거야. 땅 등기 한 장 쥐고서는, 인감도 없이 종이 하나 받고서는 다 주신 거야. 다 해먹었지. [제대하고] 그 날로 내가 받으러 다니는데, 받

긴 뭘 받아? 해 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은 못 당해. 그때 면 소재지 앞에서 보리 공판을 하더라고. 수매. 광평리장이라고 그걸 와 있어, 그 날이 바로 [돈 받으러] 오라는 날이야. 점심때 가서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왔지?” “오늘 오라는 날 아니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 “안 됐는데” [하면서] “넌 면장 낙선되기를 잘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면장 됐으면 서민 등골, 피 다 빨아먹을 놈이라고.” 그냥 쥐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 3,000원을 주던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주더라고. 왜 그러냐고 수매 왔던 사람들이 뺨 둘러서는 거야, 그게 무슨 창피야? 그래서 돈 못 찾았고, 도망가더라고.

6. 가(假)호적 작성

가호적은 언제 만드셨어요? 여기 들어와서 돈 날리고 좀 있다가 가호적을 만들었어. 가호적을 만들려면 철원을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철원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노잣돈 해서 안성호라는 사람이 대표로다가 가서 호적을 다 떼어왔어. 그분이 측량을 하는 사람인데, 왜정 때 고등학교 토목과를 나왔어요. 이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나이를 줄였어. 생활이 곤란하니까 군대 갈 나이가 거진 되니까 좀 1년이라도 더 벌여놓고 나가라고, 나이를 줄여서 만드는 거예요. 한 달 줄인 사람도 있고, 다섯 달 줄인 사람도 있고. 남자를 줄이고 보니까 여자들도 자연 줄여져요. 왜냐하면 순위 손아래 누이동생에 있는데, 오빠 나이를 줄여봤으니까 그 누이동생들도 줄여야지. 안 줄이면 오빠보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들 나이가 고무줄 나이야.

7. 화성 정착사업장 조성 소식

나주에 계시다가 아버님이 고향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하셔서 서울로 올라가신 거죠? 나주에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 벌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자고 그랬어. 정부에서 한강 이북을 수복을 안 시키니까 수원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수원에서 떨어져서 용인군 수지면에서 나무 장사를 2년인가 했지. 아버지는 나무를 수원 가서 팔아주시고, 내 바로 밑에 동생하고 나하고는 나무를 해다가 대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봉조라는 분이 이북에서, 철원서 나온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독을 만든다고 모집하는 바람에 여길 들어온 게 된 거지.

용인 사실 때는 철원이 수복되고 난 뒤였어요? 수복 안 됐어요. [갯벌] 막으면 배급을 잘 준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들어오니 철원서 온 사람뿐이 아니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왔어. 그때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300여 세대가 순전히 지게로 흙을 끌어다가 독을 막았어요.

용인에서 여기 간척 사업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봉조라는 사람이 피난민 수용소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신면에도 난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그 소식을 못 들으셨으면 여기 못 오셨겠네요? 여기에 못 왔지. 여기 와서는 배급이 잘 나오니까 기독교 봉사회, 천주교 봉사회, 미국 CARE니 이런 데서 봉사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모여 사니까 한 집에 강냉이 가루를 해먹으면 전체 동네가 다 강냉이 가루야. 보리밥이면 전부 다 보리밥. 배급 주는 대로 먹으니까. 수수쌀이면 수수 밥 만들고 떨어질 때까지는. 그 동네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나주 가실 때 같이 가신 철원 동네 분들하고 수원이나 용인도 같이 가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장사하고 올라왔는데 그 두 가족은 돈이 없어서 못 왔

어요. 못 오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구. 만나지는 못했고.

그분들 말고는 같이 다니신 철원 북면 출신 분들은 없었어요? 없어. 아버지 형제분들도 다 못 올라왔는데.

아버님 형제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외갓집이 양평에 있었어요. 연천에 사시다가 6·25 전에 양평 들어가서 사셨던가봐. 그러다가 외삼촌이 피난민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나주로 찾아왔어. 또 외삼촌이 어떻게 하다가, 해방 전에 이제 여기 오신 큰아버지네를 찾았어요. 큰집들하고 고모네고 뭐고 다 찾았어. 이북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 철저히 피난을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잃어버린 집안이 없어요. 다 찾았어.

막내 동생 분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막내 동생 분은 나주에서 고생한 시절은 하나도 모르시나요? 그 동생이 지금 67~68세 정도 되나 본데, 여기[화성]서 출생을 한 거라 모르죠. 셋째 동생도 다섯 살 먹은 걸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를 거야. 나주에선 누님, 나, 바로 밑에 동생이 나무하러 가면, 다섯 살 먹은 그 동생이 집을 보는 거야. 그럼 동네 짓곳은 애들이 부엌에 가서 그릇도 가져간다, 뭇도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그 동생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계속 장사를 나가셨어요? 계속하다가 이리 올라와서는 장사를 안 하시고.

여기서는 월급을 받으셔서 형편이 좀 괜찮으셨어요? 거기서는 괜찮았죠.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벌고 싶으면 더 애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벌려고 그러지.

8. 정착사업장 초기 모습

서신에 처음 오셨을 때는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땐 농촌에 못 다녀보고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이 모이니까 단결이 세져요. 서신면에서 체육회하면은, 우리 동네 이기는 동네가 없어. 뛰는 거고 축구고 뭐고 우리 동네를 당해내는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텃세가 세.

정착사업 시작할 때는 이 동네가 묘지였다고 하셨죠? 네. 처음에 여기 모여 들었을 때 소나무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산도 전체 산소였어요. 이전에 보여준 집 있는 데 집을 쪽쪽 지어서 방, 부엌 한 칸에서 불 때서 따로따로 밥을 해먹고, 뭐 해서 먹는 거 다 알아. 사는데 참 단합이 잘되고 좋았는데, 살기가 조금조금 좋아지니까 점점 인심이 박해져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나요? 아니. 와서 지었지. 농촌이라 해가지고 지었어요. 큰 돈 내면 두 세대씩 주고, 뭐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줬어. 우리가 서신에 들어왔을 때 면에서 홍법리로 가라 그래서 홍법리로 갔어요. 정해진 집으로 가니까 딸만 아홉을 낳은 집이야,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또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래 아홉이야. 당시에 우리는 3형제야. 내 동생, 제일 밑에 동생, 나 3형제야. 그 집 마루에다 짐을 갖다놔는데, 이불보따리하고 소달구지 갖다놔는데, 아들 셋이라고 안 된대요. 판 집을 가라 그러더라고. 그 집에 가니까 [주인이] 나이는 젊었는데, 딸만 낳아가지고 죽고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어. 그 집에서 또 쫓겨난 거야. 아들이 3형제면 남편이 바람난다고 또 판 집으로 보내더라고. 그 집에 가니까 3대가 앉았는데, 아들은 딱 하나 있더라고. 나보다 한 달 더 먹은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집에서 살았지. 거기서 살다가 매화 3리로 와서 살다가 또 이리[매화 4리]로 왔지. 여기 와서 완전히 터 잡아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업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홍법리에 사시면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9. 기존 지역민과의 관계

웃기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기가 매화 2리 4반이었어. 매화 2리 이장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 동생하고 이장 아들하고 동갑이어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애들이 [동생한테] “너 재 이겨? 재 이겨?” 묻는 거야. 막내 동생이 처음부터 싸우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는 걸로 됐어. 그래서 개가 동생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한 2학년 때까지 그랬나봐. 그러다 한 번은 학교에서 팔씨름을 하자고 그러더라. 이장 아들이 막내 동생을 만만히 보고 팔씨름을 오른손으로 했는데, 세 번을 힘도 안 쓰고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왼손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세 번을 또 이겼어. 그러니까 요놈이 달라붙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저한테 저주지 않고 이겼다고. 팔씨름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2년 동안 쥐어 지낸 생각을 하니까 약이 오른다는 말야. [막내 동생도 같이] 때렸어. 때리니까 이놈이 가서 지 아버지한테 일렸어. 그때 여름이었는데, 지 아버지가 개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는 학교 갔다 온 내 동생을 뒤에서 붙잡고, 지아들보고 때려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조그만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용서하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야. 나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때려주고 그러냐”고 했더니, [이장이 동생을] 꼭 붙잡고서는 [아들한테] 그냥 때리라고. 자꾸만 그러니 이놈이 때리려들어. 내가 화가 있는 대로 나지 뭐야. 그래서 “못 놓겠느냐고. 이장이면 이장이지, 개떡 같은 놈”이라고 막 야단쳐도 아랑곳 않고 때리래.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너 내일부터 학교 가서 무조건 애만 보면 무조건 때려주라”고. “너 이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때려주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니 안 되겠나봐. 딱 놓더니, 아들을 끌어다가 개 손을 내 동생하고 손하고 잡아 주더라고. 잡아주면서 “누구한테 맞으면 말려주고 잘 좀 해 달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이 그래야 정석이지, 당신이 어른이라고 조그만 애들 싸운 거를 붙잡고선 때려주라고

그러면 애만도 못한 저기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장을 하느냐고.” 창피 당했지. 꿈쩍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주머니에서 돈을 몇 푼 꺼내서 뭐 사먹으라고 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이장도 버릇을 가르쳐놔서. 그때가 나 군대 가기 전이지.

당시 홍법리에는 피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니. 홍법리에는 두 집이 갔어요. 한 집은 고개 넘어 홍법 원 동네, 우린 산 이쪽에 있고. 그렇게 살았어. 쫓겨 가고 쫓겨 가서 가게 된 거지.

그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 섞여 살았나요?

그렇지. 여기가 매화 2리였을 때, 텃세 한 번 받은 적 있고. 우리 동네하고 이 너머 동네하고 쌀 계를 만들었어. 두 말 계. 너머 [마을] 사람도 환갑이 되가지고 쌀 두 말씩 갖고 갔었어요. [또 우리] 옆집 노인네도 환갑이었어요. 너머서 쌀을 두 말씩 가지고 왔어. 이 집에서 돼지고기하고 두부하고 차려냈어. 그런데 매화 2리 최○섭이라는 사람이, “쌀 두 말씩 계를 타면서 이 따위로 차렸냐”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환갑 집에서는 “죄송하다.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야단을 치는 거야. 한 달 좀 더 있다가 그 야단치는 사람 사촌이 환갑이여. [우리가] 너머[마을로] 갔어요. 쌀 두 말을 들고 갔는데, 아주 형편없이 차렸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먹게 생겼어. 그때도 나이 몇 살 안 되었지. 내가 “우리 동네에 와서는 잘못 차렸다고 야단치고 그러더니 여기는 잘 차려서 앞에 있는 거냐”고. 한 마디 했지 뭐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같이 간 사람이 냅다 따지는 거야. 그래가 둘이서 야단을 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최○섭이란 사람이 토박이야. 토박이인데 그 따위로 했다가 아주 나한테 망신 톡톡히 당했지. 토박이들이 텃세 많이 했지. 체육대회를 해도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10. 염전 조성과 미국 민간단체 원조

김봉조 씨가 사업 시작했을 때 토박이들도 거기서 일을 했나요? 토박이는 없었고 딴 데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300여 세대가 독을 막은 거예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거의 다 떠났을 때, [독이] 완공이 됐지. 완공이 되었을 때 남은 55세대에 염전을 분배를 한 거야. 한 집에 2,000평씩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고.

독 막을 때 선생님은 다른 일은 안 하시고 그 일만 하셨어요? 나는 딴 사람네 염전에 가서 월급으로 벌고, 아버지가 [독 만드는 일에] 나가셨지. 동생은 나무하다가 나이가 조금 되서 염전 일을 할 만 하니까 또 딴 염전에서 월급 받고 댕겼지.

왜 아버님만 공사일 하시고 선생님은 염전에 나가셨어요? 도저히 못 먹고 사니까, 딴 데 가서 벌어야지. 나는 독 막는 일은 안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 살았을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딱딱 갖다 드렸으니까. 어머니가 움켜쥐고서는 집에 용돈만 쓰고서는 ... 근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어.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셋째 동생은 대학을 가르치려고. 가르치다 힘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시키고는 대학을 못 가르쳤지.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대학 가르치고, 우리 애들 둘 대학 가르치고. 딸들은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독이 한 880m 정도였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메우셨어요? 그거 막을 때 미국에서 기독교 봉사회, 천주교 봉사회, CARE 이런 봉사활동 단체에서 여기 와서 한 달 이상을 영화 촬영했나봐. ‘바다를 밀어낸 사나이들’²⁾이라고. 흙을 지게에 지어 가다 880m를 막고, 내부 공사하고, 수로 놓는 거까지 다 촬영을 했는데. 근데 재

2) 미 공보원에서 1958년에 제작한 공보영화로 ‘Hands that moved the sea’로 고려대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다.

미있는 건, 독이 터져나가는 장면을 찍을 때예요. 이 앞에 있는 도랑을 막고 물이 이빠이[いっぱい] 찰 때 삽으로 터놓으면 확 터져 나가요.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거야, 큰 제방이 터져 나가는 거 같이. 그거 촬영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보여주고, 우리 동네 와서 또 보여주고, 그러고 미국으로 가져갔지. 미국에서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해가지고.

아버님은 건강하셨나요? 독 막는 일을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편안해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강해져.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감기약을 모르고 사신 분이예요. 근데 대장암에 돌아가셨지. 나중에 내부를 편편하게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아버지 대신 나가서 하고. 겨울에는 염전 일을 안 하니까. 여름에는 아버지가 하시고 나는 판 데 가서 돈을 벌고.

독 막는 일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됐어요? 봉사 단체들에서 원조로 들어오는 양곡을 토박이들한테도 나눠줬나요? 한 300여 세대가 했었죠. 일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죠. 명단에 따라서 . 그것도 양심적인 사람은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만 배급받아 먹고,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은 다섯 식구면 아버지 앞으로 다섯 식구, 아들 앞으로 다섯 식구로 올려서 받아먹어.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줬지.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식구대로만 딱 한 거야, 그런 집이 별로 안 됐었나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책임자가 나중에 두어 식구 더 올려가지고 주더라고. 돈은 안 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염전 2,000평씩 분할 받고, 염전 만들고 나온 잡종지를 공동으로 샀죠. 또 염전을 하려면 저수지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집 앞에 저수지도 한 450평씩 받았지.

11.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사업장 명칭이 있었죠? 예. 김봉조 씨라는 분이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철의 삼각지’는 평강, 철원, 김화, 세 군데. 6·25때 전쟁 아주 유명한 데예요. 삼각지 사람들이 자치해서 먹고 사는 조합이라 해서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이렇게 지었어요. 그 양반 일찍 죽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와있지는 않았어도, 위에 돌아다닐 때는 그거를 뜯어내야 되니까 가끔 여기를 오지. 그 울대, 철원 사람이고 인물도 잘생긴 양반인데, 철원 쪽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 아주 찍어놓고 당선인데 그냥 죽어버렸어. 동네에서는 우리보고 ‘공산조합’이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빨갱이 도와주냐”고 ‘공생조합’이라고 그랬지. 공산조합 아니라고.

300세대 중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중간에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는 집이 두 집 남았지. 처음에 온 사람은 아니고 2차에 온 사람들일 거야. 300세대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왔으니까. 2차나 3차에 들어온 사람들은 철원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다 살기가 곤란해 지니까 배급 받아먹고 살려고 들어온 것들이 있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사람도 있고, 함경도 사람도 있고. 각처에서 온 사람 다 있지.

12. 공동 축산의 시작과 임야 분할

우리 동네 남자들은 염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물독에다 물 떠다놓고 바가지 얹어놓고 장단 추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일이야. 내가 스무 살 넘길 즈음이었는데, 동생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보

니까,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경기도 포천 쪽에 있는 마석이라는 데 갔어. 갔더니 소를 많이 먹이더라고요. 셋째 동생이 소를 먹이던 창고가 있었어. 애가 32만 원을 주고 소를 한 마리 사다 났어요. 그때 32만 원이면 한 중소 정도 되었어요. 소를 사다놓고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서신에 사료가 없어. 사간에 가서 [보니] 사는 사료가 있더라고. 사료를 보니까, 소가 우리가 피난 나와서 먹던 거보다 더 좋은 걸 먹어. 그래서 사간 가서 그걸 사다가 먹이는 거야. 근데 처음에 많이 먹이면 설사를 해. 조금조금 늘려 먹여야지. 한 보름 지나니까 설사도 안 하고 먹기 시작해. 달여서 먹이는데 한 달 좀 되니까 살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석 달이 되니까 순전히 풀만 먹던 소인데 거구가 돼서, 동네 사람들 구경을 시키는 거야. “요거는 사온 지 얼마 되었는데 사료를 한 끼에 얼마씩 준다.” 그 다음에 사료 달아서 먹이던 저울[을 보여주면서] “달아 먹인다”고. 이렇게 구경을 시키는 거야. [소는] 혼자 먹여가지고는 안 돼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구경을 시키면서 “아주 잘 자라지 뭐요? 살도 잘 오르고, 얼마 주고 산 소인데, 사료 값이 얼마, 이자가 얼마, 남은 돈이 얼마 남았다”고. 이자, 사료 값, 원가 다 제하고도 되레 더 많이 남았어. 그 다음에는 동생하고 나하고 소를 막 사는 거예요. 외양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좋다. 너희들이 먹이겠다면 먹이게 해주마.” 그래서 농협 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서 소를 먹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농협 수익을 올려줄 테니까 개인 대출 좀 해다오.” 동생하고 나하고 보증을 서구서, 동네 사람들 100만 원씩 대출을 다 해줬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소를 사는 거요. 소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차에다 실어 오는데 한 마리 싣고 오면 운임 때문에 ... 그러니까 몇 집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운임은] 마리수로 받는 게 아니라, 한 톤에 얼마씩 주니까, 싸잖아. 장날에 가면은 하루에 몇 집이 사고, 팔 때도 이번에는 누구네, 누구네, 누구네 몇 집이 판다 해서 나가고, 농협 차로 다 나가는 거예요. 79년도 당시에 서신 농협이 수익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송산 농협으로 합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작 해가지고 화성군에서 2등을 했어. 그래서 조합장이 소 먹인 사람들 다 불러놓고 회식을 시켜 줘. 2등한 우승기 걸어놓고, 서신 농협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 우리 동네 사람들도 잘살게 만들어 주고. 그 바람에 보상 탈 때 내가 이행각서 받기가 편리했죠.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동네 집터, 뒤에 밭들이 다 개인 등기가 없어. 그냥 집 짓고 살면서 힘닿는 대로 파 같은 거 좀 심어놓고 그래. 그거를 등기를 내려니까 등기를 못 내. 전체 등기는 있는데, 조합에서 사택 입구, 이렇게 할 때는 김왕공 씨라는 분한테 공급 땅에서 절반을 샀어요. 샀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놔서. 내가 등기를 내는데, 임야는 600평 이하는 분할이 안 돼. 그래서 셋째 동생하고 나하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수원 법원에 다녔어요. 필지 수가 170 몇 필지가 되니까, 하루에 한 필지씩 쳐서 받는단니까, 6개월 동안 재판을 했어. 사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법원 서기로다가 평생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도의원 출마를 하려고, 셋째 동생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셋째 동생은 당시에 화성군에 이북 5도민 사무국장이야. 그러니까 이북서 나온 사람들은 다 통하는 거야. 이북 5도민이 밀어만 주면 무조건 당선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동생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동생이, “그럼 당신이 날 무얼 도와주겠소?” 그러니까는 말만 하라는 거야. “우리 동네 분할 하려고 그러는데, 600평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되서 못한다. 그걸 좀 도와주소.” 그러니까, “좋다. 내가 그거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나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한 거야. 동생이 그거[선거운동]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차이로 당선이 되었어. 경기도 의회 의장까지 지내고. 조건을 걸고 된 거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냐? 법원 판사들한테 가서, “내 이러이러해가지고 당선이 되었는데, 니들이 나 좀 도와다오.” 판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재판하니까 무조건 승인을 내주는 거야. 마지막 날, 부장판사가 불러. 갔더니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다 등기 내는 걸로 판결을 해주었으니까, 화성군청에 가서 너희들 알아서 해

라.” 재판을 그렇게 했어도, 군청에서 막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군청에 가서는 네가 저기해라”하고 나는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지구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부군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다 분할 해줬지.

분할하기 전에는 공생조합 앞으로 등기되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등기 이전도 못했던 거요. 김완 씨라는 분이 이 뒷동산을 다 샀어.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참 고지식하고 양심적인 노인네요. 그 양반이 하루는 나보고 하는 소리가, “왜 새마을은 등기 이전을 안 해 가? 나 죽으면 우리 자식들 꺼 돼.” 우리 동네를 새로 생긴 동네라고 ‘새마을’이라 그랬어. 공생조합이라고도 그러고, “빨리 해가.” 그러더라구.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서둘러서 평당 얼마씩 건고, 법원에서 이겨서 분할해준 거야. [우리 형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일은 절대 할 게 아냐. 뒤에서 칼날을 들이대. [자기가 이득을] 먹으려고.

13. 염전과 저수지 분할과 매화 4리의 형성

여기 들어왔던 300세대 중에 1차 때 온 사람들은 얼마나 됐어요? 원조 집은 몇 집 안 돼요. 한 대여섯 집 되나?

땅도 등급이 다 다른데 어떻게 분배했나요? 염전도 A급, B급, D급 해놓고, 공사를 다 할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55명 출석률이 누가 제일 좋은가, 힘든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했나, 이것을 기록해 놓은거야, 나이 먹고 수월한 일 한 사람은 등급 낮은 염전, 일 최고로 많이 한 6명은 [어디], 그 다음 사람은 어디, 그 다음 사람은 어디, 이래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야로[비리]가 있어. 직원들하고

잘 통하던 사람들은, [좋은 염전에] 갈 수가 없는데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직원이라면 김봉조 씨가 만든 연합회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중구난방이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는 1등 먹었고, 6명이 1등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판대요.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 택시를 사준대. 그 사람이 논이 또 있었어. 내가 그 사람보고 “팔려면 논을 팔아라. 논을 사줘가지고 잘되면 모르지만, 안 됐을 시에는 논만 날리는 ... 염전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염전을 팔아야 된대. 그래서 염전을 사는 데 내가 돈을 다 썼죠. 다섯 집보고 “다른 데 넘어가지 않게 다섯 집에서 사자”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우리보고 사례. 그래서 내 돈을 다 써서 사가지고 등기를 공동으로 내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일도 해주고 그랬는데 말짱 팡이야.

그때 받으신 염전은 아직 가지고 계세요? 판 지 오래되었어요, 그거는 팔았고, 70만 원 주고 산 염전은 이번에 사기당한 거고 등급이 한 D급 되고, 그 전에 받은 거는 A급 되고.

염전 2,000평 받으실 때는 등기를 확실하게 하신 거죠? 그때는 대표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 여섯 명 치를 내줬어. 여섯 명 해놓은 걸 나중에 다섯이 사니까 등기를 고쳐야 하잖아. 내가 쫓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개개인 등기를 다 고쳐줬지. 저수지도 한 사람 앞으로 있던 거 전부 다 분할 등기해주고, 동네에서 뭐 저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분할 안 한 사람들은 혼자 다 갖고 있어요. 한 3,000여 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앞으로 있던 저수지를 분할을 안 해주고 염전만 팔아먹고 갔어. 저수지는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죽었으니까, 한 60여 년 되었으니까 법으로도 되는 거니까.

염전 받으신 후에는 그 염전에서 일을 하셨어요? 탄 데 다니면서 계속 버는 거지. 아버지는 거기 댕기시고. 나는 탄 데 다니면서 월급 생활하면 좀 낫고. 그러다

가 70만원 염전 사면서 나는 여기 다니고, 아버지는 거기 들르시고.

1970년대 초반에 이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을 했나요? 새마을운동 많이 했지요. 동네에서 웬만하면 고치고.

마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장은 왜 안 하셨어요? 셋째 동생이 했지. 동생이 매화 4리를 만든 거예요. 매화 2리로 있었는데, 차별이 있어. 새마을 사업이든, 세금이 나오든, 뭐든지 여기는 안 해주고 토박이들 있는 데만 해 줘요. 그래서 동생이 매화 4리로 고치려니까 쉽게 되지를 않아. 내무부까지 가야 돼요.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분할이 되더라고. 그때 공화당 사무부장인가를 찾아가서 얘기하니, 그 사람이 내무부로 연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4리가 되었지.

처음 분배받은 염전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있지.

14. 염전 매입 과정

한 번은 [처음 분배받은 염전을 가지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염전을 판다고 그래. 근데 염전이 아주 좋지는 않아. 염전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어요. 그 집 [소금가게] 소금 포장을 하러 갔는데, [나한테 염전을] 팔아달라고 그러길래 우스갯소리로 “내가 사죠.” 이랬다 말이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보고 사라고 바짝 달라붙어. 돈 없다 그래도, “사든지, 팔아주든지 해라”고. “그냥 받아 달라”고. 자꾸 사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보고 “염전 4,000평짜리인데 살까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사느냐?”고, “미친 소리하고 있다”고. 아버지도 “저거 나무 하러 가기 싫으니까 수작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나무를 떼야 하니까 나무를 계속 해왔거든. 이튿날 또 [염전 주인이] 사라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보고 “돈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고. 겨울 용돈 쓰려고 만 원 남겨온 거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때 쌀 한 가마니에 한 3,000원 했나? 그렇게 할 때 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냐”고. “그 만원 달라”고. 안 주면 그만인데, [어머니가] 얼른 꺼내 주시더라고. 일이 될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만 원을 갖고 염전 사라는 집에 갔어. 갔더니 70만 원을 달래. 만 원을 가지고 70만 원짜리를 사는 거야. 계약금 만 원을 줬어. 계약서 쓰고 잔금은 한 달 만에 주기로 계약을 하고서는 들어왔어. 계약을 하고 나니까 날짜가 왜 그렇게 빨리 가? 그냥 금방 가요. 그래서 25일이 되었어. 이제 닛새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것도 없지 뭐. 돈 만 원만 날렸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다 또 이틀이 후딱 지나갔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내가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은 거야. 가만히 조반을 먹고서는 있다가 어머니보고 나 차비 조금만 얻어다 달라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몇 백 원 얻어다가 주더라고. 그 돈을 가지고 동두천에 우리 고모네에 갔어. 고모네 가니까, 평소애 아무 저기도[연락도] 없는데 갔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고종사촌 형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고모하고 형이 있는 데서, “내가 지금 서신서 저 염전 2,400평 가지고 먹고 살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염전 4,000평짜리를 돈 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만 원까지 날리게 생겼다. 그러니 돈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고종사촌 형이 70만 원을 얼른 주는 거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 형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동두천 28사단 사령부 앞에서 철물 장사를 했어요. 돈을 긁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주는 거야. 받아가지고 난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자고 가야지. 벌써 가느냐”고. [통장에] 부치는 걸 모르니까 현금으로 가져가려니까 주머니 여기[배]에 차고서는 무지 애먹으면서 난 간다고 그러니까,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 나 가야 한다고 그래[그냥] 왔지 뭐요. 만 원을 계약금으로 있으니까 69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냐? 69만원을 딱 줬지. 주고서는 집

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보더니 [내가] 아주 기분이 좋지 뭐요. 싱글싱글해서 오니까, “어떻게 되었냐?” “갸았어요.” “네가 어디 가서 그 많은 돈을 구했느냐”고 끝이 들리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다 갸았다”고. 그리고 만 원을 꺼내서 겨울에 쓰라고 드리니까, 그때서야 믿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염전] 샀는데, 그 사람이 월급을 주고 판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염전이 말이야. 아주 형편없고. 염전도 일을 해야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나, 바로 밑에 동생, 셋이서 겨우내 일을 했어. 염전 뜯어고쳐서 소금을 내는데, 70만 원을 장마 전에 다 벌었어요. 되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소금이 싸던데, 그해 소금 값이 곱으로 올랐어. 또 소금의 2/3는 더 났어요. 짬 없이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70만 원 금방 해가지고서는 그 날로 바로 가지고 간 거야. 갔더니 형이 “벌써 가지고 왔느냐”고. “돈 되었길래 금방 가져왔다”고. 그때는 이자가 1할인가 그랬어. 그래 70만 원을 1할 이자 계산해가지고 딱 가져갔더니, “내가 미쳤느냐고 너한테 이자 받아 먹으려고 왔느냐”고. 이자를 안 받더라고. 그렇게 갸았지. 그대로 꾸준히 살다가, 내가 한 6~7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MRI 사진 찍고, CT 촬영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하나도 보험이 안 돼.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71년도인가에 브로크[벽돌] 짚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브로크가 노후화되어가지고서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집을 또 지어야 되잖아. 70만 원 주고 산 염전을 평당 35만 원씩으로 팔라고. 도저히 감당을 못했으니까 팔려고 하는데, 안 되려니까 사기꾼이 달라붙은 거야. 2,500평을 팔았는데 내가 병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이놈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서는 등기 이전을 해 달래. 35만 원씩 2,500백 평이면, 5억 몇 천만 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을 해주면 그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다 준다고. 정신없이 알아서 헛소리하고, 얼른 해줬네. 그러니 사기를 당했지 뭐요. 양도소득세를 갸아야 되는데, 이놈이 돈을 쥐야 갸지. 그러니 양도소득세 바람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집도 압류되어 있어.

15. 잡종지 분할

잡종지는 55명 공동지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요. 그 하천이 국유지가 아니고 55명 소유주가 있는 개인 소유인 거지. 그런데 40년 전에 위조 인감으로 12명 앞으로 등기를 남겼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확장공사하면서 보상금을 준다고래 알아보니까, 날짜로부터 40년 되어서 그냥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보상을 12명만 타 먹게 생겼어요. 43명이 없어졌어. 내가 쫓아다니면서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알아보니까, 법에서도 안 돼. 고생을 죽도록 하구선 12명이 찾아먹으면 한 사람이 8·9,000만 원씩 찾아먹게 돼요. 아깝잖아. 내 돈 들어가면서 3년 동안을 사방을 쫓아다녔어요. 수원 법원 김선봉 변호사한테 갔어. 이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이야. 이 양반이 “너희 40년 동안 뭐했냐”고.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고. “너희가 인정해준 거 아니냐”고. 법으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며 돈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고기나 사먹고 가만히 있으래요. 거기 찾아갔다가 그 소리 듣고 그냥 나왔지. 이튿날 그 변호사한테 또 갔어. “꽤 끈덕지다. 오지 말라니까 또 왔느냐? 불일 있다”고 도망을 가버려. 하루 묵어서 또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자꾸 오느냐? 법으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자꾸 찾아오느냐”고.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말도 안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12명한테 이행각서를 받으래. “근데 누구도 이행각서는 안 해줄 것이다. 당신 수단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거 받지 못하면 포기 하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이런 방법이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왔어. 12명 중에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돼. 우선 그 사람들을 먼저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두 명밖에 못 만났어.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행정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행각서를] 만든 거지. 두 사람 이상 데리고 갔다가 서로 또 반대할까봐. “사실은 55명의 땅인데 관리하기 편리하

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사실은 내 땅이 아니고 55명의 땅이다.” 각서를 쓰는 거야. 인감을 첨부해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가서 받고, 여섯 명인가 받으니까 나머지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공갈 협박을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들 이거 해준 게 증거가 되는 거다. 너희 여섯이 제방 막았느냐?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너희가 졌을 때는 너희가 [소송비용] 물어라.”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했어. 그랬더니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 또 하나 해줘. 하나하나 해주더라고. 그러다가 이복서 나온 조석구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도 안 갔고 죽지도 않았는데, 행방불명이 됐어. 그 사람 떼어놓고 열한 명인데, 한 사람은 당시에 여기 소장으로 있던 사람의 아들인데, “이건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나한테 상속해 준 거다.” 이러고 못해준대. 또 하나는 대학 나온 사람인데 법을 좀 안다고,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안 해주는 거야. 시간을 넘기려고. 그걸 해달라고 쫓아다녔어. 9명한테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안 해줘. 나중에 딱 3일이 남았어. 3일만 지나면 돈이 그리로 나가. 혼자 찾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55명 중에 수원서 개인택시를 하면서 깡패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개한테 전화를 걸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안 해준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금방 왔어. 안 해주는 사람이 의왕시에서 부동산을 해요. 그 깡패 같은 사람이 나보고, 잡아가지고 갈 테니까 시청에 가서 기다리래. 알았다고. 나는 시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왕 가서 부동산을 다 뒤지는 거야. 마지막에 문을 잠그더래. 나와서 “내 차 타.” 택시를 타라고 그러니까 “내 차 타고 갈 테니까 앞에 가라.” 그러더래. “내가 너한테 속아 넘어갈 어수룩한 놈으로 봤냐? 너 뒤따라온다고 그러다가 내뺄어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긴데, 내가 그대로 갈 거 같았냐? 일보고 너희 집까지 태워다줄 테니까 타라.” 끌고 왔더라고. 보상계에서 협의서를 써야 돼. 협의서를 안 쓰면 돈이 그 사람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은 본인한테로 안 가고 아무개 통장으로 쥐도 좋다는 거를 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떼야 돼. 보상계

데리고만 오면 어떻게 하냐고, 협의서를 받으라고. 깡패 같은 애가 끌고 와서 협의서를 쓰겠느냐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쓰더라고. 인감은 시청에서 다 떼더라고. 도장도 찍으래. 도장을 주면서, “도장은 네가 찍어” 그래가지고 도장 찍었지, 그래서 그걸 다 나눠줬어.

보상금은 그 이튿날 바로 나왔어요? 네. 그놈이 1년을 끄는 바람에 이자가 늘어가지고 8억이 돼. 늘더라고요. 그걸 받아와서 싹 나눠줬지, 나눠주고서는 그 변호사를 찾아갔어. “참 고맙다고, 알려주신 바람에 보상받아가지고 잘 찾아서 나눠줬다고. 하도 고마워서 점심이라도 대접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받았느냐”고. 그러더니 되레 나한테 커피를 사줘.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16. 동향 출신과의 결혼과 고향 생각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일찍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했나봐. 광평 이장이 쌀 600여 가마 가지고 날랐을 때, 우리 어머니가 화병이 생겨서 무슨 약을 해도 듣지를 않아. 동네에서 전부 다 돌아 가신다 그랬어. [우리가] 전부 다 남자들이고, 누님은 시집가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거는 조그맣고, 하다못해 냉수 한 물을 떠다 드리려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남자들은 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일찍 했지.

사모님도 같은 고향 출신이시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철원 사람이예요. 면이 달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기가 어렵지. 한 동네서 사니까 “갈래요[결혼할래요]?” [아내가] 간다고, “그럼 와.” 그래 결혼되는 거지.

면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여기 [사업] 할 때 들어왔으니까.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일흔아홉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년 됐나? 어머니는 아흔여덟 되셨어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산소가 뒷산에 있는데, 거기도 올라가시고. 어머니도 고향 떠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노무대 끌려가서 전혀 소식이 없었거든. [우리는] 전라도 나주에 있었는데, 거기 무당 하나가 참 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피난 간 사람들이, 가족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달에는 온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달에 와. 참 귀신같은 거지. 어머니도 거기 가서 점을 했어요. [아버지가] 오신대. 근데 동지가 돼야 오신다는 거야. 동짓달 보름날이 동짓날이에요. 근데 동지가 하루라도 지나서 오시면 완전하고, 동지가 하루래도 안 지나고 오시면 좀 쥘끄러운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식도 모르고 전쟁판에서 떨어졌는데, 오신다고 장담은 못 하잖아. 근데 동짓날 한 10시쯤 되어서 찾아오셨어. 무당이 그렇게 용한 사람이 없어.

아버님이 오셔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렇지. 근데 아버지는 휴가증을 가지고 오셨다고. 보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휴가증은 [전역에] 해당이 안 돼.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제대증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집에서만 꺼렸지, 제재 받지는 않았어. [그래도 아버지는] 어디 가서도 검문 당할까봐 항상 마음을 졸이셨지.

염전 받으실 무렵에는 고향 북면까지는 못 가셔도, 철원에는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철원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일하느라고 월정리에 한 번 가봤어. 공화당 때 당에서 한 동네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월정리 땅굴에 갔었지. 당시에 이병희가 수원 화성군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예요. 그래서 당선되었던 사람. 월정리에 가보니까 폭격 맞은 기차 화통도 역전에 세워놓고 고 앞에다가, ‘철

마는 달리고 싶다' 이렇게 써 붙여왔고, 우리 살던 동네 보니까 잡초만 우거져있더라고.

월정리 역에서 그 동네가 바로 보여요? 예. 월정리 역에서 곧장 가면, 비무장지대 경계선이 만약에 [경계선이 곧게] 갔으면 고향이 마을이 보일 수 있는데, 하필 구부러져있더라고. 그 주변에 우리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요. 사촌들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고 큰아버지가 세 분이 계시는데도, 큰아버지 세 분이 천상 막내로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 큰아버지 세 분이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사촌들이 전부 다 동생이여. 우리 아버지가 막내이신데도, 내가 지금 일흔일곱이고, 우리 동생이 일흔다섯이고, 둘째 큰아버지네 사촌이 일흔네 살, 맨 막큰아버지네 사촌이 일흔세 살. 한 살, 한 살 이렇게 차이나고, 셋째 큰아버지 자손은 이제 예수대여섯 살 되었나? 다 막둥이로 아들 하나씩 낳았어.

사촌 분 중에 여기 오신 분은 없으세요? 서로 떨어져 살고, 여기저기 있다가 안 오신 거지. 피난 나올 때 헤어져서 나왔으니까. 큰집들은 김제로 갔었어요.

큰집은 지금도 계속 김제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막큰아버지네 막내아들은 대전 살아요.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네 아들네는 여기 한 동네에서 살고, 사촌은 죽고 제수씨가 혼자 살고, 조카애들은 직장 따라서 나가 살고.

둘째 큰아버님은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되었어요? 대전 살다가, 예산 가서 살다가, 우리가 여기 데려왔지. 그리고 셋째 큰아버지네는 의왕 살고, 다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지.

철원에 가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가고 싶지.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비행기 폭격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할 게 없잖아.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나가서 돌로 방공호를 파봤어요. 폭격하니까 거기 살았지. 거기서 좀 나가면 남해보라

는 그 수리조합에서 [만든], 물 내려가는 큰 개울물이 나와. 장마가 안 질 때는 발 걷고서 건너가는 데가 있고, 깊은 데는 몇 자 되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고기가 많아. 나이가 어려서 일도 못하고, 밥만 먹으면 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 거요. 옷도 하얀 옷은 못 입어요. 비행기에서 눈에 안 띄게, 오래 입어서 때가 까맣게 반들반들한 옷을 입는 거야. 싸리나무 [손으로 묘사하며] 이 정도 굵은 걸로 낚싯대를 만들면 딱 요만해요. 거기다 추 하나 하고 낫도 한 개 달아요. 돌 위에 앉아가지고 새우를 끼워서 [낚시]하면은, 물속에서 꺾기 [꺾지]가 ... 꺾기가 1급수에서 사는 거예요. 물어 흔들어. 그렇게 잡으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4, 50마리씩. 한 번은 거기다 약을 풀었어요. 개장금이라는 나무뿌리를 막 짓쪼으면 뽀얀 물이 나와요. 그걸 개울에다 쏟으면 그 물이 내려가는 대로 고기가 전멸하는 거지. 잉어들이 이따위 [큰] 돌을 뚫고, 그때 철원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낚시는 다시 못하게 됐네요? 그럼, 한 2km, 3km 내려가면, 넓은 개울에 고석이 많아. 전부 다 까만 곰보돌이야. 왜 곰보돌이냐 하면은,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울 때 도읍지를 짓는 거요. 우리 살던 월정리에서 한 정거장 올라가면 가곡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궁궐을 짓는 거예요. 아까 말한 광산을 향해서 짓는 거요. 중이 지나가다가 “왜 북쪽을 향해서 짓느냐?” [궁예가] “명당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다.” 중이 “금학산을 보고 남쪽을 향해 지어라.” 그러니까 궁예가 아니라고 고집 쓰고 그렇게 지었대요. 그랬더니 “3년 안에 여기 바윗돌이 전부 다 좀 먹어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3년 안에 그 많은 돌들이 좀 먹어가지고 고석이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궁예가 먹던 우물, 돌로 해놓은 우물이 있어요. 바가지 물인데, 그건 세상없이 가물어도 물이 줄지를 않아. 그게 궁예가 먹던 물이래요. 철원 위에 월정, 월정 위에 가곡, 가곡 위에 북개, 북개 위에 평강 기차역,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셋째 동생 분은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그분이 이북 5도청 사무국장하신 거죠?
여기 살아요. 사무국장 했으니까, 당시에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동생한테 참
많이 찾아왔지. 이북 5도민만 찍어주면 무조건 당선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
마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지.

동생 분은 지금도 염전 일을 하시나요? 응. 염전이 4정보면 12,000평인데, 그걸
혼자 해요.

그 염전이 처음에 사업 끝나고 분배되었던 염전이에요? 아니. 여기 염전은 많으
니까.

선생님은 처음 받으신 염전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팔았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염전 못 하시고, 나는 산 염전을 하니까. 나는 이거를
팔자 그랬고, 부모님들은 “그걸 팔아라. 생산이 잘되더라도, 평수가 좋은 걸 팔아
라. 나중에 가격 올라가면 평수 많은 데는 아무래도 낮지 않느냐?” 그렇게 못 팔
게 해가지고 다른 걸 팔았지. 그거를 왜 팔았냐 하면은, 애들 셋을 가르치다보니
까 항상 빚을 졌지.

17. ‘6시 내고향’ 촬영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나기 전에는 발음도 좋았고 ... 예전에
김수향 리포터하고 이형걸 아나운서하고 여기 와서 ‘6시 내고향’ 촬영했어요. 방
송 한 번 나가니까, 그거 보고서 계속 찾아오더라고. 그때 이북서 나와서 소금해
가지고 성공해서 먹고 산다는 거. 소금 포장해 놓 것도 보여주고, 팔각정에 모여
서 인터뷰도 하고. 또 염전에 모여 앉아서 새참 먹는 것도 찍고. 많이 찍었어요.

촬영은 언제 했어요? 연도는 모르겠는데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사람 같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방해를 했어. 그 사람 장인이 “저 새끼 좀 끌어내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촬영한 기억이 나요. 일행이 여기서 소금도 먹어보고, 앉아서 문답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
김
◆
이
◆
곤
∴

❖ 김이곤

1944년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동 출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망월동으로 피난
1960년	가출
1962년~	장흥에 '건설단'으로 강제 이송, 고마 사업장 반장
1966년	고마 사업장 준공
1967년	고마 사업장 농지 분배
1970년~	분배 농지 매도 후 광주로 이주·생활, 속초에서 생활, 제주도 밀감 장사
1978년	현 부인과 결혼
현재	광주에서 부인과 식당 운영

1. 유년 시절과 국토건설단

태어나셨을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내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후문에 계수부락에서 태어났고, 일찍 조실부모를 했어요. 아버님한테 들어본 바에 의한다고 하면은, 한 두어 살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계모 밑에서 자라나다 본게 모든 가정사, 생활 상태가 암만해도 고르지 못했겠죠? 그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 살아남다가, 나이가 한 열살이 넘어서 보니까 친구들은 학교 가고 나는 학교를 못 가고, 저는 부모덕이 없어서 그랬던가, 내 복이 없어서 그랬던가는 모르겠지만, 학교 안 나왔습니다. 내가 나이는 어렸지만 방탕생활을 했다가 운동을 좀 했었어요. 학교를 안 다녔을 때, 내가 어매 아버지한테 10원 한나를 안 갖다 썼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무지허니 길고 험해버려. 태어나서부터 내 긴 가정사 모두를 이렇게나 말씀드려야제. 인자 그거[정착사업장]를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드리면 되겠죠?

부모님 얘기도 해주시고, 전쟁 겪으신 이야기도 해주세요. 일곱살 먹어서 내가 무엇을 좀 알겠더라구요. 그때 여그 삼거리[광주야구장] 후문에 군대 포병학교가 있었어요. 전라남북도에서 전부 다 군대 간 사람들 면회를 왔었어요. 당시에는 배가 고프니까 면회 와서 군대 간 사람들에게 장사를 많이 하는데, 나는 어려서 그 장사를 하다가 돈 벌어서 어매한테 갖다 드리고, 옷도 사 입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군대 천막 치는 뽕뽕한 걸 찢어가지고 바늘로 꿰가지고[꿰매서] 걸치고 다녔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라나다, 철이 들어서 집을 뛰쳐나오게 됐죠. 집을 뛰쳐나올 때가 18~19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부모님이 선생님을 잘 돌보지 못하신 건가요? 내가 일곱살 먹어서부터 돈 10원짜리라도 벌어다가 부모 드렸으니까. 어머니한테건 아버지한테 신발 한 켤레 얻어 신은 일이 없고, [부모님이] 옷 하나 사줘서 입은 일이 없고, 10원

짜리 돈 얻어서 과자 하나 사먹은 일이 없고. 내가 철이 들고 본게, 맨날 집에서 나무나 하고 일이나 하고 당겨서 안 되겠더라고요. 시내 땡기면서 나 혼자 자수 성가해서 운동도 어깨 너머로 배워서 많이 연습을 했고. 이승만 씨가 정치를 했을 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승만은 미국으로 내뺐버렸거든요. 박정희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년 7, 8개월 있다가 김종필 씨가 전국에 깡패들 소탕작전을 내려버렸죠. 왜냐면 그때는 천변 미루나무 밑에서 빵 팔고 이럴 땐디, 골목마다 조금 큰 사람들이 좀 어린 사람들 잡아다가 바지 뒤져서 10원짜리 나오면 뺏아서. “깡패들 요리면 국민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해서는 김종필 씨가 깡패들을 소탕했어요. 그러면 나 같은면은 운동하고 오다가 붙잡히는 그런 심사가 되어부렀다 이겁니다. 공계 [형무소에] 들어가 부렸죠. 100~200명을 형무소에 넣어놓는데, 일본 사람들이 36년 간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형무소 짓어 [지어] 놓은 게 몇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겼느냐? 그럴 것이 없이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서] 일을 시키자.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간척지에 갖다가 일을 시키다 [바다가] 막어지면은, 세월을 흘리게 되면은 그거[간척지]에 염기가 빠지고 거기서 곡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아니냐?” 당시는 배고픈 시절이라, “그럼, 그렇게 하자.” 했던가 봐요. 우리는 몰랐지. 건설단 명칭을 ‘국토건설단’으로 붙여가지고, 차에다 싣고는 모르고 가다 본게 어디 섬에다가 때려 퍼붓더라구요. 근데 섬에 자초, 시초가 나옵니다. 첨에 가서 잠잘 데가 없죠. 장흥 관산면에서 좌측으로 쭉욱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노대진 씨가 사는 데가 장환도, 고마섬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데가 고마1구, 저 안에 장환도라는 데가 고마2구, 윗[위틀] 막아갓고 설비한 고마3구. 3구는 사람이 몇몇 없어요.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다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없는데. 섬에다 퍼놔버렸는디, 잠을 잘려니 잠 잘 데가 있을까, 밥을 먹으려니 밥 먹을 데가 있을까? 없잖습니까? 그러는디 군대에 있든 천막을 한 대여섯 개를 쳐놔더라구요. 천막에서 잠 잘 수가 없으니까, 짚으로 짠 가마때기 깔아놓고

거기서 자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잘려고 하는데 두께[덮을 것]가 있어야죠.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군대 훈련받은 과정에서 덮고 자는 빨도 않은 이불이 [몸을] 꼬 부렸다 피는 때가 한 번씩 벗어진다고. 고놈도 새 نوم이 아니라 떨어져 쪼그만 걸 갖다놓고 덮은디. 솔직히 말해서 돌아댁기던 사람들이 고려고 거시기를 한 게 참 - . 짐승으로 본다고 하면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죠. 거기서 잠을 자는디 아주 썩은 냄새가 났었고. 한 3일인가 잔게 저녁에 비가 쏟아져버렸더니, 침병침병 물이 요 정도[누웠을 때 등이 잠길 정도] ... 근데 비 방침[비막이]을 해놓고 다이루[タイル, 타일]를 올려놓고 헐 여건도 없고 없으니까, 물이 차오르면 잘 수가 [없고] 물이 여까지 차부리고, 이런 난관이 되더라구요. 한 7, 8일 딱 지내니까 배가 미국서 함석이고 뭐시고 신고 들어오더라구요. 옥수수 가루, 밀가루, 빠다 한 되 정도 되는 통, 이런 것을 신고 들어오더라구요. 당시에 세멘을 갖다가 보로꼬[시멘트블럭] 찍어서, 수가 많은게 금방금방 대충 지어가지고 함석을 엮고는 그 위에서 잠을 자게 됐고, 식당으로 임시 조치로 지었다가, 날짜상으로 조금 흐르니까 식당을 크게 함석으로 지어서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2. 한국전쟁 피난 경험과 가출 이후의 생활

형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위에 형님들이 둘이, 누나 한 분 내가 막둥이 아들로 됐어요. 지금 누나는 울산 가게시고 그 우에 지금 76살 자셨고. 무서워서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나무나 해 나르고. 그 어린 것이 거 나무했을 때 얼마나 거시기 되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조금 머리가 괜찮았던가벼. 그래서 내가 어떤 머리가 돌아갔던가. ‘내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이런 짓거리해야 쓸 것이냐?’ 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 싸고 새벽 2시에 신도 안 신고 튕겨쳐 나와 버렸거든요.

그게 6월 달쯤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배추밭에서 배추 복용 좀 하고, 또 가다가 감자밭에서 복용 좀 하다가. 천한 인간이라 어찌 죽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답니다.

그때가 몇 살 즈음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집에서 나올 때가 내가 열일곱(17)살인가 열여덟(18)살인가 그 정도 되었을 것ियो.

그 전까지는 일하시고 돈 벌어서 다 부모님 드리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옷 한나를 사준 일이 없고, 신 한나 사준 일 없고.

주로 무슨 일 하셨어요? 전쟁 끝나고서 혹시 구두닦이도 하셨어요? 구두닦이는 안하고요, 집에서만 일을 했죠. 그때 내가 10살이나 될 거요. 그때는 막 비행기가 폭격하고, 논에서 일하든 막 논에 일하는 사람 때려서 일 못히고, 일등도로가 다리 잘라버리고, 상무대 철거 다 해 불고 비행기로 다 조져불고, 석곡 망월동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1년인가 있다가 다시 유덕동 와서 있다가, 내가 튕겨쳐 나가부렀죠.

전쟁 때 댁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집 여기 유덕동 계숫부락. 요 아래.

거기였는데, 전쟁 터지고서는 망월동으로 피난을 가셨었어요? 그렇죠. 공께 열(10)살 때, 열한(11)살 때 고로 피난을 갔죠. 망월동 파출소에서 내가 보초를 섰죠. 그때 열다섯(15)살 정도 되면은 밤이면 빨갱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낮에는 대한민국 노래를 불러야 되고. 밤에는 빨치산 나라가 되고 낮에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되고 그러죠. 당시에 우리나라가 썩 점령이 되어부러갔고 부산만 남아 있었죠. 부산서 미국 거시기를 받아서 거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탱크가 앞에 전진해서 들어왔죠. 6·25 때 기억은 내가 생생허니 기억을 다하고. 6·25 때에 그 빨갱이들, 이북 사람들이 사람을 안 죽였어요. 나하고 심바람하면서 같이 앉아서 닭, 돼야지 잡아놓고 잡아서 펼쳐놓고, 그것을 막 썰어서 꾸어먹고 썰어먹고. 왜

그나름, “우리 동족끼리 죽이지 말란 말이여.” 그 사람들이 총을 메면 질어진게 [기니까] 요러고 들고 땡게. “그럼 어떻게 해서 왔냐?” 물어보니까, 학교를 나갔는디 추력을 대놓고 무조건 나오라 해서 나온게, 줄 세워놓고는 차에다 막 실어 불더라 이거여.

북한에서 그랬대요? 예. 신고는 어디로 가든지도 모른디 가갖고는, 총을 주고는 그냥 따라가라고. 좀 늦으면 총으로 막 뚜들겨서 그러고 왔다는 것이여. 근디 사람을 많이 희생을 하고 죽이는 것은 지방 폭도들이여. 저그서 밀고 들어와서 부락에 들어오면은, 자기 사람 만들어야 할 것 아냐? 당시에는 없는 세상이라 약 80%는 학교 못간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농사 좀 있는 녀의 집서 머슴살이를 한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것이죠. 공께 이북서 온 사람들이 외려 그런 사람들에게면 면이면 면, 부락이면 부 책임을 줘버렸어. 그 사람들이 수건을 찢등 매고는 총 들고 가서는 [주인집] 식구들 다 꼬집어다 묶어갖고는 그냥 도로가 구렁창에다 놓고는 그냥 총으로 갈겨서 많이 죽여버렸제. 머슴살이 했을 때 모든 탓한 걸 받는 과정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고. 내가 부모 밑에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쓸 것이냐? 부모 슬하를 떠나야 한다’ 해서 떠났고. 건설단에 잡혀가게 되었죠.

망월동에 피난 가서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 안에 석곡이란 부락에서 한 1년 동안 살았죠. 그때는 거그에서 당숙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당숙들 밑에서 아버지가 계셨다가, 거그서 못 살겠인게 다시 텅겨쳐서 나온 것이죠. 나와서 생활해 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갖고 요러고 해야만 쓰겠냐?’ 나도 뺨피허기도 현께 텅겨쳐 나왔죠.

밤에 부모님 주무실 때 그냥 짐 싸서 나오신 거예요? 짐은 없죠. 탈탈 털고 신도 안 신고 그냥. 오다가 배가 고프게 배추밭에, 감자밭에 들어가고, 들 가운데서 벼대 뽑아내서 그 안에서 자고.

며칠 나와서 계시는 동안, 다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죠. 왜 그런 마음이 없었냐면, 와봤자 부모가 자식이라 해서 물론 애뜻함은 있겠지만,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은게 다시 안 돌아갔어. 나가서 3년 만에 스무살, 스물한살 정도 돼야 한 번 집을 가봤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드만. 내가 그 뒤로 안 가고 있다가 거기서[장흥에서] [건설단이] 해체가 되야 가지고, 고향 내 형님한테 갔제.

집에 한 번 가보시기 전까지 3년 동안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 사이에 며칠간 그 돌아다닐 때 집 빈 데서도 자고, 감자밭에 가든 원두막에서도 자고. 여름철에는 노숙자 모임 만들어서 누워서 자고, 정처 없이 그렇게.

겨울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겨울에는 들판에 짚단 속에서 자면 따습죠. 그렇게 지내온 과정에서 장흥 건설단이라는 디 가서 일조하게 됐죠. 그거서 한 3년 있다가 결국 결혼했죠.

그때 도와주거나 같이 다니신 친구 분들도 계셨어요? 같이 도와주는 것은 없지만,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도 땀겨서 내 덕을 좀 봤제, 왜 그냐면 사람이 좀 박력있시, 없을 때는 없다는 표시를 해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내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 덕을 좀 봤죠. 그 사람들은 국민학교라도 나왔지만, 나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구일등 과정을 내가 생각해서 해결해 나갔제. 누구한테 의탁을 하거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본 일은 없어요. 금께 오늘날까지 일을 내가 혼자 해결 못허고, 남의 힘을 빌리면은 훨씬 설움죠. 그래서 의탁심을 갖지 않을라고, 나 혼자로서 많이 노력했죠.

3. 건설단에 끌려가게 된 과정과 장흥 도착 직후의 상황

광주에서 국토건설단 들어갈 사람을 모집한 건가요? 모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강제로 다짜고짜로 젊은 사람들만 보면 그냥 막 잡아다가 “젊은 게 강패 생활 한 놈 아니냐?” 해갖고 원래 건설단이라는 데는 강패들 소탕작전에서 일시키는 장소거든요. 1차는 간척지, 2차는 일본 놈들 막다 못 막은 서산 당진 개간지 막고. 남제주에다가 김종필 씨 밀감 받을 멋있게 해놓고 있는데, 북제주에서 남제주 갈라면은 70리인디, 가는 길이 리아카밖에 땡길 수가 없는 길이야. 그거 국토건설단들이 가서 다 길 냈습니다. 첨에 내가 가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등에] 가마니 대서 독 이어가드만. 건설단들이 가서 시초에는 아스콘이 없었으니까 아스팔트 길은 못 냈지. 이런 등등 과정은 건설단에서 다 했습니다.

쿠테타 후였나요? 쿠테타 일어나서 썩 소탕을 시켜부렸지. 쿠테타 일어나고 강제집행해서 썩 잡아들인 거 아녀?

광주에서부터 어르신하고 같이 끌려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아, 미국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가 나랑 같은데 ... 내가 지금 호적상으로는 일흔셋입니다. 궁께 나이가 [들어서] 미국 들어가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좀 불신이 되어 부렀다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건설단에 끌려가시게 된 상황은 기억나세요? 그때는 순경들이 젊은 사람들만 보든 잡아갔어요. 잡혀가던 날 기억은 나죠. 차에다 줄줄 싣고 가버리니까. 어디로 가는 영문을 모르고 차에 타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차에 어르신 말고도 여러 명 있었겠네요? 그러죠. 한차에 많이 타고 무인도 섬에다가 풀어버린 것이여.

광주 시내에서 잡히신 거예요? 여그 시내에서 그르죠. 형무소가 없으께, 집단적으로 해서 원을 막아서 ... 그 다음에 그기 있는 사람 차에 태워서 바로 장흥 무인도 섬에다가 퍼버렸기 때문에, 갈 때는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죠.

갈 때 손을 묶거나 눈을 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는 없고, 차에다 줄줄 태워가지고 못 나가게 경찰들 총 들어 메고 갖다 퍼냈죠.

실려 가실 때가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오후에. 오후에 가야 저녁에 퍼놔야 되니까.

가시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진 않으셨어요? 뭇 모르고 가니까 담담했죠. ‘아무 거시기[잘못]도 없는데, 엉간허믄 죽이진 않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소원이 그것이다. 배고픈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을 없애주라. 또 노임을 조금 거시기[올려] 해주라.” 이런 과정은 우리가 들어가서 듣고 알았죠. ‘우리가 잡혀온 것이, 국민들이 깡패들 따시 못살겠더라고 얘기를 허니까, 전부 소탕을 해버렸나.’ 길거리에서 분탕질 현 사람 잡아와 불고, 그런게 별시런 사람이 다 들어와 부렸지 .

실려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출신이나 잡혀오게 된 경위를 서로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할 재간이 없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형무소로 들어갈 것인가, 몰라부렀죠. 섬에 [바다] 막으러 간다는 것은 통 몰라부렀죠. 가서 정착해보니까. 대우식 구루마, 철이 막 들어와. 미국서 왔는지 일본서 왔는지 모르는 조그만 도자가 있어서 그걸로 그 틀을 닦아서 잘 테를 만들었죠.

처음 장흥에 도착하셨을 때, 누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나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내려서 일렬종대로 집합해서 차렷하고 보고만 받았지요. “당신네들은 여그서 정착해서 일할 테니까 그리 알고 마음가짐을 가져라.” 고 말을 해주니까 우리는 고 얘기만 알고 있죠. 그때부터 차근차근 질서가 지켜지고 [작업

이] 시작이 되었죠.

사람이 많았는데 조를 나누어서 작업을 했나요? 그러죠. 처음에 막 가서는 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선 천막 쳐놓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잠을 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었겠네요? 솔나무나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이 가서 톨을 닦고 요리고[땅을] 골르고 천막을 쳐놓고 잘 데로 썼죠.

섬에서 나가겠다는 분은 안 계셨어요? 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과연 사람이 노예 생활 ... 인간으로서 있을 데가 못되지 않느냐?’ 궁금해 잡히면 안되니까 비 오고 뇌성벽력할 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처음 장흥에 도착하셨을 때는 어떤 계절이었어요? 당시에 천막을 쳐놓고 잘 정도 되게, 보릿가을 해놓고 모 심을 땀에 4월 한 중순기나 5월 달쯤 되었을 것입니다.

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천막을 치고 사람이 우선 자야 되니까, 편히 하고 자려고 바닥 닦았죠. 그 작업이 이 [간척] 작업이랑 마찬가지로. 간 날부터 그 일부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다 일을 ... 정월 초하룻날 하루 쉬었을 것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 없었어.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너희는 건설단이다.” 이렇게 말해줬나요? 며칠씩 있은게[며칠 있다가] ‘국토건설단’이라구 명칭을 붙이더라. 그것이 뭇인지를 몰랐죠. “국토건설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더라? 바로 글자 그대로 너기들은 밥만 먹으면 일을 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되죠. ‘건설’이란 일을 해야 되고, ‘국토’, 흙밭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국토건설단’ [이름을] 붙여버려 일을 시켜볼테라구. 거기서 들은 게, 전국에 [깡패들] 싹 소탕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강원도 개간지로 가고, 또 일부는 서산 당진으로 가고, 또 일부는 제주도 도로 넓히는 데로

가고. 그 나머지는 삼산, 대덕, 덕촌, 풍길, 고마, 오마도 간척 작업을 한 거죠.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작업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그때 와서 바로 알았지. 당시에 우리는 다 통하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 각처의 상황을 아는데, 우리 단원들이 사무실에 파견 나가있으니까 행정은 그냥 알죠.

4. 흙 이동 작업과 겨울 수중 작업

간척 일 하셨던 분들 중에 건설단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있었던 건가요? 건설단으로 온 팀이 있고, 또 그 부락 주민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죠. 부락에서 와서 일을 하는 그분네들은 우리가 시키는 지휘 받아서 일을 하게끔 되죠.

처음에 가셨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지요. 무인도 섬이라서 우리만 달랑 가있다가 한 8개월 간 지낸 뒤에 근 1년이다 가서, 부락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게끔 됐었죠. 하곡이 싹 싹어 붙고 없으니까. 우리는 단체에 있다 보니, 아침에 4시 한 40분에 기상을 하면은 정확히 5시에 연병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늦은 늦은 한쪽으로 제쳐놔다가 빠따로 벌을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작업을 하고 아침식사를 합니다. 안량미 쌀에다가, 껌보리, 납작보리라고 있어요. 납작보리로 밥을 해놓으면, 혹 불어버리면은 납작보리는 날라가고 안량미 쌀은 안 날라가고. 당시에 대우식 구루마라고, 화순탄광에서 밀고 허는 구루마로 우리는 작업했거든요 화순탄광에서 탄 파서 갖고 나오는 구루마, 그것이 철로 깔아갖고. 그때는 중장비가 없으니까, 녹사곡괭이라고 한 한 발 반[양쪽 손을 옆으로 최대한 벌리며] 더 [되는] 나무 꼬트머리에다 괭이 달아가지고 요리고[곡괭이질을 하는 척을 하며] 파서 산 흙을 넘기고 그랬거든요. 또 산사꾸, 산사곶동이라고 있어요. 1m 양쪽에 달아져가지고 그걸로 흙

을 일일이 파서, 독이 나오면 독은 남포¹⁾로 했습니다. 구녕을 뚫어서 화약을 넣어가지고 터뜨려서 실어내가고 했거든요. 시안[겨울]에는 눈이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일할 자리 싹 쓸고, 한 사람이 빗질해 들고 앞으로 가면은, 뒤에서 요리고[빗질하는 시늉] 가면은 제일 꼬트머리에 온 사람이 대충 마무리하고, 여름에는 현장에 나가서 한 시간 작업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얻거나 무엇이 없어요. 10분, 15분 동안 밥 먹고 나서는 집합해서 현장에 바로 바로 나가야 되었으니까요. 저녁에는 9시 되면 여지없이 취침해버렸습니다. 취침하고 났으면은 비오고 뇌성 [때문에] 못 나가면은 물이 나버려. 못 나가면 그것을 못 견당게. 저녁에 빨밭으로 도망가버리고, 예를 들어 인원이 30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 아침에 딱 기상해서 인원 측정을 딱 해보면은, “5명이 모자르다.” 보고받고 인원 파악해보면 없으면은 저녁에 내빼부렸다고 [알 수 있어]. 그러든 상황실에다 몇 명 탈출 보고만 올려볼문 끝나부러. 증명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아침은 먹고 나가고, 저녁에 야간작업할 때는 [밥을] 현장에 갖고 나갑니다. 시안에는 북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은, 일을 하는 자리에다 흙이 막 날라와서 모래고 섞어진 게 막 입혀졌어요. 군대 양재기 오옥다리라고 있어요. 1962~1963년도에 군대 갔던 사람들은 다 그걸로 밥을 먹었으니까요. 왜 그냐면 쌀이 힘알탱이가[힘이] 없으니까, 큰 그릇에 한 되 밥을 하면 요걸로 두 개, 지금 밥 한 그릇밖에 안 나와부러요. 다 먹어도 배가 고파. 그러면은 손으로 대충 [모래를] 걷고는 밥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반찬이 없어서 소금 좇어가지고 숟단지에 끓여갖고, 짜면 물 좀 더 붓고 싱거우면 소금 더 붓고 해서 고려고 묵다가. 결국 갈치를 사다가 양념이 없으니까 그 소금국 끓인데다가 ... 양념이 있으면 고급이라고. 궁께 내가 갈치를 먹다가, 해제되어가지고 나와서도 10년 동안 갈치를 보지도 안 해버렸습니다. 추울 때 낮에 나가서 대우식 구루마 끌고 가

1) 도화선 장치를 하여 폭발시킬 수 있게 만든 다이내마이트.

면, 물이 여까지[일어서서 허벅지를 가리키며] 찹니다. 시안에는 숨 넣어가지고 누빈 불그스름한 감을 들인 방한복을 우 아래로 주는데, 대우식 구루마에다 흙을 싣고 물이 허벅지까지 찬 데까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간 사람은 몇 대는 물속으로 꺼정까지 들어가고, 뒤에 한 20대, 25대 헐 때도 있고. 15대 헐 때도 있고. 10대 헐 때도 있고. 고려고 나오면 얼어가지고 옷이 딱딱 뿌러져 버립니다. 살이 얼면은 밀이 땡땡 부어 불더만. 그런 작업은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밥을 먹고 작업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시안에 한 12시, 1시까지 할 때가 있어요. “밤에 컴컴헌디 어찌 하나?” 그러죠. 그러든 숨 뭉탱이를 요렇게 [뭉쳐가지고] 철사로 쪼매가지고, 요만한 통에다가 석유를 놔둡니다. 고놈에다 막대기를 달아서 적셔가지고 들고 있으면 흰해요. 시안 저녁이 추운디 12시 넘을 때까지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견디겠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아주 땡땡 요러고 붓어버려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자주는 없지만은 등등[더러] 있었죠.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생활맨키로 얹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먹는 것도 인간으로서 먹지 못할 정도[의 것들을 먹었고] 또 일을 하다가 뺨이 짝 벌어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독을 쌓았는데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 중력에 의해서 짝 벌어져버리면 거기 사람이 끼어들어 가버리는 수가 있고. 또 산이[산에서] 팽이로 일을 하다가 대우식 구루마로 쪽 대고 일을 하면, 산더미 같은 흙이 넘어와 닥쳐갖고 고놈 파서 싣거든요. 적은 곡괭이 갖고 등허리를 쪼아서 삼으로 고놈 한나 담으믄, “출발!” 또 한나 담으믄 “출발! 출발!”해서, 푸고 또 올라오고. 삼으로 요러고 일하다가 산이 탁 넘어오믄 산에 묻혀버려요. 한 번에 한 20명 묻혀버렸는데, 내가 가에 묻힌 사람은 파내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망되죠. 보통 서이(3) 너이(4) 사망이 되야 부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과정이 ... 1962년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63년도에 한해를 만났고, 64년도에는 또 가뭄을 만나버렸어요. 64, 65,

66년 3년간을 가뭄을 만나가지고 그때 독이 타부른다, 도로가 짹짹 벌어져부른다, 얼마나 비가 안 오고 가물다 봉게 난리가 나부렀습니다. 배추 잎사귀 들채[바짝] 말라가지구. 아주 곡식이라고는 흉으로 ... 수분이 있어야 싹이 트는 것이지 수분이 없는 데는 싹이 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난관을 그렇게 지켜나왔고, 그 후로 일단 관내에서 66년도 초기에 정부해제가 되었습니다. 단 내에서는 해제가 되었지요.

5. 반장으로서의 역할

장흥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장흥에서 1반장 직책을 한 1년 3, 4개월 지켰습니다. 그때 한해[旱害]를 만나서 일이 62년도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서 원조 받아서 했다는 것이 62년도의 말입니다. 63, 64년도에 하곡[夏穀]에 비가 많이 와서 보리고 뭇이고 싹 쏘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굶어죽는다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때 하루 일을 하면 30원 줬는데, 쌀 한 되에 20원, 25원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면 쌀을 서너 되 팔 정도는 임금을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정을 못해준 거지. 부락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반민들이 거그 와서 일을 허게코롬 됐어요. 나가서 하루 일을 하면은 밀가루 한 되 반을 주는데, 밀가루 한 되 반 해서 둘이나 먹고 서이나 먹겠소? 고려면 쑥 뜯어다가 죽 쑤서 요리고[먹고]. 궁께 물로 배를 채운다는 게 될 리가 없죠. 주문에 살려면 배가 고폰께 막일을 오른 일을 시키지요. 일을 하는 장소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가 있습니다. 고마에서 장환도로 들어가는 데가 2공구, 장환도에서 거그 들어가는데가 2공구, 고마 요쪽에 섬으로 들어오는 데가 2공구, 요쪽에 있었던 게 2공구. 그래서 1, 2, 3, 4, 5, 6. 6공구가 있었던 거죠. 궁께 하루에 몇 천 명씩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공구에 저 200명이서만 붙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1,200명 아납니까? 그리고 보니까 해가 저버리죠. 배가 고프게 남너노소 할 것 없이 와서 일을 해서 밀가루 타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여. 그러믄 이북 양반 김형서 회장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다 의뢰해서, 밀가루도 먹고 옥수수가루도 먹고, 그 양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정부에선 어찌할 수 없응게 미국 비행기로 밀가루, 옥수수 가루 먹이고, 그런 디 저런 디로 배치가 돼서 그런 생활을 ..., 고것도 미국서 원조 받아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 가게를 쳐서 주니까, 우리는 일하고 고거를 타다가 요리고 [먹고].

장흥 가서서 몇 달 만에 반장이 되셨어요? 한 두어 달 만에 내가 1반장으로 고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장이 되셨어요? 내가 사열대에 서서 집합 딱 해놓으믄 총 통솔이라고 있어요.

총 통솔하시는 분이 반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반장을 임명하죠. 인원이 많은디, 야문 사람이 반장 해야지 빈철이 같허선 못허죠. 궁께 내가 반장허면서도 내가 한 달에도 몇 번 죽을라다가 살았어요. 왜 그러냐믄 줄을 시어놓고 딱 뚱니다. “이 줄은 축사장 쪽에 가서 일을 하라. 이 줄은 [소·돼지를 쳐라].” 그 때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있어요. 땅이 넓은께 잡어서 회식할라고 사무실에서 돼야지 새끼 같은 거 사다가 길렀는데, 식당에서 구정물 나오는데 몇 명은 그리 떨어지고, 궁께 서로 일 수월헌 데로 갈라고 되는 데[어려운 데]로 안 갈라고, 대우식 구루마 끄집은 데, 물속에 들어가는 데 누가 들어갈라고 허겼어요? 들어가믄 아주 환장해볼제. 내가 딱 열 세워 놓으믄 그 많은 수가 전부 내 눈만 봐요. ‘어디로 배치를 시켜 줄라고?’ 그러믄 줄로 시어서 딱딱 띠기 때문에 어떤 놈은 거 속에서 빼고 색출해 낼 수가 없어[줄대로 나누기 때문에 누구를 따로 뺄 수

가 없어]. 일을 시켜놓고 나는 순찰 돌지. ‘어떤 놈이 어디로 탈출이나 한가[안 하나]? 그리고 어떤 놈이 일하다가 싸움이나 한가?’ 이런 거 밝힐라고 나는 짹 돌고

그때 서로 반장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어요? 아니. 할라고 해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할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왜 그냐면 반장이라는 것은, 제[諸] 사람의 압력을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저놈 반장을 시켜봐도 나 같은 놈 야문 놈이 “반장 너 이루 와.” 해놓고 거시기해부리든 질서가 문란하게 되야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께 그것들[세력 관계를] 파악을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반장을 하면은 과히 통솔이 잘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반장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격투를 시키거나, 사람들 힘을 재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은 없었죠. 공께 내가 켈로 안쓰럽고 거시기한 건, 시안에 갇물 속에서 12시간 넘도록 일을 하고 나왔을 때 살이 얼어가지고 땀땀 부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흠이 무너져서 사람이 파묻혀서 생명을 잃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면 괜찮지만, 한꺼번에 몇 십 명씩, 한꺼번에 대여섯 명씩 죽었을 때, 참 안타깝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 조금 마음이 안 좋고.

반장하시면서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건 어떤 일 때문이었어요? 공께 반장을 했을 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딱 9시 취침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한테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채워놓으면 간격이 어깨 넓이 정도 사이 띄어놓고 지서놓거든요. 취침시켜놓고 나면 내가 내무반에 앉아있어요. 요것들이 둘이나 서이나 다섯이나 딱 약속해가지고 모퉁이 보이지 않는 데 가 숨어 있다가, [문 두들기는 소리를 내며] “누구냐?” “반장님 접니다. 얼른 나오시오.” 그래요. 즈그들이 약속 다 해놓고. 그러면 나는 항상 위험하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끄집지

를 앓고[혈겁게 신지 앓고] 딱 신고 딱 쫓매제. “반장님, 요그서 만나지는디 어찌 운동화를 쫓매요?” “자식아, 밤에는 항상 몸단속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는 믿지마는 네 주변에 또 뭘 사람 있을지 모르게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르믄 고 놈이 “얘기 좀 합시다.” 나가믄 뒤에서 몇 명이 나와부러. 몇 명을 나 혼자 해보겠습니까[상대하겠습니까]? 죽제. 죽여부리믄 내빼부러. 애 들은 내빼부리믄, 도민증 없으면은 ... 도민증 있어도, 당시 형사들이 신경 써서 거시기[수사]를 안혀. 6·25 직후니 뭘 신경을 얼마나 [쓰겠어]? 그럼 죽은 사람은 고만이여. 죽었다 해서 사무실서 서류 적어놓고 보고만 띄우믄 끝나버려. 다음에 서류 검토해서 오면, “몇 명 내빼부리고 몇 명 죽어버렸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여. 그때 고로고 되는 판이었지요.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날 밤에 결국 내가 운동을 안했다가는 ... 앞에 간 놈을 한 주먹 조져분께 떨어져분께 다 내빼불지라. 여러 명 있을 때 달려들어 때리믄 죽여부리지. 궁께 앞에 간 놈을 때려분께, 그때는 지그들이 달리기를 해가 갔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는 들어오지를 못허제. 그날 저녁에 내빼부러야제.

그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요. 잼힐 망정 내빼버려야 돼. 가다가 잼히믄 죽제. 궁께 애[나]를 죽일려고 들다가 고 모양 당했는디 못 들어오제.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간부들한테, “사실 내가 이런 일을 대하는디[당했는데], 그 인원이 내빼부러 가고 없다.” 그런 일이 번번이 있어요. 궁께 처음에는 멋모르고 신 신고 나갔는디, 그 뒤로는 밤에 취침 시간 후로는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전에] 뭘 소리가 나면 순찰 돌다가 발견허믄 혼난께, 취침시간 끝나고 해버리니까요.

사무실에서 관리자들한테 무기 같은 걸 지급하지는 않았나요? 빠따 방망이. 남 들도 각기목하고 도끼도 들고 하당께. 만약에 무기 있다고 하믄 뭘 일이 날지 모르니까, 다른 무기는 있을 수도 없죠.

반장 하시면서도 큰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한 2년 정도 있다가는 좀 괜찮아졌죠. 다른 반찬도 나오고, “사람이 돼야지도 못 먹는다, 사람 이래야 쓰겠다?” 해 갖고 돼야지도 길러서 명절 때 잡아서 복용하고, 소도 큰 놈 [잡아서 먹고]. 그거서는 대놓고 잡아도 상관없었으니까요. 단 내에는 형사들이 함부로 들어오질 못해. 형사들, 순경도 보면 우리들이 찍어분께.

안에 경찰들이 들어올 일이 없었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올라고 하면은 보안 장치를 잘하고 들어와야지, 안하든 단원들이 돌맹이로 찍어버리니까. “쌍놈의 새끼들아, 느그들 땀시 맥없이 쥘혀와갖고 이 고상하고. 뭘 죄로 요러고 고생시키냐? 찍어볼라.” 그때 당시에 경찰관 찍어부렀다 해서 경찰 와서 사람들에게 타치[Touch]를 못 해부러. 금께 아시[아예] 들어오지를 못해부러.

단원 분들이 거의 경찰한테 끌려오셨으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겠네요? 건설단은 안 좋았지. 원 막아붙면서 인원이 부족헌게 주변 부락에서 와서 일한 사람들은 와서 일만 하고 밀가루 같은 거 타다가 먹고. 배고픈 시절이라, 장마져서 하곡이 다 썩어붙고 했다고 안합디요? 그런 시절이라, 부락에서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관 모르고 안 되고,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내 단원들이제. 일반민들은 거의 옷 주지도 못하고. 쥐 봤자 단원이라고 해버리면은 또 판국이 달라져 버리니까, 모든 과정이 고로 되었죠.

조를 나누어서 일을 시키셨다고 하셨죠? 조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나세요? 조별로 세워놓고 일을 시키든, 일이 아주 고달픈 디가 있고 아주 수월한 디가 있고 그러. 그럼 서로 수월한 디로 갈라고 하제, 고달픈 디로 갈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수월하한 디는, 철로 같은 디 손을 분다거나, 흙밭에 요러고 넘기는 디 손을 분다거나, 또 남포 구녕을 뚫을라면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 심바람히는 것이나, 식당에 심바람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제일 수월합쇼. [그런 데]

많이 파견한다고 하지만, 3명씩, 5명씩, 10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데 나갈라면, 로테이션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어디 가서 해. 너는 여그서 해.” 요러고 지적해버리니까.

그게 매일매일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바뀌질 수 있고, 그리 안할 때도 있고. 대우식 구루마 끄집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고달프고 고된 일 아닙니까? 흙을 실어서 끄집고 가서 푸고, 또 빈 구루마를 끄집고 깔끄막도 올라오고 허믈 아주 되죠. 안량미 쌀밥 한 술 먹고, 새켓[새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침 5시에 밥 한 술 떠먹고, 점심 때 한 술 떠먹고, 저녁에 한 술 먹고. 저녁에 자다가도 “독이 이상 있다, 꺼져부렀다” 허믈 나와서 또 날 새도록 해야 돼요. 폭 꺼져서 쌓아놔던 인대가루 물에 들어가부리믈 싹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면 매일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이란 것이 끝이 없으니까, 할당량도 없고.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출발허믈 저녁 6시에 일을 마치[지만], 마치나 마나 일 있으믈 또 해야 되께. 도중에 6시에 밥 묵고 쉬었다가 저녁에 9시 취침에 들어가죠. 바로 또 아침 4시 55분에 기상해서, 5시 정각에 연병장에 집합. 그때 늦어부리믈 안된께 군대식으로 파다닥 해야 돼, 늦어부리믈 열외에 딱 세워놓으면, 혼나기도 하지만 제일 고된 일로 가버리니까.

단에서 반장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었어요? 반장보담 높은 사람은 통장이라고, 최고 통솔하는 사람 있었지.

반장 밑에는요? 규율 반장 있고. 그 뒤에 1반장, 2반장, 3반장, 4반장, 5반장 되었죠. 궁께 당시 반장 중에서 내가 제일 통솔 거시기[권한]를 가져서 작업 배치도 시키고, [반장들이] 내 지휘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6. 상부 보고와 사업장 개선 요구

집은 언제 지어주던가요? 그[도착한] 후로 한 3, 4개월 되니까, 미국 원조를 요청해가지고, 함석을 한국서 보냈는가, 미국서 보냈는가 몰라.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하면 “미국서 지금 밀가루가 왔다. 옥수수가루랑 해서 함석이 온단다.” 큰 배가 와갖고 적은 배들이 실어다가 풀더라구요. 그래서 고놈을 갖다가 잘르고 해서 ... 정부 방침이 끝났을 때 65년도 됐죠. 그러니까 66년도에 완공식을 하는데, 농수산부 장관하고 길전식 씨 국회의원 사무총장 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사무총장 길전식 씨는 장흥 사람이고, 형은 길재호라고. 완공식을 한께, 장흥에 온다고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뺑 둘러싸갖고 오더라고요. 국회 사무총장 길전식 씨가 오시고, 수산부 장관이 온다고 한께. 당시에 군인들하고 경찰들은 칼빈총 옛날 군총밖에 없었어요.

정치인들이 사업장에 온 거예요? 예. 그 뒤로 경찰서장, 국장, 상사들 [할 것] 없이 막 따라 들어와. 그때 당시 내가 총책임자로 주의를 해서, 인원을 사열대로 딱 집합을 시켜가지고 7가지로 상황 보고를 내가 했죠.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각처 애기들을 잡아놔기 때문에, 내무반에다 넣었을 때는 목포, 부산, 대구, 인천, 이리, 광주, 순천 너나할 것 없이 떼어서 한 사람씩 넣어요. 한 자리에 넣어버리면 모사가 있고, 무슨 사단이 난게 안 되니까. 9시 취침을 하는데, 저녁에는 한 20분 거리를 순찰을 돌아요. 모아가지고 선 사고를 저지르면 뭐 없는데, 목포는 목포대로 모이고, 대구는 대구대로 모이고, 부산은 부산대로 모이더라구요. 당시에 이불 같은 것은 훈련소에서 가져와서 덮으니까 말할 것 없고. 나무 같은 것은 산에서 이름도 모를 솔나무 갖다가 시안에 베고. 그런데 베개가 없으니까, 노가대에 기다란 나무가 있는데, 요만치[베개 길이만큼] 쓱 잘라갖고 베라고 주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부산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 있다고 하든 광주 사람 요기서 죽어요. 그때 미국서 넘겨오는 담요가 있는데, 그런 걸로 덮어씌워가지고 잘라놓은 나무 토막 못으로 막 해갖고 그런 사고가 있고 이러데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긴 자를 재갖고는 따 쓰고 댕게 들도 못허게 그런 사고가 덜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열대 앞에서 내가 상황보고를 했는데요. “7가지 문제는 첫째는 무엇이나.” 내 말을 듣고 시정을 해야된게 군수, 장군이고, 국회의원 사무총장이고 전부다 내 말을 들을랑께 조용히 있겠조. “우리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도 보수가 없고.” 내가 상황보고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끄집어와갖고 보수도 받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구들[땅을] 요만치라도 넓힌 우리들이다.” 이거여. “오늘 바다를 막아서 물을 못 들어오게 해서 생산을 낼 수 있는 땅을 넓힌 사람들이다.” 이거여. “그런디 땅을 넓혀놓으면 뭇 허겠냐? 첫째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또 기계가 있으면은,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 또 먹을 것이 있다 보면은, 씨앗[씨앗]이 있어야 한다. 또 씨앗이 있다 보면은, 그 씨가 클 수 있는 밑받침 그릇이 있어야 한다. 고서[거기에서] 추수를 낸다고 봤을 때 몇 년 갖고 하겠느냐?” 다음은 그때 당시에 돈이 1원 짜리 빨간 종이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돈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섯 가지가 되죠? 또 한 가지는 뭐인가 모르겠습니다. 공계 장관이 그러디다. “지금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첫째는 먹는 것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고, 연장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지, 연장 없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여. “좋다. 그러면 그런 과정은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길전식 사무총장하고 농수산부 장관하고 그렇게 허드라구요. 그래서 다른 기타가 없냐고 그러더라구요. “기타는 한이 없고 끝이 없지마는, 한이 있는 욕망이 있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나보다가 “여기에서 이 몸이 썩혀지기는 아깝다”고 길전식 사무총장이 얘기합디다. 당시에 공화당이니까 막강한 놈이여.

장흥의 실세였겠네요. 공화당 길전식 사무총장이라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하고 가버렸는데, 이것을 시정을 하는 것은 장흥 군수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디 장흥 군수가 시정을 안 대더라고요.

7. 삼산사건과 인명사고

높은 사람들은 준공식 끝나버렸으니 떠나가 버렸는데 그 안에서는 해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농수산부 장관하고 사무총장 국회의원 사무총장 길전식 씨하고 그런 답변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줬으니까, 장흥군 군수 자기가 바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제. [근데] 이것이 해결을 안 해준다. 그러니 장흥 군수한테 들어갔제. “군수님, 거그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는 왜 날짜가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는 하루가 1년 이상 가는 것 같소. 당신네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산게 거시기가[걱정이] 없을랑가 모르지마는 우리는 하루가 1년 가는 것 같은디, 그렇게 무관심하고.” “지금 모든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제는 연락이 와야 되죠? 안 오네요. 또 들어갔어. [일어나서 물건 뒤집는 동작을 하며] 욕하면서 책상을 그냥 쳐 부렸어. 그 뒤로 조사가 나오드만.

그때 계속 고마 사업장에 계셨던 거였어요? 예.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삼같은 거 실어왔지. 요런 거 조금씩 갖다 주고. 쌀이라고 해서 천지지면 있을 때 보충하는 거 들어있는 그것도 좀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졌어요? 언 밭에 오줌 눈 식으로 갖다 주면은, 고놈 또 떨어져가지고 가서 자꼬 거시기[항의]해야 또 좀 주고. 그렇게 나가다가 도중에 내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고마 요쪽에 신동 2구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거서 딸

하나 낳아 났는데 지금 그 딸이 47살 먹었습니다마는. 벼를 심어 놓으론 빨갱이 [빨강게] 타버리고 없는 거요.

농사가 안됐어요? 안 돼. 왜 그냐면 염기가 있어부리니까, 민물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안 우러나니까 순 들어올 거 3일 되면 빨리 타버리고. 궁께 먹고 살 길이 없지. 그래서 거기서는 준공하고 한 2년, 3년 있다가 단 해체를 완전히 다 했죠.

아예 단을 해체했던 거예요? 예. 인자 각자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옷 막아놓은 놈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김형서 씨 그분이 고상[고생]을 했는데 보수도 못 받았으니까. 지금 박정희 씨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죠. 항의를 거치니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는 지금 보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박정희 똥똥 몰아서 갖고 가버렸으니까, 인자 받을 길이 없으니까. 고놈[간척지 토지]이라도 받아갖고 순거뵈자[심어뵈자] 곡식이 될 수가 없고. 궁께 살 길이 없지. 해가지고 다 내뿔고 간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놈은 결국은 그냥 놔두고, 처갓집에서 간섭을 허고. 허다 봉게 세월이 1962년에서 현재 2013년인게 41년 됐죠? 41년 동안 해놓은 곡식이 인자 지대로 다 되고 옥토가 되어부렀죠. 장흥 군수허고 농기계장 조합장, 장흥 재부 손석민 씨. 지청장, 서장, 다섯 분이 모여앉아서 “장흥군의 공로라고는 김이곤이 그 사람인데, 공로비를 시우는[세우는] 것이 어찌냐?” 나는 몰랐는데, 장흥군에서는 김이곤이 공로비 시운다[세운다] 이러고 이름이 나왔든고.

그게 언제였어요? 그 말을 내가 말을 듣는다 하며든, 내가 그[장흥] 살 때 그랬지. 그랬는데 군수가 갈려버리니까 또 묵살되어 부리더라구요. 그냥 어물쩍이고 말만이야. 실행이 되어야만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실행이 돼있지 않으면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산되고 그러제. 내가 산 과정이 고로[그렇게] 되었고, 도중에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산사건에 삼산 단원들허고 고마 단원들허고 합심이 되어가지고 큰 사건이 한 번 나부렀어. 그때 헬구[헬기] 뜨고, 중앙

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난리가 나부렀어. 왜 그러냐면 원천[원체] 푸대접을 해논게, “배고파서 못살겠다. 이놈의 세상.” 해갖고. 우리는 진명이[무기가] 없어놓은게, 독히고 각기목[각목]하고 들고 나오고, 경찰들은 총 갖고 나와서 막 공중에 다 공포만 빵빵 쏘. 헬리콥터는 며칠 간 떠가지고 좌정허라고 해쌓고. 그 진압도 내가 했습니다.

삼산사건은 어떤 일이었어요? 전국의 경찰관들하고 트라블을 붙어버렸제. 경찰관들하고 안 좋으니까.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일을 하면 짜증도 나는데 먹을 것이나 지대로 준다고 하제 당시 전국의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말할 것은 없겠지마는, 짜증이 난게 트라브가 생겨버렸어요. 당시에 버스가 금성역[나주], 광주역 같은 디서 좌우로 댕겼거든요. 우리 단원들이 차 뺏어가지고 그때 당시 과출소로 버스를 몰고 들어가버려서 난리 되야부렀죠. 삼산 단원들이 일어났네. 어떻게 일어났냐? 순경들이 일어났다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일어난겨. 그때 장흥군이 난리 났었어. 전라남북도 순경들 싹 모여가지고, 칼빈총으로 골목 빵빵 쏘쐈고. 우리는 돌멩이허고 목나무대로 허고. 헬리콥타가 떠서 빠라 던지고, 육지에서는 경찰차들이 와서 진압 됩니까?

그때 경찰에 잡혀간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잡혀갔지요. 잡혀가도 안 내불면 난리 나분께, 그냥 훈방해 내보내야제. 그거 참 묘연히 잡아가드라구. 저는 당시에 진압을 좀 도왔었는데, “단원들 전원은 회관 앞으로 전원 집합해라.” 진압이 되어서 자꼬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고만허고, 말 한 번 들어보자.” 말을 들어볼랑게 모이쥬. 그런데 회관 앞에 가서 세우고, 주동자만 요리[회관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빠든[나가면] 뒷문에서 형사들이 있다가는 딱 잡아서는 입 막고 차에 싣고. 또 앞문에서는 “원만하게 다 들어줄 것인가 니들 요구조건 말해라.” 그러든 여러 명 해불면 안된게, 한 사람씩 가야지. 가서 말하고 뒷문으로 나가든 딱 잡아다 차에 실어불든, 앞에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제. 우리 반장이

랄지, 통장이나 규율부장이랄지, ‘가서 좋게 타협 보고 있는가 부다’ 이랬는디 나중에 본께 작업하고 있드라고.

당시엔 사람들이 잡혀간 것도 몰랐겠네요? 알아불른 죽여버리지라. 근데 모르고 한 이틀 있는께 잡혀갔다고 연락 왔드라구. “며칠 있다가 그냥 돌려보내 준당께 그때까지 기다차[기다리자].” 해가지고. 잡혀가갖고는[잡아가서는], 뭇 땀시 그랬나고 물어보겠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제, 사람 죽이고 뭇을 파괴를 하고[하려고] 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좀 잘해주란 말이야. 느그들 먹는 대로만 주란 말이야.” 요러고 했는디 뭇이 나쁘겠냐? 그래가 일주일 만에 풀려 나왔은께. 안 나오믄 또 난리 나부리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문당하지는 않았어요? 고문힐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만약에 때리거나 고문허믄 더 많은 숫자가 난리 나불지라. 삼산하고 관산하고 합해놓으믄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께 그렇게 못허제. 폭동이라고 그라제. 단순히 그걸 진압허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해가지고 진압이 된 뒤는 내보내믄 상관이 없은께, 진압이 된 뒤에 내보내줘서 조용히 되얏쥬.

그 뒤로 다시 경찰들하고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트라브가 없었지. 경찰들은 중앙에서 알았고, 우리도 다소 좀 나서졌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지.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디 더 이상 헐 필요 없는 것 아녀? 인자 안했지.

삼산하고 고마는 가까웠잖아요. 육로로 걸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궁께 그가 1리에 삼산이 많았고, 여그[고마]는 좀 적었고. 궁께 그가[거기가] 큰집이고, 여그는 작은 집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을 눈으로 보신 분들은 말로는, 인간 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난관이 됐었쥬. 그리고 서울서나 부산, 대구 같은 데서 오는 애들은, 좀 논 애들이니 좀 더 가치게[거칠게] 처박어 일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조금 거시기하면[말 안 들으면] 매질해가지고 반불신[반병신] 되야부

리고, 죽어버리고. 죽어버리면 인원 차출 보고만 띄워버리면은 되고, 그 어떤 ...
소금장 처리한 것까정은 내가 얘기를 못하겠습시다.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총책임을 내가 짓고[지고] 했던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나는 사람
은 살려볼려고 해도 안 되데요. 저녁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살이 얼어가지고
살이 밀이 꼭 고무 봉다리에다가 물 담아서 놔두면 부릅니다[붓습니다]. 밀게 되
부러. 그것이 밥을 안 먹고 한 며칠 땡기다 10일 좀 넘은게 죽어 붙대요. 자기가
못 지내서, 얘기를 못해서 죽고, 흠이 덮어씌워가지고 죽고. 대우식 구루마 끄집
고 속도가 있어야 구루마가 내려가는데, 잘못 내려가서 구루마가 까마져 붙은[뒤
집히면], 남포를 해놔서 독[돌]이 날카날같은[날카로운]게 많아요. 현장에 가서
돌이 요리고[같이 흠을] 넘겨야 되니까 돌이 타거든요. 그러믄 안전모 없으니까,
한 40도[40Km] 속도로 내려간 놈이 까마져 붙면[뒤집히면], 독에 거시기 해붙
은[넘어지면] 대박이 찍혀서 간 사람도 있고, 흠이 넘어져서 간 사람도 있고.

준공식 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안 좋으셨겠네요.
인간으로서 좀 안 좋죠. 얼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흠에 묻혀서 죽는다,
일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맘이야 좀 안 좋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치렀어요? 거기선 장례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굶어분 디
서 그냥 묻어버려야죠. 다른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분께 그 얘기는 안허고.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것은 해선 안되고. 굶은 거여서 묻어버렸다고 얘기만
허는 것이 상책이고.

보통 일주일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처음에 가서 한두 명 [죽는] 과정은 보통으
로 들어있었고, 주로 일하다가 많이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일하는 도중에 내빼다
가 많이 잡혀부렀고. 그래가지고 곡석이 안됐을 때, 10원 하나도 보상 못 받고,
근 5년이란 세월을 그거서 보낸 청춘한테 정부에서 10원 하나도 주지 일을 시켰

으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디 그 대책이라고 빨밭 막은 늪한테 조 같은 곡식도 숨어서[심어서] 묵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을 주든 뭇힐 것이여? 죽일 놈들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제. 그러믄 그것이 좋은 옥토가 되아서, 곡식이 송거서[곡식을 심어서] 가을[추수]해가지고 사람이 묵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짓고 해줘야지. 그러쥬? 그 상황을 내가 [이야기] 했는디,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말로만 해가지고는 실증이 잘 안되더라고요. 시간을 꼬집고[끌고] 날짜를 꼬집어서, 자기가 그 자리 떠날 때꺼정 고려고 우물우물 넘어가버리지,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시정을 시킬려고 내가 무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먼 소재지 사람들이 내가 이사 나올 때 못 가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러 괜찮허니까. 그래 주민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내가 떠나는 것을 말린 것이 아닌가]’ 내가 고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뒤로 광주로 막 나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제주도로 밀감장사 한다 해갖고 바싹 망해버렸지.

8. 단원들의 이탈

단원들 중에서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도 많았어요? 낮엔 못 도망가니까. 밤에도 비가 안 오면, 빨에 걸어가면 뽕뽕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잡히니까. 비가 오고 매서우면 소리가 몰라 불쵸. 보통 5~6명, 7~8명이서 자기끼리 모여서 내뺨부러요.

감시반이 없었어요? 감시는 허지마는, [출신 지역을] 따로따로 방에다 잠을 재웠는데, 수시로 돌지마는, 도는 순간을 타서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질해간다는 사람을 못 지키드라고. 낮에 일은 서서 하니까, 일할 때 지들끼리 모아분 약속을 ... 일할 때 “오늘 저녁에 몇 시 경에 우리 모이자.” 그러믄 그날 저녁에 모이고,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 낮에 불고[애기하고] 눈이 와도 일을 하고 비가 와도 일을 허니까. 비가 오면 우비가 없으니까 가마니를 둘러쓰고 일을 하고. 눈이 오면 그냥 털어버리니까. 눈이 식탁 높이까지 차도 일을 해야 돼. 빗자락으로 쓸고 앞에 가쁜 뒤에서 싹 치운다. 고로고 일을 하니까. 비가 오면 가마니를 손 구녕 뚫어내고 둘러써요. 눈은 칼로 썰어가지고 하고, 입은 안으로 사고[싸고], 눈만 [구멍] 내고, 손만 요리고[양쪽 팔을 펼치는 동작을 하며] 내갓고 일하고. 가마니 해놓은 거 있응게 코로 숨쉴게 입은 안 터져도 눈만 터서 일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하루 쉰 날이 없이, 1년 열두달 365일 그대로 일을 해요. 쉬는 시간은 다 무엇이나. 정월 초하루에나 떡국 한 그릇 먹고 일해야 돼요. 떡국도 오래 있다가 나온 것이지. 당시에 떡국이 귀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낮에 모여서 도망가자고 약속하고 밤에 도망치는 거예요?

예. 낮에 일하면서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 취침시간만 자유시간이 [있고], 아침 기상 시. 그래가지고 낮에 모이자 해갓고는 저녁에 ... 그것도 비가 안 올 때는 못해요. 비 오고 뇌성벽력 할 때 ...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저녁에 약속해서 결국 탈출 내빼불고. 광주다 그러면은 광주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고 그러죠. 목포다 그러면 목포까지 [목포사람까지만] 얘기가 되고.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끼리 얘기가 되고.

처음에 만나면 서로 출신 지역을 물어봤겠네요? 그러죠. 궁께 잡아올 때도 사람을 지역별로 섞어서 보내고. 광주다 그러면 광주 사람 몇 명 요리, 또 서울 사람 몇 명 요리. 막 섞어서 보내야 되지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광주에서는 열댓밖에 안됐어. 거기서 운동했던 사람도 많았고 쓰리꾼도 많이 잡혀갔었고. 잡아다가 밥만 먹여서는 안 된다 해갓고, 그 일터로 같이 다 끌어 보내고.

9. 사업장 내 관리 체계와 보상의 아쉬움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으셨겠네요. 힘들다고 불만 가진 자는 별도로 창고에 들어다가, 말 안 들어도 빠따로 쳐버려요. 허리께고 어디고 앵근대로[닿는 대로] 그냥 매질을 허죠. 공께 그런 매질을 안 맞을려고, 힘이 들어도 말도 못하고. 나중에 온 췌간한 의무실 한나 있거든요. 원래 의무실이라는 것은 배 아플 때 약 주고 요런 곳인데, 배 아프다고 하면 밀가루나 주고, 이상한 놈의 시끼들. 우리가 막 말을 고로[그렇게] 했지요. “상놈의 시끼들, 돈 들어간 게 약 안 사다주고, 밀가루 주고.” 내가 의무실에 가서 들어올라고. 수가 많아놓은 게, 이런 일들 ... 굶은 과정은, 지금은 도중도중 노출된 데가 더러 많습시다마는 ...

반장님이셨는데, 단원들을 관리하는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별도로 사무소를 해서 단 내에서 사무실 직원들을 한 서넛 뽑아서, 거그서 부름 할 수 있는 직원이 서너분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월급을 주면서 파견시켜서 와서 있는 분들이 한 여섯분인가 됐을 거예요. 인원이 많아놓은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또 정부에서 뭘 사항이 오면은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 사람이 작업 지시사항을 받아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은, 그대로 받아서 해나가고 그러죠

사무실이 있고, 내무반도 따로 있었겠네요? 예. 내무반은 따로 양옥식으로, 양쪽으로 방 두 개씩 쭉욱 짓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감자 심는다고 짓어놓은 거 허글어붙고, 거그서 살던 사람들이 감자도 심고 뭐도 심고 그랬을 것ियो. 작년에 한 번 가보니까, 땅도 한 평씩 있습시다마는, 600평 있어요. 그 [땅을] 판[산] 이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 것입시다마는 내가 한 3년 전에 가보니까 그 들어가는 데까정 다 공굴[콘크리트]로 해서 도로가 다 돼있고 아스팔트 깔아졌습디다. 그렇게 돼있는 것도 얼마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비포장이고 순전 뽕밭이라 폭폭 패여 가지고 거시기했는디[불편했는데], 필요가 없은게

다 내버렸지요, 요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됩니까? 박정희가 돌아가서 버리셨으니, 육영수 여사랑 다 돌아가서 버리셨으니, 해줄 사람도 없지요. 젊은 사람들 노예 생활 해버렸으니까, 보수 받으든 한 1억씩이나 받았을 것이요. 그래도 삼청교육대는 고로코롬 됩시, 우리는 나라의 지도를 넓힌 사람 아니여? 개간지 그래 버렸제, 서산 당진 어마어마한 고논 했제, 장흥, 회진, 덕촌, 풍길, 관산 해서 지도가 얼마나 커요? 합해보시오. 삼산에서 관산, 고마 3구. 관산 면에서 삼산면까지 합해보시오. 무지하게 커요, 그때 당시에는 통일벼 나라를 숨겼거든요. 왜 그냐면 쌀이 없으게 박정희가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이 수확이 많이 나는 것이 있다고 헌께, “무엇이냐?” “통일벼다. 씨가 작고, 쌀이 많이 난다.” 그 얘기 듣고 고논 씨를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갖다 숨고 보니까 대체로 쌀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나라가 조금만 건드리면 땅에 다 떨어져부러. 궁께 바닥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고롬마다 가마놓고 고롬마다. 그것도 한 3년쯤 있다가는 없애버렸제. 그마만큼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발달이 되야 버리니까.

일하시는 동안 제일 힘드셨던 일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궁께 시안에 저녁에 물 속에 들어가는 작업. 여름에는 그런다고 보지만, 시안에 갯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웬만치 안 추우면 갯물이 안 얼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우면은 그렇게 얼겠습니까? 첫째는 현장에다 반찬도 없는 밥 퍼냈을 때, 흙이 [밥에] 딱 덮어있는 걸 보면은 참 심정이 안 좋았죠. 배고픈게 그냥 혹 불어부리고 먹으론 모래가 써걱 써걱 허고. 맹장도 안 걸리고 별인인데. 그런 과정이 조금 그랬고. 또 거시기[단 이] 해체가 되어서 것다가[간척지에] 모를 심고 3일[만에] 빨갱이 다 타버리고 못 먹었을 때, 정부에서는 별로 돌봐주질 않지. 그런 애로가 많았죠. 그런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난관을 이렇게 소상히 말을 해줄 사람은 장흥이나 회진 가서봤자 드물 거요.

10. 지역민과의 관계

공사 현장에서 월급 받고 일한 현지 주민들도 있었죠? 월급 받고 일한 사람들은 없죠. 원조하는 것을 [받고] 일을 해서,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 밀가루 한 되 반을 준다 그랬을 때, 수문 같은 거 내고, 요로 기술자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돈을 50원씩 주고 일을 시키죠. 공구리를 할 때, 익히는 것은 우리가 익히지마는, 우리는 기술면에서는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단원들 말고 장흥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 사람들도 같이 일을 했죠. 대우식 구루마로 흙을 실어다가 구멍을 메꾸고 다 막았지요. 궁께 수저로 밥먹떼기나 마찬가지죠.

일하다가 단원들하고, 장흥에 살던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없었나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죠. 부락의 젊은 애들하고 우리 단원들하고 트라브(trouble)가 많이 생겼죠.

주로 젊은 사람들끼리 많이 싸웠나요? 고마 1구 청년들이 서울이나 부산 객지 나가가 운동을 좀 했는디, 고향에를 와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단 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땀시 못 살겠다.” 우리 단원들이 그 부락 앞으로 지나가야 되거든. [단원] 한둘이나 서넛이 가믄, 부락 청년들을 모아갖고 잡어다가 뚜드리면 맞지라우. 글믄 단원이 가다가 맞고 단 내로 들어옵니다. 궁께 나는 나대로 객지에 나가서 운동을 했으니까, “어디 애기들이 때리디야?” 예를 들어서 “고마1구 애기들이 때리더라.” “그래?” [우리가] 인원이 많은께, 까마구떼 같이 부락에 가서 집구석 독아리 같은 걸 싸악 뚜드려 깨버리고, 집구석 때려 부숴버리고. 그 청년들 싸악 잡아다가 무릎 꿇쳐놓고 잡아불고 난리가 나버리지라. 불쌍하게 살고 있는 단원들 불쌍하게 살고 뚜드려버렸으니까, 고마1구 청년들 혼넬라고 그랬제. 장흥군에서는 우리가 여름에 입었거든요?

개척단 옷이 따로 맞춰져 있었어요? 예. 여름에는 반[팔] 노란 옷 입고, 시안에는 방한복 누빈 거 그거 입고. 여름에는 노란 옷만 입으면 주변 청년들이 건드리질 못했제. 당시에는 극장이 없었고, 과실극장이 있었습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해설해가면서, 필름 걸리면서 하는 과실극장. 나는 그때 기타도 치고, 감어서 쓰는 녹음기도 듣고. 그때 저수지 막아놓고 단내 해체 돼서 그때 과실극장이 들어올 때, 영화 한 번씩 [본] 촌 아가씨들이 빨밭에 날마니[날마다] 꼬막이나 잡으러 댕기고, 처음에 우리가 간게 큰애기들이[아가씨들이] 줄줄허니 하루에 120명씩 바구니를 들고는 노래 부르면서 꼬막 잡으러 가더라구요. “사업장에 김이곤이란 사람이 노래도 잘 불고 기타도 잘 친다는데 괜찮다.” 큰 애기들 [사이에] 약속[소문]이 나버리고. 또 먼 소재지에 있어서는 부락 당으로 말입니다. 부락 청년들이 힘 강한 애들은 약한 큰애기들을 장난으로 막 요리고[괴롭히고]. 그때 파벌로 고려고[싸우고] 할 때죠. 궁께 내가 가면은 그것이 없거든. 그럼 과실극장에 가서는 내가 “요기[우리는] 20명이야. 너 그러면 [죽어].” 들어가버리는디 그런게 이 아가씨들이 밥 먹다가도 내 소리만 나버리믄, 내가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가버리믄 전원이 다 모여 버려. 그때는 동네 시장에서 물독으로 이고 물을 길러 다녔거든. 궁께 한 사람만 말해볼믄 물 길르러 온 거 통해 다 부러. 궁께 “김이곤 씨가 거시기한다고[와서 노래한다]” 하믄, 물독이고 뿔이고 내뿔고 지그 어매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해버리고 ... 왜 그러냐믄, 첫째, 안전허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버리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어떤 남자가] “너 이루 와봐.” 그르믄 어매 아버지가, “김이곤 씨가 찾는가봐. 얼른 가봐라.” 요럴 정도가 되야부렀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아가씨들이 한 30명씩 내 자는 숙소에 와서 있었어요.

그게 단 해체하고 난 다음 일이에요? 예, 전부 해체하고 나서, 과실극장에 아가씨들 그렇게 됐고, 내가 청년들을 그렇게 혼냈고. 또 관산면에서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나올랑께 못나오게 그렇게 가로막고.

단원들하고 현지 사람들이 작업을 같이 했나요? 예. 또 같이 하다봉게 섞어서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한 번 두 번 허믈 익숙해지니까 섞어서 같이 작업을 했죠.

그분들하고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 뒤져분께 트러블이 생길 리가 없죠. 한 번 트라브가 [생기거나], 말 한 자리 빠끄덕하다고 하믈 부락 사람들이 거시기를 공께 그냥 말을 안해부리제. 저녁이믈 단원들이 감자밭에 많이 뒤지다가 삶아묵기도 해도 말을 못 해부러. 공께 “조그만 캐가도 좋게 좀 거시기하자.” “[마을 사람들] 먹는 것은 보존하자.” 요러는디 피땀 흘려서 해놓은 거 애기들이 쭉쭉 뽑아갖고 막 ... 그런 것은 나도 몰르게 허긴 해요. 우선 배도 고평게, 갖다가 저녁에 썬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밤에 가만히 가서 캐다가 썰쳐서 그냥 먹기도 하고. 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톱에 100장인디, 100장을 할라믈 김 한 장에 35번 가니까 손이 35번 가는디. 공께 100장이믈 얼마나 고달픈지. 그래도 [주민들이 단원들한테] 김도 몇 톱씩 주고. 왜 그러냐면 다른 불상사 없이 좀 해주라고. 조금 거시기 허믈 김 널어놓으믈 썬 내[가져가 버리니까]. 공께 철부지 애기들이라 뭇을 모른게 그냥 밀어버리믈, 누가 도둑[이]다 하소연 할 거여? 지금 같으면 고밭이라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도 받지만, 대책도 없어요. [손을 비는 동작을 하며] 공께 제발 그러지 마라고 쓰고. 신동 1구 2구는 바닷가에 삼치도 잡으러 땡기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면은, 말 안 해도 한 박스 썬 우리한테 주죠. 그리 안하믈 애들이 배 깨부리믈 그냥 순간이여. 공께 너그들 천둥가지나[천둥벌거숭이 짓] 허지 말라고 하지마는, 순식간에 ... 그렇다고 해서 애기들을 나무라? 때릴 것이여, 어쩔 것이여?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제. 그러지 말라고 달겨들듯이[달래듯이] 그러고. 하여튼 수는 많지, 일반민들조차 섞어서 해놓으면 바글바글 허지, 저녁이믈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 없는가. 하여튼 나도 그때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라고 봐야죠.

11. 단 해체 후 농지 분배와 글을 배우게 된 과정

다른 분들은 단 해체된 이후에 다 어디로 가셨어요? 각자 어디로 간지를 몰라버리죠. 다 뿔뿔이 각자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고, 정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은 그거 서 정착한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엇그저께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장환도 들어가는 디 두 분인가 계시고, 요 짝에 대밭 있는 디 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거기 계시고. 그리고 현재 고마 3구에 가서, 요 안에 들어오신 두 분도 계시고.

단 해체하면서 땅도 바로 분배됐나요? 600평은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가 분할 받았을 때에는, 원래는 600평이 아니라 3필지를 받았어요. 1필지가 3마지기입니다. 3마지기는 600평입니다. 그러니 3필지가 1,800평. 그것을 받았어. 그런데 받으면 뭇힐 거여? [그걸] 못 쓰고.

땅을 메우고 얼마나 있어야 삭이 나고 농사가 되던가요? 한 4년, 한 5년 되니까 조금 될까 말까 하대요.

그때 먹을 수가 있는 정도였어요? 예. 다수는 좀 안되고 했지마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나오더라구요.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는 배급은 끊겼나요? 배급 과정은 그 안에 끊어져 버렸죠. 끊어져 버렸은게 뿔뿔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 안 했으면 그렇게 뿔뿔이 다 갈라져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양반들은 구사일생이라고 살고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원래 장흥 부자 손석민 씨하고 길전식 씨하고 나를 업고 한 두어 번 춤을 추고 그랬어요. 왜 그냐면 “장흥으로 인해서 니가 그마만큼 고려고[고생] 했는디, 아까운 너를 어쩔 것이냐?” 길전식 씨가 “중학교만 나왔더라도 내가 데리고 댕겼다마는, 네가 책가방이 너무 잘렀다[짤다]. 모든 것으로 봐서 내뿔[모자랄] 것이 한나도 없다.” 나보고 그러대요.

내가 학교는 안 나왔지마는 자수성가했지요.

글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참 내가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랑새 담배
곽을 주워웁니다. 그러든 파랑새를 요리고 보면, “아, 이 자(字)가 ‘파랑새’구나.”
저녁이면 초롱불 식[빛]으로 해서 봅니다. 심지 꽂아서 석유 담아 불 켜놓으면
끄스름이 납니다. 저녁 내 [공부]하면은 코 보다[보면] 끄스름이 나서 시커멓니
다. 고놈을 가지고 저녁에 추으면 책상 우에다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든 담요를 둘러썩우고 오그리고 “파랑새, 파랑새” 탁 쓰구요. 그러든 요놈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간판 써놓은 데서 파랑새 ‘파’자가 한나 있으
른 “아, 요것이 ‘파랑새’ ‘파’자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요?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러고 물어봐요. 글씨를 모
르니까, 버스 승강장을 두고도 헛 여남은 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여그 승강장이 여기 보쇼.” 속을 모르고 그러거든. “예, 알았습니다.” 해놓
고는 또 모른게 또 그 다음에 와서, 그 사람이 서있으면 “어디로 가는 버스가 몇
번입니까?”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 여가 안 있소?” 요런단 말입니다. 그럼 [종이
에 글씨를 쓰며] 이게 ‘시내, 버스’라고 쓰죠?” 버스라고 쓰면 고놈을 기래가지고
하죠. 요놈을 몇 번이고 정히 놓으면 식구들은 다 잠자고 나는 쓰고 공부하고. 잠
이 오면 꺼버리고 있다가 또 만나서 쓴다니까.

단 해체하고 나서 그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 공부 광주 와서 했어요. 그
전에는 내 이름자도 못 썼어요. 요놈을[글자를] 어느 정도 터득을 헛게 편지도
해야 되겠는데, 받침[띄어쓰기]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돌아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구. 어느
정도 받침을 알고 나스게, 한자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나 내
이름은 써야 되겠더라고. 지금 손이 떨립니다마는, [종이에 본인 이름을 한자로
씀] 이렇게 ‘김이곤’이라고 써야 되겠더라고. 동사무시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떠었

어. “김이곤 씨요?” 그래. “예, 김이곤입니다.” 한께, 띠어주더라고. 등본을 보니까 김이곤이라고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더라고. “아, 이 자가 ‘김’ 자고 이 자가 ‘이’ 자고 이 자가 ‘곤’ 자구나.” 그럼서 알았다 이거여. 당시에 어디 갈라몬 주소를 쓰는데, 한자로 쓰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한글로 쓰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종이에 주소를 쓰면서] 요렇게 ‘광주시’라고 써야 허는데, 쓰지를 못허겠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물어서 “정자로 써주라.” 그래야 내가 보겠더라고.

그걸 보시고 또 한자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근디 외국을 가야 되겠는데, 영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1978년도에 사우디를 갈라는데 영어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78년도에 사우디를 갈라고 하는데, 갈 길이 없더라고. 근디 누가 그러더라구요. “중앙정보부에 전화 한 통이면 전국에 별이 떨어질 정돈디, 너 아는 사람 있냐?” 해서 “법정과장 서상문이 내가 알쥬. 내가 말하면 일사천린다.” 당시에 내가 조금 잘나갔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법정과장 서상문 내 그분 많이 봤그든요. “것다 말 한 번 해봐라.” 해서 말한께, [서상문이] 죽는다고 가지 말란 것이여. “내가 너 보내는 것은 말하지 못한다.” “자리 있을 때 보내주쇼. 내가 오지로 갈라고 합니다.” 전화 한 통에 그냥 보내버리더라구요. 아따, 공화당 때 박정희 거시기 헐 때 정보부라 한께 통화 되야불드만. 부장들이 날 불러가불고 난리 나불드만.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를 가면 공중에서만 15시간을 탑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어로 이름을 써내라고 착착 나눠주고 가부리더라구요. 나를 통솔하는 사람을 와보라 했어요. “영어를 쓸 줄 알몬 요러고 안 가. 당신보담 더 높은 자리 앉겼지.” 그랬더니 얼굴이 서늘해갓고는 암말도 안 해불고 자기가 써주더라구요. 그래서 책임자 오라고 했어요. “요 놈 정자를 한나 써주라.” “왜 그러시냐?” 그래. “당신한테 괴로움을 안 줄라니까 정자로 써줘.” 이래가지고 영어를 내가 배우고, 내가 자수성가[독학]를 해서 오늘까지 넘한테 물어보지 았고. 실은 그 후로 내가 광주 와가지고 애로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당신은 어느 법대 나왔소?” 물어보더라구요.

12. 사업장을 떠나 광주로 이주 후 어려웠던 생활

장흥에서 결혼해서 사시다가 광주로 오신 거예요? 거그서 살다가 왔죠. 거그서 살면서 딸 낳았다고.

장흥에서 광주로는 언제 옮기셨어요? 사우디는 광주에 오신 후에 가신 건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장흥서 한 70년도 정도로 나왔을 것입니다. 광주에 와갖고, 78년도에 사우디를 갔죠.

준공하고 몇 년 있다가 광주로 오신 거네요. 장흥 사람들이 다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고향으로 오셨어요? ‘남자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은 변동이 있으믄 안 된다.’ 내 주관이었제. 손석민 씨도 “네가 요구하는 것을 80%는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을 허신 적도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지켜보고 많이 상대해봤지마는, “너 같은 놈은 밥이 누누이로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책가방이 길 었다고 하믄, 큰 일 낼 놈이라.” 그런 말씀도 내가 듣고 그랬는디도 “남자는 남자 다음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신 소리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공께 “똑똑헌 놈 이 집안 망신 있고, 무식한 놈은 망해먹을 것도 없인게 안 망해 묵었는디.” 무식 해서 내가 그랬던가벼.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해나갔기 맘시 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광주로 오셨어요? 예. 그때 그렇게 떠나왔죠. 떠나와 갖고 먹고 살 길이 광주 와서도 없어서, 속초 가서 오징어도 한 일주일 간 잡아보고. 그때도 정치 없이 속초로 들어갔었죠. 공께 사우디 가기 전에 속초를 들어갔다 나왔죠.

아버님은 그때 광주에 안 계셨어요? 계셨죠. 내가 결혼을 할 때도 부모한테 십원 한나 [안 받고], 내가 차비 대서 부모 모시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허고.

결혼식은 장흥에서 하셨어요? 장흥에서 옛날식으로 했죠. 인생에 살아나온 역경이라고 봤을 때, 나 같은 사람도 ... 고아에서 자란 사람은 나보담 낫죠. 고아원에선 밥을 지대로 주고 잠도 지대로 채웠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더러 등등[종종] 부모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한테 쫓겨났을 때, 일주일간 배추속잎만 뜯어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설사를 했어요. 부모가 술을 자시고 무식헌게 그러죠. 술 자신 기백으로 자식들을 ... 우리가 남자가 너이, 딸이 둘, 6남매 고려고 자라났는데, 뽀뽀이 다 헤어져버렸죠. 쫓겨나서 님의 감자밭에 가서 감자막 쳐놓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자고 감자를 캐서 먹은게,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고 어지럽고. 시안에는 부모한테 쫓겨나면은 잠을 잘 데가 없으니까, 들판에 가든 뽀뽀이를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뽀뽀이를 한 5다발 빼면은, [그 안에서] 잠을 자든 그 따듯하니 좋은데. 여름에 쥐새끼가 나락 따먹을라고 조사들이끼든[돌아다니면] 막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 우여곡절도 지켜봤고, 밥도 그마만큼 많이 굶어봤고. 당뇨도 걸려가지고 전대[전남대 병원]에서 죽게 내뱉 분 고놈도[그냥 죽게 놔뒀는데], 나 혼자 극복을 해서 나섰고[나왔고]. 우울증도 걸려가지고 한 5년 간 고상하다가 혼자 가심[가슴]을 뚜드려가면서 우울증도 나 혼자 나섰고.

밀감장사하러 제주도에 가신 적도 있으세요? 예. 제주도에 밀감 장사를 한다고, 거그서[장흥에서] 나올 때 몇 푼 가지고 나온 돈 가지고 밀감장사 한다고 해갖고 폭삭 망해부러서. 제주도에 33가지 한약이 납니다. 제주도라는 것이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한약 근조제, 약장사도 한 1년 해봤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게 망해부리고. 결국은 하나 상처[喪妻] 당해갖고 어린 자식들 거 너이[넋] 보듬고 [살아]나오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빗갈

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내가 조금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내가 내 입에다가 좋은 것을 안 넣고, 나보담 좀 못한 사람한테 넣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고달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배고플 때 밥 준 사람, 목마를 때 물 준 사람, 차비 없을 때 차비 준 사람이 죽어도 안 잊혀지지 안합니까? 집에를 못가고 있을 때 차비 없다고 하든 내가 만 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지금도 그래요. 또 배고프다고 와서 거시기 허든 밥도 주고.

사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지가 힘들은 과정은 처음에 결혼한 집사람이 고인이 되고 나서 그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혼자 3년을 살았어요. 혼자 살 때, 막둥이란 놈 놔놓고 20일 되어서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병원에다가 돈 십 몇 만 원 있는 거 쥐버리고 돈이 한나도 없으니까, 애기 망칼이[미음] 갈 쌀 한주먹도 없었습니다. 그 위에 놈 3살 목었제, 그 옥에 놈 5~6살 먹었제, 또 그 위에 놈 국민학교 1학년 8살. [첫 애가] 1학년 들어갔을 때 힘들었습니다. 고구마 한 푸대 가지고 40일 살았습니다. 형제간들은 있는데 농사짓고 그 밥을 먹어도, 쌀 한 되도 안 갖다 주데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가 달란 말을 앓고, 와서 쌀이 없으면 쌀 갖다 한 되라도 줘야 될 것을. 갓난 애기 망칼을 갈라 하니까, 쌀이라도 한 되 갖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낮에는 가서 마우병[보온병]으로 애기 젖을 물려놓고 베개로 개어 놓습니다. 갓다 오면 오줌 싸놔제, 똥 싸놔제 허면, 고놈 다 씻어서 빨고, 망칼이 개어 놓고 갓다 와서 치우고, 그런 생활을 3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사모님이 아이들을 다 키우셨겠네요. 예. 여그 나를 만나놓고, 고생을 많이 했죠. 돈이 없는데 만나가지고 20일 되어서 내가 사우디를 가버렸으니까. 그 너이[자식 넷]를 기르면서 고상 많이 했죠. 내가 뭘 날마다 업고 다녀도 내가 거시기를[모자라지] 않죠. 사우디 갔다 와도 그렇게 수술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처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애기들 데리고 오줌 똥 [처리해

주고] 길러가면서, 쌀도 없이 한 끼에 고구마 한나로 먹고 살았을 때, 영양가가 없
 응게 얼굴이 땡땡 부어버려. 영양실조 걸려버리니까 어지러워서 걸어댕기지도 못
 허제. 차 지나가면 어지러우니까 눈 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겪었지. 저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근 10년 동안을 병원을 그냥 해버렸지[계속 다녔지]. 지금
 35년 되었으니까, 조금 웃고 한 햇수가 열매 안됐습니다. 나는 무식헌게 유식한 분
 들 말을 잘 들어요. 전대 교수님 8명이 3년, 5년간 나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내가
 책가방이[학력] 없거든. 내가 자살을 할라고 할 때, 내가 자주 접촉한 전대 교수
 님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는, “이곤아 너 내 차 타라.” 해서는 무등산에 가면 산장
 에 가는 중간에서 음료수랑 팔고 조금 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놓더니
 “너 젊은 놈이 왜 죽을라고 하냐? 광주를 내려다봐라. 무엇이 보이냐?” 그러더라고.
 “교수님, 광주 전부 다 보이죠.” “전부 다 네 것 아니냐? 네 눈 속에 들어온 게 네
 것인디, 무엇이 괴롭냐?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밖으로 나올 때[태어날 때] 갖고
 나왔냐? 갈 때 갖고 가졌냐? 이 정신빠진, 정신 돌려, 임마.” 아따 배운 양반들은
 다른갑드라. 음료수 하나를 딱 사 주더라구요. 고놈 딱 마신께 “아,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싶다. 그래갖고 교수님 땀시 내가 살아. 그때 [교수님 아니
 었으면] 죽었을 거요, 배운 양반들을 보면 이 무식한 놈이 다 배울 점이 많죠, 배운
 양반들한테 무식한 놈이 뭘 말을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을 허는 것
 은 내가 몸으로,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학술적으로 말씀드리
 는 것은 없어요. 내가 겪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
 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이지, 내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께 내 말을 요려고 듣고 보면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라 치자 해서도 ‘광주 어느
 곳에 가서 학벌이 없는 분한테 요런 말을 들어봤다.’란 한두 마디는 생각날 거예요.
 인생의 역경을 겪어 나온 사람을 [이야기를] 쪽 들어보면, 머릿속에 담아놓을 것
 도 있고 담지 않을 것도 있고 그러졌죠. 그러나 인생의 역경을 겪어 나오는 과정이
 라는 것은 머릿속에 컴퓨터에다 쟁여놔 갖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 김 ◆ 창 ◆ 옥 :

❖ 김창옥

1937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생
1945년	남양군도에서 부친 귀환
1948년 4월	4·3사건 당시 피신
1954년	한림읍 귀덕국민학교 졸업
1957년	‘법호촌’ 입주
1959년	제주상업고등학교 2학년 중퇴, 사법고시 준비
1961년	재건국민운동 당시 ‘사랑의 금고’ 창설, 마을 표창
1965년~1966년	법호촌 초대 청년회장
1989년~2004년	서귀포시 영천동 농지위원
1995년	서귀포시 상호동 쓰레기 매립장 반대투쟁위원장
1996년~2010년	제주산업 서귀현장소장
2011년~2014년	법호촌 노인회장, 토평초등학교 아동지킴이

1. 일제시기 출생과 어린 시절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은 한림읍 귀덕리였죠? 그 마을 풍경 기억나세요? 한림 귀덕이에요. 돌아올 귀[歸]에 큰 덕[德] 자. 귀덕리예요. 그때 마을 풍경은 시골풍경이지요. 지금은 다 개발되어버리니까 없지만은 산골짜기에 원두막, 초가지붕. 띠로 이어진 집. 웅기종기 그런 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서촌동에 기와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띠 새로 해서 지어진 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학교 땡길 때도 신발이 모자라니까 2km 거리를 맨발로 다녔어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맨흙땅에 빗물이 흘러가면서 모래 같은 게 생기면은, 발눈이 터서 눈에 백히고[발 뜬 데에 가시가 박히고]. 어찌다가 어머니가 신발 하나 사주면은 아까우니까, 보자기로 싸서 배에 묶으고, 신발은 옆에 하나씩 [끼고 다녔어]. 짚신 하다가[신다가] 쪼끔 후에는 검은 고무신 했는데, 처음에는 짚신도 아까워서 짚[‘짚’의 제주도 방언]으로 했어.

어릴 때 가족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5살, 6살 때 할머니가 돌아갔는데, 내가 제일 큰 아들이고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차이가 열한 살 차이예요. 아버지가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간 해 행방불명됐다가 들어와서 그 사이에 어머니하고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머니만 고생고생하면서 사셨는데. 당시에 무당들이 [아버지는] 살고 죽었다 ... 동백꽃긔해서 [동백꽃이] 떨어지면 “여기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동백꽃은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여름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갑자기 와서 돼지 잡아 동네에 잔치해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쪼끔 전에, 여섯 살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갔는데, 할머니 돌아가면 울어야 될 거 아니예요? 할머니 돌아가는데 명주로 옷을 해서 입으니까니 그게 좋아서 ... 지금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눈물이 나거든요. 할머니 손자 하나뿐이니까 막 귀엽다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 고모네는 출가들 해가니까, 우리 할머니는 귀엽다고 옛 만들었다 주고. 또 목화 씨 뽑는다고 염료 사러 가면,

편하게 모가지가 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돌아갔는데, 그 옷 입으니까 좋다고 애들 앞에 자랑했던 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후까지 살아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할아버지는 작은할머니랑 같이 딴 집에서 사셨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안거리에서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목거리’, ‘밭거리’, ‘안거리’ 했거든요.

할아버님도 농사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농사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소하고 말이 있었어요. 품앗이 소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 밭일에 빌려주면 와서 하루 품앗이 해주고. 그러다가 4·3사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주시 군정청 통역관으로 가 있었어요. 동생 태어나자마자 4·3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선생님, 해방되었을 때, 해방 소식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은 몰랐고 며칠 후에 알았어요. 11살 때니까 국민학교 다녀도 며칠 동안은 몰랐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학교에서 “해방되고 일본 놈들 손들어서 간다.” 당시까지 제주도는 [소식이] 늦었으니까. 서울에서 항복문서 쓰고 해도 여기는 몰랐으니까. 엄청난 군대가 일본 본토방위 위해서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현길언 씨 책 『4·3사건』¹⁾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8월 29일 인가 27일 그때 돼야, 군대가 여기 와서 항복문서를 받고 무장해제 하고 갔어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어디 계시다 오신 건가요? 해방되고, 남양군도에 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연합군에 포위되니까, 굶餓이, 달팽이 안 먹으난 게 없이. 일본 놈이 행주 빨아논 거, 소가죽 구두 일주일씩 불려서 달여먹고. 그렇게 연명했다고 그래.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어. 그때 영국군 포로로 잡혀갔던 거 같아. 포로로 들어가서 들어오는 과정까지가 1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

1) 현길언, 2014,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제주4·3사건의 진실』, 백년동안.

아버님과 어머니 사이가 좋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학이었어요. 외할아버지네는 한학하는 양반 집안인데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거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애. 서로가 레벨 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또 우리 아버지가 밖으로 다니고.

2. 4·3사건과 ‘폭도’ 인식

4·3사건 당시에 8월 한 15일 모밀 파종할 때, 말하고 소를 밖에다 매놔거든. 옛날엔 제주도 [말로] ‘질매[길마]’ 하는데, 안장 식으로 양쪽으로 짐을 싣게끔 만들어졌어요. 메밀 갈아서 거기 실어오고 집에 와서 누워있었는데, 그날 밤에 우리 부락에 폭도가 들었거든. 최○○이라고 우리 부락에서 폭도로 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4·3공원에 가보면은 그 양반 비[碑]도 있어요. 옛날 우리 부락에 소릿길, 마차도 못 다니고 소하고 사람이나 하나 건너땡기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폭도들이 올라봐 성담을 쌓아놔는데, 성담 제일 얇은 데로 길 옆으로 와 내 허물고 부락에 들어왔거든.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동무들 하나 섭섭하지 생각하지 말라. 김일성 장군 돌아오면 살령 보내줄 테니까.”하면서 총 광광 세 번 쏘고 가는 거를 봤어요. 그때 밭에 길이 나있고 길옆에 대나무밭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숨어있었어.] 대나무밭이니까 숨는 게 그 숨은 게 아니지. 그 틈에서 폭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동무들 소, 말 가져가는 거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훗날 김일성 장군이 일제 취합해서 준다”고 총 세 방 쏘면서 가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소는 설마하니 못 가져가겠지. 정실로 가다 내불[내버릴] 테지.’ 경찰관이나 그 밑에 편드는 사람은 ‘개놈’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 통역관이기 때문에, 미국산 물건들, 독일제 옷 같은 게 있었거든. [폭도들이]

그거 가져가면서 “개놈네 집안이다. 불태워 버려!” 하면서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셋별오름이라고 하는 오름 있어요. 3일 후에 토벌대가 가니까 소는 잡아서 고기로 가져가버리고 뼈만 남아있대. 토벌대가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았거든. 곡식 들이랑 짐을 다 길마에 싣고 가고, 고기도 다 가져갔어. 소는 집에서 낙인찍은 표시가 있거든요. 죽은 거를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짓는 품앗이가 없어지잖아요. 또 자기 밭도 남의 소를 빌려다가 해야 되니까 [가세가] 기울어지게 됐어요. 당시 우리 집안에 친한 육지 분, 지관(地官)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기 법호춘 만든다고 하니까 그 양반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안 가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친족 할아버지하고 삼촌하고 해서 여기 찾아왔거든.

최○○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였어요? 폭도 우두머리였거든. 우리 부락에도 여러 사람 있었어요. 소롯길은 공부한 사람들보다 잘 알거든. 밖에 나가 공부한 사람들은 소롯길도 모를 수 있지만은, 농사 짓다 나간 사람이니까.

아버님이 미국 군정청에 계셨으면 영어도 잘하셨어요? 일본어하고 영어는 잘했어요. 통역관으로 있었어요. 또 4·3사건 후에 일본군 제1훈련소 5숙영지 옆에 가서 장공장도 회복해내서 장도 만들어보고 하다내 돌아가셨어요. 황달이 있었어요. 지금이면은 치료할 수도 있었겠지만 돌아갔어요. 5월 10일 선거 반대할 때, 그 우두머리들이 다 산으로 가라고 했거든. 우리 아버지는 통역관으로 있으니까, 동네 친족들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옆에 학진지 할머니라고 있었는데, “너네 왜 안 갔어? 깨도 볶고 콩도 볶고 해서다들 오늘 새벽에 갔다.” 하시네. 그때 한 10시쯤 됐거든. 어머니 앞에 와서 “엄마, 이거 무슨 소리냐?” 그때 준비해서 우리 부락에서 11km쯤 좀 떨어진 데 올라간 그날 밤 자고, 다음날 새벽쯤에 비 오는데 내려오는데, 비포장 소롯길이니까 엉망이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내려와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제헌국회를 못 만들었어요. [선거를] 못했거든. 오늘 현길언이 책을 보면서, ‘그때 주모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

나' 했어요. 지금도 나는 억울한 게, "4·3은 항쟁이다" 하는 거. 전에 한 번 제주 대학교에서 온 교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항쟁이면 누구하고 싸워서 항쟁이냐? 공산주의하고 싸운 건 아니고, 미군하고 싸웠을 건데. 그러면 제주도는 공산주의였단 말이나? 뭘 어쨌길래 항쟁이냐?" 하니까니 "그 문제는 내가 다음에 연구해서, 한 번 오라거네 하겠습니다." 한 게 25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었는데, 이름은 얘기를 안 해주고.

4·3 나기 전해에 3·1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마을에서 3·1절 기념식엔 사람은 없었나요? 제주시까지 갈라면 24km거든. 그때는 거리가 멀어놓으니까 버스로도 가기가 힘들어. 그 당시에 고창을이라는 양반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은 4·3 때 어땠나요? 우리 부락에는 세 동네가 있는데 약 150호 살았거든. '한다리'라는 데만 약 60호 살았어요. 대나무 위에 비껴서, 죽창 둘루고 밤에는 "붉은 깃발을 높이 들러라.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하면서 "으이싸 으이싸" 하면서 가는 걸. 우린 어릴 때라 공산주의도 몰랐지. 소작농이랑 머슴들이 토지개혁해서 지주계급 없애겠다고 했지. 토지 다 분배해준다고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죽창 들고 그렇게 했거든. 대개 남의 집 머슴들이 많았어요. 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주동자로 하나씩 끼고 선동해서 부락 동책 같은 어른들만 앞장을 서고. 그러니까 부락에도 남로당 계열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죠. 일본에 가서 공부하거나 선생 하는 배운 사람은 대개가 다 사회주의에 휘말렸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생각도 안했고, 나중에 4·3사건 주동했던 사람들은 밀항선 타고 ..., 자릿배에 보리 몇 석씩 주고 ... 얼핏 들었거든. 몇 사람 모아서 자릿배 해서 대마도 옆에 가서 배 비우면은 또 보내고 실라가고. 나중에 조총련으로 넘어갔던 말이지. 나중에 일본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고. 민단에 있던 우리 동서분한테 들었어요.

동서 분은 지금도 일본에 살고 계세요? 돌아갔어요. 비둘기 구[鳩] 자 하도야마 상[はとやま さん]이라고 일본 성을 썼어요. 해방 전에 부모 따라 5살에 일본에 갔어요. 우리보다 한 30살 위에 형님이었어요. 모리노미야[もりのみやえき]에 살고 있었거든. 한 30년 전에는 전부 중정에서 교육받고 가야했어요. 여권 받으면, “거기 가서 북송 교포자들, 조총련을 만나지 말고, 거기서 하는 식당에도 가지 말고, 생 그 옆에는 하지 말어.” 쥐도 새도 모르게 진짜로 다 알아. 우리 친구가 조총련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들어올 때에 “어느 날 어디서 당신 거기 안 갔다 왔나?” 중정에서 그걸 알아서 자백하고 자백진술서 쓰고 해내. 우리가 26년쯤 전에 거기 가니까, 우리 동서가 신신 주의를 주고 “그 사람들 아주 말이 좋으니까 뭐 먹으러 가자해도 절대 속지 말아라. 거기 가서 큰일 나니까.” 간 걸 모르는 줄 알지만, 귀국할 때는 전부 알아진대요.

선생님은 일본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니. 동서가 오래나니까 구경 겸 갔다 온 거지. 그때는 엔화가 비싸서 만 엔 하면은 150,000원 할 때니까, 엄청난 별이가 되거든. 당시 여기에 교포를 알아서 혜택 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 사니까, 교포들이 전부 가지고 오거든. 지금은 버려도 충분한 옷인데, 주면은 다 입었으니까. 정말 귀하게 입었거든. 한 10년 후엔 우리나라도 발전했는데, 교포들만 오면 막 따라다니고 그랬지.

3. 미군정 통역관 아버지

할아버님은 4·3 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글을 못했어요. 한 학도 겨우 해독할 정도만 되거나니까. 그래서 아들만 대학 보내고.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4·3이고,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런 걸 우리 아이들 앞에다 설명

할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또 아버지가 군정청 다니니까 아예 편을 갈라버리니까.

아버님은 어디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일본에서 대학교 2년 중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는. 나중에 일본 가서 찾아보니까, 와세다에 적을 뒀는지 어쨌는지. 아버지 살 때 정확하게 됐으면 좋을 건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당시에 전주에 가서 좀 살았는데, 서류들은 6·25 나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고 전부 가져오지 못한 거 있거든요. 그때 살아계신 셋고모 말나온 거 보면 “그때 오빠 따라다니다가 죽을 뻔 했노” 했어요. 그때 통역관으로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배낭매고 도망 나와서 제주도로 떠왔네. 그때는 또 병이 악화됐으니까.

아버님 성함 좀 알려 주세요. 김여문. 같을 여[如] 자, 글월 문[文] 자. 이번에 일본군인 갔다 온 거 [보상] 신청하니까, 인우증명에 떨어져네 빠꾸됐어요. 갔다 온 거는 [인정]되는데, 여기 와서 돌아가 버렸거든. 일본 군인으로 가네 해놓은 사진이랑 전부 있거든요. 그거는 되어놓고 했는데[준비했는데], 보상심리위원회에서 인우증명이 필요하대. 처음에 삼촌이 보증 했는데 ... 우리 삼촌도 3년 전에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둘을 보증인으로 했는데, 귀 막어놓으니까 통화 안 되니까니, “글로 쓴 대답을 하면 어떻겠냐? 행정법원에 제정신청해나갈래. 위로금 1,000만 원인가 나온다고 해. “시끄럽다 치아버려라.” 아버지 자꾸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것도 있고 한테.

아버님 돌아오시고 나서는, 선생님은 아버님하고 대화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대화를 못했어요. 내가 학교 땡기면서도 머리가 자기만은 못한 거 같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 서당공부도 9살 다 되까니히고 국민학교 갔어요. 유나이티드도 병설 다니고 영국 발음으로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니

까 나중에는 학교 가서 계속 영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 안 돼. 우리 아버지 친구해난 분인데, 새[혀]가 조금 짧은 분이 영어를 가르켜노니까 발음도 안 되고. 나중에 유나이티드로 돌아오니까니 뒤죽박죽되니까 그것도 싫고. 우리 아버지는 또 “새끼, 그것도 영어냐?”고 하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

아버님이 영어를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항상 회초리 들어서 하는 식이지. 하니까 겁이 나서. 그 때는 아버지는 요즘처럼 자상한 아버지로 서로 대화하는 상대는 아니야.

4. 6·25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죽음

6·25전쟁 기억나세요? 6·25가 터질 때는 우리 국민학교 때예요. 12살인가 13살쯤 될 때예요. 그때 피난민들이 우리 귀덕국민학교에 딱 차버리니까 교실에서 공부 못했거든. 친구 심수오 아버지가 한의원을 하는 분이었는데, 일본 사과케 짝 하나씩 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네. 그거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 집 창고에서 공부했거든. 서너 달 동안 거기서 공부했어.

전쟁이 난 건 어떻게 아셨어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이 전쟁 났다는 거 알았거든. “새벽에 공산괴뢰도당이 남침해서 들어와서 6·25가 났다.” 여기 부락에서도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해병대 상비생으로 나가는 걸 봤는데, 인천상륙할 때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나간 분들이거든. 6·25 때 사람이 돌아가면 화장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냇가 옆에서 장작 가지고 화장을 땔거든. 우리보고 집에서 장작 땃 개씩 가지고 오라고 했어. 국민학생들이 장작 땃 개씩 짊어지고 길 2km를 갔다니까. 멀리서도 사람 태우면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어릴 때라도 그 냄새가

나면 아주 정말 ... 지금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피난민들이 와서 아파 죽은 사람이에요. 6·25 때 오라내 집단 합숙하면서 아파서 죽은 것 같애. 그 사람들 어디 묻을 데가 없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겠네요. 당시에는 숙제나 내고 수업 제대로 못 받았지. 6개월 동안 학교를 피난민 천막으로 만들어놨지. 나가고 학교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해방돼서 처음 학교에 갈 때도, 가보니까니, 애 아빠들이 국민학교 1학년생으로 들어왔고, 나잇살이 차이가 있거든요. 8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열다섯 살, 열일곱 살 난 사람도 들어와가꼬 있으니까. 17살 되면 장가들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니. 애 아빠가 나오는 사람도 있었거든. 삶도 비참한 삶이었지.

미군정 끝난 뒤에는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6개월 동안인가 마을 이장했는데, 아파놓으니까 ... 군인에서 온 때부터 황달은 가지고 왔거든. 그때부터 아픈 게 계속.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 나중에는 황달이 너무 깊어지니까, 정말 손쓸 수 없게 돼서 나도 제일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한림에 고의원이라고 동창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와서, 황달 농든 걸 본다고 주사침을 엮는데[놓는데], 주사 놔난 가고는 하혈해서 난리가 났거든. 지금이면은 의료사고다 해서 난리가 있었을 건데, 아무도 모를 때니까. 그때 긴급으로 후송한다는 게 제주의료원 도립병원밖엔 없었거든. 보리쌀 빌려내 가나니까 병원에서 3일 만에 돌아왔거든.

아버님은 전쟁 때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아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해대. 집을 쪼끔이라도 돌보는 건 하나도 없었고, 밖으로만 나다니고. 장공장. 설탕 태우면 새까맣게 색깔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장공장 하면서 밭도 몇 개 팔면서 하다 내 돌아가셔서버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다음 해에 할 아버지 돌아가불고, 그렇게 겹상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상이 나면은, 1년에 치우

는 게 아니라, 삼년상을 하거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정이 자꾸 기울어져. 어머니 혼자고 소도 없어져 부렸지. 그렇게 해서 삶을 찾아 나온 게 이쪽으로 나왔거든. [아버지 계실 때는] 살만하다고 했거든. 그런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

마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때는 서로가 못 사니까, 돕고 그런 것도 없어. 자기 못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서로가 조금 차이 있을 뿐이지 큰 거 시키는[차이는] 없으니까. 또 오곡, 조, 보리, 콩, 이걸 [심어서] 먹어 살아야 되니까 돈 나올 게 없어. 땅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만이 먹고 사는 거고, 흉년이 들고 잘못되면 자기 먹기도 힘들고.

5. 예비검속과 연좌제, 서북청년단

4·3 때 죽창 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6·25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조총련으로 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강 씨라고 친족 할머니 편으로 친했던 분인데, 대학교 나왔었는데, 밀항선 타고 간 해 북송선 타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었거든. 고 씨라고 이장도 하고 재산도 있던 양반은 제일 주모자급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한림 쪽에 나가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부락에는 안 산다고 해요. 4·3사건으로 해서 다 몰락했고. 주모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는 없고.

6·25 발발 후에 부락에서 예비검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없었나요? 우리 부락 사람은 예비검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대림이라든지 한림 쪽 사람들 예비검속해서 대정 쪽에 가 죽었다. 육지로 실려가 죽고. 면회 갔다 면회도 못해봤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 부락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고. 외삼촌 한 분이 산에 올라가서 협조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 부락에서 직선거리로는 3km 정도 걸리는 애

월읍 어도에 외할아버지네가 있는데 소개했거든. 외할아버지네 집터가 한 300년 묵은 양집에 종손 집이야. 한 6,000평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소개해서 나올 땐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다. 할아버지네 소개해온 그날 밤에 군인들이 불붙이니까, 하늘이 그냥 온 하늘이 빨-거니. 100년 넘은 초가집이 한 6채 있었는데 통째로 다 탔거든. 그것들 다 태웠으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다 보였어. 그때는 사돈의 팔촌까지 연좌제에 걸려노니까, 연좌제에 걸려서 처벌받으니까 우리 집에 못 들어오고. 옆에 밭떼이게 움막 만들어놔내 거기 살았거든. 밤에 외할머니만 우리 집에 모르게 들어와서 잠자고. 할아버지는 친족 집 옆으로 가고내 자고.

외할아버지하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외할아버지는] 양재호, 우리 어머니는 양원수예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외삼촌은 그때 행불이 되어버렸고, 조카들은 애월 쪽에 살고 있어요. 또 시아 삼촌이라는 작은 삼촌이 있었는데, 장가가고 딱 3일 만에 경찰에서 잡아갔거든. 공산주의라는 걸 알도 못해 ... 근데 붙잡아가서 그때나 죽었거든. 그러니까 4·3사건 때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지. 아무런 조서 받는 것도 없이 붙잡혀 가면은 죽었으니까. 우리 부락에 폭도가 들었거든. 폭도 들어간 데 ‘미씨 하는 놈이다’,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쪽[혐의]을 붙여서 잡아가면 죽여 버리거든. 그때 우리 어머니 사촌오라버니들도 같이 내려와 동네에 살았는데, 연좌제에 걸려 한림에서 총 맞아 죽었어. 할아버지는 죽었다는데 가보니까 살아있어. 양 집에 ‘유아’ ‘여아’ 하며 이름이 비스먼 사람이 있었는데, 양여아를 불렀는데, 양유아가 더 먼저 나가버렸어. 누가 나가래서 나간 건 아니거든. 앞에 나가니까 그 사람 죽어 불고 우리 삼촌은 살았잖아. 4·3사건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말 나와서 같은 집안이 막 원수지간이 돼. 3대가[3대 내려와서] 나중에 화목을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

선생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국민학생 일텐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는 모습 보고 무서웠지. 할머니네 집에 가면 밥해먹은 생각하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밥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한 서북청년단이 여기 와서 상-당히 심하게 했거든. 머리에 수건 하나 두르고 탕자나무 지팡이 하나 들으면은, 개떼들 모양 내려와서 사람 패먹고 들어갔거든.

계신 부락에도 서청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경찰에서 같이 데려왔지. 경찰에 협조하는 걸로 반공청년들이 온 거니까. 그것들이 부락을 막 쫓대밭을 만드니까. 4·3사건 때 정부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 중에 하나로 그게 나오거든.

아버님이 군정청에 계셔서 서청이 선생님 댁에는 해를 가하지 못했죠? 우리 친족은 그 당시 유일하니 4·3사건 경찰이나 폭도 양쪽에서 죽인 사람은 없어서 좋다고들 했거든. 친족들이 명절 때 모여 앉으면,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안에는 피비린내가 안 나 다행이다”고, “재산을 잃었지만 그건 다행이다”고 해내.

6. 4·3사건 당시의 억울함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서, 3일이라도 얘기를 하라면 ... 어릴 때 봐도 “살았으니 까 살았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낮에는 경찰이 무섭고 밤에는 폭도들 무섭고. 밭에도 잘못 갔다 왔다가는 폭도 앞에 연락하러 갔다 온 걸로 되고. 경찰에 가서 잡혀가서 취조 받으면 무서우니까, “이 사람 어떠냐? 이 놈 나쁜 놈이다”, “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데려가서 총살. 이게 정말이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됐

어. 그런 사람들이 4·3사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옛말로 ‘밀세다리’라고 했는데, 밀고자라고 데려가면 “저 놈 맞으냐?” 하면은 자기하고 기분 나쁜 놈 있으면 “저놈도 맞수다. 저놈도 폭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먼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

‘폭도’들이 선생님 댁 소랑 말을 가져갔을 때는 어떠셨어요? 말로 표현 못하지. 어린 마음에서는 폭도들이 소에 짐은 싣고 가더라도, 소는 놓고 갔겠지. 설마하니 산까지? 2, 3일이면 토벌대, 순경 아저씨들이 우리 소, 말은 가져오겠지.’ 했는데, 한 3일 후에는 토벌대가 소에 표시했던 거 가지고 와서, “깁데기만 남고 고기도 가져갔다.” 하니까. 어릴 때였는데도 어머니 울어가니 같이 아니 울 수가 없어. 통 곡을 했지. 한 가닥 희망마저도 없어진 셈이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정말 증오에 가까울 정도였거든.

부락에서 사람들끼리 경찰, 청년단, “폭도” 이렇게 불렀나요? 밖으로 내놓지는 안했지만은, 내용적으론 그렇게 가게 돼요. 저 집안은 어느 쪽이다, 저쪽은 대략 하면 어느 쪽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말하다가도 가면은 딱 끊어. 그니까 당시 제주도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거든. 계엄령도 선포되니까, 잘못 말하면 끌려가고 하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어려서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찌나 살았으니 살았다.

부락에 있던 150호 중에 “폭도”로 가족도 있고 경찰 가족도 있었나요? 우리 부락은 젤 위에 부락이라든, 폭도로 간 집안은 유일하니 그 집밖에 없었거든. 4·3사건의 주모자들은 몇 가구들 있어냈지만은. 또 강보천이라고 큰 부자 교포가 하나 있었어. 일본에서 온 아들이 큰 부자니까, 아버지가 당시에 유일하게 희생 안된 분이거든. 왜 그런고 하니, 경찰에도 많이 줬고, 산에도 많이 줬고. 주라는 대로 다 줬어. 아들이 공부하러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일본에 완전히 터 잡은 큰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에서 비행기로 돈 가져오면 가마니로 떨어뜨

릴 ...”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부자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적선을 많이 했어. 산으로도 오면 쥐 불고, 토벌대도 오면 소 잡아서 매년 먹여주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니 살았다 그래.

당시 부락에도 빈부격차가 꽤 있었나요? 그런 차이도 있었어요. 근데 강보천 씨 부인되는 분이 매우 인자하고 품위 있게 키도 큰 분이었는데, 불쌍한 사람 굶어 가면 죽도 해주고 쌀도 해주고 메밥도 갖다 줬거든. 그러니까 그 덕도 봤던 건가 허거든.

선생님 댁은 그 댁 도움 받으신 적은 없었어요? 그 동네는 우리 부락하고 길 하나 건너 있는 500m는 [떨어진] 길이니까.

7. 사법고시 준비와 포기

선생님,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도 가셨어요? 고등학교 간 당해 년에 다니다 말아버렸어. 환경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 호구지책으로 이리 오고 해가니까, 나중에는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고시공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한 열일곱에서 스물 한 다섯 사이에 했어. 김태운 변호사라고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한 가족처럼 가까운 분이었는데, “너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라”고 했는데, 하는 거 보고 나도 사법고시 패스할 때에 코피 나게 했는데, “넌 안 되겠다. 간생이네 서너브러[이 자식아 접어버려].” 그래도 동창들 하는 거 보고 애는 많이 썼거든. 집에서 욕은 많이 들었고. 그때는 육법전서 하나가 펑-장히 비싸.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 아파 발 한판은 없었을 거야.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접고.

동창들 중에 같이 공부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창들이 젊을 때 많이 죽어버렸어. 공부 잘하는 놈들도 죽어 불고 하면서 법조계 간 놈이 없어버렸거든. 마지막에는 학점 따고 공부해서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들어가 보려고도 했는데, 말과 뜻대로 안 돼. 그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그때마다 4·3사건이 뼈에 사무치고. 하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야겠다.’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제주상업고등학교 처음 모집할 때예요. 거기가 차조수도 좋고, 중학교 3학년짜리도 가그네 입학했거든. 입학했다가 또 집에 와서 된통 혼나고. “하나부터 차곡차곡 해 가야지, 그 지랄하냐?”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려고 하니까니, 교통 여건이나 사는 여건이 안 되겠어.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후회가 되고 가슴 아파. 나중에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지?’ ‘밑에 보고 살지, 위에 보고는 못 산다’는 옛날 우리 아버지 한마디 억울하던 게 조금씩 사라져.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 4·3사건의 원망도 쪼끔 덜해지고. 우리 어머니도, 김태운 변호사도 “높이 보지 마. 굽어보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항상 아이들 앞에도 항상 그 말을 하고.

김태운 변호사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 지인이셨나요? 아버님 또래. 아버님하고는 모르고, 여기 와서 인연 맺었어요. 제주시에 변호사사무실 하셨어. 검사 시절부터 여기 집에 와서 드리고. 큰 학교는 아니어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 병원 원장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연을 하게 되더라고. 와다그네[왔다 갔다 하다가] 좋은 책 있으면 하나씩 놓고 가고, 권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고. 좋은 인연들이 자꾸 맺어졌고 나쁜 인연들은 없어네[없었어].

선생님은 혼자 공부하셨어요? 혼자 했어요. 내 일기를 계속 썼는데, 중간에 15년 한 거를 불태워 버렸어. 후에는 정리가 안 되니까 이리 저리 짜 맞춰 학습장에

해놔는데, 어느 연도가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편안하면은 정리해놓는다 했던 게, 지금도 농에 짝 차있어. 근래 한 몇 10년 가까이 것은 학습장도 있지만, 옛날엔 공책에 했었던 거지.

8. 난민귀농정착단 창설과 이주

이제 법호촌으로 오시게 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한림에 사시다가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되셨어요? 친족들 중에 우리 집안 못자리 보는 지관 분이 육지 분이야. 그 분이 항렬이 할아버지뻘 되는 어른하고 같이 여기 저기 남들이 묵혀 놓은 땅을 만들었어. 자기가 집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거를 사서 거기 살래. 자기네는 “고봉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되겠다.” 우리한테 양도해주고 부인을 만나러 글로 갔누만. 그래서 집 만들어진 거를 사고, 이쪽 귀농정착단 부락에서 만든 집은 소막이 하면 딱 맞아. 미송각재 얇은 문에 와꾸만[얇은 문에다만 미송각재로 문틀을] 붙이고, 그런 집을 내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송각재가 와야 되는데, 미송각재는 여기 안 들어오고, 영천산에서 해온 개다리, 삐뚤어진 것들로 만들어놨거든. 그런데 검사 온대노니까 문에는 [미송각재를] 붙여놔야 되니까니, 16세덴가에만 문 와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때가 언제였어요? 52년도쯤 됐어. 53년도에 창설했고. 52년에 와보니까 귀농정착단을 만들어낸 백○정 장로가 단장이 되고, 단원증도 만들고. 규정에 보면 ‘단땅’이라고 있었거든. 단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백○정이가 전부 사라고 해서 다 팔아먹었어. 부락구[부락 땅]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 백○정이가 가져가버렸거든. 그래서 저 위에 크-게 백○정 장로 비석도 있었는데 뿔아 던져 불고. “이거 아니다” 말이지. “백○정이가 백정 놈이다. 우리를

이용해서 이럴 수가 어디 있난 말이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났거든. 젊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9. 이주 초기 생활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마을은 어땠어요? 정말로 삭막했던 거지. 이것도 살다보니 살아지는 거지, 당시에는 살 곳은 아니고 황무지였어. 지금처럼 감귤나무나 방풍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구소장, 딸들 키우던 장소거든. 일본 놈들 때는 일본군 주둔지였고, 나라에 [말을] 바치는 종마처가 여기 있었고. 밑에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시에 풀 한 포기 안 나는 황무지였다고 했거든. [나중이야] 사람이 살아서 나무들 있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먼지 밖에. 흙밭. 그래서 하얀 옷을 빨아 놓으면 까맣게 되브러. 당시에는 물감된 옷이 별로 없고, 하얀 와이샤쓰를 빨아 말리다보면 또 먼지 다 올라가버려. 바람 잘 날 없이 매일 바람이 있고. 그래 놓으니까 피부병 많이 나고. 여기서 피부병이 생기다가, 북[제주]군 한림 쪽 가 있으면 또 좋아져. 그쪽에 가면은 먼지가 여기보담 훨씬 덜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막 입술 트고, 피부병이 엄청났는데, 제주시에 있다오면 새사람 됐다고 그랬거든.

선생님 가족이 사시게 된 집은 어떠셨나요? 우리 집은 그대로 사람 살게 했어. 지관이 만들어놓고 간 집이니까. 산간집인데 방, 방, 부엌, 마루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59년 사라호[태풍] 때 쓰러지진 않았어. 그 때 다 날아가 불고, 추석명절을 못했거든. 전 날 바람이 불었으니까 명절을 못해먹었어요, 우리는. 명절을 해 먹을라고 제물 다 차려놓으니까, 뒤로 돌담이 태풍이 치니까 짹, 돌담 터지면서 다 쳐버리니까 일체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살았다고.

오셔서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는 못하셨겠네요. 농사 못 지었지. 처음에는 와보니까 떼밭, 잔디밭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로 밭을 갈았어요. 잔디밭 갈아엎으면 얼마 있으면 썩거든. 썩으면 젊은 사람들이 토막토막 나 있는 잔디를 전부 손으로 때려서 흙 만들어가 밭 갈아서 농사 냈거든. 당시에는 비료가 없으니까 곡식이 돼? 안 되지. 땅을 갈아서 산소 공급하고, 태양, 비료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되거든 그니까. 그 먼 산에 가서 억새풀을 비려서 풀태[베서 태워서] 재 만들어서 비료로 가져와.

여기 처음 오셨을 때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는 나버린 때고. 여기 척박한 데 와랑보니까니 저걸 할 수가 없어. 생계를 하는 거는 오직 산에 가서 장작집 해다가 서귀포 가서 팔아요. 생계유지를 할 때가 되니까니 염두를 못 대게 되는 거.

그때는 어머니께서 밭을 가셨어요? 이 부락에는 밭 가는 사람이 없었고, 밑에 부락에 소로 떼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에 300평 정도를 갈아주면 돈 주고, 그렇게 개간을 했거든.

선생님은 장작 팔아 돈 벌어 오시고,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살았거든. 어머니는 농사일만 같이 하는 거지. 동생은 어렸으니까 아무 것도 못했고. 그때부터는 산에 가서 장작하고 서귀포 가서 파는 게 전부 일이었으니까니 내가 가장이 된 거지.

그때도 서귀포 5일장이 있었나요? 5일장 했었어요. 그때는 유일한 식량원이나 뭘 살 수 있는 게 5일장이거든. 매일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쌀장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8, 9km 됐는데, 그걸 왕복으로 걸어 다녔어요. 차도 없고 아스팔트 길 아니고, 냇골 같은 길이었으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피난 오신 분들. 그때는 다 산에서 숲 만들

고 나무해서 장작 해왔지. 숯 만들어 팔아서 생계유지하고. 지금이면은 도저히 안 되는 국유림 도벌이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조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지. 5·16 후에 육군대령인가 했던 하상식이 경찰국장으로 왔거든. 우리보고 “인간 송충이”라고 그랬어. 김영관 지사가 와있을 땐데, 김원보 씨하고 둘이 우리 부락을 폐동하려 한다고, 신문에 잘못된 기사가 났거든. 여기 목장이 신하효 사람들 목장이어서 거기에 소들을 방목하고 길렀는데, 이 부락은 땅이 없거든. 사람들이 소나무들 잘라 와서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사가 “이 부락은 폐동시키는 걸 생각해보겠다.” 그게 와전돼서 대문짝만하니 지방지에 났으니까. 당시에 우리 부락에서 총회해서 차비를 모아줘서 김봉무(?) 형님하고 나하고 지사 만나러 갔다 왔거든.

10. ‘법호촌’ 형성 과정

처음에 김창욱 검사장하고 길성운 도지사가 법호촌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오셨을 때는 법호촌이 만들어지고 난 후였나요? 그때는 그게 끝이 난 후였고. 열여섯 사람이 증언을 왔는데, “[백○정 장로가] 전부 먹어치웠다. 나무들이니 뭐니 온 것도 전부 먹어치워 버렸고.” 나중에는 사료집을 봤는데, PL480으로 해서 양곡 150 LST에 신고 오는데, 제주도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육지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 백낙준 문교부장관 있고 거기서 처분하고 여기 온 거는 나무 밖에 없다, 못도 한 집에 몇 관씩 나왔다는데. 그거면 한 세대 한 세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줬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자료를 한번 봤거든. 그 자료를 나중에는 찾을라니까 못 찾았어. 그걸 보고 “저거[백○정 장로 비석] 없애불자.” 해놔두니까 동향인 교인이 백○정 장로 비석이 길 옆에 버려져

있으니까니 가져다 뒀는데, 그 양반이 서울로 딸네 집으로 가게 되니까, 시온교회 어느 구석에 내버려둔 거야.

집은 몇 채 정도 있었어요? 그런 집은 개인이 사고 온 집이야. 한 30세대쯤 되고, 나머지는 단 집에 입주해오라서 권리금 주고 다 단지로 들어왔거든. 우리는 집 문 앞에 있던 지름값[기름 값] 주고 산 거고, 나머지는 권리금 주고 들어와 살았는데, 나중에 이 땅 사라고 해내. 백○정에서 양기원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등기부에는 백○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팔 때에는 김봉실의 하수인이 와서 팔았거든.

여기 오셨을 당시에 5숙영지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그때는 5숙영지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었지. 이 집 돌담을 잇는 데 막사에 써놓은 것도 그대로. 뜯어갈 건 다 군인들이 철거해가 버리니까, 그 집은 이용해서 돌담을 만들고, 그대로 있는 거는 덮어놓고, 5숙영지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서촌을 하게 됐는고 하니까, 여기 돈내코에서 흘러오는 냉물골이 흘렀거든. 저 안에 안간장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부락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물이 없거든. [여기는] 흘러오는 물이 있으니까니, 그 물을 식수로 쓰려고 여기에 부락을 맨든 거거든요. 그때 수도가 없으니까. 그때 여기 방아가 불 붙으면은, 옆에 총탄,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났거든. M1 여덟 발짜리 장전돼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들어오는 정문 앞에 5숙영지라고 해내 돌이 세워져 있었어. 5·16도로 확장하면서 없어졌지. 당시 홍중경이라고 5숙영지 훈련소장이 토평 가다가 흙탕물에 ㄱ서내[떠내려가서] 죽었어. 그 당시에 5·16도로가 얼마나 험해야 질차가 ㄱ서가네 죽었거든. 저 밑으로 소래 있는 데 일조섬까지 ㄱ서가서. 토평 공동묘지에 홍 중령 비석이 있어. 사업자 한 분이 같이 가보게해내[가보자고 해서], 나도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일주도로 옆에, 시체 발견한 옆에 세와 있었는데, 일주도로 확장하니까니 그 비석이 갈 데가 없었어. 그니까 지금 토평 공동묘지 어느 가시나무 아래 초라

하게 있거든. 그래서 보훈처에도 알리고 동에서도 협조해서 이 부락으로 갖다 놓
자 하고 있어.

여기 왔던 150세대는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왔나요? 아니. 다
들어왔어요. 저 위에 부락에 30세대 들어와 있었고, 숫자가 맞춰져 있었어요. 처
음에 16가구가 와서 시작은 했고, 시작을 해내 허해가면서 50세대 전부가 이루어
졌어요.

처음 오실 때부터 백○정 장로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알았죠. 백○정이가 한
다. 또 비석에 거창하게 부윤경 면장으로 시작해서 유지들 다 올라갔거든. 부인
끼리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양반들은 전혀 몰라요. 여기 있으니깐 하지, 백○정
이가 서울에서 다 요리해버렸으니까. 면장이고 누구고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
었어요.

그때도 마을 이름이 ‘법호촌’이었어요? 예. 법에서 보호한다고 해내 지었다는
해내. 그때 법성촌하고 법전촌하고 세 군데. 가나안 촌장이 김부자든가? 교래에
는 여자가 대표로 있었어. 거기는 잘 됐거든.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투자도 같
이 하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봐지겠고. 나중에도 거기는 성공사례를 내
서 우리 부락에 오랑 사례 설명도 한 번 하고, 후에 우리가 갔다 온 일도 있고
했는데.

11. 입주식과 난민귀농정착단 입단 및 개간 과정

그때 하동마을 입주식도 있었죠? 지금 조립식 집 있는 터에서 입주식 했거든.
우리도 봤는데, 모여서들 입주식 했어요. 그때 부락에는 피난민이 많이 이주했어

요. 원주민이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피난민들은 다 말들 배우기도 하거들 와있었어. 단에 본분을 다 안 하면은 제명처분도 했어. 김관진 씨가 마을 통장 할 때에 다섯 사람 제명당했거든. 15일인가, 20일 동안 무단으로 집에 없으면 제명당한다는 조건이 있었어. 여기 부락 일 다 안 해보고 집을 비우면 그렇게 해. 다섯 사람 중에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왔던 김○○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일을 잘 안했거든. 그때 제명했고, 또 고○○ 할아버지라고 신호 갔다 왔다 양 살림 한다고 해서 제명처분 시켜버렸고, 최○○이 아버지도 이발 해가면서 표선 쪽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일 안 해버리면 제명처분 시키고, 나중에는 신원해서 감면도 해주는 걸 봤는데. 그분들 나중에 조용히니 살다 가셨어.

단에 입단하는 절차를 밟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없고, 당시 우리 부락에 증거가 있었거든. 우리 부락에 마을 회관이 없으니까, 이장 바꿀 때면 반장들이 서류 담은 보릿자루를 걸머매고 인수인계 다녔거든. 또 이장이 저 집으로 바뀌면 그 집으로 가서 저녁 때 소주에 해서들 먹고, 중간에 한문[추울] 때에 오니까, 서류들을 다 태워버렸어. 이제까지 역사에 오단[역사가 되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이 태와 버렸거든. 그게 한 20~30년 전. 차트로도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걸 서귀포사에서 빌려갔대나면서 안 찾아오다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없어져버리고 말았거든. 그래서 기록했던 게 남아있는 거 밖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불태워버렸으니까.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다 단원이 됐나요? 단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단원이었어. 그때 행사는 하는 게 없었고, 처음에는 단원 규약만 만들어놔 있었지. 저 위에 부락은 같은 부락구로 돼있어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집 지어 살았거든. 그런 사람도 한 30, 40명 되니까. 그니까 단에 입주한 사람만 소막 같은 데서 시작을 한 거지.

막사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선생님처럼 따로 칸 있는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부는 있었어요. 일부는 밖으로 나가데 이 땅이 1원 2원 할 때거든. 황무지 한 평당 1원, 2원 하다가, 10원 20원 30원, 그러다가 1,000원 2,000원으로 올라갔거든.

황무지가 어떻게 농사짓는 땅으로 바뀌게 됐어요? 노력으로요. 그때는 돼지 기르면 돼지 거름, 소 기르면 소 거름 만들어서 밭에 뿌려놓고, 계속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키면서 밭 개간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게 무하고 고구마. 그런 거는 잘되거든요. 분포도 검사하니까 여기가 화산토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잘 안 됐어요. 흙이 바람에 날려서 된서리 해놓으니까. 방풍하고 밀감 심어가니까, 다행히 이젠 됐는데. 그 당시에는 황무지 와서 먹고 살려니까. 거름 만들고 억새풀 풀쳐 만들어서 태워다가 뿌리고, 또 개간을 한 데는 모밀을 파종해야 돼. 모밀 그루가 좋거든. 모밀 거름 뜨면 땅이 정화되그네 좋은 땅이 돼. 그래서 모밀 거름 해나면은 남 안 준다고 하거든. 비료 없는 때는. 콩 거름, 보리 거름이 그렇게 땅이 좋아진다고. 나머지 잡곡처럼 안 해서 그런다고 했어. 첫째로 개간을 해서 폐밭을 일구면은, 거기에는 필히 모밀 한 번 갈아놔야 숙정이 된다고. 밭 갈아먹는 땅이 된다고 했어요. 모밀 풀칠해가서 만들어다 불 태워서 놓고, 모밀 씨를 뿌려놨거든. 그때는 강원도에만 ‘모밀꽃 필 무렵’이 아니라, 여기서도 모밀이 냄새가 아주 정말 꿀 냄새가 났어. 양봉하는 사람들이 꿀도 빨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구마 심어서 전분공장에 팔고, 그때부터는 조금은 생활비 수준이 나아지는 거지요. 그건 마다리[포대]로 담아서 팔면 목돈이 나온 거야. 전에까지는 모밀 그까짓 거로는 생계하기도 바빴고, 아이들 학자금 주기도 힘든 거니까.

일을 하실 때 누가 감독을 하거나, 강제로 언제까지 개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조근로사업장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근로사업장이 있었어요. 부락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시청에 난 몇 평 개간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개간하고, 밑에 부락은 얼마가 없었는데, 저 위에 돈내코는 그걸 많이 했거든. 정착단 사업하고 난 뒤에 그걸 했어요.

12. 단장 백○정과 구호물자, 지역민의 차별

백○정 장로가 여기에 온 적은 없었어요? 그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장사만 해서 끝나는 거니까.

그때 원조물자는 안 들어왔나요? PL480으로 천주교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 구호물자는 미국물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로 해서 옥수수가루가 마대로 와서, 당시에는 주식이 옥수수였어요. 옥수수죽, 옥수수범벅. 지금도 옥수수가루를 보면 지겨울 정도거든. 그게 지금은 고급인데 그때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

시온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백○정이는 서울에서 교회 장로로 있었고 여기는 관계가 없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군인 교회 해는 데가 있었어요. 저 동산에 육각으로 만든 집이 하나 있었는데, 박격포탄 까꾸로 세워 때리는 종도 있었어요. 불나면 치고 했거든. 그 집에 군인 막사가 유일하게 남아있었어요. 시온교회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가난한 마을이라고 불렸어요? 네. 교회에서만 그렇게 불렸지, 우리는 법호촌으로. 근데 말을 하기 싫어서 당시에는 어디 가면은 법호촌이라고 안 했거든. 여기가 못 사니까. 장작 가지고 가서 밑에다 팔고 오다가, 큰 고구마들 뽑아오는 애도 있고. 그러니깐 새로 만들어진 부락은 도둑놈들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

런 인식이 각인이 돼 버리니까. 밑에 부락에서 고런 차별이 상당히 많았거든. ‘인간 송충이’가 아니냐고 할 때가 그 시기거든.

법호촌이 법이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법무촌(法無村)’이라고도 불렀죠? 그때 동창들 중에 공무원들이 “거기 법무촌 아냐?” “이 새끼, 무슨 법무촌이냐? 법호촌이다.”하면은 “거기 법 없는 촌이다.” 해석해보면은 상당히 서글픈 말이거든. 아무도 지키지도 않는 곳이라는 태도에서 나온 말들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법호촌’이란 말을 아니하고, “서귀포동 상호”라고 하고, 서울 가서도 그렇게 했다고. 일부는 뿔뿔하니 법호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해남이니 진도 쪽에서 많이 왔어요. 충청북도 사람만 없더랬거든. 못 살 때기 때문에 도난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부는 있었지요. 여기도 분교 초등학교가 30 몇 년 동안 했는데,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토평초등학교로 병합돼버렸거든. 그래서 울면서 김영관 지사도 손잡고 울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냐? 신문이 잘못 왜곡해서 한 거다. 나도 피난민이다. 내가 이 부락을 살리려고 구상하는 중이었다.” 그날 일본 시대에 만들었던 수도시설을 당장 내렸어. 집 16동도 새로 해주래. 그때 당장 서귀포 읍장 불러내 집 단장해주고 수도도 해놨거든. 바로 다음날 옛날 일본 사람들 수도관을 교체해놓을라고 했지. 나중에 일 있을 때 지사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양반은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하상식도 그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김영관 지사 앞에 갔을 때, 대기실에 해군 대위 하상식 씨가 있더라고. 배가 이만한 양반이 씩-씩 하면서 누워있는데, “저 양반들 어디 사람들이야?” 부관이 “법호촌 [사람]입니다” 하니까 “법호촌이면은 인간송충이굴인데?” 정말 열불이 나고. 그때 산업개발국장으로 있던 김한준 씨가 데려갔어. “저 새끼 누구니까?” 하니 “경찰국장 아니냐?” “경찰국장이면 한 번 받아볼때그만?” 나중에 얼마 안 살 아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랫마을이라고 하면 토평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토평만이 아니고 신하효, 상

효,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요 아래로 가면은 경계선 안으로는 기존 부락이니까니 농사짓는 땅이고. 여기는 황무지에서 개간해내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시작도 안했는데 서귀포 갔다 오다가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좀 뽑아와. 토평으로 주로 넘어 다녔지요. 토평을 거쳐야만 갈 수 있었거든.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법호촌 사람들을 차별했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전부 친구처럼 대해서 다니니까. 일부 아이는 다른 아이들 상당히 못살게 군 일은 있었는데, 그래도 큰 거시기는 없이 잘 넘기고. 당시에는 일화가 많아요. 토평에서 때리러 오려고 할 때도 있었고, 여기도 깡패, 복싱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 한번 때렸다가 동네사람 전부 동원해놔서 막 때리러 오러나고 난리가 많았지. 토평 애들하고 여기 애들이 싸움이 붙어났는데 그 놈 맞고 가니까, 그날 밤에는 전부 동원해놔거든. 부락 한 몇 십 명 동원해 목간에 차고 뒹고 다 두르고 해서 왔거든. 젊은 사람들 패고. 그런 때는 [내가] 꼭꼭 가서 해결사 노릇 해내. “우리 그러지 말자.” 했거든.

서로 앙금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앙금이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었어요. 자기들은 다 풀었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불교회에도 와그네 [서] 만나면은 “그때 큰 죄를 지었다”고. “세상이 그런 때 아니냐? 탓하지 마라. 다 지나간 거다.” 했거든. 그 대에 당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앙금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나는 항상 서로 해결하는 선에서 했기 때문에.

아랫마을하고 관련된 다른 일화도 있나요? 신하효에서 일로 올라와서 돈내코를 가거든. 돈내코를 이제는 우리 부락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그때는 신하효에서 관리했어요. 당시에는 신하효가 물, 폭포를 관리했거든요. 부락에서 와서 물 마는 [쓰는] 사람이 얼마씩 주는 거를 신하효에서 관리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지. 그때 오라가면 때리는 사람도 부리고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신하효가] 규모가 더 크거든요.

13. 월남민 등 단원 구성

단 구성원들의 고향이 다양했을 텐데, 구성이 어땠어요? 당시에 구성은 이북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북 사람 중에도 함경도는 또 ‘이북하와이’라고 해서 또 구분이 돼요. 함경북도는 조금 더 들어가게 보고, 서로들 “저 간나 새끼”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육지에서 온 사람하고 제주 출신 분들하고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쏘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이니까, 오랑[오래] 있으니까, 지역하고 가까워져가고. 또 변호사나 검사들이 계속 다녀가니까. 자연히 조금 높은 사람 다녀가면 가까워지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되니까, 법호촌이라는 말을 내놓고 쓸 수도 있게 된 거죠.

고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팔도가 전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권 세력이 피난민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세력이 바뀌지는 거지. 나이든 분들 돌아가시고,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완전히 바뀌지고. 그때부터는 피난민들하고도 서로 웃게 되고 서로들 가까워지고. ‘우리 부락이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진도에서 온 분들은, 전라북도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남 출신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과수원 관리를 했어요. 거기서는 처음에는 몇 분 안 왔어요. 와도 전라남도나 진도라고 얘길 안하고, “전라북도 어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거는 좀. 옛날에 전라북도에서도 충청남도하고 가까운 경계에 있었으면 대개가 “난 충청도다.”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

14. 3·15 부정선거 경험과 청년회장

당시에 4·19와 5·16도 있었고, 정치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법호촌도 당시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나요? 자유당 3·15 부정선거 때는, 우리도 3인조, 5인조로 나뉘었어요. 나도 조장이어서 조원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학습을 받았어요. 서귀포 경찰서 사찰계에서 오고, 마을에서 투표위원장 뽑아놓고 모여서 자꾸 연습하고, 조장이 가그내[서] 그거 찍은 거 확인해그네. 나중에는 토평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는데 세 사람 같이 가그내[서], 앞에서 이승만이 찍는 거 확인하고, 또 위원장 앞에 투표함 가서 집어넣었다고. 그게 선거야. 그때 김원희라는 형님은 받돌담을 허물어버리고 술 먹으며 “이런 놈의 선거가 어딴냐? 그때[5·10 선거 때] 선거함 불태우고 3개월만 영창에 가 있었으면은 요 모냥 요 꼴은 안 살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하면서 웃어넘길 때가 있었거든.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조장을 맡게 되셨어요? 부락 유지들, 반장들 앞에 조장 맡겼거든. 교육시키고.

당시 법호촌에서도 이장을 선출했나요? 이장 선출했어요. [나한테] 권고도 했거든. 나는 초대 청년회장 했지. 이장을 하지노니까[하라는데],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데, ‘내 집 하나도 잘 못 다스리는데 마을은 아니겠다’ 하고. 청년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씨족 몇 형제들이 계-속 이장을 집성 남발을 해[같은 성씨만 계속 이장을 해]. 이걸 보니까 정떨어져서 “내가 마을 책임자 하면은 성을 갈아 벌겠다.”하고 안 해요. 집성촌으로 형제들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위주가 되고. 한 날은 제주시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해서 약이 나온 게 있어. 머큐롬하고 메신[마이신] 종류나 비상약이 오니까, “백○정 장로네 비석 옆에 집에 보관해놔 두고, 장작하러 다니는 사람들 다칠 때 먹고 아픈 사람 하는 걸로 합시다”고 말이지. 이래나니까 그 형제들이 “이걸 갈라야지 왜 이여기 놔두느냐?” [내가] “너희

들 갈랑 먹으라. 오늘부로 나 청년회장 그만할 거고, 내가 책임자를 맡을랑 하면은 김씨 성을 갈아벌겠다.” 하고 말아버렸거든. 그걸 어떻게 갈라? 자기네들만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 느끼기도 해서. ‘이건 아니다. 그걸 또 해서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

처음에 온 150세대는 피난 온 사람들이 주축이었는데, 어떻게 씨족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형제 씨족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니 또 모여지고, 또 판 데 있다 들어오고 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15. 5·16 후 ‘사랑의 금고’ 조성과 라디오 구입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친목회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모밀도 하고 개 발도 해. 5·16 들어와 재건국민운동이 창설될 때에 ‘사랑의 금고’라는 게 발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형제 한 다섯 사람을 같이 끼워놔. 산 개간하고 발을 두 개를 무도 심고 했어. 친목계가 “훗날 애들 커서 대학 보내고, 학교에 조달하고, 불쌍한 아이들 있으면 도우는 기금을 만들고 이런 걸 하자.” 해 놔두는데. 영천산 뒤에 발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형님 한 분이 그걸 팔아 묵고, 우리 계 발을 개인한테 팔았어. 우리 총화적으로는 못 밝혀노니까, 개인적으로 대니면서 맨투맨[man-to-man]으로 ... 전부 원수지간 [될 판이니] 어떡해.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그 발을 팔아서 뭘 했느냐? 우리 중에 한 분이, 그걸 팔고, 현대에서 나오는 ‘하이파’인가 하는 큰 라디오를 사러 제주시에 갔어. 정신 나간 거지. 당시에 유행했거든. 그게 하나의 재산 목록이었으니까. 그거 하나씩 준다고. 나중에는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그거 듣기는 잘 들었죠.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했거든. 세월이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참,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있었나?’ 그래서 토평에는 당시 계모임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데가 있거든. 우리 형님하고 얘기하기를, “저기는 사법서사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없어져 버리니까니 미친놈도 여러 가지였지.” 근데 뭐 방법이 없자니. 맨투맨으로 와서 다 팔아갔는데 뭐.

16. 감귤농사 시작과 토지매입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신 건데, 살 만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고구마부터 조금 나아지고, 밀감을 시작하니까 ‘아, 이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돼.

밀감은 언제부터 하셨죠? 5·16후에 김종필 씨가 와서,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허드랬거든. 김종필 운정장학회 농장에서 시작했거든. 일본에서 들어오는 묘목으로 허는 걸 보고, 읍사무실에서도 일본 묘목 사다가 집집마다 몇 번씩 나눠주고. 그렇게 조금씩 심어가면서 시작한 거거든. 밀에서는 밀감이 ‘대학나무’가 됐대. 여기는 그 종도 늦게 시작한 거거든. 신하효나 기성부락은 시작해서 수익을 볼 때고, 우리는 그때 시작을 할 때고.

개간을 해서 농지 생겼을 때, 등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등기들 할 때도 애먹은 일들이 많아요. 미등기도 있고. 60년도인가 특례법[개간촉진법]이 있었어요. 그때 농기구원 선정해내 보증해주고 할 때, 못했던 등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는 등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개인으로 매매. 우리도 저 밑에 밭 살 때 신하효에 고유봉 할아버지라고 있었는데,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맥주 한 병 사다드리면 하루에 땅 두 평이나 세 평을 “자네 오늘랑 여 끊어가져.” 돌담 몇 개 놔주고 갔거든. 다음에 며칠 후에는 올라와서 “요거랑 요거랑 끊어가져.” 한 번에 붙어붙진[붙여버리지는] 아니려고, 오면 술 한 병 하고 돌담 하나 놔주고.

마지막에는 한 몇 백 평이 되니까 등기를 끊어 팔지만, 당시에는 농지축진법 때문에 180평 안되면 등기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 사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 할명도 이름을 써주었거든. 근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판] 근거 있으면 내놓으라.” 여기 땅은 대개 그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백○정 씨 들어오기 전부터 그분이 그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백○정이 들어와서 단 땅 2,500평은 고유봉 씨 땅도 있고 판 사람들 땅도 산 거지만은 나머지 땅이 대개 그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그때는 돈이 안 되는 1원짜리 땅이었으니까. 마지막에 특례법 되니까 등기를 했거든. 할아버지 아들이 선 곳더라고. 근거만 제시하면 다 해줬으니까.

그 아들은 언제부터 여기 일에 관여했어요? 그 아들은 고대원 씨라고. 처음에 등기 못 받을 때는, 그 할아버지하고는 가까웠으니까, 부락에 올라오면은 술 사드리고. 그 딸들 결혼식 때 백미 한 말 [해가고]. 백미 상당히 비쌌어요. 잘 달래와야 되니까. 나도 600평짜리는 고창보 씨라고 판사람한테 샀는데, 원 등기로 하자 놓으면 그 할아버지 땅이거든. 근거만 가져오라 하는데, 근거는 없고. 찾아보니 문서는 없어. 판 사람들은 암소 한 마리 주면은 팔겠다 말겠다 하지만 ... ‘이거 큰일 났네.’ 한 날은 그 집에 가니, “너 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부 있는 거 내노라” 내 문서책 보니까 그게 하나가 있어. ‘아이고, 이제 뻘구나’ 해서 600평을 그렇게 찾았네. 이것도 가져갔으니까니, 그날부로 해결해서 쌀 다시는 안 가지고 다녔어.

백○정 장로가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사비로 땅을 사들였던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돈 나온 걸로 해서 단 만들고 다 했는데, 원조물자는 다 자기가 먹었는지. 사람 숫자만 채와놓고, 다 사람 장사. 나중에 “백○정 장로가 아닌 ‘백정놈 장로’다.” 해서, 그때 비석을 헐어버린 거거든요.

17. 개간지 등기 문제

나중에 단 땅을 양기원이라는 사람한테도 팔았는데, 그분은 등기가 안 돼 있었다고 하셨죠? 중간에 양기원이 김봉실한테 팔고, 김봉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 김봉실이 단원들한테 단 땅을 다 팔았어요. 개인 소유로 만들어놔서. 그게 30년쯤 됐지. 길은 다 빼버리고, 지적도로 끊어놓고 분할했거든. 길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근데 지적도만 정리한 일이 있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길들은 크게 만들어 놔는데, 지적도는 안 만들어놓고, 길 요 정도씩만 남겨놓고, 다 [자기 땅을] 조금조금 넓혀버렸어. 그러니까니 길이 좁아진 데가 있어요.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해가네 해줬으면은 널르게 큰 길 돼 서로가 좋을 건데, 욕심이 지나쳤어.

선생님이 고유봉 할아버지 땅 사신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아니. 고유봉 할아버지 [땅은] 한 40년 전에 되고. 우리가 살 때는 1원 2원 할 때 모았다가 나중에 등기한 거였고. 단원들 앞에 팔 때는, 땅 값이 꽤 올라갈 때고.

당시 단원들이 땅을 살 형편이 됐어요? 당시에는 안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자기 것들은 다 샀으니까. 그리고 단 땅이 몇 십 평밖에 안 되는 거야. 단 땅 하나 사는 게 20평, 30평, 50평. 한 300평 가진 게 제일 많이 산 거고. 나머지는 그런 [큰] 땅이 없었어요. 다 [자기]집 하는 것만 있었으니까. 2,500평이 다 끊어져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150호 중에 땅 사기 전에 법호촌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땅 팔기 전에는 나가버리는 사람, 또 권리 사서, 집 사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들어오고 가고 그랬죠.

18. 천주교 원조와 시온장로교회

천주교에서 원조물자를 많이 보내줬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나요? 많았어요. 나도 천주교 영세 받았으니까. 당시에 신부가 모 신부님이라고 미국사람이었는데, 법호촌 가톨릭 신자들을 상당히 잘 대우했어요. 미국 480호 원조를 가져오는 데 힘도 많이 보태고, 힘을 많이 쓴 분이었죠. 59년인가 60년에 한라산 백록담에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산꼭대기 나무에 살점이 다 ..., 사람들이 완전히 범접 못해. 지금은 장비들이 좋지만 당시로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비행기들 통째로 다 포기하고, 당시에 모 신부님이 시체들 전부 수습해서 미국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시온교회도 있었나요? 시온교회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시온교회보다는 천주교가 더 번창했거든. 천주교 신도 이장이 서귀포에 일보러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 옥수수가루가 나오면은, 회장이 또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또 고해성사 받는 게 적성에 안 맞으니까, 신부님 앞에 대놓고 다 고하는 게, ‘이건 아니다’ 해서.

천주교 신자들한테만 원조 물자를 분배했던 건 아니죠? 아니. 480호 원조물자가 미국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나온 거니까, 부락 전부.

어떤 물품이 원조로 들어왔나요? 마대로 해서 쌀, 옷들 들어왔지요.

19. 개간지 질병과 5·16도로

저 위 물을 먹었기 때문에, 부락에 간디스토마 환자가 많았어요. 저 위 목장에

방목한 소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소똥물이 되니까네 디스토마가 생겼어요. 제주도립병원에 가면은 풍토병이라고 해서, 돈내코물 먹었다고 우선 묻거든. 백계선 씨라고 피난오신 분이 간디스토마로 돌아갔는데. 여기 큰 민물게가 있었어요. 그게 디스토마균이 득실득실한 건데, 100℃ 이상 잘 끓여야 된다고 하는 거를 구워서 먹으니까니. 그때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유일하니 그분이 간디스토마로 돌아갔어요.

5·16도로 건설 과정은 기억나세요? 강석원 지사일 때 5·16이 나오니까니, 김영관 지사가 대통령이 간 후에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도로는 일본군 군수송로로 만들어놓은 거였어요. 그때면 길이 다 [낮고] 나무들 말라죽으니까 새로 저걸[정비를] 했거든요. 인건비를 돈으로 다 쳐준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쇠팅치로 돌멩이 다 부셔. 그래서 “1루베당 얼마” 해서 보리쌀, 광목, 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줬어요. 돌은 많으니까, 다 깨면서 아스팔트할 수 있게끔 맨들어가면 품을 줬어요.

그 일 하셨어요? 나는 가서는 아니하고. 냇가에서 자갈 주워내, 쳐그내[서], 뿌셔그내[서], 부락 사람들 반별로 합쳐가지고 했거든. 서로들 갈라먹는 거야.

5·16도로 정비되고 나서 부락에 변화가 있었나요? 포장이 안 되니까 서귀포 가는 것도 엄청나게 형편이 없었고. 그때 정부미 보조도 줬는데, 토평에서 여기까지 실어오질 못했어. 토평에서 평안양로원 사이가 냇골 돼버려서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랬던 데가 5·16도로가 뚫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택시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시내버스도 들어오니까, 제주도에서 교통이 최고 좋은 데가 됐거든. 우리 부락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저게 대동맥이야. 지금도 촌부락으로 가보면은, 차 기다리는 [시간이] 그득한데, 여기는 금방금방 차가 있으니까니.

도로 나고 나서는 폐동한다는 말은 다시 안 나왔겠네요. 주업을 바꾸니까. 장작 하고 농사로 전환하니까. 석유 나오고 곤로 나오고 해가니까, 장작이 필요 없게 되니까 농사로 돌아간 거지요. 서귀포에서도 연료니 연탄이니 되고, 여기도 ...

20. 5·16 후 마을의 변화와 농사

이 부락에서도 새마을운동 했어요? 우리 새마을운동을 엄청나게 했지. 우리가 5·16이 난 걸 그날 새벽에는 몰랐고, 다음날에 알았거든. 서귀포에 가보니까 장갑차들이 와 있고, 군인들이 짝 깔렸어. “왜 냐?” 하니까니 “5·16이 났다.” 그래서 알았지. 5·16이 나고 처음으로 군대에서 만든 게 재건국민운동본부였어요. 그게 남제주 군청에 있었는데, 강성근 씨라는 분이 재건국민운동 남제주군 본부장이고, 유달영이가 총본부장이고. 강성근 씨가 새마을 본부장을 했고, 양마단지 건너편 부락의 현대순 씨가 간사를 했고.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어. 강성근 씨가 김원보 씨랑 우리 친구들을 글로 불렀거든요. 강성근 씨가 남로당에 송태삼 씨라고 [4·3] 주모자랑 중학교 동창이고 우리랑도 동창인데, 가보니까 “4·3사건 당시에는 [내가] 토벌대장으로 가네, 우리 직원 목을 잘라오라네[잘라왔어].” 토벌대에서 서귀포에 동문 로타리거리에 한 1개월 매달아뒀어요. 폭도는 이렇게 죽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걸어놔던 거 같아요. 그 당시는 한림에 있을 때니까니, 그 부인이 우리 부락에 살았거든. 그 부인도 살 수가 없을 건데, 개가를 해서 남편을 딴 데로 정해버리니까 살았거든. 송 씨가 아니고 강 씨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살았다. 돌아간 후에 빨리 강 씨 성 가진 남자하고 결혼해내 부락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아들은 송승훈인데 잘 봐줘라. 그 사람들 지금 연좌제에 걸려서 정말 불쌍하니까, 나도 도와주려니 한테 자네들이 잘 도와달라고.” 당시에 ‘사랑의

금고' 돈이 300만 원이 있었어. 융자해서 밭을 사고, 나중에는 원금은 갚고. 그걸로 밭을 개간하고 그 계 밭에서 무씨를 해서 팔았거든. 무씨가 상당히 유행한 때니까. 이 부락도 '잘 살아보세' 해서 길들 하고. 그때 내가 초대 청년회장을 했지. 냇가에서 목들 정으로 해그네 쪼사 깨그네[정으로 쪼아서 깨].

5·16 나고 나서 얼마 만에 청년회장을 하신 거예요? 5·16 나고 얼마 안됐죠. 초대 청년회장 해내, 그때 친하던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나온 약을 가르자 하는 바람에 그만둔 거고. 1년 반 정도 했어요. 우리 부락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리 사무실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걸 만들라면은 산에서 자비로 각재를 해야 해. 청년회원들이 하나씩 내놓으면은, 그걸로 집 지을 걸로 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청년회장은 원보 형님이 맡으고. 집은 내 때 만들었던 거고.

청년회장 마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뒤에는 아래 살 때고. 아들이 영일이래는 아이얏히 맞안[아이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사채로 넘어가서, 거길 떠나야 되니까 집이니 밀감나무 밭이니 다 주고 나왔으니. 울고 올라가 집 만들고 그때부터 분재를 시작한 거고.

5·16 이후에는 강성근 씨하고 가깝게 지내신 건가요? 강성근 씨도 여러 번 만났지. 이 부락이 신탄민들이랑 4·3사건 이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못 사는 부락이라는 걸 알고, 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인연으로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 왔을 때는 부락이 크게 해내 사는 건 없고, 땅이 없으니까 농촌 길 뚫을 데도 없었고. 유일하게 참 생각나는 거는, '사랑의 금고'를 만들어내고 청년회를 만들고 해서 살기 시작한 기초가 된 거.

'사랑의 금고'는 뒤에 어떻게 됐어요? 법호촌 사람들만 참여해서 만든 건가요? 밭 팔아버리니까 없어지기 시작했지. 여기 사는 사람들만 했는데, 그 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몇 사람 안 되니까.

처음에 누가 그거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원보 형님하고 나하고가 강성근 씨 찾아간 그때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둘이 시작을 해서 대원들을 만들어 같이 사랑의 금고를 만들어가그네, 이걸 하자 해내, 동네 친구들 같이 모이게 됐던 거지. 현철 씨라는 분 앞으로 토핑 사람 받을 사서 그 받을 개간했거든.

그 계에 마을 사람들 전부 참여하신 건 아니죠? 다 하는 건 아니고 별개로 해서. 그때 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서 뭘 하나?” 그때 삼으로 몇 평씩 파면서, “이 땅은 만들어그네 훗날 아들딸들 대학 보내고, 불쌍한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걸로 해서 만들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거창하게 만들어 힘을 얻고,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한라산에 가서 추모 노가리 계관이라는 게 있어. 죽으면 딱 위에 덮으는 계관.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 한 십 몇 만 원씩 받을 때니까. 헌데 우리는 그걸 아니하고, 새마을[운동에] 힘을 보태내 사랑의 금고를 했거든. 하다보니까 집에서 잔소리를 조금씩 했지. “산에 가면 하루에 몇 십만 원씩 계관 하는데, 돈도 안 되는 거를 왜 하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건 아니다’ 해서, 동네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계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10명. 삼 가지고 나가서 얹으고, 나중에는 조금 썩으면, 쇠스랑으로 찍으면서 [흙을] 뿌셔그네. 밭이 ‘숙전’된다고 했어. 밭이 되니까 모밀부터 시작해서 밭을 일궈낸 거거든. 그래서 나물치로 갈고.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조금 더 힘들었어. 산에 가서 돈 벌라니까니, 우리는 그때부터 산에 가는 거는 끝을 내버렸으니까. 그때는 개간하는 거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으니까. 개간해서 무씨 심고, 모밀도 갈고. 그때 보리는 잘 안 되니까 안 심고, 옥도라고해내 밭벼도 했어. 밭벼는 잘됐으니까니. 콩하고 모밀을 심어나면 그루가 좋은 그루가 되니까니, 그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새마을 때는 넘어갔거든.

처음에 막사 살던 사람들은 그 뒤로 집을 고쳤나요? 막사 사는 사람들도 자기대로 나무 해다가, 조금씩 조금씩 고치게 된 거지. 자기대로 집을 만들고, 고치

고, 집수리를 하는 거지. 우리도 옆에 할머니 살던 집도 붙이고, 적은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붙이고. 또 소막이 있어야 되거든. 소막도 짓고, 집도 조금 넓히고 고쳤지.

21. 농지위원 활동과 쓰레기 반대투쟁, 노인회장, 아동지킴이 활동

제주산업 다니신 이후에는 마을활동은 안 하셨어요? 농지위원은 근래까지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 영천동에 농지위원이 있는데, 상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농지를 등기하려면 도장 찍어 가야 되거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농업기술원 간 일주일 받고 와서 한 15년 동안 영천동 농지위원 했네. 25년 전부터 시작했어. 농지나 임야 사려면 농지위원 도장 받고 가야 허가를 받았거든. 통마다 한 사람씩 있었어. 여기가 그때는 서상호, 동상호, 법호춘 세 개 부락으로 돼 있을 때고, 토평 하나 있고 하니까 네 사람 있었어. 세 사람 거는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 바뀔 때는 ...

농지위원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부락에서 추천하고, 동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해내.

제주산업 다니실 때는 어떤 마을활동을 하셨어요? 제주산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위에 쓰레기장 할 때 반대투쟁위원장도 겸하고, 그때도 마을회장하다 나이가 서너불게되니까[드니까] 그걸 맡았어. 그거 하다 제주산업 사장을 만난 거야. 틀을 하나 못 빌었어니까[빌리고 있어서] 그걸 또 빌어주고 하다보니까 인연이 되네. 14년 동안 현장소장으로 있다가 왔다고.

제주산업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장 건립 반대투쟁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때 현 거지. 서귀포 시청하고 하는 거야. 막 둘러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합의조건으로

지금의 마을 회관을 만든 거거든. 쓰레기 처리장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대로 막 메와 놓았거든요. 새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밑에 고무판 깔고, 깔판 깔고 해야 되니까 반대가 또 일어섰어. 시청에서 땅 사내[사서] 저 아래에 있는 마을 회관 지어준 거예요. 그 땅이 사채업자한테 넘어가서 내가 팔아버린 땅인데, 기왕 이면은 개인 아니고 부락으로 ... 마을회관이 밑에 층은 노인회관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그 후에 지은 거고. 그때가 12월인데, 쓰레기장 반대해서 나온 돈은 12월에 빨리 써버리지 않으면 정부에 반환해야 되니까, 땅은 어쩔 수 없이 샀네. 특매 들어간 데라도 산 거거든.

제주산업에서 현장소장하실 때는 일이 어떠셨어요? 당시에 2년, 3년쯤 출퇴근을 여기서 했어. 그러다가 여기가 다 되니까 색달동에 쓰레기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폐기물 처리장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거기 집 만들고 할 때, 나는 여기 정리 다 해주고 소장으로 뒤따라갔네. 그때는 산록도로가 이쪽 안쪽에서 서귀포로 돌아서 그쪽으로. 우리가 하루 갔다 왔다 52km를 다닌 거야.

현장이 제주에도 있는데, 색달동에 또 생겨서 두 군데를 다 다니신 거예요? 제주 시에는 있는 거는 제주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건 다 끝나니까 절로 가서 있던 거지요.

노인회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개[공사가] 1년쯤 남았을 때부터 형님이 아파서 노인회장 하란 걸, 직장 다니니까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미루면서 있었어. 나이 먹어가니까 ‘나도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데, 사장이 제주산업을 탄 사람한테 팔아 불고 허니까, 나도 ‘에이, 나와 버려야 되겠다’ 하고, 동생은 봐두고 나온 거지. 나오니까 노인회장을 해라네. 그때부터 금년이 6년째예요. 제주산업 퇴임해 나온 지가 6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락에서 마을회관 지은 공로로 공로패를 준 거예요. 이게 제일 소중한거든.

표창, 공로패, 감사패를 받으셨다고요. 작년도에 아동지킴이 할 때에 잘한동[잘한다고] 경찰청장한테 감사패 받은 거고. 강상주 서귀포 시장한테 받은 게 있고, 작년에 김재봉 시장한테 받은 거, 옛날에 노인회장이 줬던 감사패, 장애인 아동복지재단에서 지역이사로 있으니까 감사패를 줬던 거고.

대한노인회에서 범호촌 마을회관 건립에 기여하셨다고 드린 공로패도 있네요.

22. 농림부 장관 표창

5·16 때에 하나 받은 게 있어. 유병현 농림부장관 때거든. 당시 정남규 박사가 농림부 차관인데, 대리로 와네 여기서 상을 주고 갔어. 리어카 하나 하고 받가는 쟁기하고, 그 양반들하고 돈내코라는 데 제주도 술모계단에 같이 갔어. 그때가 김한준 도 산업개발국장이 있을 땐데, 같이 와내 “자네가 농사의 표본이 된다”면서 표창 주고, 꼬네창에 가서 명월주에 소라 간썰이 거기서 상장 수여식도 하고, 정남규 차관이 직접 오랑 술도 따라주고.

그때 받으신 거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없어. 유병현이라고 농림부장관 쟁기도 없애버리고, 사진도 없어져버리고. 상장만 저기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황무지에 개간하는 거 설명도 해드리고 하니까니, 좋은 인연이 되면 부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에도 참 한스러웠던 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그땐 아무데라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때까지도 [공부]할 [생각] 버리지는 않았거든. 지금도 생각은 버리진 않애.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검정고시라도 해야지.” 하면, “정신 나간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소리를 하냐? 욕심도 많다.” 그래 할 거고.

23. 불교신자로서의 종교생활

어떻게 천주교에서 불교로 옮겨가게 되셨어요? 집에 내가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한 30년 돼. 아침에 불공합니다. 원래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니까니 천주교 들어가게 됐어요. 천주교에서 [PL]480호 먹게 되니까니. 원래는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불교였거든. 내가 국민학교일 때인데, 논샘이라고 절간에서 쓰는 촛대 있잖아. 아버지가 그거 14개를 켜고 가라고 했어. 겁이 날 때니까 아버지 명을 거역을 못하거든. 내가 그때 산에 있는 절간에 가다가 보니까, 멀리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너무도 그윽해. 그때가 6학년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이지 어린 마음에 딱 들었어. 그래서 내가 불교를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절간에 가니까 쌀밥, 떡 다 먹고 했는데, 오다가 셋길 잊어먹어서 밤에 한 두어 시간 해매고 집에까지 왔어. 그래나니까 그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천주교 왔네. 하다가 내가 고해성사를 제-일 [싫어하고], 또 신도회장네가 480호 옥수수들 가지고 싸우고, 재물에 탐욕이 생겨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 욕하면서 여기 있으면 나도 죄가 되는 거니까네, “나 안하겠다.” 해서, 불광이라는 일본 서재영 박사하고 인연이 돼서 다시 절로 가게 됐어요. 저쪽에 한라암이라는 자그마한 절간이 있습니다. 거기 신도회장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욕심이 있어야 사는데, 왜 욕심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물러 터졌냐?” 하는데,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어찌냐? 그렇지 않아도 살다보니까니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요. 분재할 때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도벌해다가 했으면 돈은 벌었을 건데, 영창 갓을지 모를 거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안하겠다.” 한 번은 한라산에 눈향나무 300벌 해 와서 걸린 거를 내가 불하 받았거든. 불하받아서 저 위에 밭에 갖다놓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경찰서장, 수사과장, 또 판사, 무슨 과장 다 와서 하나씩만 달라나니까. 김○○ 변호사도 서울

에서 높은 양반들하고 같이 오면은 하나씩 싸가고. 그때 이게 반출이 안 되거든. 3, 40년 전인데, 그 높으신 양반들은 비행기 타고 갈 때, 솥대나무[편백나무 다발에] 꽂아서 포장하고 “이거 솥대나무다” 하고 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길 내면서도 나 벌금은 단 10원 안 내고, 분재원을 하면서 그대로 살았거든. [분재를] 밖에 놔두면은 같이 볼 건데, 내만 욕심 부려서 할 뜻기는 없다. 심지어는 김○○ 교수라고 제주대학교 해양대학교 교수도 그걸 하지 말아라 말이지.

김○○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육종장에 근무해봤거든요. 근무하다가 제주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형님 제발 이거 하지 말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이걸 할라고 하나?”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지. 나중에는 누가 가져가서 없어져 버렸어. 욕심 없어 버리니까 집에서는 어머니도 고생하고 아내도 고생하고.

눈향나무 300본은 어떻게 불하받으신 건가요? 구청에서 불하공고 했거든. 뺑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금 지급하고 가져온 거. 당시에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줘서 받아왔는데, 돈은 쓰고 나중에는 10원짜리도 남은 건 없어. 그래서 다음 부팀은 어디 그런 거 있으니까 안 해. 차라리 못 본 체 하는 게 낫지. 50원에 사라할 건데, 저쪽 하천 옆으로 와그네 흙쳐 가면 ‘에이, 하나씩 해가는 거 내버리겠다’고 하다보니까.

24. 지역 정치 활동과 노인회 봉사클럽

김영삼 총재한테 받으셨던 표창장도 있는데, 지역에서 정당 활동도 하셨어요? 저기 이회창 앞에도 연하장 온 거 있고. 변정일이 그 친구가 있어노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됐지요.

변정일 씨가 국회의원이세요? 중학교는 후배고, 국회의원 하니까. 여기서 만나서 정치활동 같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전화하고. 20 몇 년 전에 지구당 위원장 할 때도 우리 부락 노인회도 같이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워크샵하고.

재작년 선거 때도 활동하셨어요? 내가 노인회장 하면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선거위원회는 안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친구도] 선거는 안 하겠다네. 변정일이 정치에서 멀어지니까 나도 선거운동은 안하겠다고 했어. 대표하니까 투표함을 거두기는 했지만.

신문 보니까 지금도 마을 청소 행사도 하시고 노인회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노인회에 봉사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봉사클럽이 15명이에요. 봉사클럽에서 요 앞에 잔잔한 걸로 꽃나무도 심고, 꽃 다듬기도 하고, 풀도 뽑고 청소도 합니다. 저쪽에 정자도 있는데, 거기 풀도 뽑고, 관리도 하고. 또 노인회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는 걸로 점심 먹고, 또 불쌍한 데 가서 보기도 하고. 돈내코 가서 청소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요.

어제, 오늘은 연찬회 있었다고 하셨죠? 오늘은 노인회 동동지회, 서귀포시 기획 노인회. 각 부락마다 있는 노인회장단이 총 138명이거든요. 오늘은 138명이 전부 모여서 연찬회하는 날이니까.

어디 소속이세요? 영천동에는 노인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법호촌 경로당으로 돼있거든. 영천동은 토평. 토평은 토평 노인회장 있고, 서상효에 또 노인회장 있고, 동상효에 있고, 돈내코에 있고. 5개 부락으로 나뉘져 있어요.

25. 육지에서의 구호물자 차단과 사업단 관계자 비석 파괴

옛날에 사단법인으로 될 때는, 돈내코하고 여기가 같은 부락이었거든. 옷 부락 30세대, 여기는 하(下)동. 52년에 여기 창설할 때에는, 한라산이 전적으로 개방 안 됐거든요. 폭도가 5명인가 잔당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창단을 했으면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지원은 다 중앙에서 없애버리고 단장네 양반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여기 이름만 갖다놓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거기서 이용해버리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인간 송충이다”하는 말 들으면서 살 수백엔 없었던 거거든. 귀농정착단을 만들려면 300 식전이랑, 정부 땅하고 농민 땅하고 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다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니까니, 여기 온 사람들을 황무지 막사에 소들 우리에 가둬놓는 식으로. 쥐방울만씩 주는 배급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할라니깐 산에서 도벌을 하고. 그러니까 이웃부락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받았고.

그런 사실을 문서 보시고 알게 되신 게 언제쯤이세요? 5·16 지나고. 내가 그때 부팀은 다니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실향민들 이렇게 데려다놓고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건데, 뭐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하다보니까니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듣게 됐거든. 정말 이거면은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건데.

서울에 간 사람이 남아있는 자료를 보고 알려드렸다고 하셨죠? 그분은 누구셨어요? 김창욱 검사장 옆에 같이 입회해 다니던 사람이 서류가 있다고 해네. 다음에 그거 복사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하고 소식이 끊어져 버렸거든. 그거를 보 관했더라면은, 정말 시정 공로도 쌓고 싶었고, 나중에는 여론화라도 시키고 ... 이 불쌍한 사람들 황무지에 갖다놓고, 실향민, 전화민들 돕는다고 해네 부락 만들고 300식전 불모지 만들어놓고 했다가 다 없어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어딴냐는 걸 [문제제기] 할 수 있었는데, 근거를 지금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거지. 그걸 보고는 백○정 장로 비석이랑 다 없애버리고 그랬던 거지. 밝힐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밖엔 없어요.

공덕비 사진을 보았어요. 도지사 길성운, 면장 김선옥, 부윤경이 적혀있어요. 맞아요. 5·16도로 옆에 서있었거든요. 저쪽 위에는 탑은 다 허물어 버렸거든. 그 밭을 개인이 사게 되니까. 거기에 보면은 임원들 있었는데, 당시 임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우리 부락 사람들을 짐승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 앞에 온 거는 없거든요. 우리 이름 팔아서 소도 나왔는데, 막상 여기로 온 건 몇 마리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앙에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설움 받으면서 산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 황무지에 던져만 놓고 갔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거든. 교통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9km 걸어가야 하는 곳에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밖에는 쌀 사올 방법도 없거든. 그때는 곡식 농사지어 1년 먹을 거를 곳간에 두고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비석을 교회에다가 그냥 쥐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뽑아내, 길옆에 던져 내버리니까, 저 위에 살던 황시담 씨라는 분이 리어카로 끄서다 왔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니까, 선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걸 가져가서 두라고 했어요. [교회도] 자기들도 세와눌 수는 없고 지금도 어디 눕혀놔거든요.

백○정 씨가 장로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백○정이라도 이북 출신 피난민이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뒤에 교회에서 비석 보신 적 있으세요? 구석에 있는 건 한 번 봤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세워놓지는 않을 거고.

예전에 시온교회도 들어오는 원조물자를 관리했나요? 아니. 천주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장로교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었고.

26. 종친회와 지역사에 대한 관심

족보 보니까 김해 김 씨이시던데, 제주도에서도 종친회하시나요? 우리가 제주도에 충방파예요.

종친회장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우리 삼촌이 돌아간 후부터 종친회장 했으니까 지금 4년밖에 안됐어요. 나이 먹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제일 위야. 족보는 내가 앞장서내 만들었고.

족보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김태운 변호사가 경주 김 집인데, 한 25, 30년 전부터 서울 다니면서 수집했다니까니. 서울 가그내[서] 전-부 찾았거든. 족보 할 때에 “영감님, 우리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뒷간에서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마을 역사, 특히 조선시대 이약동 목사 관련해 자료를 많이 찾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부락이라는 게 창설된 사단법인 귀농정착단이라는 걸로만 돼있고, 이 부락이 이어갈 거지. 35년 전에 내 동창 북제주 홍보실장 앞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지만은 안 봤거든. 이약동 목사 시집은 생각을 아니했는데, 제주산업 다니고 끝나갈 무렵에 봤더니 시집이야. 시가 “유감향기가 그윽하고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있음을 알겠네.” 했거든. 540년 전부터 여기는 영천관아 있었던 관아지구거든요. 영천관에 정의현이 있었는데, 제주현에서 정의현 오다그내 여기서 하루 묵고 가요. 여기가 대정현으로 지

나가는 중간 자리거든. 또 말 키와그내 중앙에 보내는 점마사가 여기서 거주를 해냈으니까내, 사람이 살았다는 ... 또 화전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저 위에 부락에 120가구가 산 흔적이 있어요. 『남사록』²⁾에 보니까 서경유 천주교 반란이 있었어. 천주교 반란이 일어나서 체포하라니까 전부 화전동으로 도망가서, 집단으로 일원에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땅 일구면서 살아가고 그 사이사이에 집들이 있어난 흔적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가 맥이 끊어진 부락은 아니다. 그래서 창설한 사단법인으로만 볼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면 배나무골이거든. 배 이[梨] 자를 써서 배나무골에 현 씨, 오 씨가 살았다는 탐라 기록도 있고.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황무지니까 여긴 아니지만은, 부락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를 새로 쓸라면은 여기에 이악동 목사의 시비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장 왔을 때 얘기를 했고, 동장 앞에서도 얘기를 하니까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했어요. 한 6개월 전에도 임광철 동장³⁾이라고 여기 출신인데, 그 양반이 와서 시를 보고는 “이런 시가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역사는 딱 맞습니다. 이거 만듭시다.” 했는데, 이번에 시장이 현을생 시장으로 바뀌지면서, 새마을 만들기, 부락 만들기 팀이 하나 새로 생기니까 [임광철 동장을] 거기로 빼가 버렸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봐 두었는데, 시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임광철이랑 도청에서 같이 일해야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관광과장을 시키면 안 됐고.” 하길래. “웃기지 말란 말이야. 영천동 다 발전시켜놓은 다음에나 데려가라.” 하니, “그래 하겠습니다.” 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데려가 버렸어요. 화가 나는데, 한 15일 전에는 시장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자기는 서귀포 전체의 마을 만들기 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갔다고 하니깐, 나머지 동장도 “이 아이도 잘하는 만큼 어떻게 좀 하십쇼.” 해내 우리가

2) 1601년 제주에서 발생했던 반란사건 후 제주도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던 김상헌이 제주도에 갔을 때 쓴 일기 형식의 글.

3)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팀장. 전 서귀포시 영천동장.

삼계탕 집에서 앉아있는데 사과하길래, 우리만 욕심 부릴 수도 없고. 이 부락에 눈골로 물 흘러가는, 돈내코서 흘러오는 물이 있거든요. 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남부 욕중장이라는 데가 들어서고, 산업화고등학교도 들어서고, 이 물 때문에 부락이 있는 거고. 동장이 “이 물을 살려야 됩니다.” 하네. 저 안쪽으로는 덮어버렸는데, 200m가 지금 남아있어요. 원[물길]하고 저 위에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저걸 원상복구 해그네 물 흐르게 만들고, 관광객이 오면은 발도 좀 한 번 커보고[답가보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임광철 동장이 나비박사 석주명 박사를 오라고 해서, 나비공원을 만들었어요. 나비공원에서 여기까지 걷는 올레길도 만들고. 엄청 해놓고 가버리게 되니까, 이번 동장이 “전부 인계 받았습시다. 인계받았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는 가더라도, 이 부락의 후세대들이 ‘이악동 목사라는 분이 있었구나.’ 시비도 세울라면은 이 양반의 뭘 알아야 할 건데.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옛날 일본시대에는 이 물골 밑으로도 논밭이 있었어요. 신타효 쪽으로 논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벼농사를 했거든. 이 물 흘러가는 걸로 했는데, 5·16이 되고 김종필 운정장학회로 밀감나무가 시작되니까 벼농사를 안했거든. 거기가 전부 과수원이 돼버리니까. 밑으로 2km쯤 가면 있는 저수지에 물을 보관했는데, 담수 내려가게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저수지 댐도 전부 다 불하해버렸거든. 개인 땅 만들어버리니까 물 갈 게 필요가 없거든. 그 후에도 이 물은 옆에 개울가로 흐르게 만들어내, 이 위에 사람들은 그 물로 소독도 하고 밀감 밭에도 사용했어요. 근데 자기 농업용수도 다 되고 이 물이 사용 없게 되니까, 우리 부락 마을회장 하던 아이가 저 밑으로는 덮어버렸거든. 우리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 물을 유수관에 연결해서 영천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이 흘러오면은 여기서 보이고, 또 앞으로 전부 깨끗이 만들어그네 흐르게끔 만들 걸로 했어요. 여기 지역구 도의원이 “구역사업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다.”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보기 위해 진짜 힘을 쓰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⁴⁾

마을의 역사를 이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안 계신데, 감회가 어떠세요?
내가 요런 거[구술]라도, 남겨놓을 수 있었다는 게, 상당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무지에 와서 ‘인간 송충이다’는 말을 도지사 김영관 지사 대기실에서 듣고, 지사를 만나 손을 잡으니까 그 손이 어떻게 장군 손이던지. 그 손을 잡으니까 눈물이 아니 날 수 없어. 막 우니까 지사님도 눈물을 글썽하면서, “나도 실향민이다. 당신들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수도를 즉석해서 ... 물 때문에 간디스토마로 풍토병이라고 해그네[서] 자꾸 병자도 생기고 할 때까지만은, 수도를 즉바로 해줬거든. 전화해놓으니까, 바로 여기 실어온 거야. 우리가 버스 타고 와보니까, 부락 일부에는 수도관을 세우러 ... 차로 서귀포에서 빠이쁘들을 실어다 놓고 있더라고.

그때 정치의 힘을 알게 되셨겠네요. 정말로 흐뭇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 과연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읍에 가면은 수십 번을 얘기를 해도 “없다, 이걸 딴 데 할 거고 다른 거 할 거다” 했어. 어디 기관에서도 우리 부락을 한 수 아래로 하시를 할 때니까. 우리 동창이니 아는 사람들이 도청에도 있고 해노니까, 제가 쉽게 주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대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동창이라는 것도 생길 수 없고, 또 밖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4) 김창옥의 요청으로 면담자가 이약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5년 2월에 법호촌 마을 입구에 ‘이약동 시비’가 건립되었다.

∴ 손 ◆ 성 ◆ 명 ∴

❖ 손성명

1941년	전남 장흥군 안양면 출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사촌형의 전사
1958년	안양면 정착사업장 조성 시작-사업 참여 흥업회와 마을 운동장을 둘러싸고 갈등
1962년	군 입대
1965년~	군 전역 어업에 종사 이장 어촌계장
현재	안양면 사천리 거주

1. 6·25전쟁 기억과 1950년대 어린 시절

태어나셨을 때부터 편하게 기억하시는 걸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일흔네 살, 만 73세죠. 이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마흔아홉 살 때 집만 조금 새로 지었지,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은 그땐 누구나 다 가난했고 보릿고개가 있고 농토가 적고, 그래서 거의 다 지게 지고 나무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옛날에 밤에는 ‘한문서재’라고 있었어요. 지금 중등·고등학교 못 간 사람은 주로 겨울철에 한문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방을 빌려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문 공부를 배우고 통상 그렇게밖에 안했지요.

국민학교도 여기 사천에서 다니셨어요? 이 집에서 안양동 초등학교 다녔어요. 제가 4회 졸업생입니다. 3학년 때 6·25가 났네요. 3학년 1학기 때 6·25전쟁이 일어났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큰덕에 사촌 형님이 광주 20연대 군대를 가있었어요. 우리 큰덕이 그때 부자였거든. 논이 한 30두락. 모내기를 할라고 할 때 형님이 첫 휴가를 왔는데 갑자기 귀대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라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6·25가 터진 거지. [형님은] 그때 가서 전사해가지고 얼굴 못 봤어요.

큰덕도 사천 근처였나요? 예. 우리 할아버지 4형제가 전부 여기 지금 살고, 밑에 손들, 동생들 전부, 내 밑에 동생이 서이나[셋이나] 전부 서울 살아요. 나만 장손이라고 여기서 떨어져 살고 있고.

부친께서는 농사나 어업,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부친은 옛날에 순천, 지금 유명한 갈대축제하고 그러는 대대마을에 어업조합이 있었어요. 그 어업조합에 서기로 근무하다 그 뒤로 6·25 나가지고 집이 좀 시끄러워져서 돌아가셨어요.

부친은 순천에서 사천으로 계속 왔다갔다 통근을 하셨던 거예요? 통근을 못하

죠. 그때는 버스도 귀해서, 보성서 기차를 타고 우리도 순천 아버지한테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붓재[보성군의 고개 이름] 거쳐서 보성역까지 걸어가요. 나는 그때 어리다고 어른들이 업고 가고, 그러고 땀기다가 또 좀 걸터앉고 업고가고, 내 동생 하나만 낳고 부모님들은 순천에 가있었어요. 나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조부모님은 예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농사짓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랬어요.

부친이 순천에 몇 년 정도 계셨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방되기 전에 한 몇 년 있었고, 해방된 뒤로도 거기 있었어요. 6·25 난 뒤에 그만뒀을 거예요.

전쟁 났을 때 사촌형님 귀대하신 것 말고는 마을에서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적은 딱히 없으셨나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공부도 못하고 무슨 제각[祭閣] 같은 그런 데서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저 이북 인민군들이 내려와 갖고 ‘아침은 빛나라’[북한의 국가, 「애국가」] 부르라 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하도 못하고.

인민군들이 사천 마을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럼. 전부 들어왔죠. 전라남도도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도 낙동강 밑으로는 인민군 구경을 못하고, 그 우[위]로는 전부 인민군 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항상 경상도 분들이 나쁜 소리 한 것이, ‘저쪽[전라도]은 공산치하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커서 지상에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고 알았죠. 낙동강 전투에서 미군이 와서 필사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신원조회로 말하면 경상도 북쪽에는 인민군 안 들어간 데가 A급이지, A급.

당시에 전쟁이 나서 많이 무서우셨나요? 그땐 어린 시절이라 잘 모르죠, 3학년 2학기, 4학년 초까지 뭐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몇 개월 간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다시 물러갔겠네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서 중학교는 가셨어요? 아니요. 중학교는 못 갔어요. 농토가 많아서 부잣집으로 산 사람은 겨우 중학교 정도 가고, 우리 동네에서 그때만하더라도 대학생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145호가 넘은 부락이었어. 그것도 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갖고 자력으로 농고 나오고, 이리 농대 나오셨어요. 한 분은 조선대 부총장까지 해 먹고 국문학 박사까지도 했습니다만, 이현수 씨라고. 어머니가 장사를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또 정도정이라고 그 형님은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당시 정도정 씨는 서라벌예대 나오고 사회에서 뭐 좀 하다가 작고를 했고, 두 분은 다 잘됐고, 다 우리 부락 출신. 저보다 세 살 형님들.

큰댁은 여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도 여유 있게 사셨어요? 우리 큰댁은 농토가 스물여덟 마지기인가 경작을 해서 살고, 조부모님이 여기서 어업을 크게 했어요. 여기서 풍선을 한가득 타고 열 몇 사람이 군산 앞바다 칠산 바다에 조기잡이 갔어요. 거기서 조기하고 병치[병어의 전남 방언]를 잡았어요. 우리 할머니 말씀에, 작은 할아버지가 병치 유아망도 하셔서 돈을 잘 벌었다고 하시데요. 그런데 사무장하면서 많이 날려부러가지고 집이 완전히 안됐죠. 당시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 분은 우리 조부님밖에 없죠.

당시 사천에서는 농사보다 어업을 하시는 분이 더 많으셨어요? 더 많았죠. 일본 사람들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 동네가 상당히 부자로 살았데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부락이 몰락해가지고 농토가 적었어요. 제가 부락사를 좀 봤는데, 그때 145호[가구]가 있었는데 농토가 345두락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닷 마지기 이상 논을 진 사람은 손꼽을 정도, 열 몇 집 정도였죠. 다른 사람은 전부 논도 없고, 밭 조금 있어봤자 그때는 비료가 나오질 않았어요. 보리도 비료가 없으니까 인분을 퍼서 가꾸었어요. 인분 좀 갖고 와서 한두 명 줘봤자 집집마다 전부 다 하니까 수확이 안 나. 보리 모개가 아주 적거든요. 전부 보릿고개 겪은 거죠. 그 뒤로 충주

비료공장 나주비료공장 생긴 뒤로 점차 나아졌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치중해가지고 보릿고개 없앴잖아요, 70년대에. 당시 우리 부락에는 20~30가구 정도만 농사를 짓고, 한 마자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한 35가구나 됐을 거여. 나머지는 전부 [논]농사가 없고, 밭농사는 그래도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국민학교 졸업하신 후에 바로 어업에 나가시거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할아버지하고 어업도 하고, 할아버지 늙으신 후에는 제가 하고. 지금도 피조개 양식장을 21ha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바다사업을 하고 있죠. 농토도 좀 갖고 있지만.

2. 사천 사업장 공사 참여

학교를 가고 싶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이구, ‘학교를 가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봤자 환경이 용납이 안 되니까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날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이었어요. 그때는 이 밭에다 전부 고구마를 놓니다[심 습니다]. 겨울에는 보리를 갈고 여름에는 다른 중요한 잡곡은 조금밖에 못 심고 거의 다 고구마를 났어요. 겨울에는 거의 고구마로 점심 끼니를 때웠고, 그것도 고구마도 없는 사람은 끼니를 굶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새벽에 여자 분들이 ‘모를 찢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자다가 논에다 풀어놓으면 여자들이?? 모를 심어요. 양쪽에서 못줄 잡고 전부 모를 심어요. 품앗이도 하고, 며칠 굶다가 못밥을 하면 굶다가 그걸 먹어갖고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못밥은 보름에 잡곡밥을 하듯이 맛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잘 산 사람 몇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 김형서 씨가 보사부 장관한테 아까 말한 간척지 애길 했죠. 피난민

들이 자재를 만들어서, “이걸[바다를] 막아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좀 도와 주라”고 했죠. 미국 그 천주교 신부가 못 사는 나라에 밀가루를 원조를 해줬잖아요. 그 밀가루 팔아서 자재를 만들고 이것을 막았어요. 김형서 씨가 처음으로 그 걸 막아가지고 아마 58년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거의 다 흙구르마로 그 독을 해창까지. 저기 막어진 데가 해창리. 독을 거의 다 흙을 빚어서 막으면은, 그것보고 완전히 물을 못 들어온다고 해서 ‘절강한다’고 했어요. 절강을 다 하고 바깥에 보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여기는 얕으니까 현대에서 배로 절강을 다 해놨어요. 58년도인가 59년도인가 그것을 하고 절강을 다해놨는데, 음력으로 8월 열이틀인가 열사흘인가 그때부터 사라 태풍이 불었어요. 사라 태풍이 지금 같이 잠시 분 것이 아니라, 내 기억으로는 그때 3일 이상을 불었어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절강해놓은 독이 터져부렸어요. 터져부러서 다시 돈을? 얻어다가 다시 재사업을 해가지고 막았어요.

어르신도 50년대 후반에 김형서 씨가 사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난 오신 분들 자기들끼리 하고, 흙구르마 같은 거 만들어서 한참 일할 때는, 부락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나오라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걸 다녔어요. 우리 죽마고우 초등학교 친구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보다 한 살씩 더 묵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 집에서 놀기는 뭐하고, 조금 부잡시린[부산스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녔는데 용돈 번다고 한 것이 그거였죠. 열아홉 살 땀가 스무 살 땀가 스물한 살까진가 그 일을 했죠.

어르신은 태풍 이후에 다시 작업할 때부터 참여하신 건가요? 그 전에도 했고. 조금 하다가 사라호 태풍에 절강이 터져불고. 다시 절강을 언제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간척지를 다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논을 만들어 갖고 62년도에 처음으로 모내기를 했어요. 그때 바다를 막아놔오니 민물로 우려내야 되는데 염

수가 많아가지고, 바다를 막고 1년 있다 모를 심으니까 전부 다 심어놓으면 고사가 돼서 내가 그때 처녀들하고 못줄을 잡으러 탕졌어요. 유만정이란 친구는 작년에 작고를 했는데, 그 친구하고 못줄을 잡으러 다녔는데, 세 번까지 심었어요. 1년에 세 번을요. 심어놓고 한 20일 있으면 고사가 되불고, 그럼 또 도로 못 자리 만들고 다시 심고. 켈 밑에 바다 쪽에 있는 논은 대부에 가까운 그 논에 모를 세 번까지 심었는데도 수확이 없었어요.

열아홉 살 때부터 사업장에서 몇 년 정도 일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열아홉 살 아직 좀 부드러울 때죠. 스무 살, 스물한 살까지 군대 가기 전에 좀 하고 또 술 마시러 댕기고 그랬지요. 제가 62년도에 7월 29일 날 군대를 갔어요. 논산 훈련소에 군번을 8월 4일 날 받았는데, 그 삼복더위 때는 한 시부터 두 시 때 일사병 때문에 훈련을 안 시킵니다. 그때 화폐개혁 해갖고 돈을 좀 갖고 왔는데, 그때 10원 짜리면요. 논산 훈련소가서 비가라고, 누가라고 이렇게 긴 거 10원 주면 열 개씩 샀어요.

3. 마을 운동장을 둘러싼 흥업회와의 갈등

그때 친구 두 분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젊은 사람은 몇 살이었어요? 나이로 보면 내가 켈 적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셋이가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좀 부잡시러왔어요. 여기 간척지를 막은 데 운동장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바다를 막아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등기상 운동장으로 돼있지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 한가운데로 해서 길을 가야만이 공원 독을 막겠다, 그렇게 형편이 돼있어요. 형서 씨가 임의로 쓴 거지요. 공보상 부락 것이 안됐으니까 국가 소유로 된 거야. 그거 때문에 우리가 한창 젊은 기분에

그분들하고 상당히 트라블[trouble]이 생겼어요. 흥업회 사람들하고 그때 전 소장이라고 대표로 있던 그 양반하고 “왜 우리 피땀 흘려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인데, 이걸 말도 안하고 써야?” 해가지고. 우리가 부잡시러울 때라 굉장히 지금 같으면 영업방해로 영창에도 가고 그랬을 거야. 굉장히 안 좋은 행동도 하고 그랬지요.

전 소장 그분이 여기 사천 말고 다른 데도 관리했던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여기 우리 부락에다가 말집이라고, 홀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소장 노릇을 했어요. 사업 대표 이름은 잊어버렸고 전 소장이라고 하나.

김형서 씨가 지시를 하고 전 소장이라는 분이 관리를 했나요? 그렇죠. 총 관리. 간척 매립하는데 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밑에 뭐 십장도 있고 감독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러죠. 소장 그 사람이 대표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 소장한테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 사람들은 “공보상 아무리 너희들이 막아도 운동장이라도 여기는 부락 땅이다.” 부락 땅이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했어요. 공보상 그렇게 돼 있으니깐. 그때만하더라도 법원에까지 갈 처지도 못 되고, 젊은 우리들만 한창 부잡스러워서 항의도 몇 번 하고 해코지도 하고 그랬죠.

친구 두 분하고 하셨어요? 예. 한 분 서울서 살고 한 분은 영암서 살고.

그 일은 사업 초반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그렇죠. 막 초반에 운동장에 철길을 만들어서 흙을 갖다 버려. 이렇게 흙구루마로 밀고 다녀. 철길을 위에는 넓게 해 놓고 밑에는 편편하니, 밑에는 구루마 발통이 잔잔한 거 두 개 있고 그렇게 넓적하니 만들어요. 그 안에다 맞는 하꼬[틀]가 딱 짜서 흙도 푸고 돌도 퍼서 밀고 가요.

그게 운동장 가운데로 가로질렀어요? 네. 가운데로 밀고 쪽 갔죠. 그때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고 우리들은 “운동하고 그런디 왜 느그가 그러냐?”

어른들은 거기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농토가 적은 때라서 형서씨가 다 맡더라도 우리 부락 옆이니깐 우리 부락에도 혜택이 온다 그래서 협조를 많이 했죠, 부락에서. “원칙상 거기서 취로 사업을 하거나 밀가루 팔고 돈으로 일당을 받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농지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디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투쟁이 생겨가지고 결국 형서씨 편한테 지고 대표로 영창도 살고 그랬다고 하대요.

4. 현장에서의 노동과 수입

길 낼 때부터 흙구루마 끄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일도 하셨나요? 아니. 다른 일은 그때 별로 할 일이 없고, 밥 먹고 나무하고 그랬죠. 그때는 연료가 제일 중요해요. 부엌에 불 때는 거. 그때는 아궁이 불 때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고 집이 문풍지 발라서 한 집이라 겨울에는 해안가라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풍지가 막 울어요, 앵알앵알. 추워요. 전부 연료 해오는 것이 일이에요. 심지어는 집에 불 많이 안 땠라고 조그만 방에서 형제분들이 전부 같이 자고 그랬잖아요.

나무해오는 일도 많이 하셨고요? 많이 했죠. 밤에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여기 보성군에 소강 골치산이라고 있어요. 앞에는 장흥군이고 여기는 보성군이고. 그 너머까지 가서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해 와요. 가는데도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나무해갖고 오면 보통 빨리 온다 해도 한 다섯 시 네 시 그래야 와요. 그

렇게 먼 보성까지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때만하더라도 이쪽 산들은 개인 산들이 거든요. 개인 산들에 소나무가 좀 있었는데, 자기들도 그 연료를 때기 위해서는 남이 나무를 못 해가게 말려야 되는 형편이니까 남의 산에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말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공유지 산에 가서 해온 거여. 그것도 나무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나중에 하다 모자라니까, 진달래 다 파다 말려서 불 때고. 밤에 톱 갖고 소나무도 산에도 가서 잘라서 몰래 해오고. 전부 민둥산이 되버렸어요.

사업장에서는 매일 일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매일 하고 밤낮으로 해요. 낮에 하는 교대가 있고 밤교대 있고, 밤에는 노임이 좀 많고, 낮에는 좀 적고. 그것도 그 때는 사업장이 영세해갔고 그 흙구루마가 한 20~30대 됐을 거여. 많이 안 써주고 그랬어요.

간다고 무조건 다 일을 할 수 있던 것 아니었어요? 아이, 그럼요. 소장이나 감독이 일하라 그래야 하니 무조건 가서 해봤자 안되지요.

그때 친구 분들과하고 운동장 가로질러 길 내는 것 때문에 사업자 측하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사업장에 가서 일하겠다고 할 때 소장이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 사람들 우리 때문에 상당히 손해가 났으니까. 일하는데 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요. 열아홉 살 그때는 굉장히 똑심도 있고 겁이야 먹지도 않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옛날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이거 부당하다 생각해서 항의를 하고. “대토를 주고 이것은 나중에 니들이 다 사고 이것은 부락으로 줘야 쓴다.” 해갔고 나중에 운동장을 부락으로 줬었죠.

일은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셨어요? 예. 밤에도 했죠. 밤에 하는 일은 제가 별로 소질이 없었지만 몇 번 했을 거예요.

하신 일이 흙을 퍼다가 바다를 다 메우는 일이었나요? 여기 툇 떨어진 낭떠러지 있잖습니까? 빨을 바깥이나 안에서 떠가지고 독을 만들고, 또 배로 저 먼 데서 돌을 실어 와서 푸고, 그 세 가지 일을 했죠.

작업하는 사람마다 임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빨 판 사람은 빨떠기[빨떠기, 진흙을 퍼서 나름]. 빨떠기라고 빨삽으로 빨을 떠다 지게에다 해서 독에다가 갖다 붓고, 힘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빨이 찢득찢득해서 삽질도 요령이 없으면 못해요. 그땐 우리 철이 없고 잘 모를 때예요. 열아홉 살.

빨떠기 말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돌 나르는 일도 하셨나요? 그런 거 안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때 잠깐 잠깐 용돈도 벌고, 먹는 것이 넉넉지 못하니까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막걸리. 그땐 동네잔치가 나면요, 보통 몇 사람은 술에 취해서 쓰러지거나 싸우거나 복잡해요. 해가 지도록 아주. 지금은 오늘도 보십시오.¹⁾ 자기 집에 자식들이 갖다놓은 냉장고 있고 그러니까 잘 안 온다고. 오늘도 몇 사람 안 나왔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죠. 살기가 좋아졌죠. 옛날에는 우리들도 상당히 배고픈 설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낮에 나간다면 고구마 서너 개 갖고 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때 노임으로 얼마나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기억 안 나네요. 술 많이 먹은 기억만 있죠. 그때는 [골똘히 생각하며] 화폐개혁 전이어서 돈 100만 원이면 엄청 부자거든요. 그때 소 한 마리도 30만 원 40만 원 했을 거예요. 소가 반살림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현금 갖고 있다고 하면 촌에서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때는 쌀금[쌀값]은 상당히 비싸고, 바다 해산물은 엄청 싸고, [지금과] 반대에요. 그때는 사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바다에서 나온 건 싸고, 쌀금은 굉장히 비싸고. 쌀 한 되 가지면 고기 엄청나게 많이 사고. 지금은 완전히

1) 구술한 날이 마을에서 어버이날 잔치가 열려서 잔치 후에 구술을 진행함.

반대죠. 지금은 해산물 1Kg이면 보통 조금 좋은 거는 몇 만 원씩 하잖아요. 우리 부락도 지금 반값입니다. 지금 수문서 키조개 축제하고 있습니다만은, 키조개 1kg에, 그 하얀 꼭지만 해도 1kg에 3만 원씩 합니다. 음식점이면 더 받고, 3만 원이면 조간 큰 것은 한 10개, 그 다음은 15개 최하.

땅이 다시 메워질 무렵에 모내기를 한 해에 세 번 하신 적도 있으신 거네요? 군대 가시기 전에 농사 수확이 있긴 있으셨어요? 저 위에 저수지 밑에 염분이 빨리 빠지는 데는 조금 먹었다 하데요. 난 못줄을 잡다가 그 해 보충병이 처음으로 났어요. 우리보다 한 살 더 묵은 사람이 영장 받아놓고 군대 갈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못줄 잡고 있는 데까지 왔더라고. “뭘 일로 여까지 온가?” “우리는 보충병으로 떨어져볼고 자네가 영장이 나와부렀네.” 그래서 나는 7월 29일 날 군대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보충병 1기로 나오고, 오래된 일이며, 62년도. 내가 62년도 갑 갯돈을 관리하다가 군대를 가게 생겨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돈을 전부 나눠 써버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6월 30일 날 화폐개혁이 된 지도 알고 그래.

젊은 나이셨는데도, 부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예. 4H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또 방자리에서 학교 문턱도 못 댄 우리 동갑 처녀들 국문도 7, 8명 가르쳤고.

그러면 사업장에서 일 몇 년 하시다가 입대하셔서 3년 꼬박 계시고 제대를 하신 건가요? 3년을 좀 못했어요. 34개월 22일인가 하고 제대했어요. 맨 처음에는 원주서 복무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양평서 하다가, 후방에 병참.

제대하고 오셨을 때는 부락이 많이 달라져있던가요? 조금 살기는 나아졌는데요, 그때도 똑같아요. 제대하고 와서 나도 고기잡이했어요, 친구하고.

5. 농지 분배를 위한 투쟁

그때는 땅을 다 메워서 분배했을 텐데 기억나세요? 사업 초기에 일한 사람들 땅 분배해준다고 했을 텐데요. 분배 과정에서 돈을 받았지만은 취로사업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논을 배당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해주고. 덕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만든 부락이에요. 우리들을 그때 난민촌이라고 했거든요. 그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일한 사람들만 분배를 했어요. 감독들은 더 많이 갖고 일 많이 한 사람들, 소장은 더 많이 갖고 십장은 더 많이 갖고. 우리 부락에 논을 분배해준 사람은 자기 밭이나 산을 그 사람들에게 논으로 주기로 바꿨어요. 그 산을 몇 평 줄 테니까 논을 나중에 가서 A급지로 몇 필을 주기로 하고. 그때는 600평으로 떠었으니까. 저수지 막은 데 그런 데 한 사람들만 주고 일한 사람들은 안 줘가지고, 결국에 일한 사람도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부락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이 그 투쟁을 몇 번하다가 ... 그때만 하더라도 돈으로 사는 세상인데 형서 씨가 보사부 장관하고 친구가 됐거든요. 우리 부락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부락에서 인재도 없었고, 지역에서 사천, 울산 그쪽 지금 몇 사람들 ... 지금 그 양반이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조주암 씨라고 아주 훌륭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영창도 3개월인가 살았다 하데요.

몇 년도에 분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62년도 못줄을 잡다가 [군대] 갔으니까, 분배도 62년도에 했겠지요. 추진회도 그때부터 시작돼서 62~63년 걸쳐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추진위원장이 옥살이를 하고.

그때 어르신은 군대에 계셨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시고요? 그때는 휴가도 1년에 한 번 밖에 없었고, 휴가 와봤자 놀기 바쁘고 15일 밖에 안 주는데.

덕산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장흥골에 피난 온 사람들, 형서 씨가 아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 전부

오라 그래서 집단촌을 만들었어요. 한 30호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밀가루 나눠 먹고 밀가루 팔아가지고 살았죠.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밀가루 입맛을 들여 버렸죠.

6. 개척단에 대해 들은 이야기

혹시 깡패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아, 개척단? 개척단은 우리 사촌은 안 왔어요. 형서 씨가 여기를 다 막고 금내 용산면 풍길 거기를 또 간척사업을 했어요. 거기까지도 개척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기 관산면 고마리, 관산면 고마리에 간척을 하면서 조금 들어왔다고 하고. 많이 들어오기는 저기 회진 있죠? 삼산. 거기가 네 번째제. 저기 할 때 개척단이 많이 들어와서 깡패들, 아주 못된 사람들, 즈그들끼리 싸움 나갔고 죽었니 살았니 하고 난리들

사천에는 월남하신 분도 안 계셨어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다 리마다 몇 호씩 들어왔어요. 근디 여기서 살 길이 없잖아요. 농토도 좁고 선박도 지금 같이 기계 화폐가지고 하면은 작업을 하는데, 조그만한 배에다가 풍선이기 때문에 둥이씩 다니는데 미숙한 사람은 작업을 못해요. 어업을 못합니다. 풍선은 내놔도 “엇그제도 제주도 안 왔디야.” 엄청 그렇게 되거든요. 바람 없으면 노 저어 다니는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고. 전부 이웃동네 농사 많은 동네로 퍼져서 나갔죠.

덕산에도 개척단이 들어왔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덕산에는 개척단이 없었고 전부 피난 온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 이남 여자들하고 장가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가들어 갖고 처남이랄지, 혹은 그 친척 된 사람들 들어와서 살고.

사업장에서 사천의 지금 댁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었겠네요. 아니, 바로 들어오는 데 거기서 했어요.

덕산도 바로 옆 동네였어요? 덕산이란 동네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간척지를 막기 위해서 그 말집이라고 임시 집을 한 30호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천이 여기가 1구고, 울산이란 데가 2구고, 덕산이 3구입니다. 행정상으론 우리 부락이 1구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울산하고 덕산마을도 다 사천리인 거죠? 그렇죠. 사천리 1구, 2구, 3구. 안양면에서 수문리 다음에 우리가 우리 부락이 켈 겁니다, 지금도.

수문리는 저쪽 아예 바닷가 쪽인가요? 저쪽에 보성 가는 데 피조개 축제하는 부락.

그때 사천에서는 분배받으신 분이 없었어요? 밭이나 논이나 저수지 막기 위해서 산, 흙, 이런 것을 준 사람들은 조건부로 했으니까 받았지요. 그런데 순수노동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그때 추진위원장한테 덮어씌워갖고 영창까지 살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깨졌죠. 뺏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형서 씨가 풍길, 고마리 저기 삼산 간척지 막았잖아요. 그래갖고 서산인가 어디로 갔을 거여. 서산간척지.

그 추진위원장 성함을 기억나세요? 조주암 씨. 아주 부자로 살고 한량이고 점잖고, 지역사회의 인물이에요. 그 양반을 추대를 했겠지요.

그때 어르신은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난 군대에 있었고. 62년도에 군대 가서 3년을 군대생활을 하고 나왔으니까. 나 나왔을 때는 일이 종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조주암 씨도 영창 가셨다고 전해 들으신 거군요? 3개월인가 1년인가 살았다 그러데요.

군대 제대하고 오셔서는 주로 어업을 하셨나요? 주로 어업을 하다가 부락 이장도 하다가 뭐 하다가 어촌 계장도 십 몇 년 하다가, 부락 일 보고, 원래 조금 일을 제대로 못 배운 처지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글은 언제 가르치셨던 거예요? 총각 때 그랬죠. 그땐 낮에 학교에 못 가니까 밤에 공부하고, 젊은 시절 학교 못 가니까 소설책도 많이 보고 한창 그럴 때지. 아가씨들은 학교 문턱을 가보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그래서 한글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방에서 저녁이면 가르치고 그랬죠.

7. 사업 당시 회고와 마을의 변화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일찍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조실부모라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 때문에 여기고 저기고 가지를 못 했죠. 군대 막 가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 20대 초반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면 사모님은 어르신 군대 가시고 몇 년 동안 혼자 계셨겠네요? 그랬죠. 그땐 다 그래요. 내 밑에 동생들이 남자들만 서어 있어요. 내 밑에 동생은 두 살 터울이고 그 밑에는 네 살 터울이고. 그 동생들과 같이 있다가, 두 살 터울이니까 내가 제대하기 전에 내 동생도 군대 가고 그랬어요. 내가 저기 화천 포부대 골창에 155mm 포대에 있을 때 면회를 거까지 가고 그랬어요. 제대 무렵에 내가 원주 후방 근무했어요, 병참.

수레 끌고 뺄때기 일 하셨던 때는 젊은 시절이셨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그땐 힘들었죠. 열여덟, 열아홉 살 때니까 힘들었죠. 며칠 하면 못하고 놓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객지로 나가불고 없는 것 같아

요. 아까 우리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밑으로는 구루마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조금 저속한 말로 조금 못되게 뻘뻘했어요.

그때는 나이든 어른들하고 같이 일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한 조가 두 사람이에요. 양쪽에서 흙을 삽으로 퍼갖고 하나 차면 돌이 밀고 갑니다. 철독을 박고 앞에 양쪽 철독을 박고 밀고 가요. 올 때는 한 사람은 올라타서 쉬고 한 사람은 밀고 오고.

조는 작업장에서 정해진 거예요? 같이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지요? 정해주기도 하고,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삽질을 우리들은 잘 못하게. 친구하고도 하고 형님들이 데리고도 하고.

아예 그걸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걸로 생업해서 가정을 풍요롭게 만든 분들도 있었어요. 날마다 그 일만 해가지고, 뽕따기라고 한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거든요, 일도 되고. 또 돌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된 분도 있어요. 논도 좀 산 분도 있고. 그땐 하도 밑바닥 생활을 하니까 먹고 사는 데 들어가 버리고. 저것을 막아서 덕산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열 필도 갖고 있고, 열 몇 필도 갖고 있고. 뭐 보통 한 7~8필 갖고 있고 그랬거든요. 갑작스럽게 농토 단가가 뛰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되니까 팔고 막 서울로 가고 한 바람에, 우리가 어장해가지고 그걸 사고 그래갖고 많이 벌었죠. 지금은 저 농토의 거의 73ha인가가 우리 부락 사람들 소유로 된 걸로 아는데, 저수지 빼고. 우리 부락으로 거의 50ha 정도 왔을 거여. 나머지는 덕산, 울산, 해창도 있고. 4개 부락. 또 지금은 저 읍에 산 사람도 있고.

돌아보시면 아쉬운 점이 있으세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 조부님 식사를 형제간들이 뭐 도와줍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밥을 안 하려면은 장가를 가야 된다.” 해서 떠밀려서 장가도 서럽게 가고 그랬죠. 지금 보면은 인생이 엄청나게 한스럽죠. 그

래서 술도 제가 많이 먹고 그랬습시다만, ‘어차피 팔자소관이다’ 하고 살아야 좋죠. 그러지 댜 생각하면 불 나갓고 살지도 못하고. 제가 우리 부락 역사는 잘 압니다. 조그만 해서부터 반장을 해서요. 우리 부락이 지금은 3개 반으로 나뉘져 있는데 옛날에는 5개 반이었어요. 그때 한 열일곱 살부터 어른들하고 반장을 했어요. 우리 부락이 이거 당상 큰 노송나무 있쥬? 해변마을에는 ‘당제’라고 전부 모셔요. 옛날에 풍선을 타고 다니다 죽은 사람 많으니까 당제를 많이 모시는데, 우리 부락에도 정월 음력으로 열사흘날 상제를 모십니다. 옛날에는 당제를 모시기 위해서 설을 쇠면은 초하룻날 설을 쇠 게 아니라. 정월 금날[그믐날] 쉽니다. 이 해안가 마을은 설을 쇠면은 배들을 전부 앞에다가 매가지고, 봉구라고 하얀 창호지로 꽃가루처럼 만들고 삼색기를 만들어서 전부 꽃고 자기 집에서도 손자들하고 제사를 모시고, 새로 옷 입고 배에도 가서 제를 모십니다. 밤에 불 환-하게 켜놓고. 그때만 하더라도 선박이 풍선이라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씩 나요. 그래서 신이, 당상할머니가 지켜준다 해갓고 풍어제처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락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못 와요, 교회를 공으로 지어주네 어찌네 그래도, “절대 싫다, 우리들은 당상할머니 제를 모시기 때문에 당신네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된다.” 지금은 더러 교회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믿는데, 우리 부락에는 교회가 없어요. 엇그저께도 농악을 쳤습시다만, 농악에 아주 소질 있는 어른은 다 돌아가시고 근근이 해왔는데, 제를 모시기 때문에 열사흘 날 칩니다, KBS에도 활용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칠 거예요. 모래 7일부터 장흥에서 전라남도 도민체전을 해요. 장흥에서 그놈 하면서 걷기 운동 한다 그래서 우리 부락에서 안양면 대표로 농악을 갓고 나가요. 여자 분들하고 할 거여. 지금은 바다 마을이 옛날에 비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은 고기 1Kg이면 쌀 몇 되도 사갓아요. 옛날엔 쌀 한 되면 고기 5kg 더 사고 남아부러요. 지금은 고기 1kg이다 그러면 쌀을 몇 되 사고 남아요. 바뀌졌어요. 그래서 지금 해안 마을이 상당히 풍요로운데. 작년 태풍 이후로 바다가 지금 굉장히 저쪽 위에는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뱃이 잘 안 되네요.

∴
 오
 ◆
 옥
 ◆
 선
 ∴

❖ 오옥선

1934년	황해도 웅진 출생
1951년	피난(기린도-백령도-목포)
1953년~	목포에서 노병수와 결혼, 남편이 대덕 회진 사업장 근무
1963년	남편이 고마 사업장 현장 서기 발령, 장흥군 관산면 고마리에 이주, 사업장 노동
1967년	고마 사업장 농지 분배, 남편이 당진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
1973년~1989년	초대 부녀회장 새마을 교육
1977년~1980년	남편 이장 역임
2009년~현재	차남 이장 역임(1982~1985, 1990~1996. 4, 1997~2002 포함)
2002년 11월	남편 사망
현재	차남과 장흥군 관산읍 고마3구 거주

1. 서해 섬에서 목포로 피난

태어나셨을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황해도 웅진서 태어났지. 피란을 요
리요리 열일곱(17)살에 내려왔고, 스물두(22)살에 목포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올해 80이잖아.

북에 계실 때 혹시 학교에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땡기다가, 그때는 학교를 못
땡기게 했어. 그라니깐 학교를 안 땡겼지.

왜 월남을 하게 되셨어요? 이북 사람들이 못살게 대했어. 거기서는 우리 친정아
버지가 군청에 땡겼거든. 근데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못살게 해부러.
궁게 안 죽을라니까 몰래 나온 거라. 빨갱이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우리는 남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 아니에요? 궁게 잡히면 죽음께 나왔제. 모 심
다가 그냥 [맨]발로 나왔네. 옷도 하-나도 안 갖고.

전쟁 전에 나오셨어요? 1·4후퇴 때 백령도에서 기린도라는 섬으로 나왔어.

나오실 때는 백령도에서 배 타고 오셨어요? 응. 배 타고 나와서, 목포 항구에 떨어
어졌어.

목포까지는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미국 사람들이 배로 목포로 실어다
줘서 왔어.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미국사람이대. 배도 크대요.
서양에서 나와서 배 안에가 밭도 있고 차도 있더라고. 거기서 나왔는디, 목포 항
구로 떨어졌어.

이북에서 가족 분들도 같이 내려오셨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동생 다 나왔지.
남동생은 지금 평택서 살고, 여동생은 자기 살림하고 살다 나이가 많고 그렇게

죽었제. 사춘 동생까지 3남매 살아있어. 목포 항구까지 떨어져서 피란민들이 각 면으로 배당이 되어버렸어. 목포항구[에 있는] 고등학교 3층에 배당이 되어버렸어.

‘배당이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어디 부락으로 가거라. 너는 어디 부대로 가거라.” 군대 배당 되듯기 배당돼서 가족들이 [목포에서] 나와서, 영암 시종면이라는 동네서 살다가.

그때 배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어요? 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 다 이녁[그 지역] 당사무소 [동사무소] 찾아가 데리갔지.

그때가 전쟁 중이었나요? 한-창 전쟁은 하고 있고. 우리는 전쟁하는 머시기를 [포탄을] 맞으면 죽잖아. 그랑께 일루 내려왔지. 목포 항구에서 각 면으로 배당이 되어버렸어.

배당될 때 가족 단위로 배당이 되신 건가요? 응. 작은집은 찌리 가고 큰집은 이리 가고, 그렇게 전-부 배당이 되었지. 목포서 살다가, 우리 남자가[남편이] 여기 흥업[한국정착사업개발흥업회]에 공사를 하러 들어왔지.

2. 흥업회 간부와의 연고와 결혼

부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돌아가신 양반이 노병수 씨. 고생 많이 했어.

남편 분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그 양반은 나이가 많았고, 나는 스물두(22)살이고. 금께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11년째요[11살 차이에요]. [남편이] 목포에서 동

목포라고 농사시험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 흥업의 대표자가 우리 이모부
여서 이리로 온 거라. 하루하루 생계유지는 여기 와서 일해서 먹고 살았어.

남편 분도 월남하셨어요? 월남해서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나왔지.

목포에서 결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거기
서 결혼해서 살다가, 큰아들도 거기에서 낳고, 여기 있는 아들[둘째 아들]도 목포
서 농사하면서 낳고.

지금 이 마을 이장님이 몇째 아들이세요? 둘째. 큰아들은 광주가 있고, 또 시째
[셋째]는 관산 농협에 가있고.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이장님이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유치원이나 땡기졌네. 이
모부 끈으로 요 현장으로 들어와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생계유지를 한 거라. 살면
서 요 애기들을 키웠어.

목포에서 아들 둘 낳으셔서 네 식구가 여기 장흥으로 이사를 오신 거네요. 또
딸 있어. 우리 큰 딸 여기 와서 낳고, 막둥이 여기서 낳고. 아들만 3형제 목포에서
나가지고 온 거라. 흥업 현장에서 일을 했지. 그러다가 여기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넘어가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 서기로 발령이 나갔고 먹고 살은 거라. 여
현장 전부 다 막은 거라.

이모부는 언제부터 흥업회 일을 하셨어요? 이모부가 흥업에서 회장님 손잡고
일을 했어. [이모부는] 여기서 작업하시고, 또 대덕이라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난민들 있어요. 이모부 친척은 거기 현장에서 일을 보고.

3. 고마 사업장 공사 참여

처음 오셨을 때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 처음에 와서는, 현장에는 집이 없잖아. 고마리에 큰 마을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현장 일터를 댕김서 벌었재. 여기 직원으로 들어옴시로[들어오면서], 집을 지어서 하나 차지하고 살았지.

남편 분께서는 처음부터 서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지]. 현장 경험에 있어야 서기를 하제. [처음에는] 한 3개월 고생했지.

그 3개월 동안은 가족 분들은 이사 안 오시고, 남편 분 혼자 먼저 오셨어요? 먼저 혼자 왔제. 대덕 회진 현장에 가있다, 일로 발령이 나서 온 거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3개월 구루마를 밀고 살다가, 2 현장 서기로 발령 나서 이리로 왔어. 우리 남편 일 무지허게 했어. 그땐 손으로 구루마를 밀었어. 지금은 도자로 하고, 기계로 다 해야 버틸 건데 요 손으로 언[독] 막은 거라. 대덕도 그라고. 일하다가 다리 부상당해서 고생도 많이 했어. 부상당 한게 현장에서 다 대가가 나오대. 그때는 현장에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었어. 거기서 치료 받고 어짜고 함시로 고마리 현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땐 구루마를 손으로 밀었어. 지금 같으면은 도자로 하고 기계로 다 해버릴 건데. 그땐 손으로 언 막은 거라. 현장이 커서 흥업이 상당히 컸어. 몇 천 명이 여기서 먹고 살은 거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오셨어요.

첫 3개월 동안 일 하실 때도 월급 받으셨어요? 응. 안 주면 가족들이 하루하루 어디가 먹고 살어?

월급은 흥업회에서 나왔나요? 흥업에서 주는 거라. 요리[여기] 처음에 발령 나서 월급을 15,000원 탔대. 보리쌀 한 되에 30원 하고 쌀 한 되에 35원하고 하니까, 고놈 팔아서 먹고 살았지. 식구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았어]. 애기도 잘 자라고.

4. 개척단과 종업원의 차이

3개월 동안 회진에서 일하실 때, 거기 개척단 사람들도 있었나요? 개척단들 많이 왔었어. 경상도 사람들, 똑똑한 청년들이 와서 일숙을 다 왔었어. 여기도 많이 왔었어. 그 사람들은 못돼 보였으니까 무서웠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분별 [종류]이 다르지. 거기는 개척단이고, 우리는 현장 종업원이라.

회진에 계실 때도 개척단하고는 따로 일을 하셨나요? 그러지. 개척단하고 우리 종업원들은 달라. 여기서도 그랬어. 공계 개척단들은 논 하나 보고 와서, 자기 몸으로 일해서 고생을 했지. 분배받은 [땅을] 다 팔아서 간 거라.

처음 오셨을 때는, 고마 3구가 없었을 때였죠? 잉. 3구가 없어. 그때는 고마리지. 엿저녁에도 갔다 온 그 동네 거기 마을이 없었어. 현장에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 그래야 종업원들 살제 어떻게 살어.

그때 종업원으로 일하신 분들은 모두 집을 짓고 사셨던 건가요? 잉. 다 집 짓고. 그라고 현장[공사]이 끝나니까 다 갈 디로 간 거라. 광주 사람은 광주로 가고, 장흥 사람은 장흥으로 가고, 다-갔어.

남편은 고마 사업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이장님[둘째아들]이 몇 살 될 때까지 하셨어요? 여 다 막도록 했지. 몇 년 동안 한 지 그것은 모르지. [둘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까지 했네. 여기 현장이 끝나니까, 논 탈라고 서산으로 가서 또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회진에서 여기로는 어떻게 발령이 나신 건가요? 서기로 발령이 났어. 선 대표라고 거기 대표가 [발령]했지. 거기는 선 대표라고 있고, 여기는 전 대표가 있었어. 여기 대표가 사천에서도 언을 막고 일로 온 거라. 그 대표님들은 박정희 대통령

하고도 막 손잡고 그랬어.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와서, 농구화 바람에 밀대 말아 쥐고 구루마 밀고 그랬어. 지금은 도자 있지만, 그때는 도자가 없었고 사람 인력으로 하잖아. 여기도 물이 철렁철렁 들어올 텐데, 물 못 들어오게 막은 거지.

서기로 일하실 때는, 현장에서 구루마 끄시는 건 안 하셨겠네요? 안 했어.

그때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혹시 개척단도 관리하셨나요? 개척단하고 우리 종업원들은 천지가 다르지. 개척단에는 관리자가 따로 있고, 반장 있고 총장 있고 다 있었어. 우리들하고는 아주 달라부러.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도 달리. 서기는 종업원들, 간부들만 관리하제.

개척단은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였어요? 숫자로 보면은 개척단들이 많지. 켜-기 있던 집들 다 헐었는데, 거기 개척단들이 살았지. 지금은 다 고인이 되었어. 안양초교 올라가면 사촌도 있는데, 여기 대표[김형서]가 사천 언을 막고 일로 온 거라.

개척단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개척단들 무서워. 저희들이 한 번 한다면 마음먹으면 아주 무서운 것이 없어.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 안했다고. 궁께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지. 이리 와서 일해서 논 타서 다 팔아 간 거여.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혹시 죽은 사람들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

개척단은 주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경상도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아주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라 무섭됐어.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가 짹짹하고 야문 사람이 했어.

그 사람들은 그럼 결혼은 했던가요? 모르지. 자기 혼자만 와서 있으니까. 가족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간부들은 다달이 월급을 주니께 먹고 사는

디, 그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게 없는 거라.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시늉을 하며] 일하고 하루 날 쫄라가고, 매일 일하면 딱 올라가고, 그거만 보고 일하는 거라. 지금 같으면 못할 거여. 지금은 도자 있고 코쿠린[콘크리트] 있고 그라니까 [하지만 그때는] 언 막는 것을 전-부 사람 인력으로, 구루마로 막았다니까. 일 많이 했어.

종업원 가족들끼리는 종종 왕래하셨어요? 종업원 가족들은 왕래하고. 개척단들도 왕래해도, 즈들 뒤희기만 안 하면[사고만 안 나면] 괜찮았어. 개척단들 군대생활 하듯이 밥도 먹었어. 수제[수저]도 게기다[윗주머니에] 꽂고 나오고, 일하고 들어오면 그 수저로 밥 먹고. 그 사람들 “뭇 년도까지 공사가 끝나면 논을 탄다.” 하고 와서 살은 거라. 그래서 논 4필씩 탔을 건데, 다 팔아서 간 거라. 그 사람들 켜- 동네 살고, 우리들은 여 동네 살고. 개척단들은 못 건들게 했어. 그게 그 기질이 있어서 달랐어.

종업원들하고 개척단 사이에 갈등은 없었나요? 트라블은 없었어. 군대생활 하듯이 와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겐또(けんとう 見當, 예상, 가늠)로 와서 있을게, 그 햇수만 켜는 거라. 올해가 한 년, 올해가 몇 년 그랴가꼬 논 딱 합쳐갖고 분배해서 딱딱 타서 갔어. 아-주 고향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논 타기 전에 자기 앞에 논이 뭇 개가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논 타기 전에 팔아브러싸지. 타기 전이니까 논이 싸지. 집도 곤란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여그 있는디, 집도 괜찮아고 가족들도 쟁쟁하고 한 사람들은 공사 끝났께 다 가블데.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오게 되었대요? 여길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켜- 산 옆에가 집이 있어서, 단체로 자고 단체로 먹고 그라니까 [손사래하며] 없어.

남편이 서기로 일하시는 동안에는 월급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월급이 흥업에서 나오지.

개척단은 일당이나 월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개척단은 월급은 없었고, 식량도 많이 나오고, 밀가루도 나오고 그랑께, 배고프고 그런 세상은 없었어. 개척단도 잘 먹고 일하고 살았어.

개척단도 굶지는 않았어요? 구루마에다가 밥해 와서 싣고 땡기는데, 맛있게 혀. 그때는 사업단이 진-짜 풍부했어. 원조가 되어갖고 많이 내려오드라고.

원조는 어디에서 왔다고 들으셨어요? 나라에서 오지. 흥업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하면서, 그때는 진-짜 풍부하고 부자였어.

그 회장이 김형서 씨예요? 그분이 흥업회장. 그분이 땡- 천 명을 맥여 살렸네. 우리들 뽕 바닥에서 농사지서서 쌀도 많이 남아 팔고. 그라다가 저울도 사주고 그라고 갔어. 돌아가셨지.

5. 사업장 노동

남편이 여기서 일하실 때, 어머니는 살림하시고 농사일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살림하고 우리들도 품 있으면 현장에 나가 돈 벌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펄 이고 땡기고, 저수지 막는 데 돌도 갖다 날랐고.

어머니들도 현장 일을 같이 하셨어요? 어머니들도 틈 있으면 나가야 먹고 살제.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고 살았다니까.

일 하시면 월급도 받으시지요? 다 줘. 현장 서기가 여자들은 얼마, 남자들 얼마 딱 올려서 간쵸(かんじょう, 勘定 계산)를 해줘요. 하루씩 전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달 있어야 나와. 그 놈을 못 기다리게 전표를 또 파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 에 5부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일한 만큼 전표를 줬나요? 일한 만큼. 하루에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기준이 있잖아. 남자는 5만 원 여자는 2만 5,000원. 여자들 이고 땀기고 죽게 일을 해도, 남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있어. 그때는 보리쌀 한 되에 30 원. 35원 이렇게 곡식 값이 싸잖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러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일하니까 먹고 살았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못 묵고 살지는 안 했어. 인형 노리게 없으면 하니까. 나가서 일만 하며 돈이 나오니까.

아드님들은 일 안 나가셨어요? 학교 땀졌지. 장환도에 장환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관산읍으로 합쳐갔지. 우리 손주들은 거기서 졸업하고 관산중학교, 장환고 나왔어. 애기들이 공부 잘-했어. 저희 아빠 닮아서 참-영리해요 우리 아들 돈 없어서 못 가르쳐서 그렇지, 기가 맥혀.

6. 남편의 간부 근무와 이산가족 찾기

남편 분은 학교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고향에서 농업학교 나와서 농사시험장에 들어갔지.

고향은 어디세요? 개성. 고향은 나하고 달라. 결혼하면 서른 몇 살이 되었으니까, 나는 스물두 살에 하고 자기 고향에서 뒀을 하고 살았든 나는 모르지. 결혼을 늦게 했지.

회진, 고마에서 현장일 하시면서 힘들단 말씀은 없으셨어요? 일을 안 해봤으니까 힘들다고 했지. 농사시험장에서는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사무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삽질하고 일을 하고 할라니깐 힘들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은 없제. 자기가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은 우짜게? 먹고 살라니까, 끝-내 일하고. 여기 현장 마치고 서산 가서 서산 공사 마치고 오셔서 살다가, 머느리 얻고 손지 보고 재밌게 살다가 돌아가셨네.

남편도 가족 분들과 같이 월남을 하셨어요? 아니야. 자기 혼자만. 이산가족 [찾기] 할 적에 우리 이장[아들]이 풋말 들고 [나가도] 자기 가족들은 안 나왔대. 없어.

이산가족 찾기도 해보 셴어요? 응. 광주 가서 이산가족 찾기도 많이 했어. 혼자 내려와서 목포에 있다가 일로 와 갖고 자녀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살다가 돌아가셨지. 형제간들도 못 찾고, 그것이 원이 되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는 친정 부모님들, 형제간들 다 나왔지. 서호리[영암군 서호면] 가있잖아.

여기서 일하시다가 서산으로 가신 거죠? 서산에 가서 공사 끝나치고 온 건 우리가 몰르잖아. 가족들은 이기다[여기에] 놔두고, 혼자 돈 벌러 갔으니까.

어떤 직책으로 가신 거예요? 현장 서기.

서산에는 언제쯤 가신 거예요? 가서서 얼마나 계셨어요? 애기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갔어. 거기 공사 끝나칠 때까지, 한 1년 있다 왔어. 남자들이 여기서 일하고 끝나니까 갑자기 놀더만. 짠 빨에다 뭐 콧으면 먹고 살겠는가? 다 죽제. 다 짠데. 그러니까 짠 데 일하는 데 가서 벌어다 먹고 살았어.

나가서 일하고 받으신 월급은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랬지. 그랑께 먹고 살았지.

7. 간척 토지 영농의 어려움과 대통령 방문

서산에 가시기 전에, 개간한 땅은 농사가 안 됐던 거예요? 메운 땅도 되나 안 되나 심어 봐야지. 자기 앞에 땅이 떨어졌으니까. 썩나락들을 저수지에다가 담그고 그랬어.

고마에서는 언제부터 농사가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공사 끝나곤 했지. 이 녀[우리] 앞에 돌아온 논이라, 되든 안 되든 한번 해야 본 거라. 근데 첫 해는 안 되고 두 번째 해는 조금씩 나오고 그랬지.

땅을 다 메우고 나서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라지. 논 맨들어가서 다 띄운 거라. “요거는 김 씨, 요거는 박 씨.” 이렇게 떼어서 준 거라. 요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 지금도 이장이 그 땅에 농사짓는 거여.

다 벼농사만 하셨어요? 줄 매서 논 딱 떼어서 벼농사 짓제.

첫해에는 왜 농사가 안됐어요? 처음에는 안 돼. 짠물에다가 심으니까 되겠는가? 인제 짠물이 안 나오지. 짠물은 빼불고, 저수지 물이 나오잖아. 밤-낮 저수지 물로 우려내아서 심은 거라. 인제 논이 좋아져서, 보리도 갈고 모도 심고. 이장이 거기다 농사 짓잖아. 농사 많이 지어요.

저수지도 그때 막으셨어요? 저수지도 사업하면서 막았지. 공사가 상당히 컸당께. 구루마로 끌고 소 갖다가 일하고 그랴다니까.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당시에 분배받은 땅을 팔고 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는 논이 썩는데, 팔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 개척단들은 다 팔았다니까. 자기 앞에 돌아오는 논 땃땃 [몇 평]인가를 아니까, 그 배미수를 [평수를] 다 팔아서 간 사람들이여. 경상도 놈들 똑-똑한 놈들 있었어.

분배 받고 여기서 계속 사신 분들도 있었죠? 종업원들만 사는 거여.

개척단원들이 판 땅은 누가 샀어요? 저 마을서 사고 여그서도 사고 다 산그라.

분배 받으시고 난 뒤부터는, 흥업회에서 나오는 월급은 없어진 거예요? 없지.
공사 끝나고 논을 다 주어 부렸는디, 줄 것이 없지.

그때는 농사지어서 먹고 사실 수 있으셨어요? 그것으로 먹고 살은 거라. 애기들도 학교 땡기고, 우리 이장도 장환도에서 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관산읍으로 땡기고.

남편도 1년 정도 서산에 다녀오신 것 말고는, 계속 농사 지으신 거예요? 응. 그 땅에서 계속. 나이도 많고 어딜 가겠어? 대덕 사람들도 다 그란 게라. 대덕하고 여기하고 한 짝으로 똑같이 막았어. 같이 작업을 했어. 큰 공사가 터졌었지. 하루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여.

60년대 후반쯤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왔었죠? 여기 내려서 대덕에서 [행사] 했어. 대덕 현장이 여그보다 더 커. 태극기 하나씩 흔들더만. 집집마다 일하는 사람들 농구화바람에 밀대 밀어쥐고, 태극기를 하나씩 손잡이에 딱 딱 해가지고 구루마에다 달고 나가고 그라대. 거기서 흔들더만. 인자 생각하면 대통령이 온다 하게 벌벌 떨고들 촬영을 한 게라. 대통령하고 같이 토차 밀고 나가면서 사진 찍고 그라대.

어머니도 대통령 직접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봤어. 차도 택시도 아니고 찌프차 타고 오셨데.

대통령 오신다고 해서 현장으로 가보신 거예요? 가본 게 아니고, 그때는 거기서 살았다니까. 거서 살다가 일로 발령이 나서 왔지.

대통령 오신다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대통령 온다 함께 [벌벌 떨었제]. 일하다가도 홍업 회장님만 나오신다 해도 발발 떨고, 쥐구녕이 어디냐고 들어가고 그래.

홍업회 회장도 마을에서 힘이 셸어요? 힘 있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직접 손잡고 일을 하니깐 뺨도 좋고. 공께 홍업 회장 뺨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건들도 못하게 했어. 지금은 차들이 많으니까 장흥도 땡기지만 장흥에 회장님 계신다 해도 우리들은 거기를 못 가지.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해서 연명해 먹구 삼시용 애기들 키우고 살다보니까 이렇게 늙대.

회장 뺨으로 들어왔다는 사람은 개척단은 아니었죠? 개척단은 아니여.

그때 제일 힘드셨던 건 뭐였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이 제일 머시기 했지. 산에 가서 나무 하다 떼고 그렸어. 가스렌지도 없어서, 곤로 쓰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 맨 화덕에다 불떼아서 먹고 살았지.

처음에 고마에서 집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집은 현장에서 지셨다니까. 지서서 간부들한테만 한 채씩 준 거라. 고마리 쪽 큰 동네에서 녀의 집에서 살다가 일로 들어왔어.

그때 간부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많았지. 사무실 직원도 있고, 현장 직원도 있고, 직원들이 많았어.

월급은 정부에서 지원이 됐나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거라.

정부가 지원하고, 홍업회 회장이 책임자였던 거죠? 그라제. 공계 회장 가족 덕이라는 것이 땃 천 명이 되얏지. 그 사람들 다 맥여 살리니까.

그때 제일 보람 있으셨던 일은 뭐였나요? 여기 논 타서 농사 지은 게 보람이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자식들 키워서 하나씩 하나씩 여우살이[결혼] 시키고, 손자들 보고. 우리 손자들 공부 잘했어. 3형제나 되는데, 공부 진짜 잘했

어. 서울에 가 있는 놈들하고 전주에 있는 놈들하고, 어디 대학에 들어간 놈도 야 물어.

종업원들 중에서 개척단하고 잘 알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 그라도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 개척단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책임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살았지. 개척단들 일할 적에는 여그 정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어.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간접하는 사람들 집이 있었어.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구루마 싣고 나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지. 공께 그 사람들은 논 탈라고 와서 일하고, 가족들하고 살다가 목숨 바치고.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지, 어쩔거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땅 사서 장례를 치렀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장례비가 현장에서 다 나와. 아무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서 했어. 그런 사람들 다 공동묘지에다 썼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저희 아버지 뼈, 어메 뼈 다 퍼다가 이장했어.

8. 농지 분배 후 변화

작업하실 때, 자재나 돌, 흙 같은 건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저수지 막는 데 모다놓지. 논도 파는 데도 있고 메운 데도 있잖아요. 흙을 담아서 다라이다 담아지 이고 댕기지. 남자는 5만 원 받으면, 여자는 2만 5,000원 받고. [머리에서 내리는 시늉을 하며]여기다가 딱 이고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 저렇게 논이 되고, 저렇게 나락이 되느만. 에유- 지겨워.

흙 있는 데서 퍼다 없는 데를 메우셨군요. 첫째 벼농사 실패하신 다음에, 혹시 누가 와서 농사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라 다 하대. 나락 씨도 자기들이 어서 다 돈 주고 구하와. 우리도 땅쟁이도 사오고, 사다 가다 한 거라. 차츰차츰 연년도가 넘어갈수록, 나락이 되어서 지금 먹고 살제. 처음에는 못될까 싶어서, ‘저기다 나락을 쫓아가 될까?’ 했더니 진-짜 전남에서 여기 땅이 최고여. 차로 논물이 탁탁 갖다 대고, 트랙터도 그렇고, 이장도 오늘도 트랙터 몰고 일하다 들어왔잖아. 인자는 우리 이장도 나이가 벌써 60 다 되야부렀네.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막았는데.

4필지 정도면 쌀이 얼마나 나와요? 처음에는 쌀도 한 가마니도 나올 때도 있고, 한 가마니도 못 먹는 논도 있고. 짠 데다 나락을 쫓으니까 못 살지. 그래서 저수지 물로만 땅을 맵글은 거라.

그때 같이 종업원으로 계셨던 분들, 지금은 다 어디 계세요? 다 논 팔아서 고향으로 갔지. 지금은 논 돈이 비싸게 팔아도 칠만해. 그런데 그때는 논 한 필을 밥한 그릇 하고 바꿨어. 그냥 주고 간 사람도 있고. “저게 문 논이 될라디야?”하고 내뺐은 거라.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라도 다 얼마라도 다 받고 갔어. 그냥 내뺐고 간 사람은 없었어. 여짜 부락에서도 사고 저짜 부락에서도 사고. 그때 논 산 사람들은 부자 소리 듣고 살잖아. 저 동네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어. 장환도 들어 갈라면, 뱃사공이 가는 사람 실어다주고 오는 사람 싣고 오고. 그란디 지금 바다를 다 막았잖아요. 진-짜 좋아. 우리 김형서 회장님 무지하게 막았어. 그래서 뗏 천 명이 먹고 살았네.

그때 땅을 헐값에 팔고 간 분들이 나중에 다시 오셨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찾제.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갔는데 어찌케? 녀의 논을 돈 주고 샀지만, 그 논을

자기 자녀들이 찾지.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논을 다 찾아서 사는 거라.

9. 마을에서 가족의 역할－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 생기면시로 새마을운동이 돼 갖고 이장도 생기고, 반장도 생기고, 부녀회장도 생겨서 내가 부녀회장 11년 해왔네.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시면서 나왔어. 나 광주 감천동 교육관으로 교육받으러 두 번을 갔네. 못날을 딱딱 받아서, 인부를 다 사서 내일 모를 심는다, 새마을 교육을 가라는 거라. 그래서 “모를 물에다 담가놓고 가면 썩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읍면 책임자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해서 간 거라. 가서 2박3일을 교육을 받고 왔지. 교육장에 들어갈게 못 가게 하더만. “집에 일이 바빠서 가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빠져서 가면 읍장 모가지가 나간다.”고 그러. 그렇게 내가 우리 모타래가 썩는다고 원망하면 안 되겠어. ‘아, 읍장 모가지가 떨어진단다 한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읍장] 모가지를 떠면 어찌꼬?’ 하고, 죽으나 사나 2박3일을 교육을 마치고 오는 거라. 와서 보니까 모타래가 노-란이 뻘어. 사람이 없으니까 못 심어 부렸어. ‘할 수 없구나. 내가 부녀회장으로서 이거이 썩어서도 할 수 없구나.’ 그라고 나중에 또 다시 심은 거라. 그런 세상을 다 살았다니까. 책임을 무니까 할 수 없어. 그라고 갔다 왔어.

다른 지역 임원들도 다 그리로 왔어요? 잉. 인천서도 오고 머시기서도 오고 다왔어. 그것이 새마을운동이여. 박정희 대통령 계심서 새마을운동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다가 부녀회장에다가 그렇게 한 거라.

11년 동안 부녀회장 하시면서, 마을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을에서 평촌 부녀회들, 읍면에서 물건이 나오면, 우리가 팔아주는 거라. 읍면에서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를 믿고, 화장지 같은 거 보내지. 내가 땡기면서 집집마다 팔아서 다 팔은 거여. 그때는 호수도 많았고, 사람이 많이 살았어. 한 40여 호 살았어. 또 여름에 일할라면 모자도 갖다 팔고. 그러다가 또 읍면 농협에 상점이 있는데, 상점 하루씩 나가서 봤어. 그거이 일이지. 그거이 새마을운동이라 하는 거야.

마을마다 팔아야 할 물건이 배당되면, 어머니들이 파신 거예요? 잉. 협조하는 머시기로 다 사줬어. 그렇게 그거를 팔아서, 새마을 자금을 땡그는 거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도 이장이 화장지를 한 타스를 다 팔았네. 파는 거는 집집마다 다 들여놔서 문제가 없는데, 돈을 걷을라면 머리가 아파요. 바로 바로 안 줘. “생기면 준다”고 하거나, 없다거나 이라면, 골치가 아파. 그거이 큰일이여.

다른 동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다 했어. 큰 동네는 더 가고, 작은 동네는 [좀 적게 가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우리 동네는 부락이 작으니까 조금만 도라고[조금만 달라고].” 사정을 한 거라. 그랴도 소용 없어-. 자기는 액수대로 딱 갖다 부고[갖다 주고] 간 거라. 그놈 팔아서 진짜 돈을 받고 하면 쓴디, 그거이 아니여.

그렇게 물건 파시면 그 돈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읍면에 회장이 또 있어. 읍면 회장한테 갖다 주면은, 회장이 자금을 땡는다고[관리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머시기한[횡령한] 거라. 오늘도 우리 부녀회장 교육받으러 갔어. 큰 부락이나 작은 부락이나 다 있어. 골치 아파.

그렇게 모인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그걸로 읍면 부녀회 자금을 땡든다니까. 자금이 있어야 저기들도 머시기[활동] 하제. 돈 아니면 어떻게 머시기해. 그런 장사를 하는 거라.

그 자금으로 마을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잉. 행사나 읍면 저 군 행사나 그런 데 씨제. 각 부락 부녀회장 말고, 읍면에 총부녀회장이 또 있어. 노인들한테 돈 대줘서 뒀하고 그래.

어머님 부녀회장 하실 때, 물건 안 산다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안 산다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면 이녁이 또 써야 돼. 화장지가 한 통 들어올 건데 세 통 들어오고, 네 통 들어와서 안 사면 내가 써야지 어떡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써야지. 현재도 이장도 그라잖아. 각 부락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한 통만 할란다. 두 통만 할란다.”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이장이 또 머시기 해서. 골치 아프다고.

지금도 물건을 정해진 액수만큼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 부녀회장 하실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 나 할 때도 그라고, 지금까지라도 다 똑같어. 부녀회에서 뒀으로 자금을 땀들 거여?

새마을운동 활동 중에 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길 같은 거 공사해서 고치고, 집에도 입식부엌으로 고치고 그랬어.

처음에 부녀회장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내가 나이고 있고 그랑께. 인자 80이 먹은 사람이 어딜 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 쓴다니까.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들 쓴다고. 젊은 애들은 영리하게 더 잘한다고.

그때 부녀회장 하신 다른 분들도 계세요? 내 밑으로 한 사람도 많아. 내 우그로는[위로는] 안 했어. 내가 선빠따로[첫 번째로] 했지. 그때는 안 할라고 했었지. 하면 뭐 죽을 머시긴가? 부녀회장 함시로 교육받으러 가라고, 모 심다가 끌려갔다가. 그렇게 그런 거 안 할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건을 팔러 부녀회장한테 보내면 모자도 팔고 별 것 다 했지.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장하셨제. 그 사람도 술잔히 많이 했네.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십 몇 년을 해왔네. 이장도 뭘 알아야 하잖아. 공께. 자네[아들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잘했다고. 41개 마을을 우찌 잘했다고.

남편 전에도 이장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있제. 이장 하다가 못 하겠다고 중간 띠기하는[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랴도 아버지는 계속 해왔지.

남편 이장 하실 때도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새마을운동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여여[오른쪽가슴팍을 가리키며] 새마을운동 한디[한다고] 쩡[명찰]도 주고 그라더만. 쩡도 받고 그랴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혹시 마을 내에서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운동은 없었나요? 오손도손 잘 살자고 그런 것은 다 있었지.

그때는 이장은 있었고, 부녀회는 없었나요? 새마을운동 때는 길 같은 거 고치고, 독도 고치고 그랴지.

어머님 부녀회장 그만두시고 나서도, 아버님은 계속 이장 일 보셨어요? 더 오래 했어요. '나이 많은 이장님'이라고 그랬어. 우리 아들도 이장은 술잔히 오래했네.

남편이 이장 하시고 바로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도 했지. 하다가 중간띠기 한 사람들도 있고. 이장도 모르면 못해. 부녀회장도 그라고.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미뤄져서 지금 나이가 많다고 난리여.

부부가 이장하고 부녀회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부부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 이장님이 이장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사람도 술잔히 오래 되었어. 땃 년 하다가 또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이장에다가 새마을지도자야. 공께 저 사람도 화장지 실어다가, 두 통 가지갈 사람이 한 통

만 가지가면 자기가 항상 자기 돈 주고 다 샀잖아. 할 수 없는 거여. 거기서 가져온 액수는 채워서 줘야지. 사람이 양심이 그라대.

부녀회장 하시면서 읍면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농협에, 읍사무소에.

관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볼 때, 고마가 좀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본토지 논이고, 우리들은 뽕논 받아서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잘사는 마을이 되겠는가? 우리들은 부업이 없는데. 장환도 사람들은 부업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낙지도 잡고 장어도 잡고 그라는데, 우리들은 무이가 있어? 쌀농사만 지면 없어.

지금 이장님은 농사도 하시고 소도 기르세요? 소 길러. 소가 한 10마리 넘을 거여.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응. 있어.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 나무해와다 불 때서 밥만 해먹었어. 곤로도 없이 살았다니까. 화덕이 비 오면 성가셔.

남편은 어떤 게 제일 보람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일하서 논 타서 농사진게 보람 있다 그라고, 자석들, 매누리들, 손지들 본게 보람 있지. 우리 손지딸들, 둘째 며느리 참- 이빠라 했어.

이북에 있는 가족들 말씀 많이 하셨던가요? 그 사람들 못 보고 돌아가신 게 한이 됐어. [가족들] 못 찾았지. 이산가족찾기 할라고 꽃말 들고 나오면 다 나온 거라. 근데 없어 자네 아버지는. 형제간이 북에서 다 죽어 버렸는가봐.

∴
 오
 ◆
 택
 ◆
 성
 ∴

❖ 오택성

1935년	황해도 웅진 출생
1951년~	피난(기린도-목포-영암), 부친(오지윤)이 웅진군 용천면 난민 대표 역임
1952년~	목포제2중학교 졸업, 목포공업고등학교 재학, 경기도 성남시 이매동에서 생활
1963년~	장흥 관산면 고마 사업장, 대덕읍 덕촌 사업장 사무장 결혼
1966년~	전남 고흥, 충남 당진 사업장 근무
1968년	장흥 집으로 복귀
1974년~현재	경기도 평택 이주 후 거주

1. 한국전쟁과 황해도에서의 피난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고향 얘기부터 해주세요. 우선 피난 나올 때부터 해야지. 1·4 후퇴 때 나온 거야. 우리 학교에서 한 10리도 채 못 될 데가 바로 38선이야. 바닷물이 빠지면은 공비들, 이북 빨갱이 새끼들이 쳐들어오고. 우리 국방군들이 수시로 18연대, 17연대 자꾸 갈거든? 국방군들만 있으면 이 새끼들 꼼짝달싹 안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경찰관들만 왔다면 파리 새끼 같이 사람 막 쫓아오는 거야. 우리들 고향에서 노란 밥그릇 있잖아. 놋그릇. 우린 거기다 밥 담아갖구선 덜렁덜렁 메고 학교 갔단, 다다다다다다 총 [쏘면서] 빨리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 수업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막 도망가고 그랬어. 그때 내가 고향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땡길 때야. 그러니까 밤낮 피란 갔다가 집에 갔다가 왔다갔다 그 지랄을 했지.

겨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겨울도 아니지. 백령도 앞에 조그만 기린도 섬이란 데가 있어. 기린도 섬, 창린도 섬,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그계[거기] 나와서 한 3년 동안 있었어. 미군들한테 걸보리 배급받아 먹으면서. 그 조그만 섬에 피란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깐, 장질부사란 병이 많이 생겨서. 지금 같으면 병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예방주사만 [맞으면] 되는데. 그것만 올랐다면 그냥 죽어. 그러면 모래사장 같은 데다 묻어. 다음 날 가서 보면 까마귀들이 다 목으니까 뼈다구밖에 없어. 까마귀들이 닭보다도 더 커. 사람 고기 먹어서 그렇게 커졌는가봐. 우리 어렸을 때 집이 없으니까 조그만 야산에다가 파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올리고 그 속에서 살았지. 피난민들 어디 가? 나중에 1·4 후퇴 나올 때, 1월 4일 날 그 추울 때 아니야? 아구리선, 큰- 배. 그놈 싹 그냥 벌어지면 한참 그걸 타구선 군산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난 목포로 내려갔지.

섬 몇 개에 수만 명이 같이 살았어요? 엄청났지. 어디 뭐 보건소가 있어, 뭐가 있어? 없지. 그냥 장질부사만 왔다는 그냥 죽는 거여. 난 눈으로 똑똑히 본 걸.

2. 목포와 영암에서의 성장 과정

내려오실 때, 미군이 배를 보내준 거였어요? 아니지. 우리 섬에 수만 명이 집결하고 살고 있었어. 비행기들이 사람들 뭐 공수해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럭저럭 허다가 또 남하 명령을 내린 거여. 1월 4일 날 밤이 엄청나게 추웠지. 그때 목포로 내려갔는데, 정부에서 난민들을 잘 보살피라 해가지고 우리는 목포중학교에 가서 한 열흘 가까이 그때 겨울방학인가 어쨌 학생들이 없었으니까. 그때 좀 날씨가 좀 푹푹한디, 전라도 가니까 알카이[알타리] 김치 있잖아요. 내 생전 이북에서 그런 걸 먹어보질 못했거든.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가 모르잖어. 간간한 주먹밥 해주고. 뭐 이장, 반장 할 것 없이 정부에서 시켜서 하니까. 어렸을 땐 그냥 뭐 재밌지 뭐. 맛도 좋구. 그럭저럭하다 거기서 있다 영암군이란 데로 배치됐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때 우리 고향 난민들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영암군으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나는 시종면이라는 데 가 있다가 각 부락마다 난민들 한 세대씩 딱딱 있었어. 내가 영암군. 전부 다 집결시키드만. 공계 아버지께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지운 씨라고.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 됐지만 100살 좀 더 못 갔지?

어머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렇지. 형, 누나들 있었고. 누나가 다 시집 가 있었고. 부인 : 누나가 셋. 사촌 동생, 사촌 작은 엄마. 우리 시아버지가 형제밖에 없음

게, 동생은 거기서 돌아가셨고, 여그로 피란 나오면서는 그 작은 엄마를 ...

작은 어머니는 고향에서 혼자 계셨어. 작은 아버지는 고향에 있을 때 씨름 땡기고 하다가 늑막염 걸려서 돌아가셨어. 나도 눈에 흰해. 내려와서 묘하게 경기도 돌마, 이매리란 데 분당 가는 데 내가 한 몇 년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나랑 세 식구밖에 없었어. 바로 고 뒤에가 남한산성인데, 나무하러도 가구 별거 다했지. 경기도 보니까 남자들이 다 일을 하드만. 콩밭을 매고. 여자들은 나오질 않애. 밥 때만 이고 와서 밥 주고 그냥 가지. 동네가 또 무슨 잔치가 있든지 시집장가를 가지만 하든 전부 다 동네 청년들, 남자들이 가서 전부 너는 국수말이하고 전부 그러더라고. 풍습도 더럽더라고. 여자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러저럭 풍습이 그런 데 가있다가 마침내 내 숙부님, 이숙이지. 이모의 남편. 전상채 씨라고 그분이 전라도 저 장흥에서 간척사업단 그 대표로 있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와라, 이리 내려와라.” 그랬어. 거기 가서 그때부터 내가 전성기가 있었지. 그때 숙부님이 그 사업장에 대표로 계시고, 사무실 직원들도 한 열댓 명씩 되고, 난 사무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총 책임직을 가지고 있었지.

이때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시종면에 있다가. 아버지가 웅진군 용천면 난민 총 대표로 계셨거든. 근데 새마을이란 데가 있어. 소호면 새마을. 지금도 난민들이 몇몇이 살아요. 거기에다가 집을 다 지었어. 길다란 집을 지어서 두 세대씩 살게끔. 난민들 전부 총집결해야 되겠다 하구선 영암군에 배치되어있는 난민들을 전부 소호면 한군데에 다 모아놔서. “너는 목포 옆에 가든, 삼호면 있는 데 염전으로 가서 넌 일해라, 어디 가라.” 우리 아버님이 거기 살구 있는 젊은 사람들 있으면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켰거든. 나는 그때 학교 땡길 때고. 내가 열일곱 살에 국민학교 졸업을 했어. 거서 목포를 들어가서 목포제2중학교를 갔어. 목중학교 [목포중학교]가 있고 목포제2중학교가 있고 그랬어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단둘이만 있을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난민들 다 모여살구 하

니까 파했던 거야. 아버지, 어머니도 목포로 같이 왔고. 목포 보문 관작집이라고, 수용소라고 있어. 두 군데나 있어. 그거서 내가 원래 살았지. 그때 18살, 19살 그 사이까지. 자유당 시절이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몰랐지. 밤낮 돌아댁기면서 싸움이나 하고, 치고박고나 하고 그 지랄했으니까. 나도 젊었을 때 상당히 좀 놀았거든. 목포에 고아원이 있는데,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왜냐면 아버지가 거기서 우리 난민들 고아원으로 딱 설립을 했어. 그 보(補)를 천주교. 난 그때 천주교 밀가루하구 짱내가 가루 타먹을라구 댕겼어. 요만한 책을 주면서 교리문답이라구 그걸 외우래. 그걸 외울 수가 있나. 밤낮 꼰꼰꼰하고 돌아댁기고 싶은데. 밤낮 싸움만 하고 댕겼어. 우리 단체에 고아원 출신이 한 60여 명 있었어. 또 부둣가에 갈매기 부대란 짱패들이 있었지. 이놈들한테 잡히면 무조건 죽어. 우리 친구 하나는 하나 죽었지. 싸움이 붙었어. 우리가 도망 댕겨. 이놈들 우리 동네 오면, 장항아리니 뭐니 깨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지. “이 새끼들한테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 단체를 구성해가지고선 딱 세 사람씩 골목만 지키고 있다가 이 새끼들 왔다 갈 때 치자고 말이야. 그래서 한 번 쳤어. 대가리가 뿌서지고 다리 뿌러지고 굉장했어. 난 그때 까만 미군 맘보바지라고 있었어, 스모루바지라고. 그거 입고 하얀 와이셔츠 딱 입으니까 태가 나잖아. 그때도 내가 키도 크구 덩치도 좋았구 그랬어. 밤낮 싸움만 하러 다녔어. 막 치고 박고. 그때 고마리에 있는 큰 누나가 목포 시험장이란 [데] 가 있었어. 시험장 가문 빈 일본 다대미방 무지 많아. 우리 애들 다 싣고 거기 와서 밤낮 치고 박고 싸움 연습하는 거지. 그럴 때가 참 좋긴 좋았어.

고아원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예. 한 60여 명 되었어요. 그걸 아버지가 처음부터 설립을 했거든. 천주교 계통이니까 천주교에서 보급을 계속 주고, 난 원래 고아원이[고아가] 아닌데도 [집이] 고아원으로 등록이 돼 있음게 고아원 출신이 되었지.

부인 : 쌀도 나오고, 밀가루도 나오고. 그땐 밀가루를 걸 모르지.

강냉이가루 많이 나왔어. 강냉이 가루 노란 거.

60명이 나이도 비슷하셨어요? 다 우리 또래들이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열아홉 살, 한 스무 살 먹은 놈들도 있구. 그때 내가 열일곱 살 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무지하게 날렸어.

싸움을 잘하시는 편이셨어요? 아주 내가 최고였지. 그냥 날라 댕겼지, 옛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 감개가 무량하네. 단체 싸움 붙기도 하구. 남진이가 원래 목포 고향이거든. 우리보다 한참 아래지마는 개들두 짱패 출신이여, 남진이두.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하는 완전 짱패 새끼한테 나도 한 번 되지게 한번 얻어터진 적 있어, “아구리. 야 이 요놈 새끼 보라고 좀.” 내가 보자 구선 복수한 적도 있구.

목포에서 계시다가 이매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목포중학교 다니다가 목포공고라고 있어. 짱패학교여. 목포공업고등학교라 하든 우리들은 그냥 교복 단추 딱 끌고 댕긴단 말이야. 다른 학교 학생들 지나가든 속 도망가. 점마 들어가. 불러와. “너 교복 그게 뭐여, 임마?” 그때 나는 벌리고 댕기면서 말이야. 그때 목포 공고라 하든 짱패 학교로 유명했어. 그때 형진이는 딸이 초등학교 댕기는 데도 거기 학교 댕겼어. 왜냐든 피란 나오면서 졸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여. 고등학교 졸업은 쌓아야 되겠으니까. 난 아래 쪽 중학교 댕길 때구. 나하구 같은 먼 촌간 되는 형진이하구 같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자기도 허구 밥도 먹구 그랬다구. 각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두, 난 그때 그거서 있다가 이매를 간 거야. 아버지, 어머니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매리로 간 거야. 묘한 조건 [때문에]. 목포에서 사기를 당했어. 아버지의 먼 친척 간이란 놈인데 이놈이 사기를 했어. 나를 인천 어디 아는 데 취직시켜 준다구 말이야. ‘아 그런가보다’ 갔는데. 이놈이 수원으로 가는 거야. 수원 그때 진흙탕이었어. 형편없었어. 수원에서 인천 가는 조그만 기차

가 있어. 조그만 기차. 달달달 하는 거. 그걸 타고 가는데 이놈이 없어졌어. 잠깐 있으라 하더니, 다시 목포로 내려간 거야. 나를 취직시켜준다고 했는데, 인천을 간다 해놓구선 다시 내려와서 사기를 친 거야. 어쩔 수 없지. 없는 거 있는 거 마련해서 또 돈을 줬지. 근데 내가 그 즉시 목포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왕에 올라온 거 고향 친구들도 만나야 되겠다. 고향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다.’하구서. 인천에 우리 고향 황해도 웅진군에서 살던 친구들, 형제간들 많거든. 내 육촌 형이란 분이 서울 미도파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글로 해가지고서 차근차근 이 때까지 찾아가게 되었지. 지금 같은 일 있으면 전화하겠지만, 그때 전화가 어딴어? 편지로 써야 돼. 어느 세월에 그걸 일주일씩 걸리는데 그까지 가냐고? 그래서 이매리에 가서 우리 고모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여동생이 계시면서 “우리 조카들 왔다” 하면서 굉장히 ... 그럭저럭해서 그거서 오래 살다가 남한산성으로 나무하러 땡기기도 하구. 나무 한 짐씩 딱 해다주면 얼마씩 주기도 하구 그렇게 했대구.

3. 이매에서의 생활과 피난민에 대한 차별 경험

목포공고 졸업 못하시고 이매로 가신 거네요? 못했지. 못하고 올라와가지고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싫어지구. 아버지, 어머니도 좀 그렇고. 저 아래에서도 그랬지마는, 경기도 본토 사람들이 우리들 오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구. 어떤 땐 그래서 “저그 저 누구 아버지하고 피란민하고 간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 피란민은 사람 아닌 거야.

그때 그 피난 온 사람들은 구별이 되셨어요? 말씨가 조금 달랐나요? 우리 황해도 말은 조금 달랐지.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난 그대로 황해도 말 많이 써. 전라도에서 몇 십 년 살았으니까 지금은 가끔 전라도 말이 나오긴 나오지. 그

때는 이때 지방 본토 사람들하구 우리들하구 차별이 있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 만 그때 경기도 본토 사람들 보면은, 수백 년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터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텃세가 상당히 심했어. 우린 그 동네에서 빈집 하나 얻어갖고 살림하고 있었고.

일할 때는 본토 사람들이 텃세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한참 나이거든. 한 스무 살 정도 됐을게.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난닝구 하나 딱 입구서 이려고[뒹집 지고] 땡겨. 안 추운 척하고. 궁계 동네 청년들이 나만 보든, “아, 원근이 삼촌 참 멋있드란 말이야.” 그러고. “너들 다 이리 와봐.” [내가] 남한산 데리고 가서 큰 나무 토벌해서 베어다가 궁터에다가 운동기구를 만들어놔서. 평행봉이니 뭐니 운동시키는 거여. 이렇게 해야만이 몸도 좋아지고 센 거라구 말이야. 판자대기 두툼한 거 세워놓고 계속 때려. 하면 여서 못이 배긴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돼. 안 아플 정도로 멋있게. 이래야만이, 한 방 쳐야만이 상대가 꼬꾸라진단 말이야. 동네 청년 머시매들이 진짜 바보 천치들만 살드만. 시킨 대로 해. 내가 대장이여, 내가. 객지에 와서 산 지가 얼마 안 된데두 내가 대장이여. 근데 뭘 잔칫날만 되든 남자들이 청년들만 가서 그것을[부엌일을] 하냐구.

예전부터 그 마을 본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남자들이 또 청년들이 왜 이 짓을 하나?” 여기는 여자들 구경할 데가 없어. 또 논을 매나 콩밭을 매나 해두 남자가 하지, 여자는 볼 수가 없어. 그냥 밥구리나, 먹는 거나 같다 주구선 가불구. 누가 뭐 흠쳐가나. 그 뒤로는 그런가부다 했는데. 틈만 나면 고모 할머니집에 가서 묵구. 그때 당숙은 작은 마누라 데리고 와서 살고 계시고. 그 양반이 이매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간 거야.

4. 장흥 사업장 사무장이 된 과정

이때로 오셔서 어떻게셨어요? 목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이때리로 왔을 때는 타관 생활이지. 터줏대감들이 좌우좌지[좌지우지]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피란 나온 사람들, 객지에서 들어 온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냥 일어나 하고 논매고 뭐하고 그 지랄들 많이 했었지.

부인 : 그러다 저러다 덕촌으로 간 거 아니여?

이숙이 간척사업장을 시작하면서. 김형서란 사람이 사천에 살았어. 사천에 황해도 피란민들이 몇 모여 살거든. 한데 김형서가 왜 간척사업장에 몸을 담기 시작했냐면, 뉴질랜드 뭐, 5개국을 다니면서 원조를 받았어. ‘우리 난민들 먹여 살려야겠다. 원조를 가지구서 간척사업을 해서 이걸[바다를] 막아가지구서 농토를 만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구선. 다섯 나라를 다니면서 동냥해왔어. 궁게 딱 그 설명을 듣고선 나라마다 전부 다 원조를 해준 거야. 원조를 해줄 때 그냥 물품으로 원조해주나? 원조한 게 물품 갖고 안 되니까 돈을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냐? 그때부터 간척사업장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때 제일 처음에 고마리. 우리 대진이¹⁾가 잡고 있었어. 고마 관산부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덕촌 사업장. 고마 관산 사업장은 내가 이미 끝내놓구선 난 선발대로 덕촌으로 왔고. 덕촌을 가서 또 한참 하고 있을 때, 고흥이라는 데가 또 있어. 전라남도 고흥. 고흥을 복원을 가라 하드라구. “당분간 여기는 중단하고 저가 좀 위급하니까, 원이 어디서 터지고 있당게 전부 다 글로 가서 어떻게 복원하라고.” 그거 가서 한 열흘 동안 있었나봐. 있으면서 우리 조카보고 “야, 이 자식아, 저기 가서 막걸리 한 병 얻어와.” 그러니까 “아, 어디서 얻어옵니까?” “얻어 와봐. 술이라도 얻어와.” 물이 쓸믄[썰물이 되면] 돌 옆에 [손목을 잡으며] 이만한 가재미 같은 게 퍼덕퍼덕 살잖아. 그

1)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3리 노대진 이장. 구술자의 조카. 구술자를 소개함.

걸 잡아갖구 “이거 봐라. 이거 있으니까. 된장하구 뭐하구 갖구 와.” 그때도 내가 덕촌에서 높은 사람들이 복원을 가라 했으니까 갔지. 그때 내 친구 동순이도 거기 있었구, 병춘이, 승복이 개들이 다 같이 있었어. 각자가 다른 데 가서 살지마는, 다 늴었지. 거그서 그럭저럭 하다가 덕촌으로 다시 복귀해서 왔지. 막이 [손으로 막는 동작을 하며] 삭금하고 덕촌하고 그 거리가 한 4km 돼. 거기에 장거리 제방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있는 농토가 엄청나게 나니까 이걸 분배했어. 고마리는 먼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분배를 다 했어. 나도 그때 조그만 귀퉁이 한 서 마지기짜리 하나 분배를 받은 적이 있어. 자기 출역, 근무 일지 따라서 배당이 되드라고. ‘덕촌에서 [분배]하게 되든 그것을 또 한 뭉치 받으면 되겠다’ 했더니 개뻥다구. 주긴 뭘 줘. 공사할라든 까마득한데. [웃음]

이때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거기로 가신 거예요? 얼마 안 있었어. 2년인가 3년 가까이 됐을 거야. 아버지는 그때 난민들,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간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이때에서 장흥 가실 때는 부모님도 다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 딱 세 식구밖에 없는 걸 뭘. 아버지 그기 계실 때 덕촌에서 우리 숙부님이 전화가 와서 “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니가 있어야 되겠다.” 그분은 자식이 없어. 내려올 때 세컨드 하나 데리고 내려왔거든. 우리 이모는 고향에 계셨고. 어머니, 동생은 고마리에, 고향에 계셨고. “그러니까 니가 내려와라.”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있을 만 해. 괜찮애. 나한테 무거운 책임도 주고, 십장들 통솔하기도 하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을 썼는데, [나한테] “네가 알아서 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써라.” 십장들을 갱생원에 있던 단원들을 데려다가 시키잖아. 철다리 구루마에 흙 싣구 [구루마 밀고 흙 옮기는 동작을 하며] 가니까. 내가 그때 단원들을 한 700명 데리고 있었거든. 또 그 후에 삼산이란 사업장이 있어, 삼산.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 할 때 왔었어. 나하고도 악수해봤다니께. 키

는 쪼그만한데, 비행기는 밖으로 팽팽팽 돌고, 행여나 어찌 될까봐. 책임자들, 대표자들, 이사장들 딱 앞에 서있는데 나한테도 악수를 하시는 게야. [악수해본 손을 보며] 나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까지 해봤다, 이 손이. [웃음]

대통령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전부 다 그 모이게 해서 뿔발에 잔뜩 모여야 될 거 아냐? 사진 찍어야 될 거 아냐?. 오기 싫어도 갔어야지. 삼산 사업장 준공식 할 때니까 나도 안 갈 수가 없잖아. 각 사업장 대표들이 다 가는데. 우리 같은 초짜배기들이 가야지. 뿔발에다 구름때 곁이 사람들이 모였지.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몇 대가 돌고 왔다 갔다, 행여나 [대통령] 쏠까봐. 그때는 도로가 다 비포장도로였어. 맨 자갈밭 도로였어.

처음에 가족 분들하고 고마에 오셨던 거네요. 고마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고마리는 나 혼자 왔었지. 아버지 어머니는 이매리에 있고.

고마에 처음 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숙부님 말대로 작업이 되고 있던가요? 한참 작업하고 있었지. 고마리 갈라몬 배 타고 가야 돼. 요쪽에 쪼그만 데. 쪼그만 원дук 하나 있죠? 그밖엔 바다고. 원이 없어. 바다에 있어. 배 타고 갔었당게. 바다를 완전히 메웁고 완전히 제방을 만들고 하면서 지금은 완전 육지화 됐지마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바로 작업장에서 십장들 통솔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난 처음 고마리 갔을 때도 사무장으로 있었어. 십장들, 감독들 관리하고.

몇 살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스무 살 가까이 됐었어.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덕촌으로 가가지고서 얼마 안 되서 장가 갔잖아.

5. 전직경찰관, 부랑인 등 사업장에 참여한 사람들

처음 고마에 오셨을 때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있던가요? 일꾼들 많았죠. 그때만 해도 실업자들도 많으니까. 전직 경찰관들이 있잖아.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와가지고서. 나는 나이가 좀 어려도 항상 내 밑에 와서 일하고, 내가 사무장이니까 나한테 이부하니라고 별 지랄도 다 했어. 그때 덕촌 신평경 씨 아들 신헌규. 가도 옛날 경찰관으로 했잖아. 그때 덕촌 사업장이 한참 공사를 하다가 휴지한 상태에 있었거든. 회사에서 산 걷은 걸 다 사서 밭파도 다 했잖아. 공계 자기들 동네 팔아먹은 산인데 뭘 상관있어? 그래서 들어갈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스쿠아 양식장 하나 만들자.’ 그때 스쿠아 양식장 한 5,000평만 가지고 있으믄 애들 대학교 몇 개나 보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난 말만 들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또 하나 남겨놔야겠다’ 하구서 신리에 사는 김종선. 신리 부자지. 신리 토백이지. 또 신리에서 조금 가믄 옛날에 공화당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길전식 씨라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길전식이 웅암리 살고 있었거든. 신리에는 종선이랑 개들이 있었고. 덕촌에는 신헌규라는 경찰관 하든 놈이 있고, ‘내가 있으면서 요놈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묶어서 스쿠아 양식장을 만들었어. 한 5,000평을 만들어가지구선 애들 쫓지 뭐. “너희 둘이서 나눠서 해라.”

5,000평이나 되는 양식장을 만드셨는데, 그분들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난 있느냐마나잖아. [우린] 올라와 버리니까. “김종선이하고 신헌규 너하고 이거 잘해라” 하고, “내가 굴하고 술 좋아하니까, 내 언제 올 때 너희 마누라보고 [준비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한 두어 번 내려가서 굴은 잘 얻어먹었어. 술안주하고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내가 생전 덕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고마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어요? 그 사업장 끝날 때까지 있었지. 제방 다 끝나고서 내가 덕촌으로 왔으니까.

그때도 고마에 개척단 사람들도 있었나요? 단원들이 있었잖아. 개들 전부 농지 분배 다 해줬잖아.

부인 : 지금도 거가 산 놈은 살고 그래. 잘사는 놈은 잘살어. 착한 놈은 잘 살구 쫄쫄한 놈은 갖고 먹고 도망가구.

멍청한 것들은 논 같은 거, 준 거 하루 저녁에 그냥 없애고 그랬어. 살살 꼬셔 가지고.

단원들하고 현지 분들이나 월남하신 분들이 다 같이 작업을 했나요? 거기 있던 단원들은 일반 단원들하고 달라. 거기서 고생해서 터전을 받게 되든 농사짓고 정착할라고 있던 단원이고, 내가 덕촌에서 데리고 있던 단원들은 갱생원에 있던 부랭이들[부랑아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끼들[부랑아들] 콩밥 먹여선 안 되겠다. 건설단으로 보내라.” 했어. 농구화 신발 하나 주든 한 달 내내 신고 댕겨야 돼. 발바닥 나두[닿아도] 어쩔 수 없었지. 노예 생활이지. 개들 감시하는 지도원들이 또 몇 명 있었어. 내가 그 지도원들을 통솔하고 있었어. 우리 덕촌에 한 10명인가 됐을 거야. 덩치 이런[큰] 것들, 아주 주먹 탈영하면 결국 잡아다가 조진 거야. 죽는 것도 있어. 죽으면 그냥 빨밭에다가 없애면 되는 거니까. 무대뽀니까. 공계 내무반이 마룻바닥이지. 지금도 거기 집이 있을랑가 몰라두. 저녁 딱 먹구선 짝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옥 줄로 있어야 돼. 그러구 “불 끄 구 취침!” 하든 자야 돼. 거기서 누가 뿌시럭 소리 내면 그것도 매 맞아 죽으니까.

6. 한국정착사업개발홍업회와 김형서

개발정착사업했던 홍업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홍업회 회장님이 바로 김형서 씨. 그 밑에 대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김형서, 전상채, 열두 명이 조합이 됐

어. 금계 누가 대표가 아니야. 열두 명이서 똑같이 설립을 한 거여. 김형서 씨 그 양반이 똑똑하긴 똑똑했지. [그 양반이] 외국 땡기면서 원조해오구 했으니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대표직만 가지고 있을게 그냥하고.

고마하고 덕촌에 계실 때 지내실 집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덕촌만 하더라도 산 위에 주택들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가 갈 때 막 집들 짓느라 난리드라고. 그런 식으로 집 짓고 사무실 짓고 있었어. 그때가 좋았는데. 총무도 하고. 나 그때 장가 안 갔을 때여.

고마에서는 혼자 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매리 가 계셨고. 알고 봉계 우리 숙부님 전상채 씨라고 그 대표. 그 양반이 쪽은 거지 뭘. 자식(자식)이 없으니까. [나를] 자식 대용으로 해서. 고흥 사업장, 삼산 사업장, 각 사업장 합치면 흥업회 직원만 하더라도 한 6,000명 정도 됐어. 우리 흥업회는 김형서 씨 관할이거든. 그러니까 “덕촌 사업장 전○○씨 아들이 장가간다” [하면] 사람들이 봉투 안 내면 안 됐잖아. 수천만 원 들어왔을 거야, 아마. 그때도 혼자 꿀꺽했어.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도 혼자 꿀꺽 했어.

전상채 숙부님은 김형서 씨를 만나셔서 힘을 키우실 수 있었던 건가요? 열두 명이 한 조합이여. 김형서 씨는 항상 외국에 다니니까 [숙부님한테] “그냥 니가 회장해라”하고, 나머지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지방에서 헌신하라 이렇게 한 거지.

그때 숙부님 연세가 얼마쯤 되셨어요? 60대 됐을 걸. 키도 아주 크구. 황해도 사람들이 덩치도 다 좋잖아. 아버지 바로 밑에 동서거든.

7. 반공포로 출신 단원 등 간척사업장 인적 구성과 농지 분배

처음 오셨을 때 독 쌓는 작업부터 다 관리를 하셨겠네요? 그렇지.

그때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모았어요? 돈 벌러 와야 될 거 아냐? 그리고 고마리에 기존 단원들이 있었어. 거그서 오래 [일하면] 분배받는 거.

농토를 분배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조약이 다 돼있어. 600평씩이 됐을 거야. 서 마지기 좀 넘을 거야. 한 반구는 안 되고. [내가] 받아서 얼마 받고 팔아 묵었나? 있으나마나잖아.

고마에 있던 단원들 중에도 월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피난민이 아니라 반공포로. 인민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거제에서 석방돼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덕존에도 있었잖아. 그저 조그만 비탈길 지문 집들 짓구. 그 큰 벌판이 농토가 됐으니까, 거기서 농사짓고 하니까. 옛날엔 포로병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구.

인민군 출신하고 국군 출신이 섞여있었어요? 아니, 국군은 없지. 전부 다 포로병인게 인민군이지. 우리나라 그때[전쟁 때] 잡혀서 온 애들이니까.

그분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야. 여기 와서 장개가고 자식 낳고 다 그랬지. 고향생각이 나겠지. 안 날 리가 있나? 사람들이 참 좋았어. 그리고 우리가 출장 나갔던 당진 사업장이라고 있어. 충청도이기 때문에 야당이 상당히 켜어,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도에서는 한 표도 얻을 수가 없어. 그만하기로 켜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에 있는 흥업회 모든 직원들이 복원 나와가지고 투표 거그서 했어. 할 권리가 없잖아. [그래도] 거기서 투표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지. 뭐 안 될 수가? 완전 무더기 투표로 당선된 거여. 그

때 보사부 장관이 정희섭 씨라고. 나하고 같이 흙 속에서 같이 밥 먹고 지내면서 뭐라 한 줄 알어? “오 군, 이번에 각하께서 보니까 잘하라고. 잘하든 혹시 청와대로 입성할 때 되든 혹시 모르니까.” 염병할 거. 왜 그 말에 쏙았는가 몰라. 젊은 나이에 출세 의욕이 있잖아. 자기도 팽 당하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한 번 지가 당선되잖아? 먼저 있던 것들은 싸악 없애부려. 그거 보구 도둑놈들이 정치가들이다

고마에서 어르신이 관리했던 인원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지정 단위들은 몇 십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출유하는 지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 품삯 이른 돈이 몇 만 원씩 가니까. 또 십장들. 일 부러먹을라든 십장들이 있어야 되거든. 개들이 책임자들로 있고. 내가 할 일은 개들 맡고 관리하는 거 밖에 없지. 연장 분실한 거 있나 없나 각 십장들한테 [확인]하고. 또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독 있는 데 조그만 초가집 하나 있는 게 우리 사무실이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독이 별로 없었을 때는 집이 꽤 좋았었거든.

십장이란 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됐나요? 대표가 지정을 해줬어. 십장들도 좀 활덕활덕해야 되거든. 어수룩한 애들 안 되거든. 인부들한테 잡히니까. 피란민들이 많이 했지. 지방 건달들은 몇 안 쉬었어. 해봤자 우리한테 항상 굶실굶실해야만 되니깐. 동네에서는 건달이라고 하더라두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꿈쩍 못하잖아. 만약 눈에 났다 그러든 해고시키면 끝나니깐. “이 감독, 자네 당분간 쉬어야 되겠네.” 딱 그래볼문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쉬는 거지 뭐. 내가 젊었을 때두 파위가 좀 켜어. 대표의 아들 역할을 하니까 말이야.

8. 고마 사업장 단원

고마에 있던 포로들은 어르신하고 연배가 비슷했나요? 우리보담 나이가 많지. 나는 그때 총각 한 20대구. 그 사람들은 더 나이가 많지. 아마 40대 됐을 거야.

고마 제방 쌓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바다였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야. 한 1년인가? 난 항상 제방 끝난 동시에 선발대로 나갔어. 선발대 가봤자 뭐 할 거야? 맨 산중이구, 바다구. 그냥 집만 짓구 있구. 선발대로 가서 딱 해놓으믄, 후발들이 오고. 좋은 일 다 하는 거지. 난 선발대로만 다녔으니까.

고마에 계실 때 물자는 흥업회 본사에서 들어왔나요? 그렇지. 흥업회 본사에 있는 게 아니라, 김형서 씨가 외국에서 원조 받은 거여. 강냉이 가루만으로는 안 되니깐 이걸 돈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여?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여? 품삯도 줘야 되고. 정부에서도 할 말이 없지. 대통령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장흥군 군수 사내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 “네 직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깐 김형서 씨가 딱 중단하고 말았지. 뭐하러 외국을 댕기면서 동냥하듯이 하나구. 안하고 마니깐 정부에 이관이 됐잖아. 중단된 거여. 그걸 누가 해? 그거 잘못된 거여. 그때 내가 한 2년 동안 실업자로 있었지.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각자 인천에 갈 놈 가고 어데 갈 사람 가고 다 그렇게 했지. 대통령이 그거 하나는 잘못된 거여. 그냥 김형서 씨한테, “자네가 수고하네.” 하고서 좀 치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잘될 것을. 김형서 그 양반이 황해도 사람인데, 황해도 사람들이 전에 상당히 용기가 있었지. 그 양반들 나이가 벌써 100살이 다 넘어갔네. 아버지 또래 됐으니까.

고마에서도 김형서 씨를 직접 만나셨어요? 아니면 덕촌에서만 만나셨어요? 흥업회 본사 사무실은 장흥에 있었거든. 장흥에 있는 큰 건물이 본사여. 본사에 각 관

리와 등등 다 조직이 돼 있어. 계급으로 부장들도 있고, 과장급들은 현장에 있는 거이구.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보급 나오는 대로 움직이구, 물자가 부족하다 하든 청구를 내. 하든 하청업자들이 있어. 제방을 막을라든 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여? 하청업자가 대표 전상채 씨, 우리 숙부님한테 알랑발랑알랑 오바도 사다주질 않나, 뭐 하러 반지를 안 해주나. 나는 개가 미워서 신고 오든 전부 다 불합격 때린 거야. 내 직접 대기면서 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 팍-. 그렇게 밤낮 불합격해. 큰 석산이 있어. 그놈들이 남포에서 석공들하구 돌을 한 차씩 실어다 부어놓으면 불합격이 나오지. [그러다 그놈들이] 대표한테 얘기한 거여. “현장에서 사무장이 나를 미워해서 밤낮 불합격만 땀다”고 말이야. [대표가] 나한테 전화하면서 부르더라구. 와보라고 하길래 “마침 바쁜데 저녁에 올라갈 테니 그때 얘기하시오.” 그러고선 딱 눈치 딱 채고 안 갔어. “야, 적당히 해서 좀 하지. 그러냐.” 그러더라고. “적당할 것도 불합격시켜야지, 잘못하다가 원이 터지든 뭐 책임질 거냐고? 사이즈가 딱딱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안 맞으면 원이 헤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대표가 그놈보고 “그 사람 내 조칸데. 성깔이 좀 그러니까 자네가 살살 좀 어떻게 잘 좀 해봐. 내가 할 질 몰래[그 사람을 막지 못해].” 언제는 나보고 “사무장, 나하고 술 한 잔 할까?” 그래. “술이든 난 좋죠.” 옛날엔 술 잘 먹었거든. 신현규 집이 있어. 신평경 씨네. 집을 논 가운데 지어놓았지. 주막이 내 밤낮 가던 데야. 내가 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주 껄썩해. 대표한테만 오바 사주고 뭐 사주구. 그래서 잘될 질 있어? 현장은 내 손아귀에 있어. 그 양반 사무실에서 뭘 있어? 내가 노[No]하든 그거서 놓는 거지.” 그걸 미처 몰랐대. 진작 알았어야지. 그 담부터는 냅뒀어 그냥. 불합격할 것도 없이 그냥. “네가 현장 올라가서 어지간한 건 그냥 해 부러라.” “예.” 알겠다고.

그분 말고 다른 업자는 없었어요? 그 사람밖에 없었어. 한 번 한 사람한테 주문

줘야지, 여러 사람한테 주면 안 되거든. 그래야 땅을 딱딱 기준 맞춰. 그 사람이 폭파해서 돌을 깎아서 가져오게 되든, 현장에서 쌓는 기술자가 또 있어. 구루마에다가 신고서 철다리를 건너서 현장까지 가는 건 또 단원들이 해야지. 8월 추석 때나 무슨 날일 때는 원래 개들한테 전부 술 걸은 거 주든 안되거든. [내가] “막걸리 한 두어 통 가져와라. 저녁에 잘 때 내무반에 돌려라.” 한 잔씩 먹으라고 말이야. 중대장, 완장 세 개 찬 놈이 책임자인데, 내가 장터에 가면 항상 내 비서관으로 항상 따라 댕겨. “너 술 한 잔 먹을래?” “제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 너 밖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때도 내 술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그럭저럭 하다 그냥 바로 거기서 한 100m 거리가 바로 처갓집 동네야. 그러든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장인 영감한테 술을 한 통 이만한 거 하나 사갖고 들어가 “저 왔습니다.”

9. 자활단 관리

그때 내무반은 어떻게 되어있었어요? 일렬로 앉아선 딱 10시만 되든 취침. 들어가든 불 끄고 자야 돼. 안 자든 자기만 손해니까.

어떤 사람한테 중대장을 시키신 거예요? 제일 빠른 놈. 월급은 주지 않지. 명예만 “너 중대장” 그렇게 했으니까, 고것만 해도 어디야. 내 비서관으로 항상 그림자 같이 나만 따라댕기고. [아니면] 내무반에서 밤새도록 있어야. 10시에 “취침!” 하면 그냥 자야 돼. 새벽 5시부터 기상나팔 불어. 그럼 운동장 같은 데 짹 모여. 모이든 내가 작업 지시를 쪽쪽 내리지. “몇 조는 어디로 가고 몇 조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한참 있어야 십장들 나와. 십장들은 가정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침 출근을 해야 돼.

십장하는 분들은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지.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딱딱 공제시키지. 월급으로 주지 않아. 그대로 나와야 돼. 나는 아침에 한 10시쯤 돼서 쭉 한 번 돌아. 애들 제대로 근무 하나 안하나. 누가 결석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한다고. 나만 가든 십장들이 “호랭이 새끼가 왔다”고 말이야. 그때 메모를 하지. ‘오늘은 누구 또 [결석했나]?’ 오후 늦게도 한 번 가봐야 돼. 가서 또 확인하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저희들이 놀던지 자빠져 잠을 자든 난 상관 안하지.

십장하는 분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나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지. 가정 있는 사람들이지. 거의 동네에서 꽤나 좀 한단 놈들이거든. 한다 해봤자 뭘 해? 우리 현장에 와서는 내 말 들어야지. 내말 안 들으면 안 돼. 모가지들을 당하니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 돈 받는 직장이지.

그분들은 사업장 오시기 전에는 농사를 짓던 분들이었나요? 가정 사정은 모르지만, 건달 비슷한 것들. 뻔한 거여. 어느 회사에서 오든 그 회사한테 막 잘했어. 내가 지나가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이, 내일 아침에 올 때 동동주 좀 갖고 와봐. 충청도 당진에 가니깐 동동주 무지하게 많더라. 왜 여긴 그런 것이 없냐?”, “예. 알았어요.” 당진 사업장 갈 때, 충청도 사람들은 왜 동동주를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몰라. 처음부터 개인 취로하는 아줌마들이 많았어.

10. 덕촌 사업장 인적 구성과 지도원들의 단원 감시

덕촌에서 십장하던 사람들하고 단원들하고 다툼은 없었어요? 싸울 수가 없지. 누가 거기서 싸워? 얼마나 단체 생활이 좋다구. 반(半) 공포로 애들을 ... 지금도 집 짓고 살고 있구.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좋더라구.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그렇게 교육을 다 시켰어.

덕촌에 부랑아나 갱생원 출신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다고 들으셨어요? 현지 단원하구 부랑아들하고는 많이 달랐나요? 다르지. 부랑아들하고는. 덕촌에서 취로하는 사람들은 가정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이고, 단원들은 부랑아들이고. 부랑아들은 죄를 졌다든가 갱생원 같은 데서 교육 받고 있다가, 박정희가 “콩밥 먹을 필요 없다. 건설단에 보내라.” 해서 일 시킨 거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만 하는 이름은 없고. 개들 관리하는 지도원들을 뒀어. 지도원들은 완전히 주먹 [쓰는] 애들. 도망가다가 죽은 애들도 몇 있어. 잡아다가 천막 속에 들여다가 죽으면 뿔밭에다가 갖다 놓으믄 끝난 거지 뭐. 지도원들은 우리의 명을 잘 받고 충실하고 항상 말은 잘 들어. 순하디 순해. 근데 개들한테는 탈영 갔다 그럼 몇 십 리 길을 가드래도 결국은 잡아와. 뽕새를 어떻게 말는지 몰라. 사냥개들이야.

지도원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한 10여 명 됐어.

부랑아 출신 단원들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700명 정도 됐을 거야. 내무반이든 큰 교실 같은 데 있잖아. 맨 바닥. 밥 먹을 때 되믄 거지밥이지 뭐여. 밥 먹는 데가 따로 있어. 부인들이 개들 밥해주는 데. 밥을 삼으로 하고, 보리쌀도 잔뜩. 사람들 많이 맥여. 어쨌든지 개들을 많이 먹였다구. 우리들은 무서워서 절대 가지도 못하구.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그러셨어요? 난 같이 생활했으니까. 단원들 내무반하고 내 사무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중대장이 내 식사를 담당하니까 사무실로 내 밥을 갖고 와. 반찬하고 딱 해갖구. 괜찮애. 채들 완전 깡보리밥, [나는] 뭘 먹어도 쌀밥이여. 약간 보리쌀 들어갈까 말까 쌀밥에다 반찬 탁. [내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 되잖냐?” 저그들도 개들하고 같이 먹고. 나만 그

렇게 공짜밥을 먹은 거여. 돈 주고 사먹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데 꼭대기 사무실 까지 밥 먹으러 갈 순 없잖아.

사무실에 다른 분은 안 계시고 혼자 계셨어요? 아니, 소장님이 계셨어. 나이 드신 분. 그 분이 고마리 가는 데 있는 죽천에 살고 계신 양반. 돌아가셨겠지. 그분이 왜정시대부터 측량 기사였어. 기술자라구. 아주 빠삭했어.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보든 생전 봐도 알아? 알지도 못하지.

득 쌓을 때도 그분이 측량하셨어요? 그럼. 설계도 하고, 그분이 다 했지. 이렇게 하구서 두 번째 조감독으로 온 분이 한웅교라고. 내 육촌 형 되는 분이야.

소장님도 사무실에 매일 나오셨어요? 아니. 노인네는 나오긴 나오지. 항상 줍듯지. 식사는 같이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 일찍 올 필요가 뭐가 있어? 모든 것을 알아서 딱딱 하고. 내일 할 일을 오늘사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분은 홍업회에서 월급을 받으셨던 거예요? 최고 기술잔데 뭐. 대표 월급보다 많았어. 대표 월급이랑 내 월급은 같았어.

대표는 일을 직접 하시지는 않고요? 명예대표야. 일은 내가 했지. 김형서나 전상채나 고 사람들이 한 클럽이여. 황해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홍업회를 만들은 거여. “네가 회장해라. 네가 뭐 해라.” 이렇게 지적했지. 열두 명이 다 이사진이니께 권리가 다 막강하지.

각 지역에 측량 기사가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은 있을 필요 없잖아. 원 막을 때 처음부터 기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누가 한지는 몰라. 나는 이미 선발대로 덕촌에 왔기 때문에 뒤에는 모르잖아.

지도원하고 단원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도원들은 저희들 집에서 밥 먹고 땡겨. 단원은 책임자가 있잖아. 중대장이나 요런 애들. 만약에 애들 중에서 이상

이 있으믄 책임은 개한테 있으니까. 지도원들두 교대로 숙소를 감시하잖아. 지도원 열 명이믄 다섯 명이서 교대를 해. 감시를 해야지. 언제 탈영할지 모르니까. 애들이 무섭잖아. 매 맞구 뒤지게 고생만 해봤자 먹는 것도 그렇고. 농구화 한 켤레 주면은 한 달 내내 신어야 돼. 그러면 열흘만 신으믄 벌써 뽕구나서 발꼬락이 [나와도 그냥] 그렇게 탕겨야 돼. 완전 노예생활이지. 불쌍했지. 그러니까 도망가지. 신리, 고흥, 마량이니 어디니 도망가도 결국은 잡아와. 잡아오면 그냥 죽어. 어디서 죽이는지는 몰라. 매 맞아서 죽는단 얘기가.

많이 죽어나갔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가끔 보고를 받지. [하지만 죽은 사람] 이름도 모르지. 내가 뭐 개들을 알아? 단원들 이름을 모르지.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애들 놀릴 필요 없이 일 시켜라.”

부인 : 죽어도 소용이 없다, 살아도 소용없다 그거야. 개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11. 덕촌 사업장 중단과 당진으로의 발령

덕촌에 계실 때 골치 아픈 일은 없으셨어요? 사업이 중단됐을 때 원조가 끊어졌잖아. 김형서 씨가 [받아오던] 원조가 끊어지고. 정부 이관으로, “군수 재량으로 해라.” 이러니까 딱 중단될 수밖에 없지.

그 전에는 고생스럽긴 해도 일은 계획대로 잘되었어요? 아, 그럼. 재미가 있잖아. 아침에 만나믄 어제 만났던 친구들 만나게 되구 십장들도 오구, 얼마나 좋아? 한데 정부 이관으로다가 딱 만드니까 김형서 씨가 그것을 중단한 거지. 뉴질랜드 포함해서 5개국을 다니면서 원조하라고 했는데, 정부 이관하는데 미쳤다고 그거 하겠냐? 안 하지. “덕촌 사업장의 모든 것은 군수 재량으로 움직인다. 너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그만둔 거지.

덕촌에서 얼마나 있다가 당진에 가셨어요? 충청도는 야당이 무지하게 센 데여. 거서[거기서] 투표해봤자 박정희 대통령 한 표도 얻질 못해. 이렇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에 있던 흥업회 사람들 전부 다 글루 집결시킨 거여. 몇 천 명 집결시켜서. 정희섭 보사부 장관도 같이 나하고 같이 한술끼 목으면서 속았지. 거그서 [박정희가] 두 번째로 대통령 됐어. 당진은 완전히 인가도 없는 데야. 바다고 원뚝이고 인가도 없어.

당진에는 김형서 씨도 가시고 숙부님도 가셨나요? 숙부님은 돌아가셨지. 당진에 우리 흥업회 사람들이 [갔지]. 우리 친구들, 각 사업장마다 책임자로 있던 조감독들이 같이 가 있었으니까. 또 김형서 씨 비서관, 우릴 감시하는 암행반이 있었어. 한 공구에 천막이 50개가 있었어. 산악지대라 인가가 없어. 야산 비슷한 데 천막 하나에 50명씩. 50개면 5×5는 2,500명 아니여? 저쪽 공구에도 똑같이. 내 매형하고 고마리에 있는 노대진이 아버지 그 양반들 남매[동서] 지간이지만 “매형이 우선 서무장[사무장] 하시오.” 그러니까 처남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그래서 거기서 처남은 임시직이고 난 정식 직원이고. 처남 남매[매부] 지간이어서 잘 맞지. 우리 매형은 돌아가셨지만 무지하게 꼼꼼해. 나는 슬금슬금하고. 우리가 전표를 써주면 내 도장 딱 찍잖아. 그 전표 가지고 옆엘 가면 현찰이 딱 나와. 그리고 민대성이는 나이가 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깐 미세하게 하고 돈 자루를 들쳐 메고 당진을 나와서 혼자 짜버렸지. 나는 어디로 가라 해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못가지. 근데 애는 벌써 알고 있어. “이거 흥업회 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국가 돈이 아니다. 예라 먹자.” 하고서 그냥 한 붓다리 들쳐 메고 그냥 간 거여. 그놈 잘된 놈이여.

당진에서도 장흥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나요? 거기서도 똑같지. 충청도 사람들 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발을 한다면 큰돈을 버는 걸로 생각한대구. 그러니까 손가락, 젓가락, 밥그릇 할 것 없이 우리 회사에서 다 대준 거여. 애들은 몸뚱이만

와서 해. 저녁에 짝 한 번 순회를 돌잖아. 어디서 내가 나타난다 하든 벌써 닭을 잡아놔. 잡아놓고 나한테 대접하는 거여. 동동주하고. 잘 얻어먹었지 뭐. 충청도 사람들 동동주 하나 최고드만. 전라도는 그런 거 없어.

당진에서도 실제로 작업하던 사람들은 단원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도 많아. 신문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컸거든. 예를 들어서 물이 솟을[나갈] 때는 빨밭에 아무것도 없어. 한테 물이 한번 든다 하든, 산 더미 같은 게 들어오면, 돌 쌓은 제방이 그냥 없어지고.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 3년, 4년 동안 하다가 못 다한 거여. 동아건설 큰 회사였어. 우리가 딱 가서 6개월 만에 완공했어.

노하우가 있으셔서 가능하셨던 건가요? 기술뿐이 아니라 비행기로 일본에서 원조를 받았어. 엄청나게 큰 군함 같은 배에다가 이거보다 큰 놈의 돌멩이를 이빠이[いっぱい] 실어 와서 짝 가라앉혀. 가라 앉히려는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밀려나잖아. 고걸 잘 감수해서 물살이 씨지[세지] 않을 때 허고. 이렇게 몇 번씩 했어. 사람 죽은 것도 안 나오더만. 사람들 배에 있을 거야냐. 근데 간격 없이 하계끔 했지. 우리들은 그거서 그냥 바가지밥 먹었어. 직원들은 줄을 딱 서가[서서] 아침때지만 바가지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쪽 기다리고 있는 거여. 잔디밭 아무데서 먹는 거여. 거지발싸개지 뭐.

현장에다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때는 현장에 집이 없어. 허허벌판이고 천막들만 그냥 50개씩. 저번에도 50개. 그럼 50개 5×5는 25, 2,500명이잖아. 일꾼만 해도 5,000명이지.

전부 천막 짓고 거기서 사신 거예요? 천막. 한웅교 형님하구 나하고 몰래 민가를 가다가 같이 들킬 때가 있어. 슬그머니 논길로 해서 한참 가든 인가가 나와. 그런 데는 술 팔거든. 우리들 위해서 몰래.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막걸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먹다가 문 열고 보면 한웅교 우리 육촌 형이 “동생 왔어?”, “아형은 뭐 하러 여그 왔어요? 헤, 들어오쇼.” [웃음]

걸어서 거기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술 한 잔 먹을라구 몰래 갔었거든. 남자들은 술이 좋았나봐.

그때 홍업회 본사도 아예 당진으로 옮겨갔나요? 아니지. 홍업회는 장흥에 있었어. 장흥 시내 안에 홍업회 큰 건물 ... 지금도 있을 거야. 다른 공장으로 돼있을 거야. 김형서 씨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보니까 이북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았어. 이북 놈들이 머리는 아주 비상하다니께. 정부 이관만 안 됐으면 성공했어. 근데 박정희가 군수 재량으로 정부 이관이다 이렇게 하니까 희망이 없어지지 뭐.

월남하신 분들 사이에서 김형서 씨가 평이 좋으셨어요? 그럼. 사천에 살았었기 때문에. 사천 난민들이 자작일촌이었어. 그 사람 최고 괜찮았어. 그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홍업회가 생겨서 바다를 다 농사를 짓게 했지. 막아놓고도 피란민들은 다 이쪽으로 와서 그곳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거야. 우리들은 다 이리로 올라와 부렸지.

12. 장흥 농지 분배 상황과 당진에서의 생활

정부에 이관하기 전에 땅 분배가 이미 다 됐던 건가요? 고마리는 이미 됐지. 나머지 땅들은 시작인데 거 되나? 군에서 그거 제대로 하나? 하지도 못하지. 군에서 뭘 재량을 갖고 하냐구? 그냥 뇌뒤편이지.

그 뒤로는 당진으로 오셔서 장흥에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거그는 농사짓고 사는 거지.

덕촌에서는 분배가 잘 이루어졌나요? 반공포로들한테 분배 다 시켜줬잖아. 눈이 얼마나 돼? 물로 차는데. 물 옆에는 염기 때문에 모는 심을 수가 없어. 지금도 안 돼.

당진에서는 임시로 사셨던 거죠? 우리가 복원 나와서 당진에서 있다가 가서 끝나고 말았지. 그거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박정희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당선됐을 거야. 당진에서는 원 막는 거 다 끝내놓고 나왔지.

당진에서도 단원들하고 같이 일하셨어요? 단원들은 없었어. 일반 사람들이고. 어지간하면 다 기술자들이고 일반 사람들이고 그렇지. 단원들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단원들은 이미 고마리나 그런 데서 이미 딱딱 분배 받아서 농사짓고 있었어. 가정생활하고.

당진에서도 장흥처럼 매일 전표 주고 출석부 적으면서 일하셨어요? 그래. 당진 있을 때는 한 가지 좋은 것이, 인가가 없응게 하꼬방을 딱 지었어. 이제 여기선 전표 하는 데고, 여기선 돈 내주는 데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결제는 내 도장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 “전표 몇 장만 어떻게 해서, 술 한 잔 먹어보면 안 되냐?”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가 네 돈으로 술 먹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전표 두 장 일로 갖고 와봐.” 그럼 그거 항상 놔두면 안 되잖아. 막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동순이 자식이 와. 그 자식이 회장 직속 암행어사여. 누가 비리가 있나 없나 감시하러 댕긴단 말이야. “택성아, 너 이리로 와봐.” 그래. “내가 지금 목이 말라죽겠는데, 너 호주머니 있으면 풀어봐.” [웃음] “내가 돈이 어딴냐?” “너 회장 비서는 개빱다구, 병신으로 하구 돌아댕기냐, 인마?”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재밌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서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소식도 몰라.

그분들도 장흥에서 같이 가신 분들이었어요? 다 같이 갔지.

13. 고흥 소록도 사업장과 웅진 고향 생각

당진에 가실 때는 자제분이 있으셨겠네요? 월급은 아예 집으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아들 셋, 딸 하나. 우리는 월급 얼마 나오는지도 몰랐어. 회사에서 주소를 알고 집으로 딱 보내.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거기서 야업을 했지. 그때 돈으로 15만 원. 15만 원 갖고 살겠어? 식구대로? 못 살어. 아버지가 욕봤지. 우리들도 고생 많이 했어. 그 사업장 중단된 바람에 2년을 그냥 논 게.

고흥 사업장은 어땠어요? 고흥 제방이 위태롭고 할 때 흥업회에서 고흥으로 원조 가라고. 우리만 간 게 아니여. 삼산서도 가고 다른 데서도 다 가서 그걸 복원한 거여. 삼산이 3,000 정보인데, 그거보다 고흥이 더 커. 거기서 조금 가면은 소록도 있잖아. 문둥 환자. 문둥이라 해가지구선 뭐 어쩐다고[웁는다고] 했잖아. 그때는 문둥이 환자들 보든 손가락두 없구 하잖아. 아무 상관 없어. 박사가 우리들 보내면서 그랬어. 피를 섞으든 어찌어찌 될지 몰라도, 절대로 같이 잠을 잔다든가 해도 아무 탈이 없는 거라고 말이야. “이 사람들 썩썩한 사람들이다.”

고흥 가서서는 어느 정도 계셨어요? 한 두어 달 있었을 거야, 아마. 거기서 술 실컷 먹었어. 난 원조 간 사람인데, 그 지역 책임자 총각 새끼들이 싸움만 당계. 어느 직원이든지 가족, 새끼들 못 와. 단체 생활이라.

고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도 단원이 있었나요? 직원들이랑 기술자들이 갔어. 덕촌 단원들이 상당히 불쌍했어. 추석날이나 명절 있잖아. 그때마다 막걸리 한두 통씩 애들 갖다 주고 그랬다고. 배달시켜 가지고. 이거 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 “큰일이 뭐냐? 한 잔 씩 다 돌려?” 이랬다니까.

결혼도 하시고 자제분도 계시고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나세요? 아, 많이 난다. 지금도 눈이 선해. 내가 우리 고향에 번지수까지 알아. 황해도 웅진군 용천면 원산

리 대동 96번지. 엄청나게 잘 알지. 운동장 같은 마당. 우리 집은 일본 시대에 지었는지는 몰라도, 집이 네모났어. 가운데가 뚫려서 보이고 우물이 거가 있었다고. 도르래기 우물. 왜정시대에 진 거라, 새집이지.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가보셨어요? 마음은 태산 같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 우리 동생이 지금 영암 살거든? 내 사촌 간이고 친동생하고 똑같지. “우리가 백령도에서 육지 가까운 데 섬막이란 조그만 섬에 망원경 하나 갖고 가서 고향 산천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거든. 기린도 섬이 지금은 저 새끼들 손에 들어갔지만, 기린도 섬에서 날 좋은 날 산 우에 가서 고향 산천 보면은 우리 선산이고 어디고 다 보여. 기가 맥히잖아 그게. 지금은 백령도 갈라든 연평도에서 돌아가야 되잖아. 그땐 직진으로 댕겼거든. 백령도 가서는 못 보지. 기린도 섬에서는 바로 우리 동네 까지, 우리 선산까지 다 보여. 백령도는 그게 아니잖아. 백령도는 미 8군 항공모함이 그 옆에 딱 있잖아. 북한 전역을 겨냥해서 된 거여. 그래서 재들이 백령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유가 뭐겠어? 그 짹만 대고 총만 쏘고 지랄하지, 그냥. 그리고 연평도 사건 있잖아. 또 천안함 사건 지뢰 들어서 파괴시키구.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뭘 안 해? 다 ... 쪽지도 왔잖아. 파편으로 붙ینگ게 그렇게 됐지.

만약에 고향에 가실 수 있게 되면 가시겠어요? 간다면 가지. 내 육촌 형이, 오하 선이라고 그 형은 고향 생각이 나서 전라도까지 왔다가 갔어. 인천으로 해서 고향에 갔다고. 고향 가든 뭐 할 거야? 우리 동네 이름이 원산리 대동이야. 왜 대동이나. 큰 대(大) 자. 동네가 크다 얘기가. 옛날 시골 동네로서 100호가 넘어. 면 소재지보다 크다구. 그 동네 중앙에다 최고 잘 사는 그 형이 고향 생각나서 간다고 그래. 인천으로 저쪽으로 고향에 가긴 갔는데, 가자마자 드르륵 하고 ... 어쩔 수 없지, 뭐. 그 형은 “난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 그래, 자기 원 대로 된 거지 뭐. 가서 마당이고 뭐고, 그 동네도 못 가보고 그 근처에 가서 뜨르륵 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게 언제였어요? 오래 됐어.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주도까지 한 번 갔었어. 갔다가 올라가면서 오셔선 안 되겠다고. 가족들 같이 기린도 섬이란 데로 갔어. 그러저럭 하다가 1월 4일 밤에, 날 추울 때 남하명령 내린 거야. “섬에서 남하해야 되겠다.” 미군이. 미군들이 딱 와서 밤에 그냥 전부 다 신는 거야. 그때 밤 중이니까 가족을 잃어버려서 미국으로 간 애들도 있구. 차라리 나 같은 사람들 미국으로 가든 얼마나 좋았어? 그거서 남하하는데, 우리 나이가 어렸으니까 미군들이 껌 같은 거 내던지든 그거 주워 먹니라구. 사탕 같은 거 주워 먹는다고. 뭐라고 씨부렁씨부렁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어? 애들이 그냥 과자 널름널름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지새끼들 같이 던져주고 참. 그때 판 사람들은 군산으로 갔는데, 우리는 목포로 왔어.

피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요? 모르지. 먼저 간 배는 목포로 가고, 나중 에 가는 배는 군산으로 가고 이렇게 나뉘나봐. 너무 한 군데로 많이 집결되면 몰리니까.

14. 사업장 중단 이후 평택에서의 삶

당진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평택으로 바로 오신 거예요? 당진 갔다가 [사업이] 끝났잖아. 끝나니까 원대 복귀 해야지. 집으로 와야지. 집에서 뭘 해? 황하니 할 거야 없잖아. 남 같이 농토가 있어? 뭘 해? 마흔한 살 된 막내 막 돌 됐을 때 평택으로 온 거야. 내가 사무장이었는데 평택은 객지니까 고민,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아무 장사나 하자 그러고선, 리어카를 하나 샀어. 6,000원 주고 중고 리어카를 하나 ...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은 굳게 먹었을망정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속은 좀 좋지 않았지.

어르신은 군대는 어떻게 되셨죠? 나는 나이로 인해서 면제가 됐지. 우리는 그때 가호적이 돼 있었어. 피란민들 가호적이 돼가지고서 면사무소 병역계에 있던 형이 나하고 형님 동생 하고 있는데, 형이 뭐 잘못해가지고 가호적이 오바돼 버렸어. 이상하다 형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거 내가 잘못했나봐.” “난 그러믄 병역기 피자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상관없이 여기서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 거기서 면제도 받았어.

이 정 순

❖ 이정순

1939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출생
1960년	남편 윤영호(황해도 웅진 출생, 월남하여 관산에서 거주)와 결혼 후 관산면으로 이주
1963~1967년	남편이 대덕 사업장에서 근무, 고마 사업장 조성되며 남편과 함께 노동
1967년	고마 사업장 농지 분배, 사업장 마을에 거주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노동, 어업 등 각종 부업
2012년	남편 사망
2015년	사망

1. 월남한 남편과 관산읍으로의 이주

우리 영감 피난 나와서 여그서 벌어먹고 산다고. 평야[항상] 일하고 토차 밀고. 밤마다 집에서 잠 못 주무시고 화약창고에서 야근 새고, 날 새면 집에서 식사하고 토차 밀러 가고. 빨떼기 옷 막을랑께[진흙을 퍼서 독을 막으려니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나도 여기서 같이 고생하고 살았어.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장흥 용산.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윤영호. 중매로 해서 만났어. 나는 못 생겼는데, 우리 영감이 키도 크고 괜찮하게 생겼어. 우리 친정엄마가 거기다 쫓딱 반해가고.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했는데 [결혼]했제. 그래서 고생만 하면서 산 거지.

아버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웅진군 양지촌이라 하드만.

아버님은 혹시 학교를 다니셨대요? 중학교 들어가서 쪼까 땡기다가 나와부렀다 하대.

월남은 언제 하셨대요? 저 사람들[북한군이] 밀고 내려옴께 피란을 나왔지. [남편 가족은] 괜찮게 살은 거드만. “너나 가서 피신했다 들어온나.” 그라고 어른들은 안 나오고, 열다섯인가 열일곱에 혼자 나왔어. 작은엄니하고 붙여서 왔지. 가족이 없이 왔지마는, 작은아버지, 작은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가더만. 낸 중에는 작은할아버지 가족이 오셨드만. 그래가지고 작은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숙모들하고 같이 사는데, 나 시집강께 거기서 쪼깐 살다가 념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

남편은 바다로 오셨나요? 육로로 오셨나요? 바다로 왔제. 백령도로 왔다 하드

만. 백령도에서 목포로 왔는가 보더만. 처음에 목포라 하고, 강진서 살기는 살았다고. 집이 어려운데, 또 어디 갯변에서[강변에서] 께작을 속에서 살고 그랬다가 데. 뭐[천막] 쳐놓고 살고 그랬다고. 그라다 목포 학교로 갔다든가 어디로 갔다 하든가? 고생 많이 했어.

남편과 언제 만나신 거예요? 관산에서 만났어. 정부에서 난민들 집을 지어서 한 칸씩 주드만.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드만. 작은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도 숙모들이랑, 그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나도 께혼해갖고 거기서 살았어.

목포에서 장흥으로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목포에서 강진으로 배치되었다 하드만. 그때 강진서 작은아버지가 먼 소사로 있었다 글더만. 그러다가 어떻게 관산으로 와서 나 만나서 살았어. 작은집도 관산으로 다 이사를 했드라고. 거기서 대덕도 얼마 안 뜬게[머니까] 대덕에 가서 일하다가, 전 대표[전순구 대표]가 이리 오라고 했당께. 그래갖고 요리 와서 살았어.

어머님은 원래 집은 용산이셨는데, 관산으로 시집 오시게 된 거예요? 응. 관산에서 결혼해갖고. 친정은 나 결혼하고 근처에 한 2년이나 살다 서울로 가 부렸어.

결혼하실 때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결혼할 때 [남편은] 스물일곱에 하고, 나는 스물하나여.

전 대표라는 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여가[여기에] 전 대표가 계셨어. 대덕서 일하다가, 요리 오라고 함께 요기 왔제. 관산에서 난민들 사는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은] 우리 숙모 줘불고. 큰 딸 하나 낳을 때, 벌어 묵고 산다고 요리 다 내려왔어. 요리 내려와서 살면서 같이 고생을 무지하게 했네. 시장도 먼데, 차도 안 다니고 배로 [다니고] 날근[낮선] 데 오니까 고생을 많이 했지.

대덕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나는 관산에 있고 대덕에 안 갔어. 남편만 가서 일하다가, 일도 별로 안 했어. 집 질라고 체제가 왔는디, 그거 푸다가 밭을 찢꺼덕

[달컹] 다쳤네. 다쳐갖고 한 두어 달 일 못하다가, 전 대표가 요기 오라고 해싼게 왔어. 대덕에서는 1년도 못 있었어. 요리 와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노동일 해. 토차 밀고 빨때기 하고 흙 싣고. [남편은] 착실하다고 하약 머시기 해서[화약 창고를 맡아서], 밤에 근무하면 그때 돈으로 40원씩 나오드만. 낮에는 50원. 그래서 벌어 묵고 살았제.

남편이 대덕에서 다치셨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는 현장에서 해줬어. 현장에서 돈이 나오드만. 거기 일하다가 다쳤응게 많이 안 나와도, 치료비야 일당이야 꼬끔씩 나오드만. 그래서 생활했어. 그때게는 엔간한 사람은 다 배고픈 세상이라,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이라, 살기가 힘들어. 그랑께 다 고생했지. 그래도 간부들은 꼬간 더 낫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종업원이라 일랑께 고생했지.

2. 고마 사업장에서의 노동

여기 있었던 전 대표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그분하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전순구. 고향서부터 알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고향에서 면에 땡기니께 둘이 잘 알았더라.

고향이라면, 황해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도 그때 같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삼시룽 나도 일도 몇 개씩 하고 고생했제. 애기 업고 일하다가 나무 떼다가 아주 직살하게[심하게] 고생했네. 밥 해줄랑께 영감 따라 왔제.

그때 애기는 없으셨어요? 여식 하나 있제.

대덕에 계실 때 사업장에 대통령, 군수, 장관 다 왔었다는데 보셨어요? 박 대통령이랑 다 왔제. 나는 못 보고 영감이랑 다 봤다하대.

여기 오셨을 때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아주 살기 싫대. 집도 없고. 우리 영감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도 대강 뚜둑뚜둑 집은 지어갖고 살았당께. 그란디 ‘정도 안 붙으고 어떻게 산디?’ 장에 한번 나갈라면 나룻대 건너야 되고, 물 나면 논도 매야 되고. 차가 안 다니니께 식량, 보리쌀 요만큼 퍼라가꼬[푸고], 거기다 뭐 쪼까 사서 이고 오면 아주 힘이 들고. 애기하고 영- 살기 싫어도 할 수 없지. 옛날 사람이니까 살았지.

남편은 여기 오셨을 때는 대덕에서 다치셨던 몸은 다 나으셨어요? 여기 와있었을 적에는 엔간히 나셨지[나왔지]. 여기하고 거기하고 현장끼리 통한께, 여기 가라 가면 가고, 오라 가면 오고 그랬제. 우들은[우리들은] 일해 묵고 사는 사람들이라.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은 여기서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생활이 그런 잼다 하고 살았제. ‘토차’라고 있어. 나무 딱 해갖고 철구루마로 덜덜덜덜 밀고 가. 거기다가 흙을 한-나 퍼서 그 놈 밀고 다라이다 부서[대야에 부어]. 혼자 하지 않애. 여러 사람이 차근차근 부서나와. 그라고 매일 나와서 언질했지[독을 막았지]. 언독을 딱딱 맨 들어 나오니까 논이 막아졌지.

독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그 산인디, 흙을 기계로 무너 내려. 무너 내려오면 쓸어주고, 독[돌] 있으면 남포라고, 화약 티면[터트리면] 흙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독도 깨래지고. 그라면 그놈 쓸어다가 언을 막아.

남포라는 화약을 썼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여. 남포라는 화약이 위험해. 그랑께 남포 툴라면[터트리려면] 사람이 우그로 가고[우르르 피하고]. 남포 티어서

흙도 만들고 독도 뺄시고[부수고]. 독 실어다가 강물에다 빠치고 흙 실어다 푸고. 그렇게 언을 막았지.

어머님은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나와서 저수지 막은다고. 구녕이 [구멍이] 요만한[양 팔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동그란 목나무에 줄을 달아서 여러 명이 막 다르고[두드리고]. 경치[언덕] 쌓으면 돌도 갖다 주고. 평야 그런 일, 막 어 주는 일하면서 대모조 했지.

대모조가 뭐예요? 대모조가 독도 갖다 구녕에다 쟁기주고[구멍에다 끼워주고], 독 쌓은 사람들이 쌓아나가면 우리들은 잘잘한 독 갖다가 그런 구녕을 맥히고. 저수지 막을 때, 목나무 우게[위에] 줄을 대갖고 넣어서, 이렇게[손을 위아래로 휘저으며] 땅을 탁-탁 다가[다져]. 그 때는 기계가 뵈로 귀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런 일 하고. 이자 절감한다고, 솔나무 무른 놈, 굵은 놈 갖다가 움팡 세아 놓으면 꺾딱 뱃기고[꺾질 뱃기고], 저수지 막아놓고. 일 나오라고 해서 가면 뵈 이렇게 가만히 보기 좋게 생기고 우리들은 닥치는 대로 그런 일을 했지. 영감은 토참 일[토차 미는 일] 하고, 우리들은 가시서[가장자리에서] 그런 일하고.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일하셨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억수로 먹고 살랑게 할 수 없이 일을 나갔지. 그 때는 다 굵은 사람이 많았당께. 이렇게 안 움직이면, 보리밥도 못 묵고 굵은 사람이 많아. 그렇게 그냥 먼 생각도 없어.

급여는 어느 정도였어요? 월급으로 나왔어요? 일당으로 나왔어. 서기 같은 간부들은 월급으로 나온디, 우리들은 노동자라 하루하루 일당으로 나와. 나는 하루에 5,000원. 그땐 그만큼 돈이 값어치가 있지. 처음에는 [나는] 3,000원씩 받고 영감은 5,000원인디, 낸중에는 오래된게 쪼깐씩 올라가드만. 그것도 돈으로 직접 안 나오고 전표로 나와. 그거 모아놔다 월별로 한꺼번에 간쵸[계산]를 가지. 그때

돈 있는 사람이 이자를 더 붙여서 전표를 사. 한꺼번에 간쵸[계산] 가면 돈 겁나 벌제. 없는 사람은 그렇게 팔아서 식량 사먹고 생활해.

장부 관리하고 일당 주는 건 누가 했어요? 여그 대표 김형서 밑에 있는 총무, 서기들이 다 적어갖고 일당을 내주제.

전표를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 생활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간쵸[계산]한다 그러면 전표에 이자 났다가 가서 돈하고 바꾸제. 논으로 가서 식량 사고. 그런 데서 못 사면 시장에서 쪼깐씩 사다가 배로 운반하고. 차도 안 다니고 그랑께 보통 일이 아니제. 그렇게 고생했어.

종업원 하시는 분들이 몇 집이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나. 종업원들도 많이 살고, 간부들도 직원들도 많이 살고. 여기 우아래 동네 아주 뽁뽁하니 살았지. 지금은 집이 뜰어져서 그라지 많이 살았어.

3. 개척단 사람들

개척단으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는 않으셨어요? 개척단으로 온 사람들은 우리 배를 못 탔어. 무서워서 생전 말도 안 해봤어. 처음에 개척단에서 온 사람들은 단원들이라 그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깡패드만. 막 사람 뚜드려불고 가고.

처음 오셨을 때도 이미 개척단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옹계, 처음에[먼저] 온 사람들은 땃땃 있드만. 그 사람들은 다 개간해서 살고 연[살고 있는] 사람들 이더만. 그란디 낸중에 온 사람들은 깡패드랑께. 찌-기서 열은 데서 그 사람들이 리만 생활을 하드만. 거기서 묵고 자고, 따로 딱 거시기 해놓고[마을을 만들고]. 그랑께 우리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기존 마을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지냈어요? 일은 하는데, 저그끼리 일을 해. 여기 안 섞이더라고. 그랑께 개발하고 일하는 데가 1현장, 2현장, 3현장이 있었어. 함만데만[한 군데만] 쪽 막자네. 1현장 막고, 2현장 막고, 3현장 막고. 그랑께 그 사람들이 일을 따로따로 하더라고. 종업원들은 따로 한 데[공사하는 데]가 있고. 종업원들은 간부들이 감시를 하고, 개척단서 온 단원들은 거기에서 쪼까 머시기한 사람들 뽑아서 간부를 두더만. 우리 영감이랑 일하는 데는 촌 양반들인데 현장서기 직원들이 관리를 하드만.

종업원하고 개척단 중에 사람 숫자는 누가 더 많았어요? 나 안 세어봐서 모르지. 생전가도 안 본다. 이라고 꺼-보면 겁나 많기는 많아대. 그랑께 무서운게 내다도 안 봤어. 막 시비를 걸고 그럴 거 같아.

개척단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직접 겪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 나하고는 안 했는데, 녀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씹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 이런 언 하나씩 막으나 이에나 직원들도 다 고생이고 벌어 묵고 사는거이 다 고생이다. 우리 영감은 너무 불쌍하니 고생만 하고. 나이도 술잔히 드셨지만 그래도 혼자 나와 가꼬 고생하다 간께 불쌍해.

4. 현장 노동의 어려움

제일 힘들었던 일은 어떤 거예요? 그때는 차가 없응께, 이런[양 손을 크게 벌리며] 돌맹이를 사람이 운반을 해. 여그 남자들은 지푸라기 엮어갖고 ‘등태’라고 딱 등허리다 해서[묶고], 등머리 해서 갖다 붙고. 그나마 철구루마에 실어서 가는데. 그때 돌집을 많이 날러갖고 요새도 엉덩이고 모가지가 아파. 남자들은 지게로 지고, 여자들은 이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만한 거씩 날랐응게 고개가 쑥 들어가고

그때 골병 들어갔고, 안 아프더만 작년부터 모가지가 아픈 거랑께. 그때는 젊으게 몰랐는디, 지금은 그런 거이 다 나타나더라고.

여자 분들도 돌을 이어다가 제방 쌓는 데까지 나르신 거예요? 응. 돌 이어다가 거기다 탁 땡겼어[쌓았어]. 벌어먹고 살랑께. 안 해본 것이 없어. 뿔띠기도 하고 뿔띠기는 뿔을 파서 읍마다 한코쪽에 하나씩 해놓는 거야. 평야 눈이 땡땡 부서가꼬 눈이 안 떠지네. 평야 그라고 저러고 살았제. (고개를 흔들며) 시는게 어쩐가 저쩐가.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나 또래에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도시로 다 가서 잘 살어. 친하게 지냈지. 그때는 많이 사니까 재밌게 살었어. 친하게 지냈는디, 죽고, 또 살아도 너무 멀리 있으게 연락도 안하고. 벌어 묵고 산다고 뿔뿔이 흩어져갔고 많이 죽었더라고.

남편이 화약도 관리하셨다고 하셨죠? 남포는 안하고, 화약만. 장흥에서 갖고 온다고 하디야[했나], 분괴해서 갖고 온다고 하디야? 거기서 요만한[양 손으로 크게 네모를 그리며] 하꼬쪽에다가 갖고 오데, 그때는 차가 없으게 배로 땡기다가 배서 내려가꼬 거기다 쟁이드만. 요 현장 일 끝나도록, 땡 년 동안 화약 관리를 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지키더만. 그랑께 낮에 한 것은 낮에 일당이 나오고, 밤에 일당이 4,000원인가, 화약창고 지키는 샅이로 나오드랑께. 그거로 생활해 갖고 살었어. 손가락몽댕이 하나도 없이 집에 나강께[집에서 나오니] 살기가 힘들더만. 찌서[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뭐이 있겠어? 녀들 같이 배와 갖고 글도 못하고. 노동일해서 묵고 살랑께 힘들지.

그때 공사 자재로 쓴 돌은 다 산에서 화약 터트려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응. 독배[돌배]라는 배에 땡 착씩 실어다가 차극차극 피어나가 그라고 거기다[바다에] 독도 묻고 뿔도 묻고. 저기 독이 되었지.

땅 메우는 작업하실 때, 다른 자제분도 태어났어요? 애기는 많이 태어났어. 8남

매네. 우리 큰딸하고 둘째하고 우째 그렇게 순했는가 몰라. 낮에 일 다니러 갔다 오면 그대로 있어. 그랑께 “저 집 애기들 별애기”라고 소문이 났어. 놔두고 갔다 오면은 놀고 자고 있어. 두 살 터울.

땅 메우는 일 하실 때 재미있는 일도 있으셨어요? 재밌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때 그때 벌어 묵고 살고. 그래도 현장에 있다 보면, 깡냉이까지 밀가리 나오더라고. 그거 가져와서, 저녁에면 국수라도 해서 묵으면 좋드만.

일이 고되셨을 텐데, 그때 남편하고 사이는 좋으셨어요? 싸움도 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 우리 영감이 술을 좋아함께 쌈을 잘했지. 그럭저럭 살았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중간에도, 남편이 참 드시면서 약주도 하고 그러셨어요? 아냐, 낮에는 안 돼. 시간 맞춰서 일을 해야 돼. 시간 저녁에만. 술 잡시느라고 친구가 많아.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정해지제. 아침에 뭇 시에 나가고 저녁 뭇 시에 끝나고. [정확한 시간은] 잊어부렀어. 캄캄하지는 않애. 흰한 데 시마이 해[마쳐].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토차 일 다니면 나가면 잡수고 와. 그라믄 같이 묵고 나가고 그래.

5. 분배과정과 사업 종료 후의 생활

땅 메워지고 나서 어떻게 분배를 받으셨어요? 계속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받았제. 간부들도 받고, 종업원들도 받고. 다 받아서 오늘날까지 벌어 묵고 생활하고 있제.

왜 안 좋은 땅을 받으셨어요? 운수가 없으께. 제비뽑기 하는디(웃음) 안 좋은 것이 뽑아져갖고. 나보고 제비뽑기를 하라간 것을, 나는 더 못한 것을 뽑을까봐 내가 안했어. 그랬더니, “나는 손복이 없어가 그란디, 자네보고 뽑으라고 항게는 안 뽑아갖고 그런 거 탕다”고, 영감이 또 그라대. 내가 뽑아도 못 타면 우짤다고. 그래서 뒤에 바까치기 해갖고, 논을 쪼까 더 넓치고[넓히고]. 그 싣고 나가불면서 도 어찌게 저건 또 더 퍼가꼬 사오고 그랬어. 인자 내가 생활항께. [처음 받은 논은] 물이 차갖고 못하졌는디. 그란디 지금은 시대가 좋아갖고, 양수 기계를 논께, 모에 대는 건 문제없이 다 해먹어.

원래 분배받으신 땅에서는 아예 농사를 못 지으셨어요? 논 팔아가꼬 바까치기 했지. 바퀴갖고 두 필을 사서 쪼까 지어보고. 지어 묵다 말다 그라다가, 기계 놓은 게 이제는 다 팬찮아. 암만 물 찻던 사람도[논도] 물이 금방 빠져.

그때 짠 바닷물이 찻던 거예요? 짠물 같으면 못 먹지. 비라도 오면 민물이 수로에서 올라와서 차붙제. 양수[기]가 없으께 얼른 안 빠징께, 벼를 심어노면 녹아 부러.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기계를 논께, 약도 없이 얼른 빠져분께 지장이 별로 없어.

사업 끝나고 분배할 때, 개척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개척단에 온 사람들은 싸움하고 터지고. 가다오다가 분배도 안 받고 가버린 사람들도 많고. 또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같애. 같이 상대를 안항께 몰라. 대강대강 없어져불대.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 논 타고.

사업 끝난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당시에 농사는 안 지으셨어요? 여그 현장 옷 막은 일은 끝낭께, 조개도 찢지, 꼬막도 잡았지. 고동도 잡아서 팔제 미역도 주우러 댕겼지, 김도 주우러 댕겼지, 김빨도 땃 대썩 막아봤제. 안해 본 것이 없당게. 논 분배받아서 농사는 짐시로는 그렇게까지 안했제. 복이 없어서 논도 좋도않았당께.

분배받으신 후에도, 농사보다 부업을 더 많이 하셨나요? 논이라고 벌어먹도 못 함께.

남편은 그때 뭐하셨어요? 우리 영감도 기술이랑 손재주가 좋아. 그랑께 누가 일 해주라고하면 가서 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랑께나 살았지.

바다에서는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게-숙 했지. 영감 농사지고. 쪼깐해. 첨에는 농토풀 떼다가 쪼까 무쳐가꼬 씨풀 지다가, 생활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들어간다고. 내가 머시기[부업] 안하면 생활 못하겄더라고. 바닷일은 땀-년 못했지. 애기들 너무 많응께 힘들더만. 빨래 개야지, 행주 개야지. 젊을 때만 쪼까 하고, 낸중에는 못했어. 젊응께 댜지도[힘든지도] 모르고 했는디, 나이 들어강게 못하겄더만. 뽕에 요까지[갈빚대를 가리키며] 빠징께 못해.

땅 분배 받으신 후에는,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일당이 안 나오는 거죠? 분배 받으면은 이제 일이 없으니께, 영감 못 벌제. 그랑께 내가 생활을 해야제. 내가 [일을] 겁-나게 했어. 애기들 중고등학교라도 보낼라고, 내가 참말로 노력을 안 한 것이 없어. 그랑께 병신이 되어부렀지.

자제 분이 8남매나 되시는데, 생활하시기가 어떠셨어요? 그랑께 곤란했제. 벌어먹고 사니라고 고생했다니께. 그랴도 원체 나도 생활 머시기하게[열심히] 하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너무 없이 상께, 많이 도와줬어.

사업장 일 하실 때하고 그 이후하고, 언제 생활이 좀 더 나으셨어요? 그래도 벌 때가 좀 낫지. 둘이 버니까. 그란디 영감 손 놔둬불고 일도 하뜩도[하나도] 없고 그랑께, 내가 생활 안 하면 쓸 돈도 없고, 애기들도 같이 힘들더라고. 영감이 작게 받아도 매일 벌을 때는, 나도 벌고 그랑께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하더만. 영감이 손 놔둬불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랑께, 겁나 힘들더라고. 그럭저럭 어찌케 살아나왔제. 친정 도움을 많이 봤어. 나가 달란 말은 안한디, 다 아니까 많이 도와주더만.

벼농사를 하신 거죠? 응. 여기는 벼농사밖에 안 해. 다른 거는 다 안 해.

사업 끝난 후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건 없었어요? 그런 도움이 없었지. 지금 시장[세상] 같으면, 늙었다고 하면 도움이 있는디, 그때는 젊으니까 그런 도움은 못 받제.

6. 새마을 사업

새마을운동 기억나세요? 새마을운동 들어는 봤어도 몰라. 다 잊어버렸어. 새마을 일도 가끔 하고 그랬어.

어떤 일 하셨어요? ‘새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새마을이라고 이름은 안 붙였는디, ‘새마을사업’한다고 이런 데 공사하데. 세멘[시멘트] 갖다 드면서 놓고 길 파고. 막일은 했어. “새마을 사업함께, 일 나오라.” 그러면 일 갔제. 새마을사업이라고 일당을 주더만. 도랑 파고, 세멘 갖다 뱅뱅 엮고[넣고]. 그런 일 술잔히 했어.

남편도 그 일 같이 하셨어요? 응. 같이 하고. 벌어 묵고 살아다본게, 부락으로 그런 게 나오더만. 그라고 모여서 동네 분들이 다 같이 막 남 말하고 우엿말 해. 새마을사업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벌어묵고 살라고 다 나가는 거여. 이장이 동에서 나오드만. 이장이 시키면 우리들하고 하고. 그렇게라도 벌어묵고 살았어. 사는 게 다 고생이여.

새마을운동 하고 난 뒤에, 살기가 더 좋아졌나요? 좋아진 것은 그때 [일당] 쪼까씩 받아가지고 생활해나간 거이지. 특별나게 좋아진 것도 없고, 안 좋아진 것도 없고 그래.

7. 이산가족 찾기

남편이 고향이나 북에 있는 가족 이야기도 하셨어요? 고향 얘기를 한다. 가운데 작은아버지 딸들 둘이 서울서 괜찮게 살아. 그란디 처음에 이산가족 찾은다고 할 때 신청한다고 함께, 가운데 작은아버지 딸 하나가 억수로 야물고 부자고 그란디, “오빠는 찾지 마시오. 우리가 신청해봤는데 우리가 찾을라고 그라요.” 못하게 하 데. 그랑께 우리는 돈도 없고 해서 안 했지. 그랬는디 신청했다고 한디 아무 소리가 없대. 그랑께 찾도 못하고 돌아가서버렸지. 우리만 못 만난 것이 아니라, 고모님들도 신청해봤는디 못 찾아부러. 다 죽여분 거이지. 고향에서 모두 면에 땡기는 공무원이라 다 죽여분 거이지. 그랑께 못 찾지.

시부모님이 이북에서 공무원이셨대요? 응. 그랬다고 해. 그라고 작은아버지도 고향에서도 면에 땡기고. 굉장히 했던가드이만. 그란디 고모들이 처음에 이산가족 찾을 때 신청을 했다는디, 연락이 안 온다케. 그랑께 다 몰살시켜 버린 거이지. [북한에] 여동생도 하나 있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다는디, 신청해봤어도 안 나타 내. 딱 공무원 받으면 다 죽여부러. 다 선생 일도 하고 면에 땡기고, 그랑께 놔두 겠는가? 새끼들이 죽여버리지. 그래갖고 못 찾고 돌아가셨어. 우리 그 고모가 나 하고 동갑인디, 정말 부자고 그렇게 머시기한 사람이 아야, 글썸 치매가 와 갖고 뭐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썬네.

예전에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났을 때, 북한에 다녀오시지는 않았어요? 안 가봤 어. 돈이 없응게 신청 못했어. [남편은] 고향에 가고 잡다고 생-전 난리고, 비만 오면 울고. 살아계실 때도 “나 죽으면 화장시켜갖고 바다로 날려주라”고, “고향에 간다”고. 그랬어. 그랬다가 찾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건 억울 하겠지.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 술만 잡수면 울어. 비만 오면 울고. 고향생각 나갔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아프제. 돌아가신 그놈이 불쌍하제.

8. 남편 생각

어떨 때 남편 생각 많이 나세요? 생각도 많이 안 해. 나이가 80이 다 돼서 가셨는디, 손 내놓은 거 있는데, 마음이 쪼끔 안 좋드만. 보고잡고 그런 것은 없어. 그런 것은 없는디, 혼자 [남한에] 나와서 고생하다 가신 게 참 불쌍하다고.

남편이 가족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응.

손자도 보셨어요? 손지가 열(10)이랑께. 그렇게 좋아라 했어. 손지[손주]들은 다 이빠라하고 다 좋아라하고 그란디 가서 부렸어. 형도 못보고, 자식들만 많았지. 쪼깐 오래 살았으면, 아그들이 생각도 하고 그랄 것인디, 보지도 못하고 딱 가 불대. 인자 나만 귀염 받고 있네. 고생은 그렇게 했는데, 나 혼자 귀염 받으면 그거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79살에. 살만큼 살았어. 2~3년만 더 있다 갔어도 쪼까 더 나았을 거인디. 너무 불쌍하더라고.

평소에 어디 편찮으시진 않으셨어요? 생전 아팠어.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가서 부렸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아프시지는 않으셨어요? 벌어 묵고 산다고 힘들어서 아팠제. 우리 영감도 토차도 밧었제. 현장 일 끝나고 공사일이 다 막아진께[끝나니까]

해묵을 것이 없어. 일해묵고 산 사람이라 기술도 없고. 지금은 기계로 돌 뽑아쓰는 것도[브로크 찍는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손으로 찍어서 났어. 우리 영감도 그런 것도 하고, 녀의 집 손볼 거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고. 고생 많이 했제.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싱께 불쌍하드라고.

남편이 북에서 혼자 오셨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셨어요? 응. 그거이 불쌍해. 혼자 왔고 혼자 강께 너무 불쌍하다고. 부모들 있으믄 귀한 집 자숙인디, 산달에 작은엄마한테 가있느니라. 작은엄마도 생활이 넉넉지 았응께, 이녁에 애기들 데꼬 얼마나 거시기했겠는가. 아주 못 묵어서, [남편] 여런 데[얼굴]가 아주 옆이 까만 버짐이 피었어. 공께 고향서는 잘 묵고 살다가, 여기 와서 썩-그 어디 섬에서 파리[이파리]만 뜯어다 볶아서 쌀 하나씩 죽을 썬서, 점심에 묵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안 묵응께. 그렇게 안 묵고 산 사람이라, 얼굴에 검은 버짐이 막 올라와.

어머님 만나기 전예요? 나 만나기 전에. 그래가 아주 죽을 고생했다 그랑께. 작은엄니도 생활이 넉넉지 았응께. 저그 애기들도 아들이 녀이가 있는디 먹을 것이 없고 그랑께, 조카자식을 내 몸만큼 생각하겠어? 그랑께 [남편이] 병이 나불 정도로 고생을 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작은할아버지가 데려다가 약을 쓰고, 더 낮게 맥이고 그랑께 나았더만.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

∴
 임
 ◆
 향
 ◆
 섭
 ∴

❖ 임향섭

1936년	부천군 계양면 선주지리 출생
1954년	결혼
1956년	서울 대신고등학교 6회 졸업
1961년	선주지리 이장, 협동조합장
1962년	계양면 2단 수리답 건설 사업 추진
1963년	내무부장관 표창
1964년	2단 양수장 완공
1965년~현재	영등포, 경기도 고양, 인천 수미동에서 상회 운영, 인천 구월동에 거주하다가 남구 도화동으로 이주하여 거주

1. 자영농 집안 출생과 수로사업 개괄

태어난 데가 부천군 계양면 선주지리예요. 거기서 국민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서울 대신고등학교 6회 졸업생으로 나왔어요. 내가 4남매 중에 아들 하나로 막내였어요. 부모님이 아들 낳자고. 논밭 더해서 한 만여 평 됐었으니까 대농이었었는데 살림도 그만하면 중농급 이상 넘은 거죠.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 나오려면 재정적으로 없는 사람이면 힘들었어요. 좋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서울서 대신고등학교 나올 정도면, 시골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버님 연세가 40에, 늦게 낳으셨어요. 졸업하고 외아들이기 독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농사 관리하고 해야 하니까. “천상 네가 관리해야지 누가 하느냐?” 그땐 취업이 잘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들이면 다 유산 받게 돼 있는데, 독자니까 다 받게 돼있지. 그 전엔 아들만 우선권이야.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했죠. 지방에서 재산도 유지급이고 독자에다가 고등교육도 받았으니까, 면이나 동네에서 이장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장을 스물다섯(25)살에 보기 시작하고, 조합장을 스물여섯(26)살에 보고. 그러니까 이장과 조합장을 겹해서 본 것예요. 면사에서 이장회의도 하고 농협 조합장회의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지역에 영세민이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나?’ 거기가 천수답이었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논에서 농사를 지어 먹는 것이예요. 하늘 천[天] 물 수[水] 답[畓]. 신문에 200정보라고 하는데 200정보가 넘어요. 한강수리조합이 1단 수리답은 있는데, 2단으로 수리답을 만들어서 물을 다시 퍼 올리는 거예요. 한강에 왜정시대에 맹글어놓은 대보둑이 커요. 거기서 물을 퍼올려서 계양산 밑에 천수답을 2단 수리안전답으로 만들려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62년도에 사업계획을 각처에 냈어요. 그때 박정희 씨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당수였는데, 대통령 되셔야 일 착수가 됐어요. 면에 난민 및 영세민해서 711세대예요. 711세대를 조합원으로 해서 구호

사업을 시작해. 농림부, 건설부 각 부처로 사업계획을 보냈는데, 이명춘 대령이라고 당시 현역이었는데, 중앙청 앞에 재건국민운동[본부] 경기도 지부장으로 있었어요. 여기서 면장, 지역의 기관장들을 만나자고 회답이 왔어요. 난 사업자대표로, 내 이름으로 사업승인서를 냈으니까, 이명춘 대령을 면접을 했어요. 가서 어떻게 지원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깐. 그 양반 말씀이 “우리 혁명정부에서 영세민들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헌데 나라의 재정이 풍부하지 않다” 재정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농협에서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테니까 나중에 원금은 갚아야 한다는 얘가지. 수리조합비를 받으면 수익금이 생기니까. 수리조합이 되면 벼농사를 지으면 수세라고 물 쓴 값을 받거든. 그걸 받아가지고 상황을 해라 이건데. 일단 이자는 안 붙는데 농촌에 빚을 지는 거거든. 그런데 “미[美] 케아[CARE]에서 원조를 받으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거든. 거기에 잘 인도할만한 사람이 대한민국 난민중앙연합회 원호부장 황주협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만나자고 하더라고. 만나니까, “우리가 추천해서 지원하면 무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케아는 무상원조다.” 이거야. 그게 옥분가루, 옥수수가루야. 그게 전국적으로 간척사업 하는 데 지원했다고. 근데 우리는 간척사업이 [아니라] 수리사업인데, “지원하도록 알선해주겠다.” 그래서 미 케아에 날 인도해서 인사를 시키는 거야. 한국 총무부장 이구봉 씨라고 있었어. 말하자면, 한국 책임자야. 이 양반이 얘기가 무상으로 711세대니까 한 달에 711포씩 주겠다 이거야. 근데 매월 오기가 힘드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갚다 주는 거야. 2천 백 몇 포지? 그걸 미 케아에서 원조를 해 주는 거야. 미국 케아(CARE) 책임자들이 현장까지 와서, 사진 찍고 개관식 했다고. 대단했지. 원조 물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가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서 노동일만 해주면 돼. 그래 지역 기관장들하고 모임을 가졌지. “이거는[농협 돈은]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거는 무상이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다. 어떤 게 좋겠냐?” 만장일치로 [케아에서 받는

결로] 결정을 진 거야. 책자에 있듯이 모든 주선을 내가 했는데, 사업의 명칭은 ‘난민정착사업’을 해야 한다 이거야. 케아가 영세민들을 다 주지 않고, 난민[한테만 지원해]. 여기 사는 사람은 난민이라야 된다는 얘기야. 난 난민이 아니라, 몇 십 호의 대표 황주협이 난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황주협이 이름으로 한 거야. 책자 같은 건 내 이름으로 나왔고.

황주협 이분은 월남하신 거예요? 함경도 사람인데 월남했지. 세상 떠났지. 그 사람 동생이 대령이었어. 형제가 나와 가지고 군에 가서. 육사 8기생, 김종필 동기야. 육군본부에 참모장인가 하다가 별 못 달고 예편했어.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상당히 오래됐어. 내 나이가 세른댓 살쯤 돌아갔으니, 까 내가 80이 됐으니까는 50년 됐나? 병이 무간질병이래. 대한민국 좋은 병원은 다 댕겼는데, 못 고치고 결국 젊어서 갔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났는데, 그러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당시에 도시로 가는 게 없고, 취업도 잘 안됐어. 그때는 취업하는 게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기껏해야 공장 같은 데나 취직하고. 공장도 없으니까 힘들었어. 취업한 사람도 간혹 있는데, 별로 드물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내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양면에다가 운영위원을 조직을 했어. 운영위원을 각 리이장들, 유지급들 17명인가 조직을 했어. 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고 정부가 있듯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일하기가 골치가 무척 아팠다고. 옥분을 타면, 노임조로 옥분을 쥐야지 현금을 주지 못하게 돼있어. 근데 사람이 옥분만 먹고 살아? 쌀도 팔아먹어야하고, 보리쌀도 팔아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을 쥐야 하고, [옥분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팔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알면서도 걸고 다니는 거야.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팔고 다니냐?” 이거야.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었어. 그러니까 부평경찰

서에서 그냥 눈감아 주고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집적거리는 사람도 많았고. 위법을 했다 그거지. 우리는 “그걸 팔아야 노임조로 줘야 그 사람들이 쌀도 사먹고 보리쌀도 사먹을 거 아니냐? 강냉이 가루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지. 원조를 타다가 원조가 [오지 않는] 기한이 오래가면 빛을 지는 거야. 사람들 노임조를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빛을 얻어다 줘야, 그 사람들이 아무소리 안하고 일을 하지. 빛이라는 건 그전이나 땅문서, 부동산 담보를 해야 줘. 빛 얻는데. 나는 농토가 만 평 정도 되니까 ... 그때만 해도 서로 믿으니까 땅문서 주지 않아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믿는 거지. “[돈] 제때 안 주면 논 넘겨 줄 테니까 빛 좀 달라.” 빛을 얻어서 노임 살포했는데, 그러다 난 그 빛으로 재산 다 없앴지. 일단 빛에 넘어가면 다시 장만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사업을 정부로 이관해라 그래가지고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보상금 720만 원인가 줬어. 당시에 그것도 큰돈이지.

그게 뒤에 대한 보상금이었어요? 그 공사에 대한 보상금이지. “너희들은 원조물자 타서 공짜로 사업했으니까, 나머지 [공사비] 보상해주자.” 해서 720만 원인가 준 거야. 그게 아마 국회에는 족보가[기록이] 있을 거야. 그래 720만 원 빛잔치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니지. 내 땅은 찾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부로 이관되고 말았지. 그게 한강물을 쓰니까 한강수리조합 관할으로 된 거야.

정착사업으로 지원이 된 건데, 실제로 난민이 와서 정착하는 일은 없었나요? 계양면에 난민들이 전체가 나와서 일들하고 [노임을] 타고 그랬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냐? 살기 쉽나? 한 달에 한 포 주는데 석 달에 세 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석 달을 살아. 세 포 가지고. 그런데 나와서 공사를 하면 노임조를 줘야 하잖아. 내가. 품삯 받아가니까 그거 가지고 쌀도 팔아먹고 보리도 팔아먹고 하는 거지. 명칭만 그렇게 한 거야. 또 그래야 외국서 원조를 주니까.

2. 6·25전쟁과 학교생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마을에서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없지. 난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농사일 부모님이랑 관리하다가 외아들이니까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다 주시는 거 밖에 없잖아. 옛날에는 아들이면 다 유산 받게 돼 있는데 뭐. 독자니까 다 받게 돼있지.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날 40에 낳으셔서가지고 60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스물한(21)살 군대 가 있을 때야. 외출 나와 가지고 잠깐 있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돌아가신 거 참가했었지. 모친은 예순둘(62)인가, 예순세(63)살에 돌아가셨어. 옛날에는 환갑 차려 드신 분이 많지 않았다고. 그 안에 세상을 다 떠났지. 지금이야 80, 90, 100살 살지만. 환갑 차리신 분이 몇 안 되니 “저 양반 환갑 차렸어?” 하니. 우리 부모님 때에는 모두 단명했지. 그 때 의학이 발달됐나, 약이라는 것도 시원치 않고 하니까 지금 같지가 않지. 수명이 다 짧았어.

6·25때는 10대 청소년 시절이셨겠네요? 응.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야. 그때 6·25전쟁이 일어났어. 평택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피난 갔는데, 평택 다리가 끊어졌지 뭐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고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다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데 며칠 걸렸지. 밤중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괴뢰군들 다 만났지. 할 수 없잖아. 피난 갔는데 평택 건너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

아버님께서 농토를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인민군들이 부농이라고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우리보다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없었지. 1개 면에 재산가들은 몇 사람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지주라고 했는데, 지주들은 문제가 됐었지. 지주들 같은 나라의 부자들은 골치 아팠지. 끌려가고, “너는 사상이 틀렸다.” 별일 다

있었지. 나 그때 나이가 열세(13)살, 열네(14)살. 국민학교 졸업 받았으니까 애들이지.

중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중학교는 시골서 이름도 시원치 않은 데 다니다가 인자 고등학교를 대신 나왔지. 고등학교는 시험 쳐서 가지 않고, 편입으로 ... 고등학교 다 엉터리였고, 어중이떠중이 다 들어갔지 뭐. 나이만 맞으면, 학력이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받아주고 다 들어갔어. 학생을 채워야 학교가 운영되니까, 학생들 다 주서모으고 그랬어. 이름 있는 서울고등학교나 배재나 이런 텐 제 코스로 더러 했지만, 내가 다닌 학교며, 동도고등학교, 마포고등학교며 다 학생을 주서모은 학교야. 여기 계양에선 떨어져 땡기기가 힘들잖아. 부평, 인천만 해도 기차가 다니니까 통학을 했는데, 계양에서는 통학을 할 수가 없거든. 그때 교통이 형편없었지. 큰누님이 원효로 사시니까 거기서 하숙생활 한 거지. 큰누님이 결혼 하였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 농사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먹는 거 올려보내고, 쉽게 얘기하면 유학 간 셈이지. 동창들은 대략 다 인천에서 인천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이런 데 나왔지. 서울에 땡기는 애들은 드물었어. 지금은 교통망이 좋지만, 그때는 버스나 간신히 몇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데 통학하기 힘들었지. 고등학교를 하숙생활 하시면서 다닌 거지. 그리고 내가 중학교 다니기 전에 서당에서 한문을 많이 배웠다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녀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갔지. 우리 큰아버지가 계양산 밑에서 한문이 제일 식자가 높으셨어. 그때 『맹자』까지 읽었는데, 『[자치]통감』은 상당히 어려웠어. 하나의 역사책 비슷한 건데, 다른 거는 ‘하고’, ‘하니’, ‘하였으니’라고 토가 밑에 있는데 『통감』은 중국말 식으로 한문 쪽 있어. 영어처럼 읽다보면 뒤에 자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어려웠다고. 『통감』이 하루에 한 줄 배우면 힘들다는 건데, 그땐 머리가 좋으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금방 진도가 나가지. 그때만 해도 머리가 좋았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6·25]사변이 일어났잖아. 사변 동안에 학교도 전부 난리가 나있는데, 시원치 않았

잖아. 그래서 그 새에 한문 공부를 한 거야. 큰아버지가 서당 선생이니까. 그 바람에 그 지역에서 한문을 최고 많이 배웠어.

다른 또래들도 한문 배우러 왔나요? 그럼. 거기 배우던 애들이 인천공고도 들어가고, [학교를] 제 나이에 간 사람들이 없어. 1년 뛴은 사람도 있고. 그때 고등학교도 엉망진창이지. 공부는 제2단계고[부차적이고], 학교는 졸업장이나 따러 간다는 말도 있었어. 전쟁에 그 모양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서울도 폭격 맞아가지고 집 허물어지고 아주 엉망진창이지 뭐. 골목골목 세 얻으러 다니다보면 집이 허물어진 게 좀 많아. 그 당시에는 들 부셔놨는데 뭐. 지금은 양반된 거지.

선생님 피난 다녀오셨을 때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집은 그대로 있었지. 지금 인천시로 됐지만, 그때만 해도 계양면이 시골이야. 부천군 계양면이었어. 부천군이 없어지고 부천시로 됐고. 계양면이 이제 부천시에 붙었다가, 인천으로 붙었다가 한 때는 또 김포군으로 붙었어. 김포로 붙었다가 다시 인천으로 붙었어. 끝이기 때문에. 계양면 [소속]이 왔다 갔다 했다고. 우리네나 아는 하나의 역사지. 지금은 인천시 계양구가 된 거지. 계양구가 다 시골이야.

다른 형제분들 중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임인섭이라고 우리 사촌 형이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막내 작은아버님의 아드님. 아버님이 4형제셨어. 그 때는 우리 집안이 김포읍 고촌면 태리에 많이 사서. 그 양반네가 고촌면에서 몇 째 가는 부자야. 그때 경기고등학교면 상당한 거야. 경기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유학 간다더니 안 가고 학교 선생이 돼서, 선생노릇하다 인생 끝났어. 부잣집 아들로써 좋은 데 출세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지. 그 당시 그렇게 됐으면[유학 갔으면] 출세했지. 경기고등학교면 알아줬거든.

부친은 고촌면에 사시다가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원래 노고지리, 태리에 사시다가. 계양면 선주지리에 속해있는 노고지리라고 있어. 노고지리는 선주지리

이장이 다 관할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선주지리 이장 볼 때, 노고지리에 다섯 호가 살았는데, 다 태리에 살았어. 지도상으로 노고지리에는 토지 면적은 [넓어요]. 노고지리 땅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다섯 집인가 밖에 안됐어. 근데 그 다섯 집이 태리 동네에 한 구테기[한 귀통이]에 끼어서 산거야. 선주지리가 시골로는 호수가 많아서 한 80호 됐었어. 우리가 밭이 많은데, 당시에는 콩하고 수수밖에 수확하는 것이 없어. 지금같이 채소니 뭐니 이런 게 없었고, 하우스 짓는 것도 없고. 가을에 보리 심어놓으면 겨울 나서 여름에 더울 때 익어서 비잖아[베잖아]. 비고 나면 밭 갈아가지고 콩하고 수수 심으면, 그 두 번 하면 1년 농사 끝이야. 딴 거 할 거 없어. 헐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걸 사람 얻어서 사서 하면, 그거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때만 해도 특수작물을 할 만한 게 [없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머리 좀 쓴다고 ‘뭐 개척할만한 게 없나?’ 해도, 지금 같이 채소류도 재배하는 게 몰랐고 말이야.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이게 수확이 좀 괜찮거든. ‘고구마를 한 번 대대로 심어볼까?’ 해서 고구마를 한 2,000평 심었드랬어. 인부를 대고 심는데, 밭을 매면 여자들 20명쯤 사서 들이대. 밭에 데려다 쪽 서서 김매는 거 보면 보기 좋아요. 밭이 아주 토질이 좋으니까, 심은 고구마 잘 됐어. 근데 고구마 값이 헐값이야. 밤고구마라야 값이 있지. 그 옛날에 물고구마는 ... 부평깡이라고 있어. 부평시장에 옛날에도 깡이 있었어. 이놈의 깡에 가야 경매를 부르니까는, 근데 많은 걸 줘어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트럭을 대서 몇 트럭을 부평깡으로 실어 나른 거야. 트럭이 몇 대가 들어오는 거지. 그 시골에 밭에 트럭이 붐붐거리고 몇 대 들어와서, 그걸 가마니에 한 20관 20관 담으면, 15관이면 딱 차요. 그러면 고구마 이파리 우에다 덮어가지고 새끼줄 묶어가지고 한차 싣고 나가는 거지. 한 번에 서너 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고 싣고 나가고. 이러니 동네서, 개문에서 보면 대단한 줄 알지. ‘그래도 배운 놈이 다르긴 다르다. 머리 써서 수확을 많이 했더니 이게 돈 번다.’ 이런 말이지. 근데 아 이놈의 깡에서 [값을] 부르면 깡에서 막 후리네[깍네]. 제값도 안 줘요. 고구마가 크고 뭐 물고구마니

트집 잡고, 사가는 놈이 싸게 사가. 장사꾼들이 사가는 거 아냐? 깡에 불러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 가져와서 계산해보면 품값도 모자라. 트럭 값 빼고 인부 값 빼니까 본전도 안 돼. 주위에서 볼 땐 아주 크게 돈벌이 하는 줄 안다고.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 땅에 농사 지은 거니까 논농사 많아서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신 거네요. 시도해 본 거지. 지역에서 머리 좀 쓰니까. 포도밭을 했다가 딴 집은 잘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지 뭐야. 또 손해 봤지. 논농사로 그걸 메꾸는 거지. 그때 쌀값이 제일 좋을 때야. 박정희가 개간하고 간척 사업하는 게, 그때는 쌀이면 최고니까 했던 거야.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공업국가로 변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 아니었어? 농사만 내다보고 있었지.

그때 가지신 논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밭이 한 3,000평이 넘고, 논이 한 7,000평. 일꾼들 ...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그랬지. 머슴 두고 했지. 난 독자니까 웬만한 건 머슴이 다하고. 우리 부모님이 엄하셨어. “넌 이 땅만 잘 관리하면 넌 한평생 부럽지 않게 산다.” 하시면서, 외아들인데도 농사일을 [가르치는 데] 치중을 하신거야. ‘보쟁이질’이라고, 소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하는 걸 가르치신 거야. 잡다한 일은 안하고 그걸 많이 했지.

부친께서는 수리조합 만들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없었지. 왜정시대 농사들 짓는 양반들이니까, 그런 거 감히 생각을 못했지. 아버지는 [나보고] 밭에서 “저놈의 새끼 괜히 머리 쓰고 저기 서서 돌아다닌다. 농사꾼이 농사나 짓지 무슨 저렇게 머리 쓰고 섰다고.” 막 욕을 하셨어.

3. 이장 선출

처음에 어떻게 이장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만 해도 투표했어. 노인네들이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장 일을 맡길려고 하는 거. 유지급들이 아무개 이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추천하는 거지. “이 동네 네가 이장 해야 한다.” 스물다섯(25)살이니 계양면에서 제일 나이가 적지. 이장 자격기준이 스물다섯(25)살부터 해당이 돼. 경쟁자도 세 사람 있었어. 보통 40된 중늙은이들이지. 근데 다 나한테 지는 거지. 그것도 투표가 대단해. 우리 부락이 부촌이고 많이 살았거든. 이장할려면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다고. 그 전에는 이장세를 벼로 받는 거야. 그 후에는 면에서 주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걷어 줬다고. 다 걷으면 벼로 한 10가마 정도 됐어. 가을에 리세 걷는다고 동네잔치 하는 거지. 그때는 쌀값이 좋았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러고서 이장일 보는 거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일은 보수가 없고, 동네 돈 융자하는 그런 거 전부 알선하고 그런 거지.

경쟁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 ... 그럼. 보통 그 당시 40 이렇게 된 중늙은이들이지. 근데 다 나한테 지는 거지.

그 때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셨어요? 선거운동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노인네들. 동네 유지급들이 운동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사랑방 정치하는 거지.

추천하신 분들 중에 선생님 아버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도 많았어요? 우리 아버님이랑 친분들도 있고. 나는 그때 어린뱅이가 동네에서 보라니까 보는 거 밖에 없지. 그래도 최연소 이장으로 당선이 됐어. 그 전에도 동네일을 다 보다시피 했는데, 이장 특명받기는 25살에. 만 25센가 돼야 발령장을 줬어. 면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이장회의를 하면, 제일 나이가 어려도 발언권이 세지. 똑똑하다고 했지.

부천 국회의원 안○○이라고, 그 사람은 중동고등학교 출신이고, 나는 대신고등학교 출신이고, 당시에 그는 주먹세계에 있었어. 그 전에는 학교깡패들이 대단했다고. 기차 통학하는 애들 막 쥐어짜는 놈들 많았다고. 부천군 소사 출신인데, 국회의원 돼서 아마 작년까지 했지. 김대중이 계열이라 인기도 좋았다고. 아무튼 그때 [나한테도] 국회의원 운운하는데, 2단 수리답 성립시키느라고 다른 건 생각도 없었어.

1960년에 처음 이장이 되신 거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4·19가 여기에 끼친 영향은 없었나요? 없었어. 학교 졸업하고 농사에 종사하고 지역에 일보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쓸 수가 그때만 해도 ‘국민운동복’이라고 재건복 입고 다녔어. 이장을 봐도 재건복 꼭 입어야 돼.

4. 난민정착사업으로 수로사업을 하게 된 배경

처음에 사업 계획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어요? 발동기 쪼끄만 거, 통통기라고 있어. 산 밑에서 대략 몇 사람이 여름만 되면, 그걸로 물을 퍼서 논을 맹글어가지고 벼를 심더라고. 그놈의 거를 보고서, ‘한강 물을 퍼올리면, 계양산 밑에까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그걸 머리를 맨날 짜는 거야. 이장이 됐으니까 학교 교장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2단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대국동 물을 퍼올려서 논농사 짓게 되면 대단할 텐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해보자. 사업계획서를 내가 꾸밀 테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사업계획이 뭔지도 몰라. 그때 고등학교 나와서 시골 이장 보는 놈이 뭘 알어?. “내가 꾸밀 테니까 이장은 그 사항을 조목조목조목 설명을 해 달라.” 그래 농사짓는 얘기며, 쌀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얼마나 되고,

100평에 몇 가마를 수확이 돼서 보리 콩 수수 하는 거면 낫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길 하면 이 사람은 이걸 추려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꾸미더라고. 이거 저것 별 얘기 다 들어가니까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써서 다 꾸몄어. 면장이 승낙해서 면장이 내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을 글로 썼어. 근데 사업계획을 꾸미는 데, 토지대장을, 집 평수 다 해야[써야] 될 텐데, 허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면 사무실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어. 면 전체 각 부락 도번 뜬 게 다 있어서, 필요한 걸 도본을 뜨는 거야 내가. 맨날 면장실에서 혼자 한 달 이상을 뒀을 거야. 먹지에 대고 그리고 지번도 넣고. 해당 면적을 다 뜨니 엄청나게 큰데, 이걸 상부에다 제출할 수 없잖아. 이거를 1/5,000로 축소시켜 서류상으로 맵글어졌지. 사업계획서 책자가 두께가 이-만해[두꺼워].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러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쌀밥도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민 거지. 이걸 ‘사업대표자 누구[임항섭]’ 하고, 지역도 뜬 걸 첨부해. 이런 걸 한 뭉치 해서 각 부처로 발송하는데, 다섯 군텐가 발송을 했어. 농림부, 건설부, 중앙청. 경무대지, 그 전에. 그리고 재건국민운동본부. 근데, 경기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이명춘 대령한테 내 이름으로 회답이 왔더라고.

사업 계획하실 때, 교장선생님 말고, 같이 의논한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가끔 만나면 술 한 잔 먹는 게, 기관장들 만나고 좌담하고 하는 게 그거야. 맹송 맹송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술집 가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면장도 얘기하고, 지역에 대한 거 얘기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지방의회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요? 면의회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개별적이지. 내가 가는 데가 몇 군데 부락이고, 부락마다 이게[이장이] 하나씩 있으니까. 선주지리, 다람리, 특시리, 먹소리, 고촌면 태리 다 이장 하나씩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만나

면 내가 하는 얘기만 듣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 중에는 내가 운영위를 조직했어. 모든 게 뭉쳐야 잘 될 테니까.

여기 지역민들은 50년대부터 2단 수리조합이 되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지. 수리조합 물 대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밥 먹어도, 고래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만 보고 한탄하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은 모낼 때는 여기 와서 품 팔고, 나무해서 갖다 팔아서 먹고 이랬어. 그때는 공장도 없고 취업할 데도 없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는 건 하늘에 별 따기야. 우리나라도 농업국가였으니까 농사나 바라보는 건데, 학교 나와도 농사지어야 되고 다른 건 취직되기가 힘들니까. 제일 취직되는 게 면서기, 구서기로 행정 기관에 취직하는 건데, 월급이 별로 신통치 않았지. 월급을 곡식으로 줬다니까. 왜냐면 수득세니 뭐 걷는 게 있어. 면으로 할당되는 게 있겠지. 세월이 흐르면서 돈으로 타게 되고, 요즘은 공무원들이 최고지만, 그 전엔 공무원은 치지도 않았다고.

원호부장이라는 황주협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 건가요? 계양면 상이용사촌이 있어. 상이용사만 모여 사는데, 부락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부상 많이 당하고 1급 환자, 2급 환자들 많지. 얼굴이 험악하고, 팔다리 아주 뭐 ... 거기에 난민정착 원호부장 황주협이가 연관이 돼있었어. 내가 사업을 벌이고 각 부처를 찾아댕기고 있는데 거기서 요청이 온 거야. “중앙연합회 원호부장 황주협이 만나서 의논을 해봐라.”, “그럼 만나게 해라.” 만나서 의논해서 일이 시작된 거야. 정부원조는 중지시켜놓고. 정부에서는 빚인데. 융자해주는 건 주는데 그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 아니야? [케아는] 무상원조니까. “케아에 의논해가지고 옥분 타서 공사해드리겠습니다. 무상이고 상환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누구든지 갚지 않는 돈이 좀 좋아. 공사하다 중지해도 안 갚아도 되잖아. 다른 건 공사 중지해도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이걸로 결정을 짓고. 유태영이라고 1급 상이용사 있어. 그 동네 이장을 봤어. 그때 상이용사들이 잘해야 10세대나 됐을까? 그 사람이

황주협을 만나게 해주겠다 해서, 서울서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하고. 황주협 또 난민중앙연합회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간척사업이라는 걸 손을 많이 대고 있었다고. 전국 난민중앙연합회니까. 명동 유네스코회관 바로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어. 거기 회장이 김봉조 씨, 이 사람[황주협]은 원호부장. 의논해가지고 원조를 타게 하자. 그 사람이 알선해서 무교동에 있는 미 케아 본부, 나도 그 사무실을 다녔지만 거기 한국 책임자 이구봉을 연결해줬어. 대단했었지. 그 사람이 현장에도 오고 원조물자 배정을 해준 거야. 각처의 원호 대상 소개하니 그때 와이로[뇌물]가 별 군데 다 있어. 간척사업 하는데도, 옥분 10포 타면은 2포, 3포 떼주는 식으로. 그 놈들도 그거 먹고, 또 외국 놈들이 금붙이 선물을 좋아한대요. 그럼 미국 기관에 외국 놈들 금팔찌 해주고. 다 그렇다고. 그 놈들 우루루 다 먹는 거야. 진짜로 사업하는 데[사업 수익의] 반이나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한 70%, 80% 들어오는 데도 있고, 20~30%는 그냥 다 가는 거고. 옛날엔 다 그랬어. 그거 가지고도 흥청망청 쓰는 놈도 있고.

사업계획서 쓸 때 황주협도 참여했나요? 그 사람은 없었고, 내 명의로만 한 거지. 했는데, 그래서 이명춘이 농협에서 무이자를 융자해가지고 “공사를 하시오.” 했어. 이명춘 대령이 융자를 무이자로 해줄 수 있다 하니까, 면장, 지서장, 우체국장, 또, 계양면 유지 한 사람 그렇게 동네 기관장 네 명을 내가 대등하고 다섯 명이 갔었어. 그때만 해도 ‘이자 안 물으면 다행이다’ 하고 좋다고 내려온 거야. 기관장들을 면장실로 집합을 시키니까 다 퇴근하고 오는 거야. “안 갚아도 되는 거다.” 이러니, 그게 좋다고 죄 환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책정하는 거야.

그 뒤로 이명춘 대령이나,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없었어. 농촌이니까 정부에서 장경순 씨가 농림부장관 해서 나온 거야. 사업계획서 보낸 게 있고 하니까. 나와서 시찰 한 번 하고, 인부한테 리어카도 주고, 삽도 주고.

5. 원조물자 판매

원조물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나요? 매달 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려. 3개월에 한 번 주면 2,133포야. 2,133포가 계양면에 풀어지는 거야. 우리 현장에 미군 차들 대여섯 대가 왔었어. 미군차들이 우리나라 차들하고 다르잖아. 당시만 해도 살벌했잖아. 미군트럭인데 그 때 8톤 트럭인데 한국 사람이 운전했는지 미국 사람이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8톤 트럭으로 했어. 8톤 트럭으로 아마 너댓 대씩 들어오지. 지역사람들이 환호성이 나오는 거지. 그 대단한 거지. 시골서 그 큰 차 여간해서 보거나 해. 그거 길이 좁아가지고 찢찢매고 들어오는 판인데. 도로가 좁으니까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나. 옥분 40kg인가 50kg인가 컸어. 밀가루 푸대보다 큰 걸로 몇 천 포가 오고, 트럭도 여러 대가 들어오고. 지방에서 “우— 대단하다” 그러지. 그게 공사비를 주는 거야. 근데 그거 먹는 사람이 드물지. 다 바뀌서 줬지. 옥분이 특히 필요하다는 사람은 뭇 포 떼어가지고 주기도 그랬지. 그런데 돈으로 주는 걸 원하지. 그거 쥐 봐야 먹지 못하잖아. 옥수수 강냉밥이 오죽해? 먹는 걸로는 힘들단 얘기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죠? 안 주지. 근데 주지 않을뿐더러 그걸 팔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노임조를 주니까. 그걸 실어 들어가는 걸 다시 실어 나와야 돼. 이제 한국 트럭으로 실어 나와야 돼. 상회들이.

상회차가 실어 나가나요? 상회차가 실어나가지. 옥분상회라고 그게 어디로 실어나르냐면 엿공장으로 많이 들어가. 엿하고 술. 그리 소비가 많이 들어가지. 옥분 가루가 엿도 많이 나오고 술도 많이 나온대. 그 술도 맛있고 엿도 맛있단 이거야. 강냉이 가루네. 하나의 원조 타는 거지. 쌀로 환전되는 게 불법이거든. 그 나라에서 그걸 먹고 살아라 이게 케아 원칙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는 거야. 한국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게 먹어져? 어디나 다 그래. 전국적으로 다 그 모양이었

어. 내 승인이 나아하는데 타협이 되니까. 황주협이 중앙회 있으니까 거기서다 소개하는 사람들 ... 수량이 많으니까 옛 공장도 큰데서 ... 운영은 다 중앙연합회에서 하다시피 하는 거지. 나아 시골사람이니 시골 통솔이며 운영관계 돈 취급만 하고. 현장 운영은 내가 해 나갔으니까. 나한테 사러 오는 업자가 있다고. “우리한테 팔면은 얼마 얼마 주겠다.” 거기서 좀 나온 데로 특약을 내 가지고. 전화만 하면 와서 싣고 가고, 돈은 돈대로 부쳐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 품삯을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쌀도 사먹고, 보리쌀도 사먹고, 식량을 사먹는 거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지.

전량을 다 판매하신 거였어요? 그럼. 다 팔고. 강냉이 가루로 빵은 찌먹어. 근데 그 조금 먹는 거지. 주식은 안 되지. 강냉이가루빵 찌면 또 그거 구수해.

밀가루나 쌀, 다른 건 없었던고요? 쌀은 없고 케아에서는 순전히 옥분가루. 한 달에 711포가 책정이 돼. 한 달에 [세대당] 한 포야. 근데 그러니까, 케아(CARE)에서 전국적으로 원조 받았지. 우린 수리사업이지만 간척 사업하는 사람들 다 지원을 했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 지원 할 재산이 없으니깐. 당시에는 ‘고이’라고 흰 옷이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배급타서 입던 시절이었어. 어느 나라 건 더 좋고 어느 나라 건 질 나쁜 게 있어. 그것도 좋은 건 서울에 재생양복하는 데 다 간다고. 그게 손질해서 재생해 신사복으로 나온다고. 고이를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세운상가나 동대문시장 가면, 고이 장사하는 데가 허다했지. 새 거만 사 입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사 입고. 그 시절엔 그랬어.

원조물자 판매가 불법인데,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된 적도 있나요? 다 무마됐는데, 처음에 한번 크게 됐었지. 하루는 난데없이 서울 와가지고 부평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에 사복 입은 경찰들 서너 사람이 권총 차고 올라오더니, 아무개 여기 탔냐고 그러더라고, 여기 있다고 손드니까, 데리고 올라가더니 찌프차 태우더라고. “왜 이러냐?” 하니까 “당신 잠자코 있으라.” 그때 젊은 권총찬 놈들이

아무소리 말라는데, 꼼짝 말고 찌프차 타고 갔어요. 인천에 당시 새로 생긴 국방도로에 떨어져 성동경찰서 보호실에 집어넣는 거야. 조사하는데, “당신 옥분 나온 거 팔아먹었지? 얼마 착복했어?” 이러는 거야. “착복이라니요? 나 이거 팔아서 노임조를 주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거 위법인지 몰라?” “법은 법이고, 우리 실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조서를 꾸미는 거야. 영창에 들어 간 건 아니고, 경찰서 보호실에 있었어. 원호부장 황주협이 함경도 출신이고 함경도 출신이 잘 된 놈들이 많단 말이야. 보령 사업하던 윤하선 씨가 내무 계획조정관이었는데, 당시에 내무 계획조정관이라면 세터라고. 이 사람 연줄 대가지고 ... 그 사람이 전화했어. 그러더니 황주협이 “잘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 난 애들 적인데 그런 델 들어를 가봤어? 별별 떠는 거지. 맨 죄인들인데 거기서 꼬박 밤새는 거지. 근데 다음날 부평경찰서로 이첩됐다 그러더라고. 부평경찰서. 나오니까 부평경찰서 형사가 왔더라고. [테리고] 나가더니, “고생하셨죠 자유 됐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혹시 부를지 모르니까 부를 땐 나오세요”. 알았다고. 부르긴 뭘 불러. 윤하선이 제2부시장도 했었지만, 그전에 내무차관도 했었어. 옛날에 내무부차관이면 쟤야. [육사] 8기생인데, 당시에는 8기생들이 우왕좌왕했었으니까.

6. 사업장 내 인적 구성과 관리

사업하시는 동안 711세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이랑 농토는 어떻게 분배됐나요? 직접 모든 일에 관여하셨나요? 농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로공사한 거야. 농토 주인은 다 있지. 수로공사해서 물 넘어오도록, 논밭에 물 들어가도록 댕그는 거지. 그 공사를 난민정착사업으로 한 거지. 그게 신문에 난 거고.

711세대는 다 난민이었나요? 아니지.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난민 및 영세

민이라고 해야 돼. 면에 보면 영세민들 많거든. 옛날에는 밥은 못 먹고 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 보릿고개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때 면에 사환곡도 있고,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난민정착사업으로 원조물자 타면서 사업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행정적 미숙이 옛날에 다 있던 거지. 그걸 우리네가 밝힐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지난 옛날 얘기지. 52년이면 반세기가 지난 거야.

전쟁 후에 이 지역에 난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예요? 6·25 터지고 1·4후퇴 다 지나서 들어온 거지.

계양산 밑으로 많이 왔나요? 계양산 밑으로 많이 왔지. 농사 많이 짓는 대농들, 그런 데 와서 머슴이나 하고. 1년 내내 있는 사람 있고, 다달이 있는 사람, 날품 파는 사람 여러 가지 있었지. 품팔아먹고 사는 거지. 연변에서 피난 나온 사람이 1년 머슴이나 맺으면 눌러 있는 거지. 1년에 벼 10가마, 쌀 10가마 세경을 주면은 1년 내내 봄여름가을겨울까지 있는 거야. 우리 집에 하나 있는 머슴방을 주면은 거기서 자고, 밥은 우리 밥 먹는 거고 우리는 김흥기라고, 연백 출신 일꾼 하나 두고 살았지. 또 농사만 하는 사람이 일꾼 둘 셋 두는 사람도 있어.

일꾼들은 대체로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지. 지방 사람들은 별로고. 거기서 피난 나오면 먹고 살 수 없잖아. 맨손으로 나왔으니까, 남의 집 머슴 살고 그래야지. 머슴을 10년쯤 살면, 예를 들어서 세경으로 쌀 10가마든 벼 10가마 받으면 그거 장리쌀이라고 했어. 봄만 되면 농촌에 피난민 아니래도, 기존 농사꾼이라도 못사는 사람이 많거든. 그 사람들 먹고살기 부족하니까, 그걸 얻어먹었다고. 예를 들어, 봄에 장래쌀 벼 한 가마를 얻으면 가을에 가마를 내야 돼. 굶을 수는 없으니 그걸 얻어먹고 가을농사해서 또 그걸 갚아야 되고. 얻어온 데서 갚으면 그 다음에 또 얻어먹어야 되고. 도루아미탑[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게 그거야. 피난민 아니래도, 기존 농사도, 어렵게 살면 어렵게 살았어.

사업에 참여한 711세대는 사업할 거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외부에서 난민정착사업이라고 [원조] 준다 하니까는, 난민정착사업으로 꾸민 거야. 난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난민 숫자는 계양면 전체의 1/3도 안되지. 난민이 적고 영세민이 많지. 계양면 일대 각 부락 주로 수리조합 수로 난 근처 사람이 많았다고 봐야지. 그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공사에 일하고 노임조 받아가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난민’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38 이북에서 피란 나온 사람만이 난민이야.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영세민.

난민하고 영세민은 확실히 구분이 됐나요? 다르지. 구분이 되는데, 난민이라 해야 외국에서 원조 주니까. 피난 나와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케아에서 원조를 주는 거야. 영세민이라면 이북 사람이 아니고, 남한 사람이거든. 다 구별이 됐어. 그때는 지금 같이 행정이 밝질 못했고, 어두운 데가 많다고 봐야겠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됐을 때는 면서기도 월급을 돈으로 주지 않고, 곡식으로 줬어. 면서기, 이장 다 형편없었지.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면서, 월급제가 되고 좋아진 거지.

누가 영세민이고 난민인지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면사무소에 영세민 대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추렸지. 그리고 이장들은 운영위원회 직함을 줬기 때문에 다 협조를 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와서 수로 공사를 하셨어요? 자기네들 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일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근데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걸 현장에 나가서 보면 불쌍해. 도시락으로 수제비를 싸와. 내가 정미소를 했었거든. 왜 내가 정미소 설립을 더 했냐면 2단 수리조합이 되면 벼가 수확이 많잖아? 도정을

해야 하니까 정미소에서 쫓아야 할 것 아니야? 그 계획으로 정미소를 증축을 했지. 정미소가 지역에서 잘되어가니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뒷구녕으로 불러가지고 쌀 한가마니 보내주고 그랬다고. 나는 그때만 해도 부호니까.

이장 일 보실 때, 공사현장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었나요? 그 사람들 품삯 받아가니까 나오는데 단지, 내가 점심에 어떻게들 먹나 하고, 내가 현장을 한 바퀴 돌거든. 근데 밥을 못 사오고 수제비 떠오는 사람이 두어 사람 나타나더라고. 그래 오죽 불쌍해? 그래서 정미소 오면 내가 뒤구녕으로 쌀 한 가마 보내주면, 그 사람들 참 좋은 거지. 나중에 내가 망했을 때, 은인이었다고 나를 만나면 대접하고, “좋은 사업하시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좋은 소리는 듣고 사는 거지. 지금도 그 수로는 있어.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 남기듯이 나는 그 수로 하나 남았다는 얘기지.(웃음)

공사할 때, 같이 일하는 난민이랑 영세민 사이가 나쁜지는 않았어요? 그건 없지. 행정적으로만 난민, 영세민이지, 사람 똑같은 걸. 피난민과 주민과는 좀 다른데, 그걸 구별하지는 않아. [출신은 다 알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두고 구박을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돈은 주면 되니까, 농사 지을 때 난민들이 일꾼 노릇들 아주 잘해줘서 좋았고. 공장은 몇 개 안되니까, 그 사람들 농촌에서 품 팔아먹는 거지.

711세대 중에서 혹시 현장관리직을 따로 뽑으시거나, 아니면 자기들 안에 대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사무실을 차려놓고는 내가 상무를 보고 그때 5개 부락인가 4개 부락 대표자들이 피가지고[모여서] “상무를 누굴 뽑으면 좋겠느냐? 아무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부락이 집중이었어. 양주 사람들도 처음에 선주지리에 났고.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웠고 추진했으니까 자연히 총책을 맡게 됐고, 직함을 상무로 한 거지.

711세대라고 하셨는데 711세대가 전부 다 선주지리에 살았어요? 사업장이 고촌까지 걸쳐있었어요? 계양면. [신문에] 이화리, 다람리가 빠졌더라고. 동네이름이 많은데, 몇 개 부락만 넣어놨더라고. 수리조합으로 들어가는 초입부락만 나온 거야. 변화하게[번잡하게] 부락은 다 안 나오고.

711세대 안에 있는 사람만 일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그 사람들도 인원이 많은데 탄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지.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시키는데 ... 굶어죽는다는 사람들 난민, 영세민만 나오는 거지.

사업장에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었지. 모르면 나오라고 하는 거고. 나야 부탁하면 나와서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날 만나기가 힘들어.

일꾼들 노임을 매일매일 주셨나요? 노임 액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매일매일 주기도 하고 며칠 몰아서 주기도 하고. 근데 장기간 안 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 난다고. 노임 [액수는] 잊어먹었지. 노동자 노임인데 얼마 안 되지.

그때도 노동자들 연령은 어떻게 됐나요? 노동일이니까, 아무래도 늙은이들은 나와서 하지 못하지. 한 30~40대, 20대 모두 나오는 거지.

상이용사촌은 선주지리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 살던 상이용사들도 수로사업에 참여했나요? 계양면 이화2리야. 이화1리는 호수가 많은데 2리는 상이용사촌이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왔지. 상이용사가 1급, 2급, 3급 이렇거든. 몹시 다친 사람은 못 나오는 거고. 조금 다친 사람은 나와서 일하고 그랬지. 옛날에는 상이용사하면 무불통치야. 파출소고 뭐고 다 때려 부숴. 법은 저리 가라야. 팔 없는 놈은 면사무소에서 꼬챙이 같은 거 땅땅 치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피해 도망가는 사람 많았다고. 그건 경찰서 가도 그냥 봐주게 돼있고. 그때 상이용사 대단했다고. 그 상이용사촌 이장 보는 유태영 씨가 내가 하는 일에 협조 많이 했지.

사업하실 때 태리나 다른 동네 이장님들하고도 협조가 잘 됐어요? 태리는 면 자체가 다르니까¹⁾, 그냥 태리까지 수로만 난 거야. 그 사람들이 협조한건 없었어. 이웃부락인데 면리 자체가 다르니까.

계양면에서 이화리, 선주지리, 노고지리, 다람리, 장기리가 참여한 거예요? 거기 가 그 주목적이고. 거기에 목상리, 독실리 ... 많지. 수로도 목상리, 독실리 다 뚫었지. 그 초입 부락만 신문에 나온 거야.

모든 지역을 다 관리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업 자체를 다 포함해서 관할했지. [나는] 동네 조합장과 이장을 보면서 추진이 됐는데. 황주협은 중앙연합회 원호 부장이라 난민정착사업을 황주협 [이름]으로 했고 나는 거기 상무를 봤어. 최홍균이가 총무고.

주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신 건가요? 관리가 아니라 총괄적인 자금이니 그런 거. 돈을 융통해야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황해도 피난민 황주협 보고 누가 돈을 쥐? 담보 없이 주냐? 나도 담보물 쥐야 주는데. 그래서 내 땅이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 땅이 다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시 계양면장이 자기 땅 담보했지. 또 다른 사람도 한 명 있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농사가 더 잘되거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가 다 논들이 됐지. 저수지도 있었는데, 수리안전담이 되어 필요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농토가 다 옥답으로 변했지. 밭이 논으로 되면 곡식이 잘돼. 논이라는 것은 수백 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노인 되듯이 노후화 됐는데, 밭은 생생하잖아. 그래 논이 되면 농사가 잘 되서 쌀알이 달라. 지금까지도 [거기서 농사] 짓는데. 쌀값 비쌀 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면 아주 대환영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쌀농사 지어먹는다.” 해서. 이제는 쌀이 흔해져서 시들해진 거야. 옛날 사람은 다 없고,

1) 사업장은 계양면, 태리는 고촌면임.

전부 신세대 사람들이 사는데 뭘 알아? 다 외지 사람이야. 뭐 살던 사람 도시로 가서 살고 다른 데서 들어와 살고.

수리사업으로 이익을 보신 건 없나요? 애초의 생각은, ‘나중에 수리조합비 받을 거 아니야? 농사를 짓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들인 돈을] 복구할 것이다.’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국회에서 보상해준 게 약 720만 원으로 빚잔치도 다 못했지.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 돼서 준 농어촌특별진흥자금 200만 원하고, 정부에서 준 거밖에 없어.

사업하시는 중간에 담보 잡힌 게 많으셨어요? 그냥 내가 벌인 사업. 인부들이 나와 일했는데 노임조를 줘야하는데 또 안 줄 수가 없잖아. 내 재산은 있고. 그래서 해결을 일단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다 해결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결이 되긴 뭐가 돼. 내 하나의 생각이 착각한 거라고 봐야지. 내 재산만 없어졌지. 영세민이라고 다 일 나오는 게 아니야. 700명이면 700명 다 나오지 않고, 하루에 많이 나와야 한 100명 미만. 내가 벌인 사업에 나와 일한 인부들을 노임조를 안 줄 수가 없잖아. 일단 품삯은 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사니까. 밀릴 때 돈을 주는데 내 돈은 많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들에 돈을 얻어야 하는데 그냥 손 벌리면 안 주거든. 내 땅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내 땅을 넘겨가라 ... 그거 믿고 주는 거지. 담보를 내주고 빚을 얻는 식이지 뭐. 그래 들어가면 그만이야. 또 원조물자 안 오면 공사에 치중하다보면 내 땅 되찾을 그 때 당시에는 생각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안 되고. 공사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않겠느냐 그랬지. 그렇게 돼서 그냥 호지부지 땅만 넘어간 거지 뭐. 그 당시 땅값이 쌌어요. 지금 만평이면 엄청나지. 당시에는 내 자산이 왜 없었냐면 공사비는 케아 본부에서 대서 하지만, 자잘한 거는 쓰는 거는 주질 않거든. 공사 돈에 대한 것만, 정식적인 저것만 대 주는 거지, “너 써라” 하고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내 살림으로 내가 쓰는 거니까, 재산이 다 없어진 거야. 돈 없으면 땅을 내리 팔아 쓰는 거고. 그 전엔 땅값도 쌌지, 지금

같았나? 부평평야가 큰 평야인데, 땅 1평에 몇 십 원이지. 종이돈 1원짜리 나왔을 때야. 다마사탕도 1원짜리고, 1원짜리도 허다하게 쓰는 거야. 1원짜리가 가치가 있었어. 돈 가치가 그만큼 좋았지.

이장 일 보실 때, 원래 가지신 땅은 머슴들이 경작을 하거나 했어요? 그렇지. 머슴들이 일 다하고, 나야 물꼬나 보러 가끔 다니고.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나 하고. 그 전에 논밭에 댕기는 제일 빠른 게 자전거야. 수리사업하기 시작하고 바빠서 농사일은 신경 쓸 수도 없어. 그때만 해도 사람이 간이 커진 거라고 봐야지. 벌써 원호물자 팔면 엄청난 돈이니까, 그놈의 농촌 땅이라고 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까짓 것 하나 장만하면 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벌써 돈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생줄도 많은 거지. 혼났지. 창피해서 고향에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사업 하실 때 따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었
다구요. 담임선생님인데, 사회생활 시간에 “이 지역에 농촌을 개발을 시키고, 우리 쌀밥 먹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신지 손들어라.”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모르지들. 선생님이 “계양 선주지리 아무개 양반이 이 사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딸애가 어깨가 으쓱한 거지.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은 나를 아주 잘 알지. 교장은 사업장을 꾸미는 데 아주 노력을 해줬는데 뭐. 면장이나 뭐 하는 사람은 사업 계획을 꾸밀 줄 몰라. 시골출신들이니까 사업이라는 거 자체도 잘 모르잖아. 사업이라는 글자만 알지, 무슨 사업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걸 모른다는 애긴데, 이창익 교장이라는 사람은 그때 4~50대 됐을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꾸며주겠다는 거야. 이장이면, 학교에 운영위원회 소속이 돼 교장하고 친분이 가깝게 된다고. 학교에서 이장들 같이 하면,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니깐, 그렇게 조직을 했다고. 위원이니까 가끔 교장실에 가서 교장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야.

7. 농림부 장관 현장 방문과 중앙정보부장 만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신 일도 있으세요? 우리 현장인데, 계양산 밑에 다람리라고 있어. 참외 한창 날 땐데 장경순이 그 부락의 주민들을 만난다고 오면서부터 경찰, 군인들이 50m 간격으로 총 메고 보초 서는 거야. 혁명정부니까 장관만 와도 그랬어. 혁명정부니까 대단했어. 다람리 사람들은 산으로 명석 있잖아, 그거 펴놓고 참외파티하고 ... (웃음) 장경순이 그때 별이 3개인가 그랬고, 그 운전수가 대령이었어. 농림부 장관이 장경순이었는데 중앙청 각 부는 아주 무불통치였어. 나이는 새파란 놈이 가서 이름만 대면 그냥 면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믿었지, 장관이 ‘농촌 지역사회 발전시킨 사람’ 외고 있는 거지. “올려 보낼까요?” 하면 즉시 올려 보내라고 하지. 그렇게 뺨이 좋았어.

장경순이 농림부 장관하다가 국회 부의장 했지. 당시 현장에 시찰 오셨는데 장관급이니까, 인부들이 공사하는데 쪽지 하나 주면 리어카 한 대, 쪽지 한 장 주면 삽이 몇 자루. 공사하는 데 수고가 많다고 이런 걸 준 거야. 리어카 한 대면 당시에는 비싸거든. 그걸 한 20여 장을 풀더라고. 공사장에 수로로 걸어가면서, 나는 옆에 쫓아가는 거지. 리어카면 리어카, 삽이면 삽 [써 있는] 쪽지 하나 주고, 지나가다가 “이거 하시오.” 하면. 그 사람 수지 맞는 거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사에 필요한 걸로 주더라고. 그 사람들 그거 타면 횡재하는 거지. 돈으로 살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 농어촌특별진흥자금이라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시찰을 다니면. 옛날에 임금이 한 바퀴 시찰하면 뭘 주듯이. 농어촌특별진흥자금 200만 원을 우리 사업장에 주시고 가신 거야. 그래서 전달식을 받는 날 브리핑을 했는데, 부천군 농협장이 “언제 해봤길래 이렇게 잘하슈?” 배운 대로 했으니까. 그런 경험도 했고, 전달식도 받았고. 그 농어촌특별진흥자금이 박 대통령 되고 나서 받은 건데, 그때 200만 원도 큰돈이었어. 그런 건 신문에 안 났더라고. 원조한 것만 나왔지. 8톤 트럭에 옥분을 싣고 오면 싣는데, 그게 제일 큰 트럭이

었어. 시골에 그 차가 너덧 대가 들어오는데, 대단하지. 아우성, 환호성이 “야-” 하고. 내가 좋은 사업을 한 거지. 없는 사람들 구호 사업한 거지. 박창원이라고 경기도지사, 대령급이 난민정착사업장에 와서 전달식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그 때 내가 차트 브리핑이라는 걸 내가 생전 해봤나. 이장자리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차트는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쓰지는 않고 초안 잡아주면, 면서기들 모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써주는 거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초안 잡아 주면 그 사람들이 쪽 쓰는 거지. 제일 어려운건 아라비아 숫자라고. 예를 들어 공사비가 몇 천만 원이면 동그라미가 여러 개 아니야? 잘못하면 읽다가 착각하는 거야. 읽다가. 2,000만 원이 2,000도 되고 200도 되는 거야. 그거 교육받느라고 혼났다고. 쉽게 말하면 2,000원을 200으로 부를 수도 있고, 2억으로 부를 수도 있고.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한 일주일간 면장실 가서 연습했다니까.(웃음) 교육받듯이,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작대 대는 거 그걸 탁 군대식으로 해야 된다는 등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또 한참 사업장에서 내가 수로를 뚫고 가는데 난데없이 중앙정보부에서 날 채가는 거야. 계양면 어드매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종중산이 있었어. 수로가 그 종중산을 옆을 뚫고 나갔단 말이야. 하루는 말사무실에 있는데, 하얀 두루마기 입은 노인네들 서너넵 분이 와서, 아무개놈 나오라고 지팡이를 흔들어대. 이놈의 새끼 때려버린다고 난리가 났어. “너 인마, 저 산 주인이 누군지 아냐? 김재춘 중앙정보부장 산이야. 근데 그걸 막 뚫어나가? 우리 집안에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이 있는 거 알고 까부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고. 사업단에서도 난리가 났어. 시골 양반들 그러는데 걱정이 되잖아. 하루는 중앙연합회로 해서 연락이 왔어. “중앙정보부장이 만나잔다.” 그때만 해도 중앙정보부장 하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잖아. 큰일이 났어. 며

철이 있더니, 중앙정보부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야. “서울 퇴계로 원호처 근처 다리 밑으로 지프차 몇 호차가 올 테니까 그걸 타라.” 해서 중앙연합회 사무실을 갔는데, 중앙연합회 회장이 그러더라고. “중앙정보부장이 부르는데 당신 이제 죽었다.” 사람 하나 죽이는데 우습잖아. “아무렴 사람 막 죽이겠느냐?” 큰소리치는데 속으로는 떨지. 나가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프차가 와서 서더라고. 운전수 혼자 왔어. 그타니까 남산 위에 빙빙빙 돌아서 딱 서. 중앙정보부장 집이니까 정문에 현역군인들이 착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괜히 떠는 거지. 시골 노인네 난리쳤지, 중앙정보부에서 말 한마디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내해서 들어갔는데, 김재춘이 아우 김재윤이 중앙정보부 무슨 과장이야. 김재윤 씨가 손님방으로 안내하더라구.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깎듯하고 부드러워요. 차를 내오고 얘기를 하는데, “바쁘신 양반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집안 내 종중산인데 집안에서 난리를 치니 안 만날 수가 없어 오시라고 모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인사가 아주 괜찮거든. “이러저러해서 수로가 그렇게 났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미안하지만 수로를 조금 뺄뚝루지게 할 수 없어요?” 조금 비틀라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죠.” 그랬지.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반갑습니다. 나 김재춘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좀 어려울 때야? “우리 아우랑 의논해서 잘하십시오. 나 바빠서 나갑니다.” 한 마디 하고 나가는 거야. 동생이 “대한민국에 부탁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막히면 연락만 하세요. 우리가 힘 될 테니까.” 그거 한 번도 못 써먹었어. 사업에만 치중했지 무슨 딴 생각을 [못했어]. 최고 뺨이였었는데 못 써먹었어. 나중에 후회한 거야. ‘그 놈의 뺨 한번 써먹을걸.’ 그 사람 한 마디면 대한민국이 다 통하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 그랬던 생각하면 [무서웠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풀어진 거야. 그때부터 ‘나는 대한민국 최고 뺨을 가졌다.’ 하는 마음이 가져지더라고.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만 아니야? 나중에

수로를 좀 약간 비틀었어. 무마시킨 거지. 그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연합회에서 저 사람 큰일 그러는데, 나타나니까, 직원들이 전부 환호가 대단해. 상상 외다 그거지. “혼날 줄 알았는데, 대범한 양반들은 다르다.”고.

8. 사업 완료와 난민정착중앙연합회 및 정부의 역할

한창 사업하시다가 왜 어려워지신 거예요?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농토가 다 넘어갔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 맨손이지 뭐. 그래 면장이 면서기를 시켜 주겠다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서기 하면 생전 언제 복구해? 그때만 해도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 그렇게 한 바퀴 돌아서, 고양군에 가서 가게도 하고 다시 인천으로 와서 가게하고. 그래서 돈이 착착착 되서 애들 뒷바라지해서 체육관도 차려주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게 하다보니까, 할매가 또 몸이 약해졌어. 이상하게 코피를 흘리고. 가게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가게를] 중지시키고, 고 때 모은 돈 가지고 이때까지 사는 거야.

수리조합 하실 때는, 농사지어서 얻는 수익하고 이장하면서 받으시던 10섬 정도 밖에 수입이 없으셨던 거죠? 수리조합에서는 아주 없지. 내가 농사 진 걸로 하는 거지. 내가 농사 질 때는 아주 부했지. 시골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살던 건데, 농토가 다 넘어갔으니깐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품 팔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에이, 고향에 있으면 창피해. 면서기 해서 언제 돈 버나?’ 해서 [하겠다고] 대답은 하고 안 가고. ‘일단 고향을 떠나겠다.’ 해가지고 영등포로 뜬 거야. 영등포 양평2동.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할 때, 거기 당산국민학교 댕겼지.

그때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거나, 도와준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마을에 소문도 안 낸 거지. 뜨기 전까지는 그대로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업하나보다 그랬겠지.

수리조합 사업이 62년부터 5년 가까이 걸리셨죠.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수로를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사업기간 중에서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볼
수는 없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 전에는 발동기로 물을 퍼 올렸어. 한 2년
이상 걸려서 발동기 설치하고 물을 한 20m 퍼 올렸어. 그 기계를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다시피 했는데, 발동기로는 마력수가 최고로 큰 거였어. 물 끌어올리는 높
이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건 힘이 약해서 물을 퍼 올리지를 못해. 그거 한번 틀
어놓으면, 큰 기계가 움직이니깐 [주위에 소리가] 뽕뽕뽕 대단했었어, 하여간 그
사업할 때. 거기 지역사람들은 날 만나기도 힘들었다는 거야. 서울로, 각지로 왔
다 갔다 하니까, 아는 사람은 날 만나려면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고단해
죽겠는데 사람 찾아오니 잘 수가 없잖아. 그래 와서 뭘 도와달라는 둥, 자기도 아
쉬우니까 오는 거지. 어쩔 땐 속으로 귀찮지.

실제로 수로 내는 작업이 2년 정도 걸렸으면. 나머지 3년 동안은 주로 어떤 일들
을 하셨나요? 남은 시간에 정부로 이관되고 뭐하고, 시간이 흐지부지 지나가는 거지.

사업이 종결시점은 정부로 이관될 때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보상해줬으
니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지 뭐.

서울은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서울은 일주일에도 아마 반은. 서울에
연합회 가서 만나고 정부기관에 댕기고. 정부기관에 댕길 때는 나 혼자 다니고.
연합회 사람이 정부기관에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니까. 장경순이 농림부 장관하
던 시절에는 농림부를 내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는데 뭘. 볼 일만 있으면 같다
오는 거지. 싫어하지 않고 대환영이니까. 농림부 장관이랑 직접 응접실에서 대화

하는 거지. 그때 대단했다니까. 그때 장관하고 한 지프차 타고 다닌 사람 드물었지. 대령이 운전하고 장관하고 같이 내려왔지. 지프차 옆에 높은 놈이 타잖아. 뒷자리에 내가 타고.

장관도 개간하고 간척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응. 정부방침이 그랬어. “우리나라 개간사업을 해야 식량 증산된다.” 박정희 때는 쌀 증산이 최고였으니까, 그런 사업을 어디나 장려시켰지.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했지만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조 타는 게 힘들고, 경기도에서는 여주인가 어딘가 제일 크다고 했고, 우리가 둘째로 컸었어.

황주협 씨 말고도 난민정착사업중앙연합회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나요? 그럼. 아주 친절하지. 총무부장이 김 씨, 또 직원 하나는 차 씨, 여직원 하나는 이 양이고. 또 이만복이는 날 아주 쫓아 다녔는데. [내가 사무실에 가면] “어! 대한민국 이장 나타났어!” 이런다고. 연합회에서 아주 대우가 최고였어.

난민중앙연합회 쪽에서도 사업장에 자주 내려왔나요? 난민중앙연합회에서는 황주협이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연합회 사무실에 붙일 있으면 가고 얼마 안 머니까.

당시에 면장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면장은 면장 일 하는데, 내 하던 사업에 상당히 협조를 했지. 서울도 같이 갈 적이 있었고. 또 대접받으려면 서울 같이 가면 좋잖아. 상금빌딩에 ‘제2 대한민국’이 들어섰다고 했을 때는 대단했었다고. 거기 박원빈이 현직 장관 있지, 윤하선이 서울 제2부시장 있지. 그 전에는 시장 다음에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있었어. 현역 대령들 오지. 대단했어. “이 사무실에는 대한민국 제2정부가 들어섰나?” 이랬다고.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장관 지프차 대놓으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난민정착사업연합회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나 사업 끝날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흐지부지됐나봐. 김봉조도 유능한 인물이

었어. 내가 망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썼지. 고양군에 살 때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집사람도 혼났는데 뭘.

수로 길이는 얼마나 됐어요? 다 사람이 삽 같은 걸로 공사한 거죠? 수로 길이가 한 2km는 될 걸?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어. 다 인부들 나와서 삽, 곡괭이로 했지. 아까 얘기했지만 장관이 나와서 표 하나 주면서 삽하고 리어카 주면 최고였지. 흙 많은 데는 리어카로 실어 날라야 하고 갖다 버려야 하고, 대단했어. 그 산 밑에 굴을 뚫고 나가는 공사도 엄청났었어. 기술자, 토건업자 유명한 사람들어야 돼. 옛날에 굴을 뚫는다는 게 쉬워? 산 속에서 큰 뿔가 누각 만들어서 찍어야 돼. 사람이 서서 갈아야하니까 그걸 공사장 굴에서 찍었다고. 사량이 큰 게 없으니까. 아유, 말도 마. 한 번은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예전에는 기술들이 좋지 않았거든. 기술자 임금도 비싸. 수로를 똑바로 해야지 꼬부라지면 안 되니까 측량해야 하니까, 측량사는 노상 있다시피 했어. 그거 월급 줘야 하고. 내가 사업하는 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노상 서울 올라가니까 날 보려면 하늘에 별따기였어. 그래서 “임항섭이가 지나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라고 할 거야. 그걸 서울까지 끌어야 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돈을 썼다는 얘기야. 돈 아니면 다닐 수가 없잖아. 부평에서 버스가 일찍 끊기면 택시 타고 들어가야 돼. 어떤 때는 부평경찰서 전화하면 경찰서 차 끌고 나와서 밤에 태워다 준다고. 태워다주면 또 술사서 먹이고 보내야지.

총책임 하실 때 밑에서 실무 보는 사람이나 현장감독도 있었지요? 최홍균을 총무책임으로 댔었던 거야. 노동자들 와서 일하면 그냥 내가 가끔 한 바퀴 둘러보는 거지, 감독관 이런 건 두지 않았어. 다들 열심히 하니까. 농땡이들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공사하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눈감아 주는 거지. 공짜 물건 타다가 하는 건데 다 그런 거 아니야? 쉬다가도 내가 가면, “상무님 땀다” 또 일어나서 일하는 거지.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상무님’으로 통했겠네요. 인천까지 농협이고 어디고 모두 “임 상무”로 아주 통일화 됐어. 이장이나 조합장 직함은 부르지도 않고. 면장도 “임 상무 왔어?” 이런다고. 사무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면사무실하고 내 사무실하고 거리가 한 20m 됐나? 면장실이 내 사무실이었는데 뭐.

군(郡)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없었어요? CARE 물건을 어느 사업장에 얼마 할당했다고 군 사회복지과로 공문이 내려가요. 사업계장 정도는 다 그 내역을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정하는 거에 손대면 꼼짝 못 해. 팔지 말라는 거 판 거가 부정이지. 관공서는 원칙이 있잖아. 원칙을 위반할 시 위법이다 이거지.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군수도 그걸 내역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손은 안대지. 대략 그거 타가지고, 저게 돈으로도 변하고, 쌀로도 변하고, 기계로도 변하고. 기계도 사야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

CARE에서 기계를 빌려주거나 원조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어. 오로지 옥분.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 이거야. 그걸 보조해 주는 거지. “헛오르지 말고 먹고 살아라.” 그거지. 취지는 참 좋은 취지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야. 지금은 부자나라가 됐지만, 지금 그거 타는 나라도 많잖아. 그런 사업하고 다니니까 그때는 큰소리치고 다녔지. 나라면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 댕기랴 각 기관에 댕기랴. 우리 집에 새벽에 와야지만 만나.

비용도 많이 드셨겠어요. 교통비도 상당하지,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짜리로 쪽 깔아도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만날 교통비니 식대니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서울에서 누구 만나면 대접하려면 한두 푼 나가? 그러니까 고생도 했지만, 돈 쓰는 호강도 했지. 좋은 음식점 안 가본 데가 없어. 옛날엔 무교동이면 식당이 최고였어. 거기 좋은 집은 다 다니고. 가면 돈 잘 쓰니까 최고 손님이지.

9. 수로사업 이후 보령 간척사업

영등포 오시기 전에 보령 오천만 사업을 먼저 하셨어요? 보령은 영등포 떠나기 전에 했지. 다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등포로 뜬 거야. 보령군에 사업해서 좀 될까 했는데, 대표자가 반국가음모로 때들어가니까[잡혀가니까] 다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야. 측량만 하고, 한 번 물건을 탔지. 높은 뺨으로 우물땅주물땅해서 어마어마한 물건이 배정이 됐어. 물건을 탔는데, 그게 “반국가음모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러니까 다 흐지부지 된 거지.

보령에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건 터져서 흐지부지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반년 정도로 봐야 할 거야. 대천 보령군에 내려가서 나는 주로 광천읍장, 대천면장, 그런 면장들 만나서 사업 추진에 협조하길 바랐어. 윤하선은 대표로 명의만 가지고 있지만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신문들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망해 돌아다니는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충청도에서도 제일 큰 사업이었어. 보령군에 국회의원 김종갑 씨도 만나러 다니고, 아주 대단했어, 김종갑 씨가 당시에 아마 국방위원장도 했었지. [보수는] 받지도 못했지.

보령사업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었어요? 재산보증을 서라는데, 재산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재산이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 재산보증을 서야 허가를 내줘. 근데 어떻게 연줄을 뚫으니까니, 양녕대군 후손 이황을 찾아 가면은 이씨 조선 종중산이 어마어마해서 재산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때 나이가 스물다섯, 스물여섯 되는데, 찾아가기 참 어렵잖아. 근데 배짱이 그 때만 해도 컸어. 그러니까 그런 사업했지. 그래도 망설이다가, 어떡해 사업을 하려니깐 허가를 내야 돼. 그래 이황 씨를 찾아가는데, 영등포 상도동 가면 이황이 집이 있다 이거야. 아는 사람이 대주는 거야. 이황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어. 그래 사무실에 가니까, 거기 직원 하나가, 아주 심복이 방 과장이라고 있었어. 방 과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잘해줘요. 그래서 인도해서, 차를 타고 이황이 집을 찾아간 거야. 옛날 개와집[기와집]이 대단히 넓게 앉았더라고. 옛날에 ‘아혼아홉 칸 집이 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만큼 집이 넓어. 넓은데, 오래돼서 개와장[기와장]도 헐어지고 깨끗하게 못한 거지. 그만한 집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만지지를 못하고 그냥 사는 거 같아. 가니까 이황이 만났는데, 이황이가 체격이 크고 인물도 아주 잘생겼어. 나는 젊었을 때고, 그 사람은 40대가 넘었을 때니까. 그런 사항을 얘기하니까, 응접실로 안내해서 차를 내오는데, 앵두차 같은 걸 내오더라고. 그걸 한 잔을 마시고, “보령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재산보증 할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천상 이리 찾아왔는데, 어떻게 좀 의논 좀 해야겠습니다.” 대답을 허렷더니 안하지. “글쎄요. 글쎄요.” 이러는 거지. 이황재단에 이사 목록에 보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이 한 닷 명 있더라고. 이씨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됐더라고. 이교선, 이유선은 부천군에 나왔으니까 외는데 다른 이름은 다 잊어먹었지. 그리고 이황이 아버지는 이재운 씨야. 그때도 살아있더라고. 근데 사랑방에 이씨네 이황 씨 아버지도 만나 뵙고 했어. 그 양반은 완전히 옛날 노인네지. 당시엔 이황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깨끗했어. 다 얘기하고 재산보증 해주기로 하고, 재산 보증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해줘? 공사를 해서, 이황이 처음 면적의 10%나 20%를 할당을 받게 돼있어. “그거에서 얼마를 드리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승낙을 받았어. 그 바람에 이황을 몇 번 만났어. 그 사람도 가 봐야니까 보령도 같이 갔었고, 그 때 그렇게 참 젊은 놈이 팔팔하게 땡겼지. 정 울리고 땡졌는데.(웃음)

보령 사업은 수로사업 다 끝나고 하신 거죠? [수로사업] 정부로 이관시키고, 그러고 나서 무교동 상금빌딩에 사무실을 냈는데, 거기에 박원빈 장관하고 장관급들 몇 명이 들락날락했다고. 특히 함경도 출신들이 자주 오게 되는 거지. 옛날에 함경도 출신들이 잘된 사람이 많으니까. 유난설도 함경도 사람이야. 이황 사무실 하니까 이씨네서 출세한 사람들 거의 다 모여 있더라고. 원래 국회의원이 몇 명 돼. 그래서 주위에서들, “대한민국 수리조합에 웬 이리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그땐 맨 찌프차들이니까, 찌프차가 준비하게 서 있다가 빠지고 빠지고 하니까 눈이 둥그레져. 그때 상금빌딩만 해도 알아준 건데, 지금은 재개발돼가고 없어졌을 거야. 케아 본부도 무교동에 있었드랬어. 옛날엔 서울에 무교동 하면 알아줬다고. 종로, 을지로, 다 있지만서도 모든 음식관계나 모든 거는 무교동 알아줬지.

영등포 가신 다음에도 CARE의 이구봉 씨하고 계속 연락을 하셨나요? 응. 날보고 믿을만한 사업장 추천하라고 그래서, 강화에 몇 군데 추천했지. 강화에 간척사업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간척이니 이렇게 옥분 타서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회의가 있어. 난민중앙연합회니까. 또 그 근처 사람들은 난민이니까 난민중앙연합회하고 연관을 많이 지어. 굴 사업장이니 뭐 별 사업장 다 있어. 그 사무소에서 사업자대표끼리 만나서 술 한 잔도 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몇이나 있게 되지. 그 지역을 알게 되지. 누구 만나면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장 알게 되듯이. 전국에 안 누빈 데가 없지. 가셔도 대접받고. 또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좋은 데 가지, 돈 아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술 한 잔 하잖아. 군산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군산은 술집에 가면 장구치고 텔레비 장치가 잘 돼있더라고. 지역마다 달라. 부산도 가고, 전국에 많이 다녔지.

주로 간척사업 하는 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수리사업이지만, 대략 보면 간척사업이 많아. 수리사업은 별로 없어. 우리는 장경근 씨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이 2단 수리답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 표를 얻은 거야. 말로만 했지 실천을 못한 거야. 농림부장관 한 국회의원 박제환이가 나와도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 사람들 다 공약으로 나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은 못하고 내가, 무명인사가 시작한 거지. 그 사람들 표 받기 위해서 그걸 구호를 내세우고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국회의원 나오라고 하던 사람

도 있었어. 벌써 다 망했는데 나갈래야 돈이 있어야 나가지. 그래 친구 안동선이 중동깡팬데, 부천에 국회의원 됐잖아.

박제환은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많다고 해서 부천군을 더 잘해주는 건 없지. 장관되면 전국을 운영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당시엔 부천군만 신경 쓰면 되겠지만, 농림부장관 되면 전국의 장관이니까 다르지. [2단 수리조합도] 한다고 했는데 재생이[재산이] 없는데 뭘로 해?

고향 떠나실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건 말로는 표현을 못해. 망해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팔아먹어도 종중산은 안 팔아먹었어. 집안에서 저 사람 종중산 팔아먹게 생겼다고 소문도 나고 그랬지. 내 굳은 마음에 ‘그건 안 된다.’ 부모님 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팔아. 그대로 살려 놓은 거지. 지금도 고촌면 태리에 그 산이 있지. 우리 산이 한 20,000평 되는데, 사촌들이 팔아먹고 5,000평만 남았어. 5,000평이 다섯 사람 명의로 ... 내 앞이 아니라 우리 아들 명의로 해놨어. 그것도 옛날엔 상당히 썼는데, 이젠 산값이 많이 올랐어.

나중에 가게 잘되고 나서 계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괜찮게 살던 사람이 들어가면 판사람한테 짜잖아. 사람이 재산 때문에 괜히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 친구들이 모두 들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인천서 그냥 사는 게 낫다.” 동창회 모임이니 이런 데 나가면 극진대우해주지. 동창들이 친군데도,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나이가 오히려 한 살 두 살 윈데도, 나한테 반말 못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 친군데 “네네” 그러고, “야 친구끼리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나는 정식나이로 들어갔는데. 왜정시대에 나이가 한두 살 많아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나중에 알아보니 나보다 한두 살이 많고.(웃음) 그런 애들이 오히려 대우를 더 잘해줘. 그런 걸 하다보면 손님접대니 뭐다 술을 많이 먹게 돼. 그전에 장기리가 시골인데도 인천 용동에서 아가씨들 데려다 왔다고. 인천 용동이라고 하면 장사가 잘되니까 유명한데야. 왜냐면 이래저래 술집들

많이 가게 되는 거거든. 노동자도 가고 별 다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분고분하고 인물 괜찮다는 술집 주인들이 데려다 놓는다고. 한 때 재미난 세상도 있었지.(웃음)

10. 내무부장관 표창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했지.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박경원 내무부장관상을 받았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업하신 걸로’ 해서 감사장. 그게 몇 년 가니까 종이가 썩었어. 그래 글자 남은 걸 잘 보관했다가 표구집 가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돈이 비싸서 안했지만 헌건 보관하고 있지. 이상하게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그거하고 같이 놔두는데 그것만 썩었는지 몰라. 졸업장은 말짱해. 그 감사장 탔을 때 대단했지.

그게 언제예요? 수리조합 사업할 때니까 스물일곱이나 여덟 됐을 거야. 부천군청에서 주는데, 내무부장관상은 나 하나지. 전부 군수상, 뭐 다 밑에 상이지. 최고상은 내가 탄 거지. 그때만 해도 다 좋을 때지.

군수하고도 알고 지내셨어요? 응. 남상식 군수. 군수하고 면접을 하면 응접대에 찻잔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군수 먹고 하나는 나 먹고.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 찻잔이 하나는 울퉁불퉁하고 하나는 뽀뽀해. 그러면 군수가 “임 상무님 이 찻잔 보시면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이 찻잔은 울퉁불퉁하고 이건 뽀뽀하죠. 보기에 는 이게 좋죠? 그런데 울퉁불퉁한 게 진짜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 이거야. “사업할 때 재료를 잘 쓰세요. 많이 쓰세요.” 날림으로 하지 말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 이거야. 그거 안 잊어먹어. 맞는 얘기야. 참 어려운 얘기였어. 남상식이 유명한 사람이었어. 군수 지내지만 도지사감이라고 했었는데.

그 분도 현장에 오기도 했어요? 그럼. 장관이 오고 도지사가 오는 판인데 군수야 ...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면장실에 들락날락거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군수실에 군수를 만나러가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만나자고 해서 가는 건데 괜히 말하는 것도 떨려. 한 번, 두 번 만나니까 해끼[버릇]가 되는 거야. ‘군수도 별거 아니구나.’ 속으로. 그리고 나서 중앙정보부장 만나, 농림부장관 만나고 하니깐 그때부터는 높은 사람이고 뭐고 해끼[버릇]가 돼버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젊었을 때 지난 과정을 어떻게 지냈어도, 높은 사람 만나면 괜히 죄도 안 졌는데 괜히 속이 떨려요. 근데 그 웃사람을 만나면 밑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장을 만나도 별거 아니다. 한 번은 추석인지 서울의 동화백화점, 미도파 이 두 군데 상품권을 가지고 서장하고 군수를 인사치레를 하는데. 경찰서장 한 장 보내고 군수도 보내고, 기관장들, 장관도 보내고. 남상식 군수는 도로 빠꾸해 보내더라고. 내가 그때 ‘이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냥 주는 건데 받아먹어도 되는데 도로 반려시켰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 치중해라.” 이거지. 그래 남상식 군수 도지사감이라고 그랬던 거지. 지금은 군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에는 군수 대단했어.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사업하시던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 응. 뒤편 더 좋은 때가 없었지. 사업 초창기 때가 제일 좋았지. 그 사업 이름나면서 원조물자 타면서 환호성이니 뭐니 최고 좋았지. 8톤 트럭으로 몇 대씩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이 환호성이 나고 최고였었지. 고생할 때는 후회도 하고 별일 다 있었지. 심지어 어떤 때는 ‘이놈의 세상 힘들어서 못살겠다. 하직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애들 얼굴이 떠올라서 못하겠더라고. 아휴- 말로 다 표현을 못해. 국수 한 판가지고 애들하고 며칠을 먹었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아. 집안 내에도 벌써 한두 번 가면 ‘저 또 아쉬운 소리하나보다’ 하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만나주지도 않아. 심지어 남매도 소용없어. 친누이네도 몇 번 가면

팔시해. 잘될 땐 이리저리[잘해주지]. 그래 느낀 바가 많았어. ‘망했을 땐 남매도 소용없다. 자기가 혼자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도와주면 좋지. 도움을 받으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

젊으셨을 때 ‘우리 농촌을 잘 바꿔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첫째는 그거지. 1단 수리답만 있을 때는 계양산 밑에 산골짜기는 하늘이나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거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여름이면 내려와서 이쪽에 수리조합 안전답에 품팔이로 모 내주고 가고 그래. 그 쪽 사람들은 계양산에서 나무 같은 거, 술까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아서 식량에 보태고. 그렇게 사는 동네들이 불쌍하지. 옛날에는 고래골 사람들 그랬다고. 고래골이 좋은 뜻이 아니야. 산골짜기기 비장[깊은] 데서 산다는 거지. 수리안전답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거지. 쌀밥도 싫어서 안 먹은 판인데.

11. 국회의원 후보들의 사업 공약

장경근은 부천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 했던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자유당이거든. 장경근이 자유당 정책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아주 막강했지. 장경근이 친동생이 경인지구 특무대장이었어. 그 집안이 막강했어. 활동 많이 했지. 왜냐면, 옛날에 부천군 계양면 같은 데 일본 적산 땅에서 많이 농사를 지었다고. 일본 땅을 농사를 지으면은, 정부에서 수득세라고 과다하는 게 많아. 나라에 벼를 상환하는 게 많아. 근데, 장경근이가 이거를 본인들한테 저가에 분할해준 거야. 부천군은 그렇게 해서 잘됐는데, 김포군은 야당 정준이 국회의원이었었거든. 그 사람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번 한 사람인데, 그걸 못했어. 집권당 국회의원에서는 막강하니까 했는데, 야당은 힘이 약하잖아. 적산을 본인들 땅으로 맨들

어 주는 걸 못했는데, 2년인가 3년 후에 땡글어 줬어. 그러니까 그만큼 부천군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았지 더. 장경근이 그만큼 막강했지. 이승만 정권 때는 자유당 정책위원장이 막강했던 거야.

장경근이 부천 출신이었어요? 부천 출신이 아니고, 고향 어딘지 모르겠어. 부천군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야. 무슨 연고가 있기에 출마했지. 야당이었던 농림부장관 박제환 씨는 부천 출신이야. 야당이어도 농림부장관까정 하고 막강했어. 장경근이는 내무부장관까지 했고.

부천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는 누구를 꼽아요? 딱히 없어. 안동선이가 내 친군데도 국회의원 오래 했어. 관둔 지 얼마 안 됐어. 늙도록 해먹었는데.

당시는 어리셨을 텐데,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했는지 아셨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공약 알지. 국회의원들 선거운동 대단하잖아. 국회의원 사무실 있는 계양면, 장길 이런 데 나가면, 포스터도 붙여놓고 선전도 하고, 또, 강의하는 데도 구경 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2단 수리조합 해서 물 대가지고 벼농사 짓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연설한다고. 당시 박정희 정권 때에는 쌀값이 최고 비쌌어. 그때 쌀이면 다 해결돼. 웬만한 소 한 마리를 쌀 네 가마에 샀어. 소 값도 비쌌지만, 쌀이 그만큼 비쌌던 거야. 그때 쌀밥을 먹기가 ... 농촌 사람도 보리밥 먹고, 쌀 섞어먹고 이랬지. 심지어 강원도 사람들은 강냉죽 먹는다 했던 강냉밥 먹는다 했던 시절이었어. 산에 옥수수 생산은 많이 되니까. 쌀밥은 구경도 못한다는 거야. 1년에 추석이나 정월이 돼야 쌀밥 먹는다고 그랬어. 굶고 죽 썰먹는 사람이 허다했었어. 우리 부락에 80m 100호 대부락이 있어. 봄만 되면 내가 이장도 오래 따라 다녀서 ... [봤지].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쌀 농사꾼이 쌀밥을 안 먹고, 보리하고 섞어서 보리밥을 먹었어. 쌀값이 비싸니까 쌀은 저축하느라고. 그 시절에는 쌀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돈 덩어리야.

2단 수리조합 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밭이었어요? 아니. 한강수라고 해서 1단 수리조합. 난 1단 수리조합 있는 아주 좋은 농사촌에서 살았지. 계양산 밑에 농사들이 많은데, 하늘에서 비 나와야 모내는 논이 있어, 건달비라고 천수답. 그런 논은 하늘로 바라봐서 비가 와야 농사 짓는데 그거 어떡해? 여기 1단 수리조합에서 하는 사람은 아주 안전답 아니야? 날이 가무나, 비가 오나 물은 마음대로 되니까. 한강물 퍼 올린 거 농사지어서 살림을 사는데, 고래울은 살기가 힘든 거야. 살기가 힘드니까, 저 산골짜기 고래울라고 해. 내가 생각하는데, ‘저놈의 물을 퍼서 올려서, 한강물에서 일단 올라온 물을 대고서 다시 퍼올리면은, 벼농사 지으면 다 잘살겠다.’ 이런 게 이장 보면서 맨날 머리에 떠오른 거야.

국회의원들 후보들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표 찍어달라고 구호만 떠들어 대니. “나만 해주면[당선시켜주면] 잘살게 해 준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거 아냐? 돈이 있어야 하지 뭘로 해? 그땐 국고도 빈약하잖아. 사업계획을 꾸며가지고 각 부처로 농림부, 건설부, 뭐 각 부처로 냈는데,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에서 회답이 와서 갔다 그랬잖아.

계양에 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도 한 번 왔었다는 기록이 있던데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표 찍어 달라고 유세할 때만 왔지 오지도 않았어.

12. 결혼 및 이후의 생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내가 외아들이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결혼을 일찍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선을 보러 댕긴 거야. 부모님이 하라니까 안 다닐 수 없고. 청혼이 들어오는 거지. ‘가서 퇴짜 놓으

면 되지.’ 그리고 보러 다녔다고. 한 10여 군데 댕겼어. 어디서 이 사람[부인]이 중매가 들어온 거야. 보니까 마음이 키워져서 결혼한 거지.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땐가니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이지. 내가 4남매를 뒀는데. 딸 둘, 아들 둘을 뒀는데, 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손주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외아들이니까 손주를 상당히 바라셨던 거지.

신혼 때 학교에 다니셨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큰애가 딸인데, 딸 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다니면 별명이 “아이 아빠”라고 했어. 저기 “아이 아빠, 아이 아빴”이라고 놀리는 거지. 선생들도 그렇게 괘시를 안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담배를 태는데 담배를 태면 그때나 지금이나 걸려. 그때 체육선생이 현역 대위 예편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야. 건들건들 한 놈들이 이발소 같은 데 숨어서 담배 많이 태는데, 암전한 사람들은 안 태잖아. 공부에 열중하지. 학교에 건달들 많잖아. 근데 나는 결혼도 하고 담배 털 줄 아니까, 태는거 아니야. 그러다 걸리면 “넌 저리가” 너는 어른이다 그거지. 그런 혜택은 받았어.

사업하시느라 바쁘셔서 집에는 신경 많이 못 쓰셨겠어요.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 부러운 거 없이 살다가, 2단 수리조합하다 다 넘어가고 두 손 번쩍 들고 영등포로 이사할 때부터 고생줄이 든 게 한 2~3년 했지. 2~3년 고생하다가 인천으로 와서 가게 잘되는 바람에 다시 돈 좀 모으고 성장한 거지. 없어도 고양군에 있을 때는 ‘삼거리 상회’라 크게 했지. 큰 딸애가 한 쪽에 양장점 하면서 고양군 농협에도 다녔고, 군인들도 도움을 많이 줬어. 고양군에 탄약고가 있었는데, 그 부대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 트럭씩 타고 나와, 군인들이 가게에서 점심 먹는데 뭐 해주면 상당히 잘해줘요. 옆에 또 한 사람이 보안대장, 대위인가 됐었는데, 남한의 38선 경계선, 한수 이북엔 특무대 대장이 대령이야. 그 사람이 날 많이 협조도 해주고.

이후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싹 없애고 모든 걸 다 내동댕이치고 영등포로 올라온 건데. 올라와가지고 이구봉이 소개한 일로 해서 그럭저럭 살았어. 할매가[아내가] 뭐 해가지고, 또 그대로 살았어. 산 사람은 사는 거지. 그러다가 고양시로 가서 조-그맣게 동네 구멍가게를 시작했어. 고양군 주교리라고, 군청소재지야. 옛날 군청소재지면 도시화되는 거랑 비슷한데도, 시골 군청은 아무것도 아니지. 조그만 구멍가게가 차차 번창해서 커지고, 매상이 거기서 최고로 잘됐어. 잘됐는데도 시골가게야. 거기서는 하루에 매상이 3만 원이면 잘되는 집이었어. 20% 6,000원 벌이가 컸던 거야. 그때는 돈의 가치가 컸으니까. 그러다 인천에 수미동 사거리에 우리 수퍼라고 그게 나서, 거그 와서 가게 하는데. 지금도 간판이 있나봐. 그런데 인천 오니까 매상이 22만 원, 25만 원 막 오르더라고. 그렇게 가게가 잘되고 독점하듯이 했어. 이름 있는 가게였어. 하루 가게 보면 할매하고 나하고 돈 세느라고 ... 대단했었어. 돈을 거기서 복구하다시피 했어. 시골 땅을 한 3,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 그러다 아들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뒷바라지나 해야겠다’ 해서, 인천에 구월주공아파트 15평짜리를 샀는데, 700만 원인가 얼마주고 샀어. 그게 재개발 되는 바람에 1억 9천인가 엄청난 돈을 받았지. 그게 한 10년 됐나? [집을] 안 파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회계감사를 거기서 봤거든. 이거 가지고 한양 2차 아파트 48평짜리 사게 되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큰아들하고 살았어. 거기 처음에는 차가 다니기 드물었어. 큰아들이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그때 수림체육관이라고 학원 내고 있었지. 주산학원, 태권도, 여러 가지 다 했었어. “아버지, 차가 막혀서 출퇴근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쪽에서 살고 늙은이 둘이 사는데, 48평이 너무 크지 뭐야. 지금 세 주고 여기 세 살고 있어.

정영철

❖ 정영철

1941년	출생
1950년 6월	한강철교 폭파 시 모친 사망, 피난 중 고아가 됨
1950년~	서울-대구를 거쳐 제주도 고아원에 있다가 부산으로 탈출
1960년 4월	4·19혁명 당시 부산에서 시위
1961년 5월 16일~	경찰 단속으로 아동보호소 수용
1961년 11월	장흥으로 강제 이송, '대한청소년개척단' 창단
1962년 2월	서산 개척단으로 이동
1968년	결혼
1969년	남산1호 터널 공사 참여
1980년대	서산시 인지면 새마을지도자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출연 후 가족 만남
2012년	서산시 양대·모월지구 편입지대책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거주

1.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된 과정

우리 아버지가 독자여. 할아버지는 삼대독자고. 할아버지가 처음 이북 황해도 연백이라는 데서 인삼밭을 했어. 아버지는 학생이고 독자니깐 일본 와세다 대학 엘 댕겼대. 엄마도 대학생인데 같이 공부를 하니까 할머니가 나하고 한 살 아래 동생을 데리고 황해도로 간 거여. 나는 그 때 학교를 안 들어갔을 때고, 동생은 나보다 더 어리니까 안 갔고, 거기 황해도에 있을 때 6·25가 난 거여. 1·4후퇴 때 피난을 하는데,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왔지. 엄마가 와서 동생을 업고 나는 걸리고 우리 할아버지네서 일하던 일꾼들까지 할아버지만 남고 가족이 다 내려오는 거여. 집에서 내려오는데 내 기억으로 지금 노량진이야. 내가 무슨 역인가를 찾아 보려고 한강다리를 일부러 걸어서 한 번 댕겨봤어. 우리 엄마 산소 좀 찾아볼라고. 한강 철교 끊어진 애기부터 해야겠네. 한강을 오는데 한강 철교가 폭파되는 바람에,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허리가 이렇게 ... 폭 쓰러졌는데, 허리가 나간 거여, 배가. 같이 나가던 아저씨들도 있었어. 열 살 위의 고모가 나는 크니까 안 업고 우리 동생을 업었지. 그래갖고 이제 흑석동 쪽에, 한강 건너자마자 흑석동이더라. 중앙대학교 있는 거기다 엄마를 묻었어. 옛날에는 거기 완전히 산이었었는데, 묻고, 우리들 보고 어른들이 “잘 기억해놔라, 잘 기억해 났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거든 와서 찾아라, 느그 아버지한테 알려줘라”, 뭐 그런 소리까지는 내가 기억을 해. 어머니를 묻고 다시 나와서 열차를 타는데, 어른들이 올려줘서 지붕 위에 탔어. 열차가 철커덩 출발한 바람에 난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열차는 가버렸어. 그래서 고아가 된 거야. 피난을 나가는데, 가다가다 그 때 날씨가 더울 때라, 토마토가 과량게 익을 땐데, 배고프니까 토마토 밭에서 토마토를 따먹었어. 피난민들 사이에 끼어서 가는 거지. 거기다가 폭격을 해버렸어.

누가 폭격했는지는 모르셨어요? 누가 폭격했는지는 모르지. 폭격을 해버려서 정신을 잃고, 하루 저녁을 거기서 잔 것 같어. 새벽에 깼는데 여기저기서 “내 다리,

내 다리” 해썬고,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아우성이여. 팔 잘라져 나간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 외에는 다 조용하고. 그런데 보니까 옆의 사람이 물 길어 달라고 해서 물을 주니까 그냥 눈 크게 뜨고 죽더라고. 얼마나 겁나는지 도로에 막 뛰어나오니깐, 지프차가 큰 게 있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인민군들, 말 타고 가는 사람한테 빵도 얻어먹고. 또 내려가다 보면 우리 군인들한테도 건빵 같은 거 얻어먹고, 그러면서 막 총알이 위로 날라 다니는데도 그냥 땡졌어. 며칠 만에 미군 지프차를 만났는데, 캄땡이들 새카만 사람들이 막, 그 때는 전부 비포장 도로 아냐? 오더니 그냥 덩석(목덜미를) 잡고 뭐라고 해 싸면서 쫓아 신고 가는데, 난 그 사람들이 오랑캐 줄 알았어. 아이고, 너그들이 사람 잡는구나 하고.

2. 제주도 아동보호소와 부산으로의 탈출

살려달라고 하셨구나. 살려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놈 영어로 뭐라 해가면서 쪼꼬렛도 주고 하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 다 싫더라고. 그런데 대구 동촌 비행기장에 가니까 콘서트(concert)¹⁾를 지어놔는데, 우리들 또래들이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 우리 또래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거기서 배도 안고프고 잘 얻어먹고 있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포 소리가 평평 나더라고. 자꾸 가까워 지니까, 헬기로 (우리들을) 제주도 갖다 내버려 버렸어. 제주도 무슨 고아원이야. 그런데 거기는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거야. 하루에 아침에 한 아홉 시 돼서 강냉이죽 한 그릇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지.

그러면 미군이 비행기에다가 아이들을 다 신고서 제주도로 보냈어요? 그 때 한 4·

1) 콘서트(concert) 건물 : 군대에서 사용하는 야전식 건물로서, 아치형으로 기둥과 보가 없이 지붕과 벽을 인체로 한 터널식 모형의 가설 건물. 전쟁 시 쉽게 건설하고, 철거 또한 간편한 철제 가설 건축물.

50명 같은 또래끼리요? 그렇지. 제주도로 우리들을 다 갖다놔잖아. 거기서 6·25가 끝났어. 전쟁이 끝났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전쟁 끝났는가보다 했는데 이제 가족들 찾아가야 될 거 아냐. 그런데 거기서 안 보내주니까.

거기도 이름이 ‘보호소’였어요? 보호소여. 아동보호소니까.

그 때가 몇 살 때 즈음이셨어요? 아마 한 열 몇 살 때일 거야. 내가 그 때는 좀 성숙한 편이었었던가며. 어른들이 입던 옷을 입었어.

제주도에서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지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개월 된 것 같아.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있었던 것 같아.

옷도 없으시고 밥도 계속 강냉이 죽으로만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지 뭐. 미국 목사가 위탁을 해놓은 고아원이여. 먹을 식량은 없고 애들은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부산으로 나왔어. 나중에 제주도 관광 가서 한 번 찾아볼라니까 도저히 못 찾겠데. 난 뭐 기억이 안나갔고.

그 이름도 아직 생각이 안 나시구요? 전혀 모르지 뭐. 어디에 있었는지, 바닷가에 물이 철려거렸어.

제주도에서 도망치셔서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여름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나왔어. 입은 옷은 여름옷이라 얼마나 추워. 가을에 배가 출발했는데 부산에 오니까 겨울이여. 고구마 싹고 오는 배 속에 숨어서 오는데, 섬들을 거쳤어. 나중에 배 안에서 들켰지. 고구마만 먹고 며칠 있으니까 배탈도 나고 엉망이지 뭐. 차강원이라는 친구랑 둘이서 부산까지 왔어. 부산역 앞에 오니까 뱃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몇 달 같이 있으니까 정이 들어서 옷을 벗어주더라고. “야 겨울인데 너그들 얼어죽는다”고. 군인들 시보리(shibori : しぼり)²⁾ 잠바 물들인 거. 오바같이

2) 시보리(shibori : しぼり) : 점퍼의 소매나 허릿단 끝에 고무처럼 신축성이 뛰어나게 니트와 같이 짜인 부분.

생겨서 (기장이) 이만큼 (발치까지) 내려오는데 그거 따시더라고. 그리고 역전에 갔는데, 대구관이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대구관이 부산에서 최고 큰 식당이었을 거야. 거기 후문에 가서 음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그 친구랑 나랑 연탄불 빼서 사십 구멍탄을 빼서 내놓은 데 가서 불을 쪼고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군인들 하이바, 바가지에다가 반찬하고 밥하고 한 가득 갖다 주더라고. 나도 6·25때 너그들 만한 거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걸 들어서 먹고 또 남은 게 아까워서 그 바가지들 들고 돌려주지 못하는 거여.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갖고 있다가 배 좀 내려가면 또 먹고 그러자.” 그렇게 바가지들 들고 앉아 있다가 들어서 잠이 든 거여. 그러다 새벽이 됐는데 불집게로다가 누가 막 때리는 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대가리에 피가 질질 흐르고. 그래서 우리들보다 큰 놈들한테 갔는데, 거기 가니께 구두땀이 같은 걸 하는 거야.

3. 부산에서의 ‘부랑’ 생활과 4·19 당시 시위

어떤 조직 같은 게 있었어요? 조직이지. 그 때 항상 1원, 2원짜리 이런 거 사먹고 할 때여. 한 5원씩 받으면서 구두 땀는데 하루에 어떻게든 50원은 벌어서 오야봉을 줘야 돼.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으니 내가 좀 깨우쳐지더라고. 내가 머리도 좀 크고 힘도 세고. 만날 운동을 했어. 느그들한테 안 맞으려면 내가 내 힘을 길러야 되니까. 체육관 근방에서 권투하는 선수들도 나를 못 이겼어. 본격적으로 운동하러 댕기는 것들도 내가 가면 살살 비겼어. 내가 글러브 끼고 덤비면 이길 놈은 없었어. 남포동에서 오륜다방, 광명극장 그 쪽으로 내가 내 구역으로 삼았어.

어릴 때부터 힘도 좋으시고 체격이 좋으셨어요? 그렇지. 체격이 좋았어.

제주도에서 나오실 때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였겠네요. 그렇지. 나는 참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긴 사람이며. 몰매 맞아서 내가 죽었다고 애들이 다 치워놨는데도 깨어나고 그랬어.

그 조직 생활 하실 때 거처하실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있었지. 조직의 이름은 ‘아파치’라고, 지금은 없어졌어. 60년대에 없어졌더라고. 아파치라고 있었는데, 내 별명은 ‘항구’였었어. 부산 항구라고. 이 별명의 정신이 뭐냐면, 이북 부둣가에서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타고 오는 걸 내가 마중 나가서 만나고 그래서 ‘부둣가에 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타날 지도 모른다.’

부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응. 나는 일부러 4부두, 2부두 이쪽 구역에서 싸워가면서 항구 쪽을 택했어. 나는 그냥 누가 덤비면 치고 박고, 안되면 욕심은 안 부렸으니깐. 오야붕들이 “야 저거는 그냥 지 벌어서 먹게 놔두자.” 저그들끼리 상의가 된 거야.

그 때부터 조직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셨겠네요. 중간보스쯤 된 거야. 그래서 남포동 일대에서 딱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니깐 4·19가 터진 거야.

조직 생활하실 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셨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구두닦이도 잘하셨어요? 그렇지. 구두를 닦았는데, 내 조수로 나보다 어린 애들, 한 열 명 정도를 데리고 다녔어. 그렇게 있으면서 오야붕들한테 돈도 잘 내고. 하루에 50원씩은 내는 걸 한 번도 연기해본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좀 많이 벌면 내일 것 딱 준비해놨다가 내일 것까지 다 주고.

남는 건 없으셨어요? 남는 것도 많지. 남는 건 애들하고 밥 사줬어. 애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군요. 내 애들이니께. 즉 말하자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개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개들 밥 사주고 신발 사주고 다 해야 되니까. 부산극장 쪽에서 다른 조직하고 한 번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때부터는 슬슬 크기 시작했지. 크니까 싸움하다 볼일 다보는 거야. 자꾸 도전자가 생기고, 밀고 들어오고.

4·19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데모를 하는 건지 몰랐어. 대학생들을 붙들고, “야 이거 뭐하는 거냐?” 물었어. 우리 하숙집에 고학하는 대학생들이 많았어. 그래도 개들은 엄마, 아버지 잘 만나갖고, 당시에 대학 다니고 공부하는 놈들이여. 내가 물어봤더니, 이승만 정권 뿌려치는 거라고, 저것들이 우리나라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 부정부패고, 이기붕 이 새끼 때려잡자면서. ‘아 그러면 나도 앞장선다. 요것들이 정치 잘못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버스에다가 머리에다 태극기 두르고 데모하러 댕겼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친분이 있거나 어울리거나 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이 하는 하숙집, 지금 말하자면 쪽방이라는 거 있잖아. 하꼬방을 지어놓고 하루저녁에 얼마씩, 그날 바로 현찰을 안내면 못 자. 그런 방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 나는 그 때 돈을 잘 버니까, 개들한테 “야 방세 없으면 내가 줄게.”

학생들한테 방세를 대주고 그러셨어요? 많이 줬지. 방세도 주고 개들 애로사항 있으면 봐주고. 그 대신 “여기 와서 글이나 좀 가르쳐도.”했어. 내가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글이나 좀 가르쳐달라고. 개네들한테 한글 간신히 배웠어. 그 전에는 한글도 몰랐었어. 고아로 돌아다녔으니 뭐 되겠어?

제주도 있을 때도 글을 배우는 건 생각도 못하신 거죠? 배고파서 죽겠는데 글이고 지랄이고 뭐 있어? 그러다가 부산에서 데모가 끝났어. 군사정권이 들어섰잖

어? 5·16, 군사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밤에 하숙집에 자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고 “야 튀어!” 해서 친구랑 나랑, 금정다리 옆 우리 하꼬방 3층 높이 창문에서 물로 뛰어내렸어. 명단이 다 있더라. 정영철이 아니라 정항구가 명단에 있었다더라고.

명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들이 군인들한테 리스트 인물들을 넘겨준거여.

경찰에서 조직 세가 파지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다 파악하지. 부산 서부경찰서 ‘세파드’라는 경찰이 나한테 “항구 너는 뭐 도둑질도 안하고 잡 아갈 이유가 없었다”고 했어. “애들 착취하면 안 된다, 그것도 법에 걸린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재들을 내가 먹여살리지 재들이 나 먹여 살리냐”고. “착취는 무슨 착취”냐고 했었지. 그러다보니 친구나 선배들도 많아졌지만 리스트 인물에는 항상 있었지. 야시장도 생기고 시장 구역 별로 나뉘서 저녁에 세금 좀 받지. 내가 받는 데가 30~40개 정도 됐는데, 그 돈만 받아도 굉장히 많더라고. 이제 구두 닦 는 일은 동생들한테 하라고 하고 나는 관리만 하러 댕졌지.

소매치기 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왜 없어, 전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으니까. 소매치기, 날치기 뭐 다 그런 거지. 우리 동생 애들부터 다 그렇지. 그거 해가지고 다 먹고 살지.

중간보스쯤 하실 때, 경찰에서 “애들 관리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애들 관리 잘못해갖고 내가 몇 번 갈 뻔 했지. 경찰이 잡힌 애들 어떻게 할 거냐고 해. 그 때는 금반지를 항상 끼고 다녀야 돼. 금반지가 휴대하기가 좋으니까 하나 끼고 있다가 빼서 경찰에게 주면, “그래, 차에서 도망가는 척을 해라. 내려.” 그러면 차문 탁 열고 후다닥 뛰는 거지. 경찰은 잡는 척하고 나는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했어. 군사혁명 나니까 정신없이 두드려 맞는데 이유가 없어. “나는 도둑질을 안했소, 나는 넘한테 뭐 잘못된 거 없소, 건달이 아니오” 하고 변명을 못해.

4. 5·16 후 부산 아동보호소 수용

4·19때 데모했다는 기록까지도 군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록 다 있어. 리스트의 인물들은 꿈쩍 못혀. 지금보다 더 세밀했어. 지금 순사들은 패지는 얹잖아. 그 땐 잡아갔다 하면은 안한 것도 했다 그래야 돼. 물고문시키고 두드려 패서. 나도 물 참 많이 먹어봤어.

쿠데타 후에 경찰에 잡혀가셨던 거였어요? 그렇지. 데모한 거 갖고는 이야기는 안하는데, 기록은 다 있어. 그래서 “새끼 악질이네” 그라지. 지금은 용두산 공원이지만, 그 때는 우남공원이었어. 우남공원에 해병대 애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빨갛았어. 우리들이 가서 얻어터지는 그 도랑에서 내려오는 물이 빨갛었다고. 말을 하지 말고 대가리 처박고 가만히 있어야 돼. 변명을 한 다든가 이야기를 한 다든가 입을 못 떠. 대갈빼기만 들어도 조져대니께. 삼청교육대 같은 건 게임도 아녀. 막 야구빠따로 삭 조져대고, 아동보호소라는 데로 우선 보내. 거기가 집합 장소야. 저 감천(甘川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이란 데에 있었어. 일본놈들 수용소가 바로 밑에 있었고 보호소가 조금 위에 가 있었어. 몇 백 명이 있었다고.

5·16쿠데타 후에 잡히셔서 보호소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보호소야. 어른이고 애고 그런 거 없어. 상관없이 거기다 다 집합시켜가지고.

우남공원에서 얼마간 계셨어요? 잠깐 며칠이지. 오래 있으면 죽지, 거기서 사나. 며칠 있다가 아동보호소로 다 가서 두 달인가 있었어. 거기서 A급, B급 분리했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된 거예요? 나이 기준으로 하는지, 뭐. 자기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 A급은 제주도 도로 닦는 데 그리 갔고, 우리는 개척단으로 오고.

보호소에서 이미 6개월 계시는 동안에 A, B 나뉘가지고 A는 제주도로 보내고 B

는 개척단으로 보낸다고 결정이 되어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부산서부터 그렇게 정해져왔고 온 거여. 전라도 장흥이 여기 개척단 ‘작은집’이여.

그 보호소에서 장흥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던 거예요? 200명이 장흥으로 와서 지금까지 서산에 남은 사람은 둘이야. 200명 중 한 사람은 손연복 씨라고 시의회 부의장까지 했어. 서울에서 부자가 됐다더라고.

보호소에서 6개월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주도하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좀 나았어요? 나은 게 어디 있어. 제주도에 있을 때는 어려서 철을 몰라서 그저 배고픈 것만 있었고. 부산서는 노다지 펜티만 입혀 놓으니깐. 여름이든 겨울이든 소용없어. 펜티만 입고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깐. 수시로 두드려패는데 거기 있는 놈 중 하나가, 내가 부산서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나를 봤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참 잘해주더라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분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보다 조금 더 먹었는데, 잘 해주더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내가 자갈치 시장에서 지게꾼들이라든지, 노점상 하는 사람한테는 인기가 참 좋았어. 판 놈들은 다 상인들 괴롭히는데, 나는 그거 못하게 했어. “야 똑같은 입장인데 저것들이 뭘 돈이 있다고 저것들한테 등쳐먹냐. 우리 친구들에게 그거 하지 말고 양복입고 가는 놈들 뒤통수 때려. 남포동 가서 해먹어.” 했어. 남포동 자갈치 시장 이쪽에서는, 아지메들이 어디 며칠 지나서 가면 “아이구 항구 총각 어디 갔다 왔어? 유치장 갔다 왔어?” 물었지. 떡살만 잡고 싸워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어도 전과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늘 잘못된 거야. 무조건 내가 잘 못한 게 되니까 억울한 게 많지.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신조가 있으셨어요? 내 신조는 그거지. ‘나보다 불쌍한 놈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난 항상 그런 신조였었고, 더군다나 같은 노점상이라

도 여자가 한다든지 할머니가 하는 거는, 그 근방의 어떤 놈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어. 또 지게꾼들도 잘 데가 없어서 겨울에 지게 펴고 자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자지 말고 역전에 가서 자라”고. 그러면 지게꾼들이 “역전에 가면 다른 놈들이 두드려 패고 지랄한다”고. 그럼 “가자”고, “내가 얘기해줄게. 역전으로 오라”고 했지. 역에 가서 “야, 느그 대합실 느그들이 샀니? 이 새끼들 이 불쌍한 사람들 자게 뒤.”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겁나서 못 쫓아내.

남포동 일대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항구’하면 모르는 놈이 없었지. 참,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안됐어도, 그래도 인정상으로 서로가, 의지는 됐지. 나도 그 사람들 의지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지.

보호소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나 하니 내가 배운 게 없었어. 가정교육을 받았다는가 무슨 교육 자체가 없었지. 어떻게 살까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순전히 남들하고 싸우고 다른 애들 학교 가면 나는 복싱 체육관 다니고 그랬으니까.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군요. 학교 같은 건 꿈도 못 꾸보지. 그러니 애들 학교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때부터 돈 떨어진 학생들한테 “야 너 하숙집 돈 떨어지면 돈 내줄게.” 그리고 학생들이 “항구형” 하고 잘 따랐어. 그래서 내 이름부터 배우고 한문도 많이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렸어. 개들한테 많이 배워서 이름도 쓸 줄 알고 책도 읽게 됐지.

5. 장흥 개척단

장흥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영화 보면 포로들 잡아서 머리 뒤에다 손을 올리잖아? 그렇게 해서 내려. 머리를 든다든가 손을 내렸다 가는 ‘어머니 사랑 정신 보신탕’이라고 쓰인 야구 빠따로 삭 조져대는 거여. 그거 한 대씩 맞으면 팍팍 소리 나면서 머리가 팽팽 돌아.

군용버스 같은 데였어요, 아님 일반 버스였어요? 부산에서 장흥까지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일반 버스, 말하자면 관광버스에다가 태워 와서 내렸어. 부산에서 배달을 한 거여. 시청에서 버스를 대주는 거여. 그게 ‘사회정화사업’이나 똑같은 거여.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본보기를 보인다는 게 우리들같이 만만한 놈들한테 보여준 거야. 맨 처음에 가서 안 죽을 만큼 맞았지.

부산의 보호소에서 오신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장흥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지.

장흥에 가실 거라는 걸 버스 타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지. 장흥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디 섬인 줄 알았지. 버스에서 밤에 커튼 다 치고 잡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죽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있어야 돼. 갈 때까지 몇 시간을 그랬어. 길이나 좋나, 들락거리는데. 내리니까 바닷물이 철썩철썩하고 “여기는 ‘대한청소 년개척단’이다. 여기는 영(令) 외는 아무것도 없다. 느그들은 아무 권리도 없다. 밥 먹을 권리도 없고, 오줌도 느그들 마음대로 못 싣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 “소변보고 싶습니다” 한 명이 그러면 안 들어주고 여러 명이 손들어야 줄 서서 번호 맞춰가며 갔다 왔어. 도망갈까봐 ‘인간 철조망’ 있었고. 그러니 도망가는 거는 꿈도 못 꾀. 갔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장흥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셨던 거예요? 장흥서는 한

천여 명 됐을라나. 내가 알기로는 한 천여 명. 서산에 오니까 한 2천명 넘더라고. 장흥에서 서산으로 한 백여 명이 왔었거든.

장흥에 오시기 전에는 ‘개척단’이란 걸 들어본 적도 없으셨겠네요. 그렇지. 개척단이란 거 난 여기 와서 처음 알았지.

대한청소년개척단은 조직이 갖춰져 있었나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있었어. 다 그렇게 불렀어요? 대대장,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1기생들이여.

장흥에 가셨던 때에 이미 그 전부터 있던 분들이 계셨던 거였어요? 그렇지. 장흥에서 1기생들이 우리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여.

먼저 계신 분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61년도 11월 14일 날이 개척단 창설이여. 우리는 62년 2월 3일에 갔으니까 몇 달 차이는 아녀.

장흥에서는 몇 개월 정도 사셨던 거예요? 여름 나고 가을 들어설 때까지 있다가 서산으로 온 거여. 그 동안 거기서 일했지. 바다를 메꾸는데 목도, 돌메다 나르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도 일 참 열심히 했네.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니깐 옷을 훌랑 벗으라고 해. 사회에서 입고 간 옷은 하나도 필요 없어. 팬티까지 다 내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천관산에서 내려온 도랑물에 목욕을 하는 거야. 물속에서 닦는 건 덜 추운 거여. 물에 나와서 오고 가며 맨발로 가니깐 돌 채이지, 발이 얼어서 멍멍 부었는데 발 시리다는 소리 하면 위커발로 그발가락 어디를 막 밟아버리는 통에 소리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있어야 돼, 묵묵히.

간척을 하는데 산에 보내서 정신 훈련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 사회에 대한 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야. 사람을 세뇌를 시키는 거여. 산에 갔다 오고 시간 있으면 운동장 뛰어야 되고, 밥 먹고 나서 일하러 가야 되고, 일 끝나면 밥 먹을 때까지 또 운동장 돌리고 그랬어. 누구 아는 사람 있어도 눈만 마주쳐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죽어. 그런 식으로 한 한 달 정도 하고나서는 이제 그건 그만하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해. 밖에 나갈 자유는 없고. 밖에는 ‘인간 철조망’이 쳐있고 절대 못 튀어. 집은 막사야. 밥은 하루에 쌀 5작, 보리쌀 1홉 5작, 이렇게 줘. 지금 우리는 그 밥이 많아서 다 못 먹지. ‘건설단 양재기’라고. 해서 지금은 그 밥을 못 먹어. 밥을 한 양재기씩 먹었는데도, 물에다가 소금 푼 소금국에다가 반찬은 없이 그것만 먹으니깐 배가 엄청 고프지. 채수 좋으면 근방 사람들이 배추가 폐놓했다고 밭에 버리는 거 있으면 그거 주워다가 국 끓여서 그거라도 썰어 넣고 먹었어.

6. 서산 개척단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추운 건 좀 덜해지셨겠네요. 나는 거기에서 1년을 못 있는 셈이야. 서산으로 가면 좀 나올라나 하고 지원을 했어. 갈 사람 손들라고 하더라고. 가다가 도망가려고 내가 맨 먼저 손들고 나갔어. 장홍보단 서산이 ‘큰집’이니 나올 거 아니냐, 가다가 채수 좋아서 틈이 있으면 도망간다 생각했어. 출발하는데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 청조끼, 청팬티를 입고 열차 화물칸 두 칸에 짝 찼어. 그리고 앞뒤 문 딱 잠그고 간부가 몽둥이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우리 부산에서 올 때랑 방식이 똑같아. 여기오니깐 두드려 패고 그런 건 없더라고. ‘작은 집’에서 온 사람들이니깐. 와서 1대대 1중대 배치를 받았는데 시의원했던 손연복 씨가 부산에서 같이 왔고, 기술반 중대장이었어. 그 사람이 추천해서 몇 개월 있다가 소대장이 됐어. 소대장이 되니까 줄병들보다 일도 더 많이 해야 됐어.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 도비산이야. 도비산에서 등짐으로 돌 쳐다가 집터, 저수지 기초 공사를 하는 거야. 만날 밥만 먹으면 나가서 논 경지정리만 하는 거여. 중대별로 나가면 정해진 구역이 다 있어. 날 새가면서라도 그 양을 해야 돼.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만날 할당량이 있어. 오늘은 1인당 몇 루베³⁾의 흙을 갖다 메꿔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파서 저쪽에 메꾸고, 도비산에서 돌 지고 와서 저수지 독에다 쌓아 놓으면 거기다 석축을 쌓아서 기초공사하고. 그게 참 정말, 너무 어려웠어. 어디 밖에 나가길 하나, 사람 구경도 못하고.

‘인간 철조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산에서도 있었어요? 내가 소대장 되기 전에 ‘구호반’이라고 인간 철조망으로 보초를 서는 거여. 그걸 내가 뽑혀서 하게 된 거여. 말하자면 경비들이지. 그걸 하는데, 부산에서부터 장흥 거쳐서 같이 온 우리 동지들이 도망가려고 내 초소로 나온 거여. 6명이 한 번에 나왔는데, 가다가 걸리면 개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같이 튕까 하다가 내가 없으면 금방 사이렌 울려서 잡으러 나올 테고. A반이라고 하면 구호반에서 계속해서 번호가 전달돼야 해서 빠질 수가 없어. 오줌 누면서도 자기 번호가 오면 불러야 돼. 1초소 이상 없음, 2초소 이상 없음 이렇게 계속 불러.

그 때 번호가 비면 바로 비상인 거네요. 그렇지. 내가 그거 하나 못했다 하면 바로 비상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달리지나 마라. 그리고 제발 잡히지 마라. 산 속에 숨어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낮에는 움직이지 말고 밤에만 움직여라, 부산까지 갈 때 홍성서 절대 열차 타지 마라.” 다 당부를 해갖고 보냈어.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 어느 초소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A반 전부가 기합 받는 거지. 거기서 안 잡히면 내가 풀어준 지 모르는 거지. 용케 내가 재수가 좋았는지 안 잡혀오고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을 거야. 한 달 쯤 지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구.

구호반은 지원이 아니라 선발했던 거예요? 감독관이 구호반을 선발했지. 감독관이 정씨여서 같은 정씨라고 나를 좀 많이 봐줬고 그리고 내가 운동이든 무엇이

3) 루베 단위, 1m³의 일본식 표현.

든 하면 잘했어. 공을 차거나 씨름할 때 우리 중대에서 내가 나가면 무조건 일등이여.

중대별로 경기 같은 게 있었어요? 어. 경기하면 항상 1등 했어. 한 일주일에 파랑새 한 갑을 쥐. ‘뽕뽕초’로라는 분절초야. 그걸 한 봉지 가지면 다섯 명이 나눠야 돼. 그걸 우리 중대와 상대 쪽 것 가 걸고 하는 거여.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여. 청소년전국체육대회를 전라도 광주에서 할 때, 우리 대표선수로 나가기도 했어. 대전 병참한테 이겼지. 잘 먹지도 못하고 축구화도 없어서 위커화 잘라진 거 신고 했어도 공 잘 찼어. 지면 일주일 동안 담배 못 피니께 열심히 했지. 내가 구호반에서 하도 즐기고, 사고를 치니까 소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중대장이 소대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간부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간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다 우리들이여.

군인이나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없어. 차라리 군인이 있으면 우리가 민간인이니께, 사람 죽이고 그런 건 안했겠지.

서산에서의 집도 막사처럼 돼 있었나요? 저 위에 밭이 운동장이어서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오팔호 태풍⁴⁾ 때 다 날아가 버렸어.

장흥에서 서산에 오셨을 때에 집이 다 지어져있었나요? 막 짓고 있는 중이여. 그 때 땅굴 파고 있다가 우리가 집을 지었어. 장흥에서도 그랬어.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주차장에서 중대별로 밥을 타러 가. 인원 몇 명이라고 말하면 바케스에다가 밥으로 채서 쥐. 어리바리한 사람이 가면 밥 적게 받아오고, 똥똥한 사람이 가면 좀 많이 받아오고. 나는 우리 소대 먹여 살려야 되니께 아무리 바빠도 소대장인 내가 가 애들 데리고 가. 부산서 같이 온 어느 선배

4) OPAL호 태풍, 1962년 8월 초에 발생.

는 전국 씨름대회에서 소도 몇 개 판 사람이여. 그 사람한테 밥 타러 가면 “인마 알았어.” 그러면서 인원 무시하고 그냥 많이 줬어. 우리 소대는 분위기가 좋았어. 소대장이 하루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기합을 줘야 돼. 그런데 난 기합 줄 시간 되면 “앞에 서. 목적지 저수지로 뛰어!” 하고 노래자랑하고 놀다가 돌아와서는 기합 줬다고 했지. 목욕 싹 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여. 돌아올 때면 기합 주는 것처럼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소리 질러 가면서 누가 보면 기합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거야. 소대장들이 잘못하면 자다가 해코지 당해.

소대원들이 몇 명 정도 되셨던 거예요? 한 중대가 50~60명 되면 3소대까지 있으면서, 20명꼴이야. 좀 많은 데는 30명 가까이 됐어.

7. 서산 개척단 ‘민주화’와 일상생활

식사하시는 양도 장흥 때랑 거의 비슷하셨어요? 그 양을 똑같이 먹었어. 지금은 그렇게 못 먹는데, 그 때는 왜 그리 배고프냐고. 간부들이 허연 쌀밥에다가 콩을 섞은 게 상해서 개밥으로 내줬는데, 어떤 놈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 개밥을 퍼먹어버렸어. 그래서 또 기합을 받는거. 그 바람에 더 일찍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야.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중대장님, 이걸 솔직히 펄 일이 아니다, 기합을 줄 일이 아니다” 말했지. 그래서 중대장이 “느 소대냐?” “아니 우리 소대는 아닌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겠소.” 사실 우리 간부들도 배고픈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배고프냐. 나도 말단 간부지만 그래도 소대장 아니냐. 그런 내가 배고픈데 판 사람들은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그러니 좀 봐주쇼.” 말했지. 소대장들은 친구들이기도 했는데 다 같이 도비산에 모여서 “야, 이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냐? 느그 중대장들 중에 한두 사람만 끼어도 되는데, 이거 들고

엎어버리자.” 즉 말하자면 쿠데타지 뭐. 그런데 양광석이라는 친구가 1기생인데 정말 독불장군, 아주 골통이여. 개한테 중대장 피어내서 스트라이크에 동조하게 하자고 했지. 내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회에서 “정영철이 나와!” 하더라고. 내가 불려나가니깐 뒤의 애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도와!”하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야. 중대장이 “느그들 쿠데타냐?” 하면서 사무용 철판을 던졌는데 옆으로 비켜가면서 좀 찢어져서 피가 철렁 났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 보고 있으요? 보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와 하며 일어난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자하고. “오늘서부터 우리는 자유여. 어떤 놈이 건들면 죽어.”하니까 간부들 목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거여. 말단 대원들은 다 우리 편이고. 그러고선 중대로 다 들어왔어. 그날은 일도 안했지.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이제 63년도 될 거야. 그게 민주화 되는 과정이었어. 보급 창고에서 근무하던 간부도 동조를 해줬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지. 양광석이라는 친구와 간부들, 중대장들끼리도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의견이 반으로 갈린 거야. 간부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동으로 민주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선 구호반을 철수시키라고 했어. 구호반들도 다 우리 편이니깐 “철수해라, 오늘부터 절대 근무 서지 마라.”하고서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막사가 텅텅 비었어. 구호반이 없으니깐 다 밖으로 가버렸어. 우리 중대가 56명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23명 남고 다 가버렸어. 내가 남은 사람들에게 “느그들 그냥 가면 억울하지 않냐. 농지 분배 이거 해준다니깐, 농지 분배 받자.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깐 제발 가지 마라.” 그런데도 소용없어. 다 가고 간부들만 다 남았어. 간부들도 인심 잃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대원들 때리거나 해서 인심 잃은 사람들은 안 떠났으면 맞아죽지.

62년에 서산에 오신 후 63년이면 얼마 안됐을 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게 된 거네요? 얼마 안돼서 그렇게 된 거지. 하도 사는 게 힘들어서 몇 년 된 것 같은데 따져보면 1~2년 정도 살다가 된 것 같어.

하루 일과는 어땠어요? 개간을 계속했어. 아침 6시에 기상, 7시까지 운동장 조 회하고 구보 뛰고, 8시에 밥 먹고, 작업장에 가서 9시부터 작업하는 거여. 저녁 때 6시까지, 겨울에는 5시에 끝나고, 여름에는 7시까지 할 때도 있고. 자기 중대가 맡은 양은 꼭 해야되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지 봐가면서 하지.

양을 다 못하면 밤늦게까지도 하셨겠네요. 그렇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한 거여. 언제까지 개척만 하고 있을 수 없고 빨리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지. 정부에서 늘 배급만 타 먹을 수도 없었어.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미8군에서 작업복 같은 거 갖고 오고, 집 짓는 것도 미8군에서 구호물자로 갖고 온 거야.

장흥에서는 청조끼를 입고 계셨는데 서산에서는 군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중대장들은 더 좋은 거 입었지. 스모르 작업복⁵⁾을 고쳐서 잘 맞게도 입는데 우리들이야 치수가 크고 엉망이지.

부식 같은 건 없었어요? 꿈에도 없지. 명절 때나 되면 소나 돼지가 있어도 간부들이 건터기는 다 먹어서 구경도 못하고 그 국물만 먹는 거지.

서산에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단장이 민정식이었고, 그 다음은 정용일.

정용일은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관. 여기서 같이 생활했지. 집도 짓고 마누라도 있고.

간척하기 전에 오래 전부터 살던 분들은 안 계셨어요? 없었지. 근처에 살던 사람 중에서 개척단으로 온 사람도 없지. 이 모월 3리가 없었던 데야. 우리가 간척한 뒤에 3리가 생긴 거야. 1, 2리만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우리 동네를 따로 리를 만들어 준거야. 그 전에는 ‘개척단’이라고 불렀다가, 모월리 3구 사람들, 이렇게

5) 미군 전투복은 사이즈가 커서 가장 작은 스몰(small) 사이즈 작업복을 ‘스모르’라고 불렀다.

불렀지. ‘개척단 놈들’이라고 하니까 개척단이라는 말은 듣기 싫었어. “우리 개척단 놈들이 느그들한테 밥을 달라고 했어? 3구야 3구. 이렇게 불러.”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여. 지금도 서산 시내 사람들은 ‘개척단 놈들’ 하더라고. 하도 골통들만 있어서 서산 한번 나가면 돈 한 푼도 없이 술이랑 밥 먹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나오니까. 배고프고 돈은 없고 어떡혀. 실컷 얻어먹고는 돈 안 내니까 ‘개척단 놈들’ 그랬지.

일과가 6, 7시에 끝나면 축구나 여가는 언제 하셨어요? 첫째 주랑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놀았어.

그건 왜 그렇게 정해져있던 거예요? 그건 몰라. 감독관 기분에 맞춰서 다르기도 해. 기분 좋으면 “오늘 쉬어라”, 기분 나쁘면 “빨리 빨리해.” 그랬어. 법이 없어. 그 사람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여. 그 사람이 잔뜩 술 취해갖고 밤에 들어오면 “비상”하고 3분 안에 운동장 도착 못하면 맞는 거야. 팬티만 입고 옷을 들고 운동장에 가서 입었어. 늦게 오면 죽을 만큼 맞으니까. 우리 소대는 내가 “비상이니까 옷은 집합해서 입어.” 하고 가르쳤어. 신입 때 는 모르거든. 옷 입고 워커끈 매고 있으면 “안 맞으려면 운동장 가서 해” 하고 전부다 데리고 나갔지. 그러면 우리 막사에서는 한 명도 안 걸려.

‘민주화’ 직전이 가장 힘들셨어요? 제일 힘들었어. 도망가다가 잡히고 맞고, 맞다가 보면 죽을 수 있잖아. 죽으면 가마니로 싸고 태극기를 덮어서 강가에다가 묻었어. 사람 넷이 가서 들고 공동묘지에 가서 묻고 오는 거여.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술하게 많아.

그럼 지금 묘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구요? 묘도 있었는데 다 납골당으로 들어갔어. 내가 주도해서 80년도까지 위령제를 지냈었어. 그러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주위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걸 마을 행사

로 못하게 한 거야. 반대하더라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이 동네가 만들어 진 건데, 수가 적고 여기 출신이 많아지니까 밀리더라고.

2기로 오신 건데 먼저 왔던 1기생 분들과의 사이는 어떠셨어요? 그 분들이 간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간부지. 중대장, 부관, 이런 것들이지. 그래도 이정남 씨는 중대장인데도 사람이 참 착하고 좋았어.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사는 거야. 김인 씨는 연극부에 있었어.

부가 있었어요? 사람이 하도 많다보니까, 목공부, 미싱부 등 있었지. 연극부도 있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보급 창고에 가게 됐지. 이정남 씨는 사람이 점잖으니까 구호반 중대장 하다가, 대대 부관도 했어.

‘민주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에 ‘민주화’라는 말을 쓰셨어요? 아니 그 때는 민주화라는 걸 몰랐지. 민주화라는 걸 근래에 와서, ‘그게 민주화였구나’ 생각한 거지. 학생들 민주화운동할 때, ‘아 나도 민주화운동했다고 하면 괜찮겠다’ 하면서.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쿠데타야 쿠데타.

쿠데타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5·16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알았지.

스트라이크란 말은 그때 쓰셨었나봐요? 우리는 스트라이크라 그러고, 간부들은 “너희들이 쿠데타냐” 그랬어.

스트라이크란 말은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배운 것 같아. 하숙집 주인이 반찬이랑 밥을 주는데 부실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스트라이크구나’ 그랬지.

8. 물자 배급 문제

민주화 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남으신 분들이 얼마 안 계셨겠네요. 아마 한 7, 80명 있었지. 다 살기 어려우니까 땅도 다 팔아서 가더라고. 우리 민주화 되니까 보건사회부에서 나오던 배급이 탁 끊어진 거여. 배급이 끊어져서 가족들 트럭에 타고 서울 가서 보건사회부 장관한테 쳐들어갔어. 왜 아직 개간 중인데 양곡을 안 주느냐고 하니까 기자들도 덤비더라고. “개척단도 아직 안 끝났는데 배급을 안 주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냐,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 사람 강제로 잡아다놓고,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준다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밀가루가 우리보다 홍성에 더 빨리 도착한 거야. 배급을 주로 감독관 부정이 많았어. 우리한테 한 30%정도 밖에 안 돌아왔어. 70~80%는 중간에 다 빼먹고, 그 때는 지금 같지 않아. 부정축재가 많아. 한 동안에는 한 집에다 밀가루를 너무 많이 쌓아서 방 안에 드러누울 데가 없던 적이 있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와서 싹 다 실어 가버리면 한 톨도 없는 거야. 그런 황당한 일도 많았어. 며칠도 안 돼서 한 포대도 못 뜯은 상태로 다 가져가버리나. 그리고 면직원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배급도 주고 우리 일을 시켜라. 차라리 그게 낫다, 이제 우리 민주화 됐으니께.” 그러니 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배급을 하는데, 리어카에다가 돌 같은 것 싣고 가면, 몇 퍼센트씩 일했다는 도장을 찍어줘. 그런데 확인 해주는 대로 하면 굶어죽기 딱 좋아. 작업량이 한 두 리어카 정도 하면 하루 일과가 끝이여. 그거 갖고는 밀가루 한 두 뿔박 정도밖에 안 돼. 애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어. 그러니까 유령 도장을 만들어서 열 리어카씩 스무 리어카씩 하는 거라. 여기 나가고 없는 사람들 도장을 파서도 하고. 자기들도 때 먹으니께 말을 못하더라고. 그 때 우리가 사는 게, 꼭 하루 살이들 사는 것 같았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런데 난 단순한 데가 있어서, 밖의 사람들이 그 때 당시에 눈이 열다섯 마지기 있으면 소도 있고 부자더라

고. 논이 열다섯 마지기면 3천 평이고 우리한테도 3천 평씩 분배를 해준다니까 저 논을 개척하면, 나도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

밀가루를 쌓아놓았다가 다시 가져갈 때 ‘우리 것을 왜 가져가냐’ 생각은 안하셨어요? 면사무소고 뭐고 그 때는 전부 도둑놈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가보다, 이렇게 왔다가 그냥 바람만 쐬고 가는가 보네. 그런데 먹을 거나 좀 남겨놓고 가져가지.’ 한 포대만 남겨놓으면 그게 일주일 먹을 건가보다. 그렇게 한 포대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버려. 내가 언제 한번 인계받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뭘 밀가루가 이거 왔다가 그냥 가냐고. 그 간부들은 여기까지 갖다 놓고 인계시켜주면 그만이어. “아니 밀가루가 밤새 스물 몇 푸대씩 들어왔다가 왜 아침만 되면 없어? 왜 다시 나가냐?” 하고 물어왔더니 “응, 그거 당신들 여기 지금 보리쌀하고 쌀 먹지?” “먹는다”고. 그걸로 바꿔다 주는 거여. “그런데 너무 적게 바꿔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 하루에 2홉 5작이 나왔는데 그게 줄어서 나오는 거라.

민주화 되고 난 뒤에요? 민주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직접 밀가루 타오니까, 거기서 밀가루 업자가 와서 직접 쌀하고 바꾸고 그랬어. 돈으로도 가져오고. 밀가루 가져가서 돈으로 달라고. 민주화 되고 보니까 얼토당토않게 하루 일하면 일주일 먹을 게 생긴단 말여. 그렇게 많은 거야. 개간할 동안 밀가루가 한번 딱 중단이 됐어. 면사무소에서 이제 안 줘도 된다면서. 유병갑 씨라고 면장이었던 거 같아. 그 양반이 친목회장 했었는데, 깜짝 놀래서 “안 된다, 아이고 지금 줘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인데, 끊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되나? 여기서 친목회장이라도 중앙에서는 말단이지 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무식해갖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 동네에 쓰리쿼터가 있었어. 그 트랙에다 애들 마누라들 우리들 다 싣고 가서 보사부 앞에 가서 다 풀어 놓은 거여. 보건사회부 장관 만나자고. 우리 가니까 코도 시큰 안혀. 기자들이 막 모여서 저

거[취재]하니께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야당 기자들, 여당 기자들 다 왔지. 그 기자들 커트시키고 다 들어오라 했지. 그래서 ‘야 우리는 비밀리에 사는 놈들이구나.’ 기자들이 또 안 가더라고. 그 때만 해도 경찰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떼어버리더라고. 그 때 들어가 있으니께, 보건사회부에서 국밥 한 그릇씩 사주더라. 밥도 안 먹고 온 거 아니께. 그래서 아침 되니께 대변에 옮겨주더라고. 장관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 내가 따져보면, 미리 갖다놔 놓고, 홍성서 아직 도착도 안했는데 준 거 같아. 진짜 참 높은 사람 입김이 엄청나구나, 우리가 다음부터 우는 소리 할 때는 면에 찾아갈 거 없다, 보건사회부로 가자. 서울 가서 하자. 알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사정할 거 없다.

보사부에 한번 갔다 오신 뒤로는 밀가루가 잘 들어왔어요? 밀가루가 개간할 때까지 주는데, 모 심은 거 저그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도, 논이 3천 평이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모가 살아있으면 안 주더라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빨리 그 사람들 개간해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없냐고 하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그냥 안 된 것도 됐다 해놓고 안준 거여. 그 실적이 인제 높아지니께, 밀가루는 안줘도 되겠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와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올리는 대로. 면사무소에서는 저그들 채근을 자꾸, “왜 너그들 그 사람들 밀가루 들고 가는데 실적이 없냐”, 하니께 그냥 뭐 10%만 살아있으면. 그래갖고 뭐 개간 된 놈이건 안 된 놈이건 뭐 다 끝나버렸지.

그 때부터 아예 정부에서 나오는 건 다 끊긴 거예요? 그렇지,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우리가 이제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거여.

그게 분배 전에 그렇게 되신 거죠? 그렇지. 분배 전이지. 그리고 그거 딱 되니께 분배가 딱 되더라고, 그냥.

분배가 68년쯤에 됐다고 하는데 민주화 된 후 분배되기까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조직을 없애고 일반인들 사는 것처럼 생활지도자도 뽑고 우리가 마을 이장 식으로 만들었어. 이제 밀가루도 다 끊어졌으니깐, 사회 나가서 품 팔아서 사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당구를 잘 쳐서 당구장에 가서 각기다마[내기당구] 쳐가지고 몇 푼씩 벌어들이다가 애들하고 먹고 살고, 개간했어. 옛날에는 해수욕장에서 새끼줄 쳐놓고 세를 받기도 했어. 만리포에 가서 새끼줄 쳐놓고, 파라솔 쳐놓고 세받아서 살곤 했어.

여기서 일하시는 걸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살지. 여기서 일해 갖고 뭐 썰이 되나. 안되지.

일을 하실 때 60년대 초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분배가 되어서 내 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내 땅이 될 거니까 진짜 그 때는 죽자 살자 열심히 했지. 그런데 분배받아갖고도, 분배증만 있지, 논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등기는 없으니까, 분배받아서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저기 소금바닥이고, 전부 간기가 다 있으니까 저 바닷물이 저 앞에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땅 형태가 ... 지금은 다 옥토가 됐지만, 그 때는 그 논은 반듯이 만들려면 혼자서는 몇 년 세월을 해야 돼. 형태가 없으니 놀리는 사람도 있고, 빨간 풀만 잔뜩 나있고, 전혀 농사 지어먹을 것 같지 않은 땅이었었어. 그 때 우리가 단체생활하면서 논둑도 세워놓고 수로 같은 것도 만들긴 했지만 당장 수확은 절대 안 되지.

9. 남겨진 수기와 미방송

수기를 썼던 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오래된 얘가지. 김○○라고 참, 우리들 중에서는 최고 인텔리였었어. 대학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캠핑 나왔다가 사고를 쳐갔고, 여기에 붙들려 온 거여. 그 때는 뭐 웬만한 것들은 사회에서 좀 이리이러하면 잡아다 났으니께.

1기, 2기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네요? 4기, 5기까지 있었겠지. 우리들이 잡아오는 거야.

어디 가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응, 직접 가서,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형사들이 리스트 인물을 넘겨주면 잡아서 넘기는 거야. 자기들(형사들)이 모자라니께. 간부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지.

아 여기서 단체생활 하시면서 그것도 하셨던 거네요. 후반기에는 직접 가서 잡아오신 분들이 잡혀오는 분들보다 더 많았어요? 잡혀오는 사람들이 많았지. 간부들은 몇 명이나 되나? 안되지.

김낙규라는 분도 ‘민주화’ 전에 잡혀 오신 거예요? 개가 한 3기정도 될겨. 작년에 당뇨병으로 죽었대. 사촌동생이 여기서 살고 있어. 개는 인천에 저그 집도 부유한 집안이야. 민주화 되고도 아마 한 5년 살았을 끼야. 그러다가 갔는데, 개가 단체생활 할 때, 몰래몰래 수기를 쓴 거여. 내 기록도 거기에 술하게 들어있어.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 몇 다 넣고 다 썼어. 맞아서 죽어서 나간 거, 이런 거 다 썼어. 배고픈 거, 이런 거 다 썼어. (책 두께가) 한 이정도[10cm 가량이라고 손으로 만들며] 됐었어. 그래갖고 그걸 다 정리해갖고 책자로 만들어갖고, KBS에 보냈는데, 퇴짜 맞았다고. 그거 안 된다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더라고. 현재의 저거[상황]는 믿을 수가 별로 없고, 또 이걸 사회에다가 발표를 할 수는 없다. 그 때 공화당 정권이지? 박대통령 정권. 정권이 바뀌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한 번 보내보라고. 그런데 정권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그것들. 괜히 거 써갖고 종잇값만 없었어.

그걸 보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거 노다지[늘] 봤지. 개가 읽어주고, 다 듣고. 오늘은 이렇게 썼는데 어떠냐, 빠진 게 있으면 옆에서 또 거들어주고. 우리 과거사

부터 그걸 다 여기에 썼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개척단이) 창녀들하고 결혼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KBS에서 안 해준 것 같아. 창녀 잡아다가, 225쌍 합동결혼식을 시켰는데, 그 때 사실은 대외적으로 다 누구하고 결혼해라 누구하고 결혼해라, 몇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때는 뭐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여자 생각하고 남자 생각이여. 여자는 무조건 시집가면은 도망갈 수 있느냐 생각만 했어.

10. 합동결혼식

225쌍 합동결혼식, 125쌍 합동결혼식, 두 번 있었어. 125쌍 합동결혼식은 여기 운동장에서 하고, 225쌍은 서울 워커힐에서 했어. 그것도 옛날에 윤치영 서울시장, 그 사람 주례 하에 워커힐에서 했어. 그게 말하자면 순전히 전시효과로. 버스가 말야, 서산 역사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긴 처음이여. 225쌍을 싣고 갈려니께. 도로가 있나? 우리가 그거 버스 오기 전에 도로 내느라고 얼마나 혼났는 줄 알어? 난 그때 총각이여. 마음이 있는 놈이고, 없는 놈이고 이렇게[줄지어] 짝지어 놓고 그놈하고 해야 되니께, 그 때 결혼식 해가지고 [계속 같이] 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여성분들은 도망간다는 생각만 ...? 응. 재수 좋은 여자들은 간부들한테 시집가면 다문[다만] 밖에라도 잠깐 휴가증 끊어서 나갔다울 수 있었어. 그런 식으로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 다 그런 사람들이 한 1년도 못돼서 거의 없어진 거야. 다 나가버렸어. 다 홀애비 됐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울에서 합동결혼식 한다고 대대적으로 내려오셨는데 ... 그렇지. 다 모르니까 그런 거여. 나도 서울시청에서 윤치영 시장할 때, 합동결혼

식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하고 1년 못 살다가 임신을 했어. 임신 8개월째 됐는데, 그 여자가 대전에서 여관도 하는 굉장히 부잣집 외동딸이야. 부모들이 한번 찾아왔는데 굉장히 반대하더라고. 강제로 잡아다가 무슨 결혼까지 하나고.

그 분도 서울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괴로움이 그거지.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억지로 한 거니까. 그 여자가 나를 찍어갖고 한 거야. 나는 그 때 장가 들 나이도 못되고 장가 안 들라 그랬는데 ...

그 때 몇 살 쯤 되셨어요? 스물 두어 살이나 한 살밖에 안됐지.

합동결혼식 하실 때, 결혼식 하시기 전에 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그렇지. 여기서 같이 생활 하니까 보지. 본래 여자는 이쪽 막사에 있고 우리는 이쪽 막사에 있고 뭐 지나다니면서 보지 안 보나.

여자 분들도 한꺼번에 여기로 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양평 같은 데 저런 데서 부녀보호소 같은 데서 걷어 갖고 ... 225쌍이니깐 뭐 300명도 넘게 있었다는 이야기여.

그 분들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 여자들도 다 강제로 왔지. 그래서 [나랑 결혼식한 여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는데, 어느 날 외출증 끊어갖고 시장 간다고 가서 안 오는 거. 민주화되기 전이지. 뭐 갔는가보다 하고 하지, 내가 뭐 신경 쓸 거 뭐있어?

찾을 생각은 안 하셨구요? 찾을 생각을, 내가 나갈 수 있나, 찾게?

그런데 그 외출증이란 게 여자 분들한테는 끊어줬어요? 그랬었지. 몇 명 거 여자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인솔해서 갔다가 인솔해서 오는 거여. 그 중에서도 남자 중대장 하나가 또 따라와. 그런데 여러 명이면 한번에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안 오지.

11. 부인과의 연애

사모님과 연애는 언제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축구부에 있으니까 유니폼, 츄리닝을 편물점에서 떼서 입었어. 츄리닝을 뜨러 갔는데, 다른 아가씨는 다 인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고개를 들질 않아. 주인이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된다고 그래도 안하거든. 얼마나 여자가 거만하냐고, 왜 인사도 할 줄 몰라?(웃음) 그래서 어떻게 한번 꼬셔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몇 번 댕기다가 이제 절로 얼굴이 익혀졌지. 이름이 장교수야. 학교, “인정초등학교[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 운동장 가운데서 내가 오늘 저녁에 8시까지 기다릴테니깐 8시까지 나와라, 안 나오면 너그 집으로 쳐들어가니깐.” 하고 아가씨들 다 있는데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여. 8시면 되게 깜깜혀. 집 앞에 가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교수야!” 집도 다 알아봤지.(웃음) 맨발로 뛰어나와서 입을 틀어막는 거여. 집에 사랑방 있고, 자기 방이 따로 있는데, 막 입 틀어막고 사랑방에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 집도 인지면이었어요? 응. 산동리 1구가 처갓집이었어. 왜 이러냐고, 연애할라고 그러냐고 하는걸 아니 그냥, “나한테 오빠라고 해.” 그랬어. “우리 오빠도 있고 ...” 그런 고집이 세서 안 한다. 그런데 왜 남의 외간남자 입을 틀어막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소리 지르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 집에 난리난다고.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꼭 나와라. 내일 저녁엔 7시다. 안 나오면 느그 아버지 앞으로 찾아간다. 느그 아버지한테 너 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럴 거다.” 해서 만나기 시작했지. 이제 나오게 된 거야. 나와서도 겁나니깐 손도 못 잡게 하고, 맨 시골 처녀 그대로야. 막 수줍어하고. 그래서 우리 처 때문에 [같이 일하는] 다른 아가씨들까지 호강했지. 내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서산에 극장도 구경시켜주고. 혼자 가면 겁나서 안 따라오니깐. 어느 날은, 내가 아가씨들 다 데리고 다닐라니 돈 드니깐, 너 혼자만 나와라, 이제 살살 꼬셨지. 총각 때니깐, 그래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막사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저거 해[열악해]. 자기가 집에서 된장도 고추장도 퍼다주고, 반찬이 없으니까 김치도 갖다 주고, 쌀 떨어지면 쌀도 넣어다 주고.

사모님이 단체생활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지. 막 민주화 딱 됐을 무렵이여. 굉장히 어려울 때여.

윗동서 분이 가재도구 다 마련해주셔서 신집살림을 차리시고, 결혼식은 언제 하셨던 거였어요? 집에서 사모관대 쓰고 처갓집에서 정식으로 하라고 했어.

첫 자체분 냐으시고 하셨어요? 아니 배불렀을 때지. 집에서 하고 예식장에 가서 또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여기 살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후배들, 선배들 다 돈 걷어가지고 예식장 해주고, 그래서 살았는데 참 우리 마누라도 마음고생 엄청 했어. 결혼식 하는 날, 마누라보고 먼저 집에 가있으라 하고 나는 애들하고 술 한 잔 먹는다고 한 3일 만에 집에 들어왔어.

결혼식하고 바로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혼자 기다리시는데 배도 불러계시는데 ... 겨울인데 참 난감하지. 옆집 아주머니들이 연탄불도 피워주고, 밥도 다 해주고 했더라고. 참, 세상에 살아온 게, 내가 너무 마누라 고생도 많이 시키고 울어가지고 눈이 텅텅 부어갓고 있는데 참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고.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참 너무 모르고 산다’

결혼하시고 처음 가족이 생기신 거네요. 가구 같은 건 없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돈도 없고 내가 벌어 놓은 것도 없고, 결혼이라고 그냥 처갓집에서 다 대서 한 거여. 신식으로 하는 거는 동네 선배들, 후배들이 이제 돈 걷어가지고 하고.

그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부모 ... (울먹임) 내가 친구들한테라도 내가 산동리 가서 결혼식한다고 이야길 했어야 했는데 나는 [처

가에서 하는] 그 식이 바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 모르고 갔는데 다 차려놔 더라고. 차일 쳐놓고 닭, 사모관대 갖다놓고 다 했더라고.

옷만 갈아입으면 되게 딱 준비가 돼 있었군요. 옷을 동서가 입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했으면, 그냥 이런가보다 했을 텐데, “자네는 형제간도 없고 핏줄은 하나도 없나?” 그 소리를 하는데 말야, “당연히 없는 거 아니오.” 해놓고도 생각을 하니깐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여. 결혼식이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이렇게 ... 나도 합동결혼식 할 때는 진짜 아무 것도 몰랐어. 그거는 내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거 하는데[상관 없는데], 그 때는 참 눈물 나더라고. (울먹임)

친구 분들도 결혼식 하는 걸 모르셨던 거군요. 못 봤지. 나중에 “결혼식 하고 왔어” 하니께 참 친한 친구들인데 양재만이라는 친구가 “결혼식하면서 말해 주지도 않고” 하니 나는 “결혼식 하는지 몰랐다. 가서 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예식장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 한다”고. (눈물을 훔침) 이제 애들이 그 소리 듣고 미안하니께 ... 내가 미안하지 저그들이 미안한가. “친구가 돼갖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하고. 한 방에 같이 자고 했던 애들이니까 저그들이 나가서 영철이 장가들어야 된다고, 결혼식 있다고 십시일반으로 모았어. 그 때만 해도 우리들이 다 하루살이 인생이니께, 내일을 걱정 안하던 사람들이니 돈 있는 대로 다 내놓지 뭐. 그래도 그 때 돈으로 몇 만 원 되더라고. 예식장 가서 마누라 데리고 그 가족들도 다 오라 해서 거기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마누라하고 택시 태워서 가라 그러고, 거기서 술 먹고 3일간 놀다가 집에 오니까, 난 저그 집에 가있는 줄 알았지 우리 집에 와 있는 줄 몰랐지.

결혼식하면 이제는 같이 산다는 생각을 못하셨던 거네요? 그런 거 몰랐다니까. 난 저그 집에 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정리를 해놓고 집에 데리고 오는 줄 알았지. 집에 마누라 데리고 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서산 건달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형수 생겼어, 이거 돈 있어야 되니까 돈 좀 내놔라.” 그러니까 돈 좀 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와리바시[나무젓가락] 공장 하는 어떤 형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거여. “장가들었냐? 아니 왜 형한테 안 알렸어.” “아니 나도 모르고 (장가)간 놈이여. 돈이나 좀 달라.” 그러고, 좀 받았어. 손○○ 씨라고, 서산시의회의 부의장 했던 그 사람도 같이 오고, 그 사람들은 사회에 있을 때부터 나를 잘 알고, 그 사람들은 법률공부를 해갔고, 똑똑한 사람이여. 형무소 가갔고, 대학교수들 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 거여. 대학교수들한테 배운 거여. 그 대학교수들 머리를 다 담아 온 거여. 정치범들 있잖아 왜, 억울하게 교수들 그냥 막 잡아가고 할 때, 자기가 감방장 하면서 그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방으로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재여. 머리가 참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아주 번듯하게 살아. 똑똑하고, 말도 기막히게 잘혀. 그 사람들은 아주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고 굉장했지. 서산의 유지급들 다 오고 그러더라고.

결혼식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첫 자식 낳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딸을 낳았는데, 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더만. 내가 가족이 생겼다, 이게 내 유일한 핏줄이다, 그 생각 하니까 말여, 정신이 번쩍 나고 말여, 잠도 안 오는 거여.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 이제 막 몸뚱이로 부딪쳐서라도 어떻게든 ... 가족이 생기니까 굉장히 내가 살벌해지는 거여.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 치사한 짓도 무지 하지. 버스 타고 당기는데, 돈 아까워서 버스비 그 걸 못내는 거여. “돈 없어.” 그러면서 타고 내리고, 그래도 [기사가] 말 안했어. 노름하는 애들한테 번 거 절반 씩 뺏고 첫 애 낳을 때는 그랬지. 둘째부터는 이제 순전히 내 힘으로 버는 거야.

둘째 자제분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두 살 차이니까. 이제 저런 데 가서 어장도 하고, 바닷가도 땡기고, 돈 되는 거라면 찾아땡긴 거여, 뭐 남이 안하는 거.

12. 남산1호 터널 공사

또 다른 일도 하셨어요? 남산1호터널 뚫을 때, 거기 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⁶⁾ 일했어. 벌어갓고 와야 애들하고 먹고 살지. 가족이 단 둘이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는 걱정도 안하고 살았지. 마누라 생기니까 또 걱정되지, 애들이 생기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 노가다판에 가서 거기서 온갖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일하는데 맨날 거긴 뭐 싸움 투성이여. 약한 사람은 못 있어. 나 그거 다 헤치고 거기서 감독관도 하고, 반장도 하고, 한 1년 동안 돈 벌어갓고, 그래서 땅 안 팔아먹고, 안 떠나고 여기서 살고. 난 저 땅을 꼭 지키려고.

남산터널 공사 때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거기서 일 잘하고 있는데 어떤 건달이 있었어. 콘센트가 죽 있어서 한 막사에 한 50명씩 자는데, 전국에서 다 모였지 뭐. 아 그런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여. “나 좀 건드리지 말어. 나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그냥 막 덤비네. 내가 다른 사람들 보는데서 때려 눕혔어. 그 사람 따르던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하루아침에 감독이 되더라고.

감독은 거기 계신 분들끼리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감독을 하라고 하던가요? 위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픈데 ...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가고 그랬대. [간부가] “그래 이름이 뭐요?” 하더니 감독하라고 [했어]. 그 때도 이름을 안 썼어. 정영철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항구요 내 이름이.” 지금은 뭐 어디 [일하러] 가면 주민등록 뽑고 하는데 그 때는 다 도망 다니느라 그런 거 없어.

인원은 어느 정도였어요? 작업이 나뉘어져 있었겠네요. 그 안에 몇 백 명 되지 뭐. 나는 콘크리트하고, 철근팀 있는 데서 감독했어. 감독을 하니깐, 덕 보는 게

6) 1969년 3월 13일 착공, 1970년 8월 15일 개통.

밥값 안내는 거 하고 돈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조금 많더라고. 그런데 철근 자르는 아우 하나가 여기[서산]에서 먼저 가 있었는데, 개가 “형님 그거 때려치우고 나하고 철근이나 자릅시다.”, 하루에 몇 통 자르면 다섯 명 뭇을 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독관 그만두고, 소장한테 “여기 철근 자르는 데 가서, 철근 자를 테 니께, 단가나 잘 해주세요.” 했지.

철근 자르는 것도 다 터널공사에서 하셨던 거죠? 기술이 없어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철근 자르니께 돈이 얼마나 잘 벌려? 기술자들이 자로 딱딱 채줘. 자르는 자리를 분필로 다 표시해줘. 그제 지금은 기계로 다 자르지만 우리는 오합마[大ハンマー, 망치보다 큰 해머]로 때려서 자르는 건데, (손으로 두꺼운 두께를 만들어 보이며) 팔들이 이랬었다니까, 만날 그것만 하니까 그냥. 철근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남산터널 철근 넣은 건 내 손으로 다 잘랐어.(웃음) 하루에도 몇 천 개씩 잘랐어. 잘라놓으면 기술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여. 자기들이 쓸 거, 이걸 몇 센치에 얼마 잘라라 하고 다 해[잘라]놓고 세워놓으면 다 가져가버리니까. 그 때 창피한지도 몰랐어. 팬티만 입고 남산 야외음악당 앞에서 잘랐으니까. 거기선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 몸은 새카맣지 이빨만 하얗지 뭐. 내 손으로 돈 벌 어본 거는 그게 처음이여.

버신 걸로 생활비하고 집에 다 보내주시고 남는 것도 있으셨어요? 그렇지. 그 때는 봉급 딱 받으면 그 이튿날은 가지고 집에 오는 거여. 집에 현찰로 갖다줘야혀.

서산에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서울서 밤에 출발해서 아침이나 낮에 홍성에서 차타면 [서산에] 저녁때쯤 도착했어. 그 땐 아침에 출발해도 저녁때나 돼야 도착 하니까. 어두워지면 집에 와서 마누라도 슬쩍 보고, 새벽에 첫차타고 다시 가고 그랬어.

봉급이 월급으로 나온 거예요? 월급이지. 그런데 내가 일하는 양에 따라서 나오

니께. 우리가 무식한 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몇 루베(1m³의 현장용어)를 잘랐으니까, 몇 톤을 잘랐으니까 얼마다, 계산이 다 나오는데, 그때는 소장이 “야 오늘 느그들 10톤 자르면은 몇 대가린 줄 아냐? 그렇게 대가리 숫자로, 열 대가리다.” 그러면 그만큼 나눠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착취를 당했는지, 우리 세 명이서 했는데. 옛날에 ‘007백’이라고 가방 조그만한 거 있었지. 그 사람들이 전표를 해 주면 그 ‘007백’으로 외환은행 가서 돈 찾는 거야. 그 때 만 원짜리도 없고 천 원짜리 밖에 없으니, 천 원짜리로 “하나요!” 아, 돈 가치 있을 때여. 우리 [공사장의] 하루 일당이 450원인가 했어. 그 최고 단가가 그랬어. 지금 생각으로는 하루에 5천 원씩은 벌은 것 같어. 그걸 하나까 참 재미나더라고. 내가 그때도 딴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그걸로 풀렸을 지도 몰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쉰 살 중년 썸 된 사람이 깨끗하게 생겼는데 노가다장에 왔어. 우리들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우리들한테 참 잘 따르더라고. 뭐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지방에서 무슨 사기치고 들어온 사람이여. 내가 추접스럽게 사기나 치고 돌아댁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 일이 있어.” 자기의 아니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노가다라는 거는 참 급할 때 한번 거치고 가는 거지, 노가다에 맞 들리면 평생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혀. 그게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니.

13. 서울과 수원에서의 양말장사, 옛장사

그럼 터널 공사를 2년 정도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1년 조금 더 있었어. 그 뒤 ‘석산양말’⁷⁾이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양말장사 같은 거 해봐라” 그래서

7) 1950년대에 나온 나일론 양말 상표. ‘기적의 양말’이라고 불림.

“가게가 되냐”고? (그랬더니) 앞에 거기다가 펴놓고 해도 잘된다고. 청계천, 종로 일대에 친구들이 있어서 한 명한테 “야, 너 내가 노가다만 해선 안 되겠고,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양말장사 하면 돈 잘 벌린다더라,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양말장사 그거 코 묶은 돈 뜯는 거여.” “코 묶은 돈이어도 내가 벌어 먹는 돈이여. 한번 해보고, 부닥쳐 보고 아니면 말아야지.” 하고 양말을 떼러 가니까 그 친구가 한 3천원인가 5천원인가 돈을 좀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떼러 갔어. 양말을 몇 켤레씩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관으로 주더라고. 무지하게 많아. 그걸 가져다가 아주머니들 고용해서 여인숙 방에서 다 다려가지고 라벨을 붙이는 거여.

라벨도 안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 떼오신 거네요. 안 붙은 상태로, 관으로 보내더라고. 어른 거, 애들 거, 이렇게 다 골라와서 수원 팔달로 무슨 약방 앞인데, 터가 참 좋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더라고. 거기서 펴놓고 파는데, 장사가 한참 신나지, 기분이 금방 다 팔 것 같더라고. 막 파는데, 약방 주인이 나오더니 그걸 발로 다 걷어차부러. 막 속이 뒤집히는데, ‘참아야 한다 참아야지, 내가 돈 버는 건데 참아야 한다, 참아야지’ 하는데, “아저씨, 나 여기 잠깐만 있다가 할 테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그 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니까 나도 험악했어. “이 자식이 인상도 더럽게 험악하네?” 하는데 나랑 같이 있던 후배가 “아 형님 하지 말라”고. (바지를 잡으며) 나보다 더 철든 거지. 고등학교도 댕긴 아이여. “참 아저씨, 하여튼 간에 이거 펼친 거니까 ...” 개는 막 걷어찬 거 주워 담는데, “요거 팔 동안만 아저씨 참아주소. 우리 역전에 간다”고. 그런데도 아, 이 사람이 계속 약 올리는 거여. “야! 이거” 하면서 걷어차고. “너 이 새끼 너희 약방 가” 내가 막 끌고 들어가서 때려놓고 보따리 싸서 역전으로 와서 하는데 형사들이 우리 잡으려고 왔더라고.

약사 때린 걸 알고 ... 응. 사정 이야기를 했어.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는

데 거기 사람들 다 봤다. 그 사람 너무하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도 모르게 저리 했는데, 형 한번 좀 용서해주면 안되겠냐. 당신이 못 잡았다면 될 거 아니냐.”하니깐 “딴 사람한테는 잡히지 마라”하고 갔어. 순사가 사람 참 사람 좋더라고. 이제 역전에서 [장사] 하는데,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을 몇 만났어. 수원 도청에 터널 공사하는데 댕기라고 하더라고.

수원에서도 터널 공사하는 데가 있었어요? 응. “너 남산터널 있었다며?” 그래서 “내 거기 있었어” 했더니. “너 거기 터널 공사 하는 데 거기 가서 일해라.” 남들 터뜨려놓으면 돌 주워갖고, 토차 안에다 싣고 밀고 댕기는 거여. 그거 실어서 하는데 “그거 한 통에 얼마씩인데?” 그러니까 월급떼기래.

일의 양에 상관없이 월급이 정해져있는 ... 응. 월급제여. “나 그거 안혀, 월급제면 못혀, 나 양말이나 팔려.”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꼭 취직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비를 하래. “경비 하는데 얼마 주느냐?” 했더니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거야. 옷만 멀끔하게 좋은 거 입고 있지. “나 그거 안 한다. 양말 장사해도 하루에 저거는 벌겠다.” 하고 저녁에는 양말장사하면서 수월해지니 앞에서 엇장사를 보니께, 깨엿을 파는데, 저런 식으로 파는 것보다도 술집 같은 데 가서 팔면 더 잘 팔겠더라고. 그래서 깨엿을 어디서 떼냐고, 나한테 너그들이 떼는 가격으로 좀 떼라고 했지. 하나하나 시험을 하나 해보고[팔아보고], 잘 되면 너그들한테 넘겨줄게 하고서. 그러고 한 바구니를 떼어다가, 술집으로 죽 댕기면서 술집 마담들한테 “아주머니, 한 가락 당신 먹고, 한 가락 당신 팔아줘.” 하며 한 열 개씩 갖다 맡겼어. 한 개에, 20원, 30원인가 그 정도 했을 거여. 우리가 떼는 데는 5원 정도고, 한 다섯 배 정도 남더라고. 저녁 때 8시쯤 돼서 수금하러 가면 싹 다 팔았어.(웃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갖다 달래. “예, 아이고 아주머니들 술 한 잔 사줘야 겠구만.” 하고 술도 팔아주고, 저그들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지. 술집마다 다 댕기는데, 그걸 또 터치[방해]하려는 놈이 있네? 그 골

목에 있는 건달, 그건 건달도 아니야. 양아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 벌었니? 얼마 내놔라.” 그래. 싹 무시하고 또 한 며칠 하니까 또 술집마다 땡기면서, 못 갖다놓게 한 거야. 한 며칠 가니까 [마담들이] “아이고 안 된다”고 그 놈들 와서 여간 난리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아내서 보니 역전에 돌아다니더라고. 딱 잡았지. 한쪽 귀통이에 데리고 가갖고, “나는 내 밥그릇 뺏는 놈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용서를 못한다. 너그들 죽어야 돼, 나한테.” “아주 까불고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여. 저그들은 꽤거리고 나는 혼자니께 알봤지. “이 자식들아 맏집 하나로 이 세상을 버텨온 놈이여.” 내가 때려눕혔어. 장사도 다시 시작하고 엇장사하는 애들도 나 때문에 돈 벌었지. 저그 떼어와갖고 나한테 또 떼어주니께. 그런데 엇장사도 건달 애들이 생기는 거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하다가는 해코지 당하게 생겼어. 우리 갓난 애기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여. ‘내가 이거 계속 하다가 당하면 마누라랑 애들은 어떡하나, 그만하자, 접자. 내가 좀 벌어들인 게 있으니까 농사 짓자.’

14. 개간 마무리 및 토지 분배 문제

다시 서산으로 오신 거네요. 아마 한 3년간 떠돌아댕겼지. 와서 본격적으로 내 땅 개간하기 시작했어. 농사를 지을라니께, 농사 자금도 없고. 거기서 벌은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당분간 먹어가면서 개간을 하기 시작한 거여. 그 때 일하면은 보건사회부에서 밀가루는 계속 줬으니까.

수원 갔다 오셔서 본격적으로 개간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네요. 거기서 잘되면 마누라 데리고 나가서 살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여기 [서산]에서 커서 서울에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적응을 못혀. 그래서 다시 여기 온 거여. 애들도 자

잘하고, 어디 가서 집을 찾을 돈이 있나? 셋방살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놈들은 살다가 주인한테 쫓겨났다고, 애들 데리고 쫓겨났느니 어찌니 그런 소리 들으니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여기서 노력하면 뭐 끝이 보일 테지.

개간을 혼자 하셨던 거예요? 한 다섯, 여섯 명이 그룹을 짜갖고 저그들 서로 품앗이를 한 거여. 오늘은 누구네 가서 일하고, 그놈 하나 끝나면 하루쯤 해놓고 또 하나씩 끝나고 옮겨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다 일하기 싫으면 다 떠나야 될 놈들이여. 그 때까지만 해도 개척단하러 온 우리 동료들이여. 개간을 다해서 그 위에 모를 심었는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비전이 없는 거야. 주위 사람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집에 갈 차비만 되면 다 팔고 갔어. 개간을 다 끝냈는데도, 벼가 돼야지. 찌물이니깐 물을 가둬 놓으면 짝어 먹으면 간장 같어. 아 그러니 사람들이 건널 수가 있냐고. 먹고 살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나가고 그래도 끈질긴 사람들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처남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콩두둑같이 만들어서 간기는 밀으로 가라앉으니까, 두둑으로 만들어서 심어보자 하더라고. 그래서 도랑에다가 콩두둑같이 만들어 놓으니깐 빨개 그냥. 그 간기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니 벼가 조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 1년 넘게 하니깐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잘되고, 한 4~5년 지나니깐 육답 뎡꾸로[처림] 똑같이 되는 거여.

그 두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논을 갈면, 우리 밭이랑 똑같이 하는 거지. 논을 그냥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밭두둑으로 만드는 거라.

이랑, 도랑처럼 독을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지. 도랑이 되게 양 옆으로. 그러니까 도랑으로 간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그 때는 경운기가 있나, 순전히 소로 갈고 그렇게 된 거지. 처남이 농사 좀 도와주니깐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지. 서산 같은 데 나가서 벌어갖고 와서 농자금 하고, 먹고 살고. 우리 마누라 나

하고 참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애들 공부시키는 게 최고 한이 돼갖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들은 공부 좀 시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 고등학교는 다 졸업시켰는데 우리 둘째 애는, 딴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저그들이 다 나가 버렸어. 그냥 집도 어렵고 하니께 저그들이 먹고 살라고. 우리 둘째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땡졌기 때문에 충대[충남대]에 합격했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여. 그 땐 기숙사도 없어. 그 때는 집이 안 머니까 기숙사도 차례가 안 오더라고. 방도 얻어줘야지.

아직 땅은 다 개척이 안됐고 사시는 분은 줄어서 일이 더 힘들셨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들었지. 거기가 365정보인데, 다 나가서 논을 열다섯 마지기씩 분배해주고 남은 거여. 그래서 일반인들, 여기 밖의 영세민들한테 반 정씩 나눠줬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해 갖고 나눠줬다고. 군청에서 알아서 한 거지. 그래서 참 어렵게, 참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 우리가 땅에 대해서는 내가 한이 남는 놈이야. 내 청춘을 바쳐서 만든 땅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고, 우리한테. 임대를 ... 지금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야. 임대료를 내라는 거야. 옥토를 만들어놓으니까. “거 대한민국 법이 무슨 놈의 법이 이러냐”고 우리 항의를 하니께, 개들은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인정은 하는데, 당신들 고생해서 만든 거 인정한다,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여. 자기들 좋은 법만, 자기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거여. 왜 우리 잡아갔다가 가둬놓는 법은 저그들이 보상 안 해줘? 난 그래서, 인권위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우리 논을 뺏아가고, 가져가고,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살은 거, 인권 대우를 해라. 하루에 2만원씩이라도 좋다. 그것만 해도 난 주체 못할 정도로 부자됐어. 하루에 2만원씩만 따져도. 안 그래?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제 와서 땅을 사라고? 지금도 그거 갖고 재판해갖고 지고, 그러니까 쪽수가 작으니까, 쪽수가 많으면은 데모하고 해서 대번에 분배됐겠지. 장흥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장흥은 다 분배받아갖고 저그들 다 잘 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무식한 놈들만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 동안에 뭐 특별조치법도 있었고 뭐 다 있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르고, 우리 땅이니께, 누가 뺏아가랴. 그것만 믿다가 뺏기는 거지, 즉 말하자면. 정부한테.

자연스럽게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자기 땅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분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서산군수 설 군수가, 설 군수에 몇 명 지방 관리들, 뭐 서장도 끼고 뭐도 끼고 다 끼었어. 그네들이 입회하에 저기다가 저그들끼 회의를 갖고 저그들끼리 나눠준 거지, 우리는 그 옆에도 못했어. 그냥 열다섯 마지기다 하고 3천 평, 그런데 그게 3천 평 되지도 않고 2천8백 평 그게 그 정도지. 그래갖고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이제 논은 360정보인데, 사람들이 한 100명밖에 안되네? 그러면 땅이 한 200 더 남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영세민들, 아무 개척도 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주위의 영세민들, 그리고 여기서 입김 좀 있고 한 사람들, 아 심지어는 유림인가 그런데서 무슨 재산으로 열댓 마지기 떼고 뭐 떼고, 하여튼 뺏 있는 놈들은 다 달려드는 거여.

개간은 개척단 오셔서 하셨는데, 되고 나니까 주변까지 다 나눠준 셈이네요. 그렇지. 그렇게 다 나눠준 거여. 그러니까 우리는 열다섯 마지기를 차지한 거여. 내가 우리가 왜 억울한 게 뭐냐면, 그렇게 줬으면은, 개간하고, 우리 것만 개간했나? 다 360정보 다 개간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땅을, 지금도 등기가 없고 우리가 지금 싸워서 노다지 재판하고 지고 하는데, 법은 정부에 좋아라 하는 법만 있고 우리한테 법은 없는 거여.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법이 우리들한테는 해당되는 법이 하나도 없는 거라.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강제로 잡혀와 갖고 그렇게 개간을 했으면 그걸 가분배라고 줬으면 그 동안에 특별조치법이니 뭐니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조치법이니 뭐니, 갇혀서 살은 놈들이 뭘 아냐고, 모르지 아무것도. 그런 것도 안 해줬고. 무사안일주의여. 공무원들 골치 아픈 거 안 하니까. 우리를 잡아서 일 시키고도 이 땅이 국가 땅이면 국가로 환원

하고, 우리가 여기서 노력한 품삯만 달라 이거야, 품삯. 하루에 만 원씩이라도 좋다 이거야, 지금까지도. 50년을 따져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라 이거지. 그래서 억울한 거야. 지금도 재판하고 졌다, 요새는 또 논을 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쪽수가 한 서너 명 밖에 안 되니까, 말할 건덕지가 없어. 어떤 변호사가 한 이한테 천만 원씩만 내라고, 3천만원 뭐 자기가 이겨서 무상분배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만. 뭐 그거, 참, 천만 원 말이 그렇지, 확실하게 이겨갖고 준다면 천만 원이라도 내놓지.

분배하는 과정에서 회의하는 것도 참가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들은 전혀 없지, 모르는데 뭐.

그냥 열다섯 마지기 주겠다고 결정만 한 거예요? 열다섯 마지기, 3천 평. 말은 거기 3천 평이라고 분배가 돼있는데, 재수 좋은 놈은 2천 9백 평, 재수 없는 놈은 2천 7백 평도 되고 뭐.

열다섯 마지기 썩은 원래 개척하신 분들에게 주고, 나머지 땅은 ... 이제 주위 사람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집도 여기 남은 거 그 사람들 또 주고. 지금 여기에 남은 집이 몇 채 있어 지금. 한 칸에 한 12평 되는데, 한 집이 두 집[가구]씩 살게 돼가 있었어. 부엌 두 개, 방은 두 개 씩 두 집이니까 방이 네 개지. 가운데가 딱 잘라져서 살게 돼 있어. 그럼 줄지어서 길다랗게 있는데, 분배과정에서 간부들은 좋은 데 차지하고. 간부들은 원래 저그들이 좋게 지어 놓고 살았으니까, 똑같은 모델인데도 안에는 시설을 다르게. 그리고 이제 간부들은 민주화되면서 다 가고 없으니까 인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남고], 남 늘 두드려 패고 하던 사람들은 더 빨리 도망갔어. 민주화되기 직전에, 눈치 볼 때 다 도망갔어.

분배할 때 계속 사셨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던 거였어요? 한 백 명도 못될 거야, 7~80명 그 정도 됐어. 열다섯 마지기씩 주고 남는 거는 이 저수지까지 둘

레가 전부 365정보여. 그 정도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지역 영세민들, 높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다 회사하고 그랬어. 그렇게 분배받은 사람들도 개간도 안 되지, 개간 안 되데다가 모 심고 밀가루는 끊어졌지, 이제 먹을 식량도 없지. 아이고 여기가 비전이 없었던 거야. 전혀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모 심으면 죽지,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대로, 고향에 갈 차비만 되면 다 팔고 간 거여.

감독관은 땅도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지. 땅이고 집이고 그런 건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좋았지 뭐. 한 채씩 살고 우리들은 건물 하나에 네 집이 살아. 방 하나씩만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동을 쓰니까 방 네 개에다가 부엌도 두 개고. 그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했지.

15. 공원묘지, 영안실 근무, 새마을지도자

개간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노가다도 땀겨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참 어려웠어. 나중에는 시의원 부의장 했던 그 형님 뺨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어. 그 때 그 형님은 시의원도 아닌데 그 뺨으로. 일단 임시지 뭐. 인지[면]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가서 근무를 하고 첫 봉급을 탔는데 수당까지 해서 한 이십 몇 만 원을 주더라고.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 기막히더라고. 노가다판 가는 게 낫지 그거 갖고는 도저히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83년도에 영안실에 가게 됐어요. 서산의료원 영안실을 서울 건달들이 와서 했어. 그 놈들을 쫓아내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너그들 오늘 철수해라. 내가 배가 고파서, 천상 내가 먹고 살만하면 너그들 안 죽겠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코도 실큰 안 하더만. 한 놈 잡아서 반 죽여놓으니께, “며칠 내로 나갈게요.” 해서 틈을 주면 안 되니까

“당장 나가.” 그러니까 서산 건달들이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영철이 왜 그러오?” 이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들 미안해요. 나 좀 봐주세요.” 했고 손○○ 씨가 “먹고 산다는데 뭐 너그들 그러냐?” 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도와주고 기관에서도 인정해주고 사고뭉치가 사고 안치고 잘 사니께 되더라고. 거기서 늙을 때까지 일했지. 영안실 관리하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 먹고 살았어. 몹쓸 것들은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서산에서도 하셨었어요? 내가 한 10년 새마을지도자를 했어. 그 때 전두환 시절이야. 새마을지도자가 참 일이 많았어. 노다지 지시받고, 지시하고. 그런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놈이 그것만 하나. 내가 새마을지도자 못하겠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너밖에 책임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좀 해라”해서 한 10년 가까이 했어. 새마을지도자 한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일 땀겨가면서.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개척단 조사가 된 적이 있다면서요? 진상규명위원회 그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이 이야기의 한 반은 했어. 그 사람들도 나보고 언제 한번 책으로 내보라고 그러더라고. 책은 무슨 책이야. [웃음] 내가 성공을 했어야지 책 내지. 그 때도 내가 총 맞아 죽었다는 사람⁸⁾, 그 형이 농축반에 가 있었어. 기억이 좀 있는데, 확실하지도 못하고, 여기는 총 같은 건 없었으니께 총 맞아 죽은 건 아니고 맞아서 죽었지. 그 사람이 여기서 살기는 살았던 것 같아. 살기는 살았는데, 엉뚱하게 총 맞아 죽었다고 자꾸 이 사람은 우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했지. 맞아죽을 수

8) 진화위 2009년 보고서,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참조.

는 있어도 ... 도망가다가 잡히면 거의 뭐 안 맞았다 해도 한 서너 달 드러누워 있고, 그 안에 죽으면 태극기 하나 덮어갖고 그냥 거적떼기 뚝뚝 말아갖고 ... 위 에다 태극기는 왜 또 덮냐고. [웃음] 태극기 덮어갖고 저기 가서 산에 갖다 묻어 버리고 그랬어.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 떡 꽂아놓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꽂아놓잖아 거.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 때 그럼 결혼하셔서 지금 사모님이 사시는 동안 제일 힘들셨던 때가 ... 그 때가 최고 힘들었어. 한 결혼하고 한 우리 둘째 놓을 때까지. 그 때까지가 둘째 놓을 때까지가 최고 힘들었어. 뭐 끼니가 없어서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절대 사람이 배고파서는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마 저거(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저거한(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토사같은 성격이라, 와 하고 막 대드는 그런 거라. 겁나갖고 항상 여기 동네에서, 같은 우리 동민들끼리 있어도, 누가 싸운다든지 약자를 누가 두드려댄다, 그러면 그걸 못 보는 거여. 그냥 가서 내가 대신, “야 애 패느니 내를 패봐라” 그래가지고 노다지 경찰서 끌려가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째 놓고부터는, 난 요기 근방의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렇지만 거 암만 저거한 놈 있어도, 내가 졌지, 가만 이겨 불라고는 생각을 안했어. 내가 지고 살았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남의 말을 잘 듣는 스타 일인데, 저기서 손○○ 씨 때문에 유치장에 가 있는데 거 유치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참 심성은 좋은 사람인데, 남한테 좀 지고 살면은 굉장히 편타”고. 한번 지고 살아보라고. 거 노다지 그거 뭐, 아주 이걸 뭐 순사들이 “당신 모르는 사람이 없네?” 해썬면서, “어 모르는 사람 없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야. 집에 가서 내가 마누라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절대 남한테 인제 지고 살게.

17. KBS 이산가족 찾기와 가족 재회

이산가족 찾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산가족 찾기 하느라고 배낭 메고 내가 그 거[알림] 등에 써붙이고, 여의도광장에 가서 한 한 달간을 라면만 먹고. 거기에 기자들이 샤워하는 데가 있어. 노하우가 붙으니까 맨 처음에는저 분수대에서 목욕하다가 KBS안에 기자들하고 샤워하다가 나중에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때 무지하게 찾을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 수백 만이더라. 아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텔레비전을 보냐고. 하필이면 재수가 없을라니께, 텔레비전에 나와도 도저히 안 되겠어. 딴 방법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타야 되겠더라고. 기자들 샤워장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기자인 줄 몰랐지만 저그들끼리 그러더라고. 대한적십자회 회장이 오는데 한 건 해야 할 텐데, 어찌고.

중요한 장면을 하나 답아야 되는데 ... 응.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 적십자회장 온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나를 너그들이 택하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한 건 해줄테니께.’ 속으로 생각하고 그날 배낭 메고서 [회장]차가 천천히 오잖아. 앞에 오토바이 가고. 내가 차 밑구멍으로 슬라이딩을 해버렸어. 그래 크게 사고를 치니 아이고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막 후라쉬가 터지는데, 적십자 회장이 내리더라고. 내가 다리를 꿰어앉았지.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텔레비전에 다시 나와야지 안 된다고. 그거 붙들고 따라갔지. [웃음] 그러니까 순사들도 못 말리두만.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줘도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금방 찾아올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제 다 나왔을 거란 말이야. 우리 여기 사람들도 다 봤다. 아이고, 찾아오나. 그러다 어떤 기자가 부산 시경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내 내용을 따다가 당신들이 신원과약을 좀 뽑아달라고. 그러니께 딱 나온 거야, 우리 가족이. 그래서 또 KBS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실

어다 주더라고. 부산에 와서 우리 고모를 맨 처음 딱 만났는데 ... 고모님이 KBS에 왔더라고. 나보다 열 살 더 먹은 고모데, 우리 고모가 나 잃어버린 거거든. 열 차타고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 그 때 같이 있었거든.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고모가 잃어버린 거거든. 그런데 얼마나 께쌌해. 그것들이 초라하게 가[살고] 있었으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저거했을[안 됐을] 거여. 고모가 아주 완전히 복부인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름난 복부인이야. 옛날에 ‘장영자 사건’에 말여, 다 거기 그룹들이더라고.

동생 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동생은 고모하고 같이 [피난] 내려갔지. 나보다 어리니께 줄로 묶어갖고 있었고, 나는 크니께 그냥 따로 있다가 나는 떨어지고 저거들은 가고 한 거여. 왜 안 찾았는지, 우리 동생네 가봤더니 5층짜리 건물에다가 뭐 여간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부산에서 나는 찾으려고는 했지만은 ... 그렇게 노다지 우리 아버지 거기서 만나려고 항구에 ...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배] 댄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노다지 그 항구에 2부두 가서 기다리고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노다지 거기서 있었다니까. 그런 것밖에 몰랐지, 내가 무슨 신문에 낸다든지 뭐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다 만나니까 얼마나 께쌌해. 저그들이 잘 사니까. 사람이 ... 그런데 역시나 있는 놈들하고 없는 놈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동생은 내가 반가워서 죽을라 그러는데, 우리 고모는, 딱 반가워서 어떻게 막, 어쩔 줄을 몰라. 마음이 급해서 우리 동생한테, 아버지 재산 네가 다 차지했으니께, 다문 1/3이라도 떼어줘라, [내가] 촌에서 산다니께, 그런 이야기부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모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수씨하고 둘이 우리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나도 촌에서 아무 지장 없으니께 제발 재산 얘기는 하지 마라, 너그들 건 너그들이 다 가져. 난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미 행방불명된 놈이니께, 동생 집을 화목하게 해줄라고. 그래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제사를 모셔야 되잖아. 제사도 안 주는 거야. 천상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돼.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대요? 동생분하고 같이 사셨던 거구요? 나 만나기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대. 1년만 더 빨리 찾았으면 아버지 만나는 건데. 동생하고 같이 살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와세다 대학도 나오고 옛날에는 인텔리니까 [동생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동아대학 나왔어.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지.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말라고. “너하고 나하고 찾았다는 게, 우리가 하늘 아래 핏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그 재산 아무 필요 없으니까 나, 우리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 우리 촌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왔지.

18. 소 기르기

개간 후 가분배받으셨던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고 우리 처남 보고 농사 지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처남도 이제 늙어서 못 짓더라고. 여기 바로 옆집 사는 애한테 우리 먹을 식량이라도 농사 지으라고. 이제 내가 좀 살기 좋아졌지. 그런데 어느 날 89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영안실을 짓는 거여. 지어서 나보고 거기서 그냥 실장으로 있으라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먹어갔고 임시직이여. 일용직이니께 청소부들보다 돈이 더 적은 거여. 그 동안에 내가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 서산에 없는 사람들 다 공짜로 해주고, 각 동네 이장들도 그렇고 영세민들 죽으면 나한테 전화 와서 “정실장 이거 좀 웬만하면 ...” 하면 다 공짜로 해줬는데 공짜로 해줬고 사람들이 영철이한테 가면 없는 사람들 삭 봐주더라 했는데, 한 두어 달 있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계속 있으면 그 동안에 닦아놓은 이미지가 싹 절단날 판 ... 원장한테 “내가 퇴직금도 없이 여기 길을 닦아놨는데, 내 밥그릇을 도에서 뺏은 거나 마찬가지여. 1년 봉급을 내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주쇼.” 그런데 일용직이라 그건 못하고 특별히 6개월 봉급을 주겠

대. 그래 내가 나가는 대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심어줄게. 그래서 지금 서산장 의사 하는 사람, 내 후배데, 덩치도 좋고 ... 개를 실장으로 심어놔 줬어. 한서대학 염과[장외과] 학생들 교육도 몇 달 시켰어. 그래서 돈 좀 벌어서 땅도 좀 더 사고 그랬는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도저히 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줄을 몰라서도 아니고,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해도, 우리 친구들이 저기 운산[서산시 운산면]서 소를 먹이는데, 개네들은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하거든? 그래서, “야 너그들 같은 촌에서 사는데 ...” [친구들이] “소나 키워봐, 농사 돈도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논을 한 6천 평 팔아가지고 소를 먹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돈이 좀 되더라고. 그런데 FTA 딱 되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맨날 깨지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응. 지금도 계속 깨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먹이는 소를 팔면, 내년까지만 먹이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 그거 팔아가지고 밭이나 다 갇고, 옛날 같은 품팔이나 좀 하고, 애들이 다만 기름 값이나 한 달에 한 10만원씩만 도와주면,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만 넣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우리 마누라가 국민연금 탈 때까지만 생활하면 둘이 같이 먹고 사는데 ... 공과금만 내면 되니까.

19. 토지 관광도로 편입과 보상 문제

여기 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잖아요. ‘간월 관광도로 편입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간월로 그거는 진짜 내가 억울한 것 중에 하나데, 그 땅이 나한테 유일하게 남은 건데, 아직 등기도 안 나있는 데다가 ... 등기만 나 있어도 그게 보상을 받잖아. 등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보상도 없이 뺏는다 그러니

께 ... 내가 세어보니까 넓이 11m에 길이 100m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무슨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내가 친구들 하고 도지사님한테도 한 이야기고, 당신들이 유리한 법만 있지, 우리 서민들한테 법은 하나도 없는 거다,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우리들한테 유리한 법이 ... 사람 때려서 고소하고 그런 법은 있어도, 정부하고 상대하는 법은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와서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 나는 무정부에서 사는 거나 똑같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에서 나한테 순전히 피해만 줬지, 정부가 나한테 도와준 건 하나도 없다. 강제로 잡아다가 그 땅을 개간할 때 당신들이 어떻게 개간을 했는지 알기는 아냐고. 굶어가면서 거기서 맞아죽어 가면서 배고파서 다 그 땅 다 팔고 가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등기도 없는 놈의 땅을, 또 거기다가 더 뺏어간다니, 거 말이 안 된다, 그건 법도 아니라고, 나는 정부 법 없는 줄 안다고. 그 도지사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시행사한테 무슨 법이 없냐니까 시행사도 없대. 안희정 도지사는 그래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야.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해가 덜 가게,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맨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찾아봐도 이제는 없다, 무슨 우리가 자기들이 이 땅을 보상을 해주면, 그게 만약에 보상을 해줬다고 하면 그게 곧 법이 된다나.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겠냐고. 설득력 있게 얘기는 하더라고. 하- 나도 그게 맞겠다 하면서도 자꾸 억울한 거여. 자꾸 억울한 거여. 그게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진다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땅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선 등기가 먼저 나야 되는 거라.

등기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 지사님도, 등기가 나게 기다려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직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는 상태인 거군요.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우리가 딱 생각할 때 빨리 등기가 나게 그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 더라고. 그 등기가 나면, 근데 우리들 1기생들한테는 얼마나 혜택을 무슨 혜택을 줄지 모르지. 그 때 좀 싸게 해줄런지, 그냥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몰라.

제가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의 보상 분배를 권고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등기가 나야 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고 ... 그거를 여기 딱 있는 사람이 쪽수가 좀 많으면 저기에서 막 머리띠라도 두르고 막 싸우고 그러겠는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고, 땅도 몇 평 안 돼. 그러니까 시청이나 어디서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여. 내가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 기대를 굉장히 했었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는 용서치 않겠다고 했어.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 ... 저그들한테 일거리가 많으면 무조건 모른 척 하는 거라. 지금 이 땅이 무상이 됐든 아니든, 그냥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냥 놔뒀냐고. 옛날에는 남의 땅도 50년을 자기가 지으면 그 사람 땅이됐어. 정부 땅이라 하고, 그 게 뭐 50년이 되도록 놔둔 놈의 땅을 지금 와서 몇 년 전부터 임대료 내고 하는데 나는 맨 처음에 죽어도 임대료 안 낸다 그랬어. 어디 한 번 해보라고. 안 냈었어. 그런데 남들이, 자기들한테도 피해 있으니까 내자, 내라, 자꾸 권고해쌓아서 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미뤘다가 또 내니까 또 얼마나 많아 한번에?

도로 편입될 예정인 땅도 임대료는 계속 내고 계신 상태인 거죠? 그렇지,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거고, 그것도 거기 땅은 나만 들어가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나만.

그게 양대동까지 그게 걸쳐 있더라고요. 그렇지, 양대동에서 산동네까지 이래 걸쳐 있는 거라. 그게 길이 폭이, 내가 발로 재보니까 11m에 100m란 말야. 그러면 논도 한 두어 마지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녀. 그거 갖고 그래도 그냥 식량하는

데, 그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지. 유일하게 애들한테 물려줄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뭐 애들 물려주는 거 그거 애들이야 뭐 그 까짓거 뭐 저거 하겠어? 그래도 다만 나 죽으면 나중에 애들끼리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라도, 집이라도 남겨줬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 남겨놓고 가자.’

20. 삶을 되돌아본 소회와 바람

그 동안에 사시면서 제일 힘이 되셨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 내한테 최고 힘이 된 거야 물론 우리 가족, 우리 마누라고, 두 번째로 힘이 된 건 내 어릴 때, 그 내가 안기중이라는 그 형님이, 그 소리가 딱 닿고, 세 번째는, 네가 한번을 남한테 지고 살면은 마음이 편타, 역시 그 사람도 나한테 힘이 됐더라고. 내가 딱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편코. 술도, 그 전에 술 먹으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놈 술도 끊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 편코, 그렇지. 첫째는 우리 마누라가 최고 힘이 됐지. 거 말은 안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 때는 장가들기 전에는 하루살이였었지. 가족이 생기기 전에는, 내일 죽으면 어떻고, 모래 죽으면 어떻고, 하루하루 그날그날 지나면 끝이지 뭐, 살면서 뭐 ... 누구한테 뒤지게 맞았어도 내일이면 잊어버렸어. 누구한테 뒤지게 맞고, 지금 같으면 그거 뭐 살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뭐 멧집이 좋았어. 되게 얻 어터지고도 내일이면 거 터진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살아났지. 그걸 꿈하고 맞았 으니까 웬수값고 해야지, 하면 그거 못 살아, 그놈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가 나한테 좀 잘못된 게 있어도 거 암마, 잊어버려라. 이렇게 다독겨려야지, 그래갖고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의 빗이라도 조금씩 갚게 되는 거지, 무슨 내가 무릎팍꿋고 잘못했다고 했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있게 되지. 내가 남한테 잘못된 거는 마음에 남아 있는 거여. 잘한 거는 잊어버려

도, 못한 거는 가슴에 항상 남아 있지. 딱 남아 있다가, 그걸 어느 순간에 있다가
 갚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못 만나서 못 갚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럼 지금 사시면서 제일, 정말 힘들었다, 아니면 세상이 좀 원망스럽다, 아니면
 정부나 국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기억나시는 거 있
 으세요? 제일 억울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릴 때는, 피난 당시 내 돌아
 다닐 때는 억울한 일이 많았어도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내 잘못이고. 뭐 내가 부
 모 잃고 남 등쳐먹고 살은 놈이 뭘 억울한 게 있어. 잘못했지. 그 때는 내가 다 잘
 못하고. 인제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억울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이러
 고 살은 게 헛살은 게 되는 거야. 이 땅 문제가 이게 최고로 억울한 거여. 이게 무
 슌 돈보다도, 우선 땅 그거 없으면 그거 없다고 죽기야 하겠어? 밥은 먹고 사는
 데. 살겠지, 누가 도와줘서라도 살겠지, 애들이 도와줘서라도 뭐 살겠지. 그러나
 그게, 나의 그 젊음을 다 거기다가 투자한 건데, 그걸 지금도 아무 근본도 없이,
 재산의 행세도 못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도 못하고, 그냥 거 임대해서 여태까지
 산다는 게, 그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지. 나는 굉장히 분한 거여. 우리들이야
 뭘 알아 무식한 놈들이, 거 땅을 쫓으니께, 가분배 해줬으니께, 가분배라는 게 가
 자가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분배증만 갖고 있었던 그게 억울하지. 그
 걸 분배받았다고 그걸 그냥 좋다고, 거기다가 그냥 온 전력을 다 투자해갖고 그
 냥, 전력투구한 거야 거기다가. 돈 조금만 모여지면, 우선 며칠 간 먹고 살 것 있
 으면 거기 가서 땅 저거 하고, 또 돈 떨어지면 또 나가서 일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개간하고. 그게 그렇게 해놓은 놈의 땅을, 지금 와서 옥토가 딱 되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 원칙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 받아야 될 일이거든. 그
 개간지를 다 개척해갖고, 옥토를 만들어놨으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재산으
 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 재산을 키워 놔줬으니께,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지 못
 할망정 그것마저 뺏어먹으려고 하니, 그게 무슨 놈의 법이냐고. 그거 법도 아니
 여. 그게 너무 억울한 일 아녀? 참, 나는 거 자다가도 벌떡벌떡 ... 아 나는 그 전

에 임대료 나왔을 때, 임대료 안낼 때는, 우리 땅이고 말고 몰랐어 그게. 우리 정부 땅인지 뭔지 몰랐다고. 그 분배를 ... 무단점령하여 지은 땅을 임대를 안 하면 환수한다, 벌금 문다, 고발당한다 ... 야 이거 여태 헛살았네.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어, 그 때는. 이제 자꾸 이제 면적이 돼갔고, 그게 자꾸 몇년 흐르니까 저거 하지. 그래서 임대료가 나왔는데, 너그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나 안냈었어.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까지 피해 입는다고, 우리가 임대료를 안내면 5년 이상 임대료를 내야 여기 살 자격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안냄으로서 다른 사람까지 다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라고 해갔고 냈어. 또 주위의 선후배들이 자꾸 권해 싸서. 나 정부하고 나하고 상대하면 나 안내. 뺏아 갈라면 뺏아 가고, 마음대로 해라고. 나 억울해서 못 내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5년 이상 임대계약이 있어야 살 자격이 있다고, 이 땅에. 그 사람들 살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는 거야 난.

지금 이제 사시면서 제일 보람됐다,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도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난 최고 보람된 거는, 영안실에 간 게 참 잘했어. 내가 가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 내가 그 동안에 짓고 살은 죄를 참 많이 거기서, 빚을 좀 많이 갚은 것 같애. 거 험한 시체들, 누가 만지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는 시체 내가 다 만져줬고, 또 없는 사람들, 행려자들, 이런 거 다 내 손으로, 거 돈 안내면 어느 놈이 그거 만질겨. 나 그래도 내가 그거 다 돈 한 톨 안 받고 내가 다 해줬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거기서 내가 그 동안에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거기서 많이 갚아줬고. 또 이제, 보람된 거는, 내가 뭐 크게 잘한 게 없으니께, 보람됐다가 보다도, 그것밖에 없어 난. 그리고 뭐 애들 큰 거, 내가 그 전에는 뼈덕하면, 에이 씨발 내일, 내가 살기 어려울 때는, 오늘 사고나 크게 한 건 치고, 내일은 작고할까,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먹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졌었지.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되게 얻어터지면, 저것을 죽여 버리고 나도 갈까, 같이 죽어버릴까, 딱 그 생각하

다가,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누가 친구들이 술 한 잔 먹자 하면 또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족이 형성되니까, 거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거여. 내가 없으면 저것들 어떻게 사냐. 그 때는 이제, 그때서부터 살라고 발버둥을 쳤어, 나는.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어떻게든 돈 좀 많이 벌어 갖고 애들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애들 공부 시켜야 된다, 이 동네에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 나는 어떻게든 간에 애들, 자전거 다 타고 다니고, 애들 비닐 푸대 찢어서 쓰고 다닐 때, 우비 다 사 입혔어. 내가 뭐, 술 한 잔 덜 먹으면 되니까, 가서 술 한 잔 딱 먹을라다가도, 술값을 내가 단독으로 항상, 친구들 만나면 그냥 내가 다 썼었는데, 가족이 형성되니까 그게 없어졌어. “야, 나 지금 애들 때문에 돈 쓸 일이 있어서 못 사니까 너 그들이 사.” 미리 이야기해 해버려.

∴
찾
·
아
·
보
·
기
∴

이주와 정착

1950~60년대 농촌 정착사업
참여자의 경험

찾 아 보 기

【ㄱ】

가곡 36

가나안 마을 106

간월 320

간척사업단 179

감천 280

강보천 95 96

강상주 122

강석원 116

강성근 117~119

강진 210

강화 261

개성 163 204 221

개척단 159 160 167 168 188 214 215

290 291 293 298 312 315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3

경기도 의왕시 120

계수부락 41

계숫부락 44

계양면 229 230 232 233 236 239~241

245 247 248 250 252 262 265 266

계양산 227 232 237 244 251 265 267

고대원 113

고래골 265

고래울 267

고마리 49 53 61 62 69 70 73 147 148

158 159 164 165 167 174 184 186~

192 197 199 201 202

고마섬 42

고봉리 98

고양군 254 257 268

고양시 269

고유봉 112 113 114

고창보 113

고창을 87

고촌 247

고촌면 238 262

고흥 184 189 198 203

관산 64 69 157 174 210

관산면 71

광주 감천동 170

광주 10~13 41 47 48 59 66 67 74~77

79 157 159 164 287
광주역 63
광천 259
광평리 15 33
국가인권위원회 322
국토건설단 42 46 47 49
군산 137 177 205 261
귀농정착단 98 126
금강산 204 221
금성역(나주) 63
금학산 36
기독교 봉사회 16 21
기린도 155 177 204 205
기성부락 112
길성운 101 127
길전식 59~61 73 187
김관진 104
김낙규 297
김봉무 101
김봉실 102 114
김봉조 16 21 23 27 256
김선옥 127
김여문 89
김영관 101 107 116 131
김영삼 124
김완 26
김왕공 25
김원보 101 117
김원희 110
김이곤 62 71 74 75 79

김인 292
김재봉 122
김재운 253
김재춘 252 253
김제 35
김종갑 259
김종선 187
김종필 42 47 130 229
김창욱 101 126
김태운 96 97 128
김포군 265
김포읍 고촌면 태리 233
김한준 107 122
김형서 54 62 138 139 141 160 162 169
184 188 189 192 197~199 201 214
김화 3 23
김흥기 244

【ㄴ】

나주 11~14 16 17 34 138
난민정착사업 243 244 248
난민정착사업중앙연합회 256 228
남상식 263 264
남양군도 84
남제주 117
남진 181
남포동 276 277 281 282
남한산 183
남한산성 179 182

남해보 9 35
 노고지리 233 234 248
 노대진 42 199
 노량진 273
 노병수 156
 농어촌특별진흥자금 251
 농지위원 120

【디】

다람리 238 247 248 251
 당진 47 49 69 190 195 199~203 205
 대구 동춘 비행기장 274
 대구 59 64
 대국동 237
 대대마을 135
 대덕 회진 158
 대덕 49 157 166 210 212
 대림 92
 대전 287 299
 대정 92
 대진 184
 대천 259
 대한청소년개척단 283 284 315
 덕산 146~148 150
 덕춘 49 69 184~190 192 195 196 198
 202
 도비산 285 286 288
 돈내코 108 116 122 125 126 130
 동두천 10 11 29

동상호 120 125
 동순 185 202
 독실리 248

【미】

마량 198
 마석 24
 만리포 296
 망월동 45
 매화리 18~20 28
 먹소리 238
 명동 240
 모월리 290
 목상리 248
 목포 12 13 59 67 155 156 164 177~
 182 205 210
 무교동 240 258 260 261
 무내리 10
 무등산 79
 무안군 12
 민단 87
 민정식 290

【비】

박경원 263
 박원빈 256 260
 박제환 261 262 266
 박창원 252

백계선	116	사천	135 146~148 159 160
백낙준	101	삭금	185
백령도	155 177 204 209 210	산동리 1구	300
범성춘	103	삼산	49 62~64 69 147 148 185 189
범전춘	103		203
범호춘	86 98 101 103 106~110 114	삼산사건	61 62 63
	115 118 120 122 125	3·1사건	87
변정일	124 125	3·15 부정선거	110
병춘	185	삼청교육대	280
보령	243 259	삼호면	179
보령사업	260	상도동	259
보상심리위원회	89	상무지구	41
보성	136 142	상호	107 120
보성역	136	새마을운동	28 117 119 170~173 220
복개	36		315
복재	136	색달동	121
부윤경	127	셋별오름	86
부천	237 251 260 262 263 265 266	서경유	129
부천군 계양면 선주지리	227	서귀포	100 104 115 117 120~122 129
부천군 계양면	233	서북청년단	94
부평	232 242 257	서산	47 49 69 148 164~166 284~287
북면	4		290 291 302 305 309 310 315 319
북제주	47 86 99	서상문	75
분당	179	서상호	120 125
		서신	18 24 29
【스】		서신면	16 18
사랑의 금고	111 118 119	서울 위커힐	298
4·3사건	84~88 92~95 97 117 118	서재영	123
사우디	75 76 78	서촌동	83
4·19	110 237 277 278 280	서호리[영암군 서호면]	164

석곡 망월동 44
 석곡 45
 석광산국민학교 4
 석주명 130
 선주지리 233 234 238 246 247 248
 250
 소강 골치산 142
 소록도 203
 소사 237
 소호면 179
 속초 76
 손석민 62 73 76
 손연복 285
 송산 25
 송승훈 117
 송태삼 117
 수문리 148
 수원 13 14 16 25 32 34 181 307 308
 309
 순천 59 135 136
 승복 185
 시종면 178 179
 신동 61 72
 신리 187 198
 신평경 187 193
 신하효 101 107 108 112 130
 신헌규 187 193
 신희 104
 심수오 90

【ㅇ】

아동보호소 280
 안기중 323
 안동선 262 266
 안성호 15
 안양동 135
 안양면 148 151
 안희정 321
 애월읍 어도 92
 양광석 289
 양기원 102 114
 양대동 322
 양원수 93
 양재만 302
 양재호 93
 양주 246
 양평 17 145 254 299
 여의도광장 317
 연백 244
 연천 4 17
 연천군 3
 연평도 204
 영등포 254 259 261 269
 영암 시종면 156
 영암 141 178 179 204
 영일 118
 영천관 128
 영천동 120 125 129
 영천산 98 111
 영철 315 319

예산	35	울산	146 148 150
오마도	49	의왕	32 35
5·16도로	102 116 127	이교선	260
옹암리	187	이구봉	228 240 261 269
옹진군 양지촌	209	이기봉	278
옹진군 용천면 원산리	203	이리	59
옹진군 용천면	179	이만복	256
용동	262	이매리	179 182~185
용두산 공원	280	이명춘	228 238 240
용산	209 210	이병희	34
용인 수지면 풍덕천	14	이산가족 찾기	317
용인군 수지면	16	이약동	128~130
우남공원	280	이유선	260
운산	320	이재운	260
운정장학회	112 130	이정남	292
울산	43	이창익	250
원보	119	이현수	137
원산리 대동	204	익산	11
원주	145 149	인권위	311
월정리	4 5 34~36	인지면	300
유난설	260	인천	59 170 181 182 204 232 243 254 258 262 268 269 297
유달영	117	인천시	233
유덕동	44	임광철	129 130
유만정	140	임인섭	233
유병갑	294	임항섭	238 257
유병현	122		
유태영	239 247		
윤영호	209		
윤치영	298		
윤하선	243 256 259		

【ㅈ】

자갈치 시장 281

자조근로사업장 105
 장경근 261 265 266
 장경순 240 251 255
 장기리 248 262
 장길 266
 장환도 42 73 163 166 169 174
 장환도로 53
 장흥 건설단 46
 장흥 관산면 42
 장흥 46 48 49 53 54 59 61~63 69
 70 73 76 77 142 151 157 159 167
 179 185 192 199 201 202 209 210
 216 281 283~288 290 311
 장흥골 146
 재건국민운동본부 111 117 228 238
 240 267
 전두환 62 315
 전상채 179 188 189 197
 전순구 210 211
 전주 89
 정남규 122
 정도정 137
 정영철 279 289 304
 정용일 290
 정의현 128
 정준 265
 정희섭 191 199 267
 제주도 술모계단 122
 제주도 49 66 77 84 85 87 95 101 109
 112 121 128 147 205 274 275 277 278

280 281
 제주시 84 87 97 99 111 121
 조석구 32
 조주암 148
 조총련 87 88 92
 종로 261 307
 주교리 269
 죽천 197
 진도 107 109
 진상규명위원회 315

【*】

차강원 275
 창린도 177
 천관산 284
 천주교 봉사회 16 21
 철원 금학산 10
 철원 북면 3 5 17
 철원 3~5 8 9 11 15 16 23 33~36
 철의 삼각지 자치난민공생조합 23
 최홍균 248 257
 충주 137
 칠산 137

【ㄱ】

케아(CARE) 16 21 228 239 240 242
 245 249 258 261

【ㄷ】

태리 234 238 248 262
 택성 202
 토지개혁 7
 토평 107 108 111 116 120
 퇴계로 253
 특시리 238

【표】

평강 3 9 23 36
 평촌 171
 평택 155 205
 포천 24
 표선 104
 풍길 49 69 148

【하】

하동마을 103
 하상식 101 107
 한국정착사업개발홍업회 141 156
 한다리 87

한림 91 92 98 99 117
 한림읍 귀덕리 83
 한웅교 197 200 201
 해남 107 109
 해창 150
 현길언 84
 현을생 129
 현철 119
 현대순 117
 형서 140 142 146 148
 형진 181
 홍법리 18 20
 홍성 286 293 295 305
 홍중경 102
 화성 17 25 34
 화전동 129
 화천 149
 황시담 127
 황주협 228 229 239 240 242 243 248
 256
 황해도 웅진 155 182
 회진 69 147 159 164
 흑석동 273